

제6장 근 대

(일제강점과 민족운동기)

제1절 지방제도 개편과 영일군의 출범

1910년 일제강점으로 조선총독부가 발족되자 한말의 제도를 식민통치조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지방제도의 정비를 단행하였다.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 357호로 「조선총독부 지방관제」를 공포하여 도(道)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부(府)·군(郡)·면(面)을 재확인하고, 각 부·군이 면을 두도록 하는 명문규정과 함께 면에는 면장을 두되 이를 판임관(判任官)대우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10월 1일 총독부의 「면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으로써 법정행정구역으로서의 면의 지위가 제도화된 것이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그때까지 사용하던 여러 명칭을 면으로 규정 통일하게 되었다.

지방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1914년 3월 1일부터 도의 관할구역과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이 조정될 때 경북은 1부(府)와 23군(郡), 272면(面), 3,228리동(里洞)으로 폐합되었다.

이때 종전의 연일군·흥해군·청하군·장기군 4군이 폐합되어 영일군(迎日郡)이 됨으로써 오늘날의 영일민권의 행정구역인 영일군이 탄생하게 되었다. 영일군은 당시 새로이 확장 개편된 하위 행정단위인 17면과 225동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포항이 시로 승격되는 1949년 8월 15일까지 존속되었다.

1. 통합 영일군 출범 직전의 행정구역(1906. 9, 1909.10~1914. 2)

일제강점 직후에 전국적인 규모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없었고, 1906년과 1909년의 개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일권에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 가운데 장기면이 6면 135리로, 청하면이 6면 84리로 동리 수가 크게 늘어난 것같이 보이는 것은 이미 1906년 장기군에 경주군의 북도면(陽北面, 장기에 편입될 때 內南면으로 개칭)과 남도면(陽南面)이 내속하고, 청하군은 경주군의 죽장면을 편입하여 각

각 그 동리 수만큼 증가한 때문이다. 이때 청하의 죽장면은 죽남(竹南)면과 죽북(竹北)면으로 분면되고, 역면은 내북면으로 개칭되었다.

한편 1913년 1월 13일 흥해군 북안(北安)면이 영천(榮川)군에 편입되고, 청하군 죽남면의 상거(上巨)동과 하거(下巨)동이 영천군 자양면에 편입되었다.

흥해군(11면 197리동, 군청소재지 : 동부면 北城洞)	
동부면 (15)	신정리, 성황리, 망창동, 야성리, 중리동, 벌천리, 곡성리, 봉안리, 남산동, 학성리, 북흥리, 북문리, 서성동, 북성동, 동성동
동하면 (14)	남휴동, 송 동, 남대동, 서원동, 봉림동, 곡강동, 여구동, 흥곡동, 용덕리, 소한리, 牛目里, 知乙里, 竹別里, 竹川里
동상면 (25)	思良洞, 針村洞, 長興里, 松谷洞, 新德里, 汝南洞, 葛馬洞, 汗者洞, 新村洞, 雪末里, 利津里, 斗湖洞, 官大洞, 城谷洞, 昌浦里, 鶴田洞, 利羅洞, 利興里, 阿湖洞, 鶴山洞, 龍潭洞, 牛峴洞, 新興里, 余川洞, 院村洞
서부면 (13)	北松里, 斗內洞, 馬山里, 竹林洞, 校洞, 玉里洞, 藥田洞, 中興洞, 北西里, 西北門里, 社里, 暘谷里, 城西里
신광면 (24)	冷水洞, 新里, 碧洞, 興谷里, 土城里, 竹洞, 牛角里, 堂內洞, 上邑里, 中城里, 安地洞, 基日洞, 虎村洞, 中里, 加尺洞, 地德里, 馬北洞, 茅亭洞, 鶴田洞, 土味洞, 松洞, 立石里, 盤谷里, 九萬洞,
기계면 (42)	七星里, 花溪洞, 鶴野里, 仁庇洞, 文星里, 伊 洞, 鶯川里, 安心洞, 南溪里, 芝柯洞, 高尺里, 鳳溪洞, 禁 洞, 桂谷洞, 禾望里, 禁萬洞, 瓦旨里, 縣內里, 宗丹里, 吾道里, 大坪洞, 亭洞, 禾垌里, 峴南洞, 九旨洞, 德洞, 銀川洞, 古通里, 中里, 塔洞, 亭子洞, 水谷里, 巨里洞, 勿栗里, 新基里, 撐 洞, 龍田洞, 貫岩洞, 省法洞, 堂谷洞, 美老里, 望峯里
북안면 (11)	五柳里, 古道里, 前莎洞, 新基洞, 金大洞, 莎洞, 次堂里, 愚峰里, 柯亭洞, 守城洞, 次洞
서 면 (9)	初里洞, 草谷洞, 川上里, 學林洞, 城下里, 忠谷洞, 馬場洞, 冷泉洞, 店村洞
남 면 (15)	仁堤洞, 蓮花洞, 德城洞, 大谷洞, 松鶴里, 七田洞, 達田里, 光方里, 自方里, 燈明里, 江陽洞, 兄江里, 龍岑洞, 院洞, 柳等里
북상면 (13)	箕山洞, 梅谷里, 龍山里, 耳谷洞, 外白里, 內白里, 德谷洞, 長城洞, 壯者洞, 德山洞, 新城洞, 龍田洞, 龍淵洞
북하면 (16)	林泉洞, 屈山洞, 龍所洞, 新淡洞, 金沙洞, 壯 洞, 方近里, 興安里, 江西洞, 江北洞, 島項洞, 檢丹里, 包里洞, 方魚洞, 松亭里, 靑津洞

연일군(8면 104동리, 군청소재지 : 읍내면 生旨洞)	
읍내면 (17)	生旨洞, 西門洞, 新興洞, 槐亭洞, 東門洞, 永春洞, 唐士洞, 烏川洞, 北里洞, 孝子洞, 大岑洞, 論谷洞, 梨洞里, 茂所洞, 屈岩洞, 芝谷洞, 柳等洞
서면 (8)	中明洞, 院洞里, 中丹洞, 宅前洞, 沙加洞, 紐珠洞, 聖佐洞, 牛伏洞
남면 (18)	南城洞, 公須洞, 長洞里, 洪溪洞, 德洞里, 冠洞里, 射亭洞, 大覺洞, 建德洞, 山余洞, 上松洞, 下松洞, 五政洞, 堤內洞, 新川洞, 玉明洞, 水角洞, 虎洞里
고현면 (15)	仁德洞, 上院洞, 下院洞, 竹田洞, 文德洞, 新基洞, 新坪洞, 新光洞, 恒沙洞, 陳田洞, 葛坪洞, 文忠洞, 文成洞, 龍山洞, 光明洞
일월면 (12)	靑林洞, 日月洞, 日光洞, 舊政洞, 龍德洞, 新興洞, 中興洞, 世界洞, 亭泉洞, 金光洞, 新亭洞, 中里洞
동해면 (18)	都邱洞, 立石洞, 藥田洞, 石洞里, 造士洞, 林谷洞, 興德洞, 立岩洞, 馬山洞, 上興洞, 下興洞, 稷串洞, 發山洞, 余士洞, 大冬背洞, 淨川洞, 九萬洞, 甫川洞
동면 (8)	長興洞, 正興洞, 槐東洞, 松塢洞, 東村洞, 松內洞, 松亭洞, 松湖洞
북면 (8)	浦項洞, 鶴岑洞, 得良洞, 竹島洞, 上島洞, 下島洞, 大島洞, 海島洞
장기군(6면 135동리, 군청소재지 : 현내면 東部里)	
현내면 (30)	東部里, 竹田里, 竹城里, 馬峴里, 明章里, 琴谷里, 水用里, 靈岩里, 竹下里, 倉岩里, 良津里, 良坪里, 黃溪里, 臺院里, 石院里, 斗內里, 良月里, 水村里, 柿洞里, 城隍里, 新陽里, 林東里, 林西里, 巨山里, 芳月里, 平洞里, 槐東里, 麻山里, 西化里, 新月里
내남면 (33)	蓮洞里, 五柳洞, 倉沙里, 安浦里, 典洞里, 典村里, 法洞里, 虎洞里, 長津里, 八助里, 魯洞里, 上亭里, 古羅里, 家谷里, 臺本里, 奉吉里, 龍潭里, 九吉里, 院堂里, 斗山里, 松田里, 竹田里, 二十川里, 魚日里, 新基里, 中基里, 臥邑里, 龍洞里, 權里洞, 安洞里, 虎岩里, 獐項里, 元谷里
양남면 (15)	石村里, 孝洞里, 羅兒里, 羅山里, 邑川里, 下西里, 環西里, 基邱里, 水念里, 瑞洞里, 新西里, 新垆里, 上垆里, 上羅里, 竹田里
서면 (26)	西部里, 明村里, 蘆谷里, 凡吾里, 大草里, 爾津里, 七田里, 牟浦里, 才必里, 乙溪里, 鶴谷里, 鶴三里, 朴谷里, 竹谷里, 上井里, 中井里, 冷泉里, 下井里, 大谷里, 九溪里, 倉溪里, 新德里, 上倉里, 中倉里, 反今里, 金谷里
내북면 (17)	下城里, 上城里, 達吉里, 孔堂里, 水尺里, 中山里, 大朴里, 上政里, 中興里, 柄浦里, 堂士里, 河亭里, 臨勿里, 長吉里, 都邱里, 邱坪里, 烏岩里
외북면 (14)	厚洞里, 訥台里, 士羅里, 滄洲里, 凡津里, 新洞里, 三政里, 斗日里, 石屏里, 明月里, 江今里, 沙只里, 大川里, 甫川里

청하군(7면 84동리, 군청소재지:현내면 東門里)	
현내면 (15)	校洞, 東門里, 必美里, 觀德里, 南川里, 下筆里, 花枝洞, 烏頭里, 龍山里, 外揮里, 中揮里, 月牙里, 介浦里, 小斤洞, 方漁里
등 면 (9)	白巖里, 二加里, 靑津洞, 新興里, 蘇洞, 虎巖里, 古縣里, 梨谷洞, 梨長洞
서 면 (10)	甘井里, 下大里, 上大里, 金井里, 鳴岩里, 安心里, 黃岩里, 柳川里, 外清里, 內清里
죽남면 (17)	佳士里, 上山里, 下山里, 甘谷里, 針谷里, 院村, 松內洞, 平地洞, 新基里, 開日里, 光川里, 番洞, 亭子洞, 芝坪里, 下巨洞, 上巨洞, 斗麻洞
죽북면 (13)	上玉里, 中玉里, 下玉里, 吾舍里, 石溪里, 黃亭里, 德上里, 德下里, 方興里, 縣內洞, 所月里, 高坪里, 鳳溪洞
내북면 (7)	館洞, 松泉里, 外一洞, 外二洞, 外三洞, 廣川里, 芳化洞
북 면 (13)	下光洞, 鶴山洞, 北中里, 洞下里, 山令洞, 尋芳洞, 斗谷洞, 華山里, 祖師洞, 獨石里, 耳津洞, 大津洞, 地境洞

2. 영일군과 포항면 출범기의 행정구역(1914~1916)

1) 영일군 출범과 행정구역

영일만권의 행정구역은 일제강점 이후 1914년 3월 1일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부군면리동(府郡面里洞) 통폐합의 지방관제 개편시 큰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기존의 지방 행정구역은 조선의 민적을 1914년 호적법으로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부군면리동이 통폐합되면서 크게 개편되었다.

군의 경우는 면적 약 40방리(方里)와 인구 약 1만 정도, 또 면의 경우는 대체로 호수 800호와 면적 약 4방리를 표준으로 하였다. 이 때 일제는 구획재편이나 지명변경 등에 대한 한국인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처음에는 다수의 부군면장을 한국인으로 임명하기도 하였으나 곧 일본인들로 교체되었다, 결국 한국지배의 기초가 되는 지방 행정조직 정비를 단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막대한 토지와 산림지를 국유화하여 한국인의 토지소유관계의 영세화를 촉진시키고, 토지사유제를 구축하고, 조선총독부의 재원증대와 그 국유지를 동양척식회사 등 일인 농업회사에 불하함으로써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14년 총독부 주관의 전국적인 행정구역개편이 가능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호적관리는 처음에는 일경의 호적조사부에 의거 관리되다가 행정관서로

이관되었다. 당시 통폐합과 세부측량에 의해 이루어진 말단 행정구역은 이후 새로운 법정리동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의 중요 내용은 1896년 이후 경상북도의 관할 하에 있던 연일군·흥해군·장기군·청하군 4군을 통합하는 영일군(迎日郡)이란 이름으로 통폐합하고, 그 아래에 새로 개편한 17면과 225리동을 관할케 한 것이다. 이로써 영일만권은 영일군이란 이름의 행정단위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행정·경제·문화생활권으로서 역사적인 출발을 보게 되었다. 당시 새로이 분할 편성된 영일군 17면의 하급 행정단위는 다음과 같다.

영일군: 17면, 225리동, 군청은 포항면 포항동 소재, 그리고 △표는 면 소재지	
장기면 (12)	邑內里(장기군 현내면의 東部里, 竹城里, 竹田리로 형성), 馬峴里(同 馬峴里, 明章里), 琴谷里(同 琴谷里), 新倉里(同 竹下里, 倉峴里, 新陽里), 靈峴里(同 水用里, 靈峴里), 良浦里(同 良津里, 良坪里, 良月里), 溪院里(同 黃溪里, 臺院里), 斗院里(同 石院里, 斗內里), 林中里(同 林東里, 林西里), △水城里(水村里, 柿洞里, 城隍里), 芳山里(同 巨山里, 芳日里, 平洞里, 槐東里), 山西里(同 麻山里, 西化里, 新月里)
봉산면 (11)	△ 西村里(장기군 서면 明村里, 蘆谷里, 西部里), 鶴溪里(同 才必里, 乙溪里, 鶴谷里), 金吾里(同 凡吾里, 金谷里), 大津里(同 大草里, 爾津里), 牟浦里(同 七田里, 牟浦里), 鶴谷里(同 鶴三里, 朴谷里), 竹井里(同 竹谷里, 上井里, 中井里), 大谷里(同 大谷里), 井泉里(同 下井里, 冷泉里 일부), 新溪里(同 九溪里, 倉溪里, 新德里), 倉旨里(同 上倉里, 中倉里, 反今里)
창주면 (16)	城東里(장기군 내북면의 上城里, 下城里, 達吉里), 孔堂里(同 孔堂里, 水尺里), 中山里(同 中山里), 上政里(同 大朴里, 上政里), 中興里(同 中興里 일부), 柄浦里(同 柄浦里), 河亭里(同 堂上里, 河亭里, 臨勿里), 長吉里(同 長吉里), 邱坪里(同 都邱里, 邱坪里, 鳥峴里), 訥台里(장기군 외북면 訥台里), △ 九龍浦里(同 土羅里, 新洞里, 滄洲里, 三政里(同 凡津里, 三政里), 石屏里(同 斗日里, 石屏里), 江沙里(同 明月里, 江今里, 沙今里, 沙只里), 大甫里(同 大川里, 甫川里), 厚洞里(同 厚洞里)
동해면 (10)	△ 都邱洞(영일군 동해면 都邱洞, 立石洞), 藥田洞(同 藥田洞), 石洞(同 石洞里: 일명 石洞), 林谷洞(同 造士洞, 林谷洞), 立岩洞(同 興德洞, 立岩洞), 馬山洞(同 馬山洞), 興串洞(同 上興洞, 下興洞, 稷串洞), 장기군 내북면 中興洞 일부, 發山洞(同 發山洞, 余土洞), 大冬背洞(同 大冬背洞, 淨川洞), 九萬洞(同 九萬洞, 甫川洞)
오천면 (16)	仁德洞(연일군 고현면 仁德洞, 上院洞, 동면 東村洞 각 일부), 院洞(동 下院洞, 上院洞, 竹田洞 각 일부), 文德洞(同 文德洞, 新基洞, 新坪洞, 竹田洞, 일월면 新興洞 각 일부), 恒沙洞(同 恒沙洞, 경주군 內東面 旺山里 일부), 陳田洞(同 陳田洞), 葛坪洞(同 葛坪洞, 文城洞 일부), 文忠洞(同 文忠洞, 新光洞, 文成洞 일부), 龍山洞(同 龍山洞), 光明洞(同 光明洞), 世界洞(연일군 일월면 世界洞, 新興洞, 中興洞 각 일부), △ 龍德洞(同 龍德洞, 日光洞 일부), 舊政洞(同 舊政洞, 日月洞 일부), 金光洞(同 亭泉洞, 金光洞, 中興洞, 新亭洞, 장기군 서면 冷泉里 각 일부), 日月洞(同 日月洞, 日光洞 각 일부), 靑林洞(同 靑林洞), 新亭洞(同 中里洞, 新亭洞 일부)

<p>대승면 (15)</p>	<p>公須洞(연일군 남면 公須洞), 長洞(同 長洞里: 일명 長洞, 冠洞里: 일명 冠洞), 射亭洞, 德洞 각 일부, 洪溪洞(同 洪溪洞, 德洞 일부), 大覺洞(同 大覺洞, 建德洞, 射亭洞 일부), 松洞(同 上松洞, 下松洞, 五政洞 일부), 堤內洞(同 堤內洞, 新川洞, 五政洞 일부), 虎洞(同 虎洞里), 玉明洞(同 玉明洞, 水角洞), 山余洞(同 山余洞), △南城洞(同 南城洞, 서면 聖佐洞), 長興洞(연일군 동면 長興洞, 正興洞), 槐東洞(同 槐東洞, 松內洞 각 일부), 東村洞(同 松塢洞, 東村洞 일부), 松內洞(同 松內洞, 槐東洞 각 일부), 松亭洞(同 松亭洞)</p>
<p>연일면 (13)</p>	<p>紉珠洞(연일군 서면 紉珠洞), 宅前洞(同 宅前洞), 中丹洞(同 中丹洞), 中明洞(同 院洞里: 일명 院洞, 中明里, 경주군 강동면 中明里), 牛伏洞(同 牛伏洞, 沙加洞), 大峯洞(연일군 읍내면 大峯洞, 論谷洞), 梨洞(同 梨洞, 茂所洞), 芝谷洞(同 芝谷洞, 屈巖洞), 孝子洞(同 柳等洞, 孝子洞 일부), △ 生旨洞(洞 生旨洞), 槐亭洞(同 新興洞, 槐亭洞, 西門洞), 東門洞(同 東門洞, 永春洞 일부), 烏川洞(同 烏川洞, 北里洞, 唐土洞)</p>
<p>포항면 (16)</p>	<p>龍興洞(연일군 북면 浦項洞 일부), 得良洞(同 得良洞), 鶴岑洞(同 鶴岑洞), 竹島洞(同 竹島洞, 浦項洞 일부), 大島洞(同 大島洞, 下島洞), 上島洞(同 上島洞, 읍내면 孝子洞 일부), 海島洞(同 海島洞, 동면 松湖洞).△ 浦項洞(흥해군 동상면 新興洞, 余川洞, 龍潭洞, 연일군 북면 浦項洞 각 일부), 長城洞(同 院村洞, 針村洞, 長興里, 城谷洞), 良德洞(同 思良洞, 松谷洞, 新德里), 環湖洞(同 汗者洞, 新村洞), 汝南洞(同 汝南洞, 葛馬洞), 鶴山洞(同 鶴山洞, 阿湖洞, 龍潭洞, 余川洞 각 일부), 牛峴洞(同 牛峴洞, 余川洞 일부), 昌浦洞(同 昌浦洞, 鶴田洞, 利羅洞), 斗湖洞(同 斗湖동, 冠大洞, 利津洞, 雪末洞)</p>
<p>흥해면 (15)</p>	<p>南松洞(흥해군 동하면 松洞, 南大洞, 南休洞, 書院洞 일부), 曲江洞(同 汝口洞, 興谷洞, 曲江洞, 奉林洞), 龍汗洞(同 小汗里, 龍德里), 牛日洞(同 牛日里), 竹川洞(同 竹川里, 竹別里, 知乙里), 中城洞(同 흥해군 동부면 野城里, 中里洞, 奉安里), 南城洞(同 南山洞, 城隍洞, 서부면 鳴谷里), 望泉洞(望昌洞, 伐泉里, 동하면 書院洞 일부), 學城洞(同 曲城里, 學城里, 北興里, 北門里), △ 城內洞(同 東城洞, 西城洞, 北城洞), 北松洞(흥해군 서부면 北松里, 斗內洞), 馬山洞(同 馬山里), 藥城洞(同 藥田洞, 北西里, 中興里, 西北門里), 玉城洞(同 校洞, 竹林洞, 玉里洞, 城西里, 新井里, 社里), 梅山洞(同 箕山里, 龍山里, 梅谷里, 龍淵洞)</p>
<p>달전면 (9)</p>	<p>大蓮洞(흥해군 남면 蓮花洞, 德城洞, 大谷洞), 鶴田洞(同 七田里, 松鶴里), 達田洞(同 光方里, 達田里), 自明洞(同 自方里, 燈明洞), 柳江洞(江陽洞, 元江里, 院洞, 龍岑洞, 柳等里), △ 里仁洞(同 里仁洞, 元仁堤洞, 서면 初里洞), 城谷洞(흥해군 서면 冷泉洞, 店村洞, 馬場洞, 忠谷洞, 城下里), 鶴川洞(同 鶴林洞, 川上洞), 草谷洞(同 草谷洞)</p>
<p>곡강면 (10)</p>	<p>兩白洞(흥해군 북상면 內白里, 外白里), 龍谷洞(同 龍淵洞, 耳谷洞), 德壯洞(同 德山洞, 壯者洞), 德城洞(同 德谷洞, 長城洞), 龍田洞(同 龍田洞, 新城洞), 龍泉洞(흥해군 북하면 龍所洞, 林泉洞, 新淡洞, 屈山洞), 金壯洞(同 方近里, 金沙洞, 壯洞), △ 興安洞(同 興安里), 七浦洞(同 江西洞, 江北洞), 烏島洞(同 方魚洞, 烏項洞, 檢丹里 일부)</p>
<p>신광면 (13)</p>	<p>上邑洞(흥해군 신광면 上邑里), 盤谷洞(同 盤谷里), 馬北洞(同 馬北洞), 冷水洞(同 冷水洞, 新里), 安德洞(同 安地洞, 地德里), 基日洞(同 基日洞, 鶴田洞), 萬石洞(同 立石里, 九萬洞), 虎里洞(同 虎村洞, 中里), 竹城里(同 中城洞, 竹洞), 士亭洞(同 士味洞, 茅亭洞, 加尺洞), 牛角洞(同 牛角洞, 松洞: 일명 長堂洞, 堂內洞 각 일부), △ 土城洞(同 土城里, 松洞: 일명 長堂洞 일부), 興谷洞(同 碧洞: 일명 麻助洞, 興谷洞, 堂內洞, 松洞: 일명 長堂洞, 기계면 宗丹洞 각 일부)</p>

기계면 (23)	桂田洞(흥해군 기계면 桂谷洞: 일명 桂洞, 亭子洞, 新田洞), 禾峰洞(同 巨里洞, 望峰洞, 禾望洞: 일명 禾峯洞), 禾笠洞(同 禾星里), 鶴野洞(同 鶴野里), 文星洞(同 文星里), △ 縣內洞(同 縣內里), 南溪洞(同 南溪里), 芝柯洞(同 芝柯洞, 仁庇洞 일부), 仁庇洞(同 仁庇洞 일부), 九旨洞(同 九旨洞, 仁庇洞 일부), 省法洞(同 省法洞), 柰丹洞(同 柰丹洞, 宗丹洞 일부), 鳳溪洞(同 鳳溪洞, 伊洞, 仁庇洞 일부), 駕安洞(同 駕川洞, 安心洞, 禁洞: 일명 柰洞), 冠川洞(同 銀川洞, 貫岩洞), 龍基洞(同 新基里, 龍田洞), 吾德洞(同 吾道里, 德洞), 塔亭洞(同 塔洞, 中里, 亭洞), 栗山洞(同 勿栗洞, 撐洞), 大谷洞(同 水谷里, 古通里, 大坪洞), 星溪洞(同 七星里, 花溪洞), 高旨洞(同 高尺里, 瓦旨洞), 美峴洞(同 峴南洞, 美老洞, 堂谷洞: 일명 堂洞)
청하면 (17)	古縣里(청하군 동면 梨谷里, 梨長里, 古縣里 일부), 蘇洞里(同 蘇洞, 虎巖里, 新興里 각 일부), 二加里(同 二加里, 白巖里, 蘇洞, 靑津洞 각 일부), 新興里(同 蘇洞, 新興里, 흥해군 북하면 檢丹里 각 일부), 靑津里(同 靑津洞, 흥해군 북하면 靑津洞, 松亭洞, 包里洞 각 일부), 美南里(청하군 현내면 南川里, 必美里, 觀德里, 동면 虎巖里 일부), 龍頭里(同 龍山里, 外揮里, 花枝洞 일부, 흥해군 北下면 鳥頭里), 筆花里(同 筆花里, 花枝里, 내북면 松泉里 각 일부), 月浦里(同 月牙里, 介浦里, 中揮里, 小斤洞, 내북면 外三洞 일부), △ 德城里(同 東門里, 校洞), 方漁里(同 方漁里, 북면 祖師里 일부), 淸溪里(청하군 서면 內淸里, 外淸里 일부), 西井里(同 甘井里, 金井里, 外淸里, 西溪里 각 일부), 柳溪里(同 柳川里, 黃巖里, 西溪里 일부), 鳴安里(同 鳴安里, 安心里), 上大里(同 上大里, 동면 古縣里 일부), 下大里(同 下大里, 동면 古縣里 일부)
송라면 (10)	德泉里(청하군 내북면 館洞, 松泉里, 外一洞, 外三洞 각 일부), 下松里(同 外一洞, 外三洞 각 일부), 上松里(同 外二洞, 外一洞, 外三洞 각 일부), 祖師里(同 芳花洞, 祖師里 각 일부), 芳石里(同 芳花洞, 북면 耳津洞 각 일부, 獨石里), △ 光川里(同 廣川洞, 북면 下光洞, 鶴山洞 각 일부), 中山里(청하군 북면 北中里, 洞下洞, 鶴山洞, 下光洞 각 일부), 大田里(同 山令洞], 尋芳洞, 斗谷洞 일부), 地境里(同 地境洞, 斗谷洞, 華山里 각 일부), 華津里(同 大津洞, 華山里, 耳津洞 각 일부)
죽남면 (10)	佳士里(청하군 죽남면 佳士里 일부), 梅峴里(同 上山里, 下山里, 佳士里 일부), 針谷里(同 針谷里), 甘谷里(同 甘谷洞), 亭子里(同 亭子洞), 日光里(同 開日里, 光川里, 畚洞 일부), △ 立岩里(同 院村, 松內洞, 平地洞, 新基洞, 죽북면 縣內洞 각 일부), 芝洞里(청하군 죽남면 芝坪洞, 畚洞, 영천군 紫陽面 新堂洞 각 일부), 上玉里(청하군 죽북면 상옥리), 下玉里(同 下玉里 일부 中玉里)
죽북면 (9)	方興里(청하군 죽북면 方興里), 縣內里(同 縣內洞 일부), 鳳溪里(同 鳳溪洞, 月坪里(同 所月里, 高坪里, 縣內洞 일부), △ 合德里(同 德上里, 德下里, 黃亭里), 石溪里(同 石溪里), 上舍里(同 吾舍里 일부), 下舍里(同 吾舍里, 청송군 縣東面 竝甫동 각 일부), 斗麻里(同 縣內洞 일부, 죽남면 斗麻洞)

영일만권의 행정구역은 19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영일군 출범 이전에는 총 32면 520동리였던 것이 영일군 출범 이후부터는 17면 225동리로 통폐합되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14년의 지방체제와 행정구역개편은 근대에 있어서 최대 규모에 속하는 지방행정구역개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행정구역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① 흥해군을 흥해면·곡강면·달전면의 3개면으로, 연일군을 연일면·오천면·동해면(장기군 내북면 중흥동 일부 편입)·대송면·포항면의 5개면으로, 장기군을 장기면·봉산면·창주면의 3개면으로, 청하군을 청하면·송

라면·죽남면·죽북면의 4개면으로 분면하고, 기계면과 신광면 2개 면은 그대로 두어 17면의 행정구역을 확정하고, ② 장기군의 내남면과 양남면이 경주군의 양북면(개칭됨)과 양남면으로 이속되었으며, ③ 이때 구 흥해군 동상면의 25개 동과 연일군 북면의 8개동·읍내면 효자동의 일부·동면의 송호동 등을 병합하여 용흥·득량·학잠·죽도·대도·상도·해도·포항·장성·양덕·환호·여남·학산·우현·창포·두호동 등 16개 동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포항면을 신설한 것이다.

당시의 행정구역개편은 오늘에 와서 볼 때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전국적인 군·면·리동의 통폐합은 근대적 행정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보다 일제강점 후 일제의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위한 기초적 작업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중앙집권적인 국가통치의 수평적인 하부 지방행정구역으로서의 그동안 역사·지리적인 동질성과 각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던 영일만권의 4개 고을(흥해군·연일군·장기군·칭하군)이 영일군으로 통폐합되고, 일본인의 대표적 밀집거주지역인 포항이 면으로 승격되어 그 중심지가 됨으로써, 포항지역과 그 밖의 영일군지역의 불균형적인 성장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일제의 강압적인 통폐합의 과정에서 고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래 고유의 마을명을 다수 상실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2~5개 마을을 통폐합 한다는 구실 아래 각 마을명의 한 글자씩을 조합하여 파행적인 작명을 자행하여 민족·고을·마을의 역사·문화를 상징하거나 반영하는 마을명을 임의로 개폐함으로써 결국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정서와 민족의식을 파괴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당시의 그러한 현황을 면별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장기면 : 新倉里(竹下리, 倉岩리, 新陽리), 芳山里(巨山리, 芳日리, 平洞리, 槐東리)
- 봉산면 : 鶴谷里(鶴三리, 朴谷리)
- 창주면 : 大甫里(大川리, 甫川리)
- 동해면 : 興串洞(上興동, 下興동, 稷串동, 장기면 中興동 일부)
- 포항면 : 長城洞(長興리, 城谷동, 院村동, 針村동)
- 흥해면 : 南松洞(南大동, 南休동, 松동, 書院동 일부), 望泉洞(望昌동, 伐泉리, 書院동 일부)
- 달전면 : 大蓮洞(大谷동, 蓮花동, 德城동), 自明洞(自方동, 燈明동)
- 곡강면 : 龍谷洞(龍淵동, 耳谷동), 德壯洞(德山동, 壯者동)
- 신광면 : 安德洞(安地동, 地德동), 虎里洞(虎村동, 中里)
- 기계면 : 龍基洞(新基동, 龍田동), 高旨里(高尺리, 瓦旨리)

- 청하면 : 月浦里(月牙리, 介浦리, 中攄리, 小斤동, 外三동 일부), 龍頭里(龍山리, 外攄리, 花枝동 일부, 鰲頭리)
- 송라면 : 光川里(廣川동, 下光동, 鶴山동 일부)
- 죽남면 : 日光里(開日리, 光川리, 畚洞 일부)
- 죽북면 : 月坪里(所月리, 高坪리, 縣內동 일부)

영일군 17개면 가운데 오직 오천면·대송면·연일면 3개면의 경우에는 단 하나의 마을명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조합하지 않고 대표적인 마을명에 1~4개의 마을을 통합하였는데, 이는 면리(面里)통폐합시 3면의 원로와 관계 공무원의 투철한 민족의식과 향토의식에 의해 고유의 마을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본다.

넷째, 이때의 개편은 일제 강점기간 행정구역의 근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복 후 오늘날까지도 이에 준하여 대한민국 지방행정구역의 큰 줄기를 이루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포항면 신설

포항면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14년 3월 1일 흥해군 동상면의 25개 동, 연일군 북면의 8개 동, 읍내면 효자동의 일부, 동면의 송호동, 및 오늘날의 포항시내 중심 마을 16개 동을 병합하여 신설되었다.

1731년 포항동에 전국 굴지의 제민창 포항창진(浦項倉鎭)이 설치된 이후 성장한 영일현 북면 포항마을이 1914년 3월 1일 큰 면적의 행정구역으로 면으로 승격되면서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1914년 3월 1일 부군(府郡) 폐합이 시행됨에 따라 포항면이 신설되고 8월 15일 영일군의 면리동(面里洞)이 발표되고 새로운 포항면의 구역이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영일군은 포항면의 탄생과 함께 17면이 되었다.

포항면은 기존의 흥해군과 연일현의 행정구역상 경계지역이며 영일만의 중심포구로서 상업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던 중요지역을 따로 구획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지역에 일본들이 대거 이주하여 포항의 정치·경제적인 활동을 주도하면서 포항의 육거리 주변마을들을 개척하여 포항의 중심 시가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3. 포항지정면 승격

포항면은 3년 뒤인 1917년 10월 1일부터 포항동·학산동·두호동 3동으로 포항지정면(浦項指定面)이 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포항면이 3개동으로 지정면이 됨으로써 포항면의 나머지 13개동은 신설된 형산면(면사무소, 현 용흥동 129~14)에 편입되었다. 영일군은 형산면의 신설로 18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1931년 포항이 읍으로 승격될 때까지 영일군의 행정관할구역은 18면 225리였다. 당시 지정면인 포항면을 형성한 3개동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포항동 : 구 흥해군 동상면의 신흥·어양·여천(일부)·용담(일부)와 구 연일군 북면의 포항(잔부)

학산동 : 동상면의 학산·아호·용담(일부)·여천(일부)

두호동 : 동상면의 두호·관대·설말·이진

오늘날 읍제의 전신인 지정면제에 의하여 당시 전국에서 24면이, 경북에서는 김천면과 포항면 2개면이 지정되었다. 그만큼 지정면과 보통면 사이에는 차별이 있었으며, 따라서 지정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지정면의 요건은 일본인이 많고, 재력이 풍부하고, 비교적 도시적인 곳으로서 ① 주로 상업지이며 공공적인 시설을 많이 요하는 곳, ② 호구 1,500 이상으로서 그중 2분의 1 이상이 집단 하여 있는 곳, ③ 협의회원 선거권을 가진 자가 수백인 이상 있는 곳, ④ 면부과금 일호(一戶) 평균 7원 이상의 부담을 감당할만한 곳이 되어야 하므로 대상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1917년 포항이 지정면이 될 때 흥해면의 매산동이 곡강면에 편입되어 흥해면은 14개동이 되고 곡강면은 11개동이 되었다.

일제는 1914년 이후 식민통치의 영구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도시와 읍의 동리를 일본과 같이 정제(町制)로 개편하였다. 포항은 확실한 연도는 불명하나 1917년 지정면 이후 1920년대에 들어와서 읍제를 바라보며 그 준비과정에서 동리명과 거리명을 정제(町制)로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1922년 5월 18일자 《동아일보》 ‘포항경찰서·남빈정 매축공사 낙성식’)

이에 따라 기존 지정면의 3개동 중 포항동을 10개 정 즉 소화정(昭和町, 대신동), 남빈정(남빈동), 영(榮, 덕산동), 대정(大正, 신흥동), 명치(明治, 덕수동), 동빈정(1938년 동빈정 一丁目과 동빈정 이정목으로 갈라졌다가 광복 후 동빈로 1가와 2가가 됨) 본정(本町, 상원동), 육정(旭町, 여천동), 중정(仲町, 중앙동), 초음(初音町, 포항동으로 광복 후 대흥동)으로 분동하고, 학산동을 2개 정(학산정, 川口정, 광복 후 항구동)으로

분동하고, 두호동은 그대로 두어 13개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당시 포항의 중심적 거리까지 일본식 이름이 붙여졌다. 대신동 동편의 남북 거리를 소화정, 죽도시장 어판장에서 포함역 거리를 남빈정, 육거리에서 포은도서관 사이 거리를 영정, 육거리에서 우체국 사이의 거리를 대정정, 육거리에서 나루끝 사이의 길을 명치정, 동빈동 남북 거리를 동빈정, 육거리에서 죽도시장 입구 사이 거리를 본정, 현 중앙치안센타를 낀 남북 거리를 육정, 신한은행(구 조흥은행)북편 동서거리를 중정, 포함역 앞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를 초음정, 신한은행에서 동쪽 물가의 불종거리 사이 거리를 중정, 중앙치안센타를 낀 동서 거리를 행정(幸町), 선프린스 호텔을 지나 죽도시장 어판장에 이르는 거리를 화정(花町, 기생 술집이 많아서 붙인 이름), 항구동과 학산동 사이의 남북 거리를 천구정(川口町), 신한은행 뒷길과 그 남쪽 끝에서 대구은행 포항중앙지점 오른쪽 옆을 끼고 서쪽으로 돌아 큰길로 나가는 거리를 상반정(常槃町)이라고 칭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4. 포항읍 승격과 1938년 행정구역 확장

지정면 이후 일종의 특례를 받았던 포항면은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해 상공업과 수산업의 발달로 도시적인 모양을 갖추며 발전하여 드디어 193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읍면제(邑面制)’에 의하여 종래의 지정면(指定面)이 읍으로 조정되어 읍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새로이 설치됨으로써 포항읍으로 승격되었다.

당시 전국에서 41읍, 경북에서 5읍이 탄생되었는데, 포항을 비롯하여 김천·경주·안동·상주 등이었다.

1931년 포항읍 이후 광복이 될 때까지 전국적인 대폭의 행정구역 변경은 없었으나 영일군은 1934년 죽북면과 죽남면 2개 면을 죽장면(면사무소는 입암리)으로 통폐합하고, 장기면과 봉산면 2개 면을 지행면(면사무소는 읍내리)으로 통폐합하여 1읍 15면이 되었다.

1934년에서 1938년 사이에 대송면의 면사무소가 남성동에서 괴동동으로, 곡강면의 면사무소가 흥안동에서 용전동으로 옮겨졌다.

포항은 질적인 성장에서 양적인 팽창을 이룩하여 과거 1914년 포항면 승격 시의 면적을 회복하여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포항은 그동안 1914년 1월부터 착공된 형산강방제축조공사를 비롯하여 이후 형산강북하구도수제축조공사, 형산강북하구 응급준설공사, 포항호안수축공사, 포항항도수제축조공사, 공유수면매립공사, 형산강북하구준설공사, 포항항방파제재해복구공사 등을 거치고, 1935년 3월에 준공된 형산강

개수공사에 의해 지형적인 골격을 잡게 되고, 행정구역을 확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영일군은 1938년 9월 27일 포항읍이 한차례 그 구역을 확대 정리하면서 1읍 14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로써 읍면적은 종래 포항면적의 꼭 10배이고 인구는 3만의 대포항 건설을 바라보게 되었다. 포항읍은 형산면의 13개동(득량·죽도·학잠·대도·상도·해도·용흥·장성·양덕·환호·여남·창포·우현)과 대송면의 송정동 일부를 흡수 통합하고, 대송면 행정구역에서 행정상 불편을 느껴오던 향도(向島)를 향도동(광복 후 송도동)으로 신설하여 포항읍으로 편입함으로써 기존의 포항동·학산동·두호동 3개동의 행정구역과 함께 17개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포항읍은 포항동이 11정(町), 학산동이 2정으로 분동되어 있어서 실제 28개동이 광복 후 우리나라 동명으로 회복 개칭되어 법정동명화 되었다.

5. 구룡포읍 승격

영일군은 1942년 10월 1일 창주면이 구룡포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2읍 13면 237정동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구룡포읍은 종래 창주면의 16개동 중 공당리, 상정리·중산리·중흥리가 동해면에 편입되고, 동해면의 구만리가 구룡포읍으로 편입되어 13개동으로 조정 관할하게 되었다.

구룡포는 포항 다음으로 많은 일본인이 거주한 곳으로서 수산업이 발달하여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 영일군에서 제 2의 도시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영일만권 어업의 대표적인 지역은 포항 다음으로 구룡포를 꼽을 수 있다. 구룡포에도 일찍부터 일본인들이 많이 진출하여 수산업계를 지배해 나갔다.

1902년 야마구치현(山口縣) 토우라군(豊浦郡) 돗바리어선과 1904년 가가와현(香川縣)의 돗바리·삼치류 어선 수십척이 구룡포에 통어자로 내항한 후 일본인들은 1905년부터 구룡포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동해안을 무대로 선어운반업을 시작하고 정치망어업을 비롯하여 대형 낙망과 건착망어업 및 정어리 가공공장까지 경영하는 등 각종 수산업과 상업에 종사하여 일본인 이주민의 낙토를 일구어 갔다.

1910년부터 이주자가 증가하여 1912년에는 47호가 되었다. 1927년경부터 이주자가 120호를 넘고, 1933년에는 220호로 증가했으며, 그 반수는 어업관계자였다.

당시 일본인들은 주로 일정지역에 밀집하여 취락을 형성하였으며, 총독부의 비호 아래 확장된 그들의 세를 이용하여 고을의 모든 이권을 독점 운영하였다. 이러한 취락형태는 포항과 구룡포가 대표적이었다.

또한 창주면이 일제강점기에 수산업의 호황으로 구룡포리를 중심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이주가 급증하여 1942년 10월 1일에는 창주면이 구룡포읍으로 승격되었으며, 당시 구룡포읍의 호구는 호수가 4,485호(한국인 4,251호, 일본인 231호, 중국인 3호), 인구가 23,264명(한국인 22,344명, 일본인 910명, 중국인 10명)으로 경북 11읍중 6위로 부상했다.

6. 기타 행정구역의 변모

19세기경 영일만의 새로운 개척마을이었던 3호(湖)와 5도(島)로 불리었던 지명은 일제강점기에 와서 1912년 학산동이 아호(阿湖)동을 흡수하고, 1906년 분도(分島)동이 대도(大島)동으로 확대 개칭된 후 1914년에 하도(下島)동을 흡수하고, 1938년경 대송면의 향도가 포함으로 이속되어 향도(尙島)동(현 송도동)으로 신설됨으로써 약간 확장 변모되어 오늘날의 법정동명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1945년 3월 9일에 구룡포읍에 대보출장소(대보·강사·구만 3개 법정리 관할)가 설치되었다.

참고문헌

- 조선총독부,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名稱一覽》, 1917.
 조선총독부 내무국편,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39.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사》상·하, 1987.
 배용일,〈포항·영일 행정구역의 변천고〉《포항역사의 탐구》, 포항대학, 2006.

제2절 중요 행정기관

1. 영일군청

영일군은 1914년 부군 통폐합 때 흥해·연일·청하·장기 4군을 합하여 된 것으로 초대 군수에 김한은(金翰殷)이 부임하고, 군청은 구 연일군청(소재지는 현 연일읍 생지리)을 사용하였다. 1915년에 3대 군수로 일본인이 취임한 후 영일군청 소재지가 영일군의 중심지가 못되어 불편한 점이 많았으므로 포항거주의 일인들이 영일군청 포항 유지기성회를 조직하여 맹렬한 유치운동을 전개한 결과 당국의 조치로 1915년 겨울에 포항에 이전하였으며, 1916년에 청사를 신축하였다. 현재 포항시 덕산동 121~2번지에 있었던 구청사는 6.25전쟁으로 소실된 후 1953년에 신축한 것으로 1995년 이후 포항시 북구청 청사가 되었다.

영일군은 산업개발상 도내 타군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특히 동해 영일만 연안 수산업의 획기적 발달로 경상북도 총생산액의 7할을 점하고 있을 정도였다. 영일군의 주된 산업은 수산물이지만 전통적인 농산촌의 산물도 결코 적지 않았다.

영일군과 포항면·읍장 명단 추이를 보면, 그들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강점 초기부터 군수를 비롯한 면장과 읍장이 거의 한국인에서 일본인으로 교체되었던 것이다.

한국인 군수는 초대 군수 김한은과 2대 군수 이종국(李鍾國)으로 끝나고, 3대부터는 일본인 군수에 의해 식민행정이 전단되었다. 3대 高田官吾(1919~1922) 이후 셋토고이찌(瀬戸甲一), 陳來喜八, 御原正平, 石川齊四郎, 郡傳一, 石川寬二, 난바데리아(難波照治:1935년경), 河野某, 長沼某, 千頭某(광복 때) 등으로 이어졌다.

2. 포항면사무소

포항동이 1914년 3월 1일 포항면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포항면사무는 처음에 상원동과 중앙동 사이에 있는 한국가옥에서 집무하다가 1921년 포항경찰서가 신축 이전함과 동시에 나까다니 다께사부로(中谷竹三郎)의 집(현 상원동 462~8)에 이전하고, 다시 1922년경 포항공립심상고등소학교(중앙초등학교 전신으로 부지가 현 중앙초등학교 보다 작았다)의 서편 건물로 남서쪽으로 큰 길을 낀 모서리 위치로 이전하여 집무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거주 일본인을 보호하고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일제는 그 밖에도 경찰서·세무서·학교·역·우편국·지방법원출장소·세관출장소 등 모든 관공서를 포함하여 이전 또는 신설하여 영일군 주민의 불편을 강요한 가운데 포항거주 일본인위주의 통치를 자행하였다.

포항 초대 면장은 구 연일군 북면의 면장이었던 오상선(吳祥善)이었으며 그는 1915년에 물러나고 정선근(鄭善根, 1915. 4. 18~1917. 9. 30)이 취임하였다. 그 후임인 일본인 면장 와다나베야지로(渡邊失次郎:1917. 10. 1~1920. 4. 21) 시기에는 면정(面政) 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되고 여기에 대의원제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면 상담역이 두어지고 일본인 나까다니 다케사부로(中谷竹三郎)와 후쿠지마 잇페이(福島伊平), 한국인 정선근과 이한근(李漢根) 등 4명이 임명되어 민의를 듣는 정치의 형태를 표방하였다. 이어 1920년 衫松一郎(1920. 4. 22~1922. 4. 2), 임화일(林和一, 1922. 6. 17~1924. 9. 11), 高杉權藏(1925. 1. 7~1926. 5) 1926년(7월 2일) 시모무라주웨이(下村重英, 1924~25년 포항경찰서장) 등 일본인 위주의 면장으로 이어졌다.

1920년 11월에 면상담역은 폐지되고 면장자문기관으로서 면협의회 의원의 설치를 보게 되었으며, 동월 20일 초대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뽑힌 사람은 다음과 같다.

후쿠지마 잇페이(福島伊平), 나까다니 다케사부로(中谷竹三郎), 김용주(金用柱), 소노 구마오(增野熊雄), 김봉균(金鳳均), 오우치지로(大内治郎), 이일우(李一雨), 사사키에 쯔조오(佐佐木悅藏), 서석태(徐錫台), 다카다마사오(高田政雄)

1923년에는 일본인 7명 한국인 3명(朴春彦, 朴允余, 張萬俊), 1926년에는 일본인 6명 한국인 6명 (김두하, 장만준, 박윤여, 金漢得, 이일우, 金顯台), 1929년에는 일본인 7명 한국인 5명 [김두하, 최한수(崔漢樹), 김병수(金秉秀), 최병기, 권전척(權鎔斥)] 이 되었다. 당시 읍면장의 보조기관으로 구장(區長)이 있었다.(읍에는 군수·島司의 인가를 얻어 읍장이 임명하는 부읍장제가 있었음) 구장은 읍면의 사무에 대하여 정(町)·동·리에 관한 것을 보조하는 자로서 각 정·동·리에 1명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2명 이상을 둘 수도 있었다. 구장은 명예직이었으며, 그 정·동·리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임명하였다.

3. 포항읍사무소

읍사무소는 포항이 1931년 4월 1일 읍으로 승격된 후 1933년 8월 5일 읍사무소 신축에 착수하여 그동안 공유수면매축(公有水面埋築)에 의한 재원으로 현 포은도서관(전 시청청사) 위치에 총부지 1,074평, 공비 16,400원으로 사무실(벽돌 단층건물 1동

54평), 회의실(벽돌 2층 건물 1동 42평) 및 부속 벽돌건물 3곳(23.5평) 등을 1933년 12월 15일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당시 학교조합·상공회·청년단 및 각종 기성회의 사무소도 모두 이 청사에 들어갔다.

포항읍도 읍정 시행과 동시에 법규에 따라 자치형체를 두기로 하고, 읍정 집행기관으로 읍회를 설치하여 정(町)에 총대를 뽑고, 관리자로서 읍장과 그 밑에 부읍장과 부내에 각각 계를 설치하여 사무를 처리해 나갔다. 당시 시장 지위의 부윤과 그 밑의 과장의 대부분은 국비를 지급받는 관리였으나 읍장과 그 이하의 모든 사람은 읍비를 지급받는 관리였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식민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일본인을 위해 시행된 고등술책이었던 것이다. 이 술책은 1931년 4월 1일 읍제 시행 후 5월 21에 실시된 읍회의원과 면협의회원을 선거에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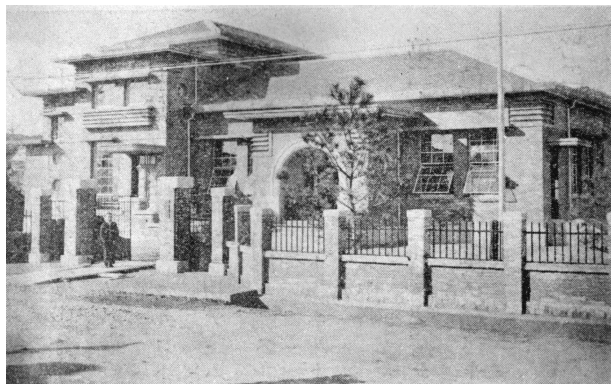
이 결과 포항읍에서는 다음의 읍회위원과 읍정총대의 당선을 보게 되어 식민통치하에서 처음으로 자치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읍회의원 : 윤이병(尹離炳), 최병기(崔炳基), 강주석(姜疇錫), 김동덕(金東德), 김두하(金斗河), 와키무라다쯔구라(脇村辰藏), 오오우에토메조오(大上留造), 菅原市郎, 吉本信義, 福島憲次, 北川利八, 岡部與一

읍정총대 : 하라다카즈오(原田一雄, 천구정), 요시모토노부가즈(吉本信勝, 동빈정), 佐藤兵助(명치정), (吉川茂平, 대정정), 脇村芳助(옥정), 菅原市郎(분정), 와키무라다쯔구라(脇村辰藏, 영정), 森島喜一(행정), 糀谷伊太郎(중정), 長谷川懷德(남빈정), 가와구찌코토헤(川口琴惠, 초음정)

읍회위원 12명 중 7명이, 읍정총대 11명 중 전원이 일본인인 것은 절대다수의 한국인을 위한 읍행정 제도가 아닌 일본인을 위한 기만적인 식민 읍행정체제였던 것이다.

당시 읍회위원의 구성은 인구 5천 미만의 읍에는 8인, 5천 이상 1만 미만의 읍에는 10인, 1만 이상 2만 미만의 읍에는 12인, 인구 2만 이상의 읍에는 14인을 두도록 규정



● 포항읍사무소

되어 있었다. 포항 초대 읍장은 포항면장이었던 일본인 시모무라 주에이(下村重英)가 그대로 승계되었으며, 이 후 명단이 불명한 가운데 일본인 소노다(曾田, 1938년 재임)의 뒤를 이은 오키도쿠고로(沖徳五郎, 1940. 5. 25 부임) 및 노무라기이찌(野村紀一)

등의 읍장명이 보인다. 이 가운데 오키도쿠(冲徳)는 지난날 포항경찰서(1915)·대구경찰서(1931) 서장을 역임한 일본인 경찰통이다. 일제는 문화정치라는 미명 아래 강압적 식민통치를 자행하여 포항을 지배했음을 실증해주고 있다.

1935년 당시의 읍장은 시모무라주웨이(下村重英), 부읍장은 박동주(朴東柱)였다.

4. 포항경찰서

이 고장의 주민이 언제부터 경찰관헌의 업무대상이 되었는지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영사관설치시기에 한인순검(巡檢)이라는 것이 연일과 흥해에 이미 있었다.

1906년(광무 10년) 7월 6일 지방경무서 밑에 경무분서(警務分署)를 같이 설치하고, 관할구역표 제정으로 경상북도경무서 경주분서를 설치하여 연일군·장기군·흥해군을 그 관할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그 해 10월 12일 경상북도경무서 경주분서 관할의 연일분파소, 장기분파소, 흥해분파소를 설치하였다.

1908년 1월 1일부터 종래의 분파소는 순사주재소로 개칭되었다. 이때 경북은 대구경찰서에 경주·안동·영해·영천·상주 5개소에 분서를 두었으며 연일·흥해·장기·영천의 순사주재소는 경주분서에, 청하·영덕·영양의 순사주재소는 영해분서의 관할하에 두었다.

1908년 7월 20일 각도에 내무부와 경찰부를 신설할 때 경북경찰부 산하에 대구·경주·안동·영해·영천·상주경찰서를 설치하였으며, 연일·흥해·장기순사주재소는 경주경찰서에, 청하순사주재소는 영해경찰서에 소속되었다.

1909년 1월 22일 경찰서(23개소) 및 순사주재소(48개소) 증설 시에 경북에서는 영해경찰서가 폐지되고, 김천·의성·영천·영덕경찰서가 신설되어 모두 9곳의 경찰서를 두게 되었으며, 이후 1909년 10월 27일「경찰서, 경찰분서, 순사주재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정리」에 의하여 경북의 9개 경찰서 중 경주경찰서에 연일·흥해·장기·아화 순사주재소를 두고, 영덕경찰서 관할 하에 영양·영해·청하·수비 순사주재소를 두었다. 이때 청하순사주재소는 영해경찰서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된 영덕경찰서에 편입되었다.

1910년(융희 4) 8월 5일 「경찰서 직무를 행하는 헌병부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개편에 의해 경북에 6개의 헌병분대(대구, 김천, 함창, 순흥, 영양, 청하)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이때 청하헌병분대(淸河憲兵分隊)는 청하군·경주군·흥해군·연일군·장기군과 영덕군 일부지역·영천군 일부지역·청송군 일부지역을 관할로 하여 포항분견소(浦項分遣所, 영일군 북면 소재)·진안(眞安)분견소(영덕군 서면)·인비(仁庇)분견소(흥

해군 기계면)·흥해파견소(興海派遣所, 흥해군 동부면)·장사(長沙)파견소(영덕군 외남면)를 설치하여 경찰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같은 날 경주군, 장기군, 연일군은 경북 경무부 소속 경주경찰서 관할하에 두었다. 또한 같은 날 「순사파출소 및 순사주재소의 명칭과 위치의 건」에 의해 경주경찰서 관할하에 장기·연일·대분(大分, 장기군)·구어(九於, 경주군)·아화(阿火, 경주군)·모서(毛西, 경주군)·요광(要光, 연일군)에 순사주재소를 두었다. 당시 순사파출소는 주로 서울에 설치되었다.

일제는 을사늑약 이후 확산된 민족의 항거를 분파소(分派出所)의 일본 경찰관만으로 도저히 진압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합병’ 전인 1910년 6월에 헌병경찰제도를 실행하였던 것이다. 이후 강점이 되어 조선 총독부 경찰관서관제가 공포되어(1910. 10. 1) 일본군의 조선주둔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이 되고 각 도의 일본군 헌병대장이 경찰부장을 겸임하였다. 강점 전에는 일본헌병이 주로 도시에 집중배치되었으나 합병 후에는 분산배치제로 전환되면서 농촌지방에까지 헌병분견소(憲兵分遣所), 헌병파출소(憲兵派出所)를 설치했고, 여기에는 순사주재소(巡查駐在所), 순사파출소(巡查派出所)까지 두어 그야말로 전국 방방곡곡에 헌병과 순사가 배치되지 않는 곳이 없게 하였다.

1910년 12월 10일 전국 74개 헌병분대 밑에 총 539개의 헌병분견소를 분할 설치하여 경찰서의 직무를 행하는 헌병을 실제 배치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하헌병분대는 이때 설치된 것이다.

1910년 12월 10일「조선주차헌병대의 관구 및 배치표 개정」에 의한 대구헌병대에 소속된 청하헌병분대의 위치, 관할구역, 관할 분파견소(分派遣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표와 같다.

관할 분파견소의 명칭과 위치

헌병분대	위 치	관 할 구 역	관할 분파견소 명칭위치
청 하	경상북도 청 하 군	청 하군·경주군·흥해군·연일군·장기군 영덕군(중남면·외남면·서면) 영천군(원곡면·모사면·입곡면·환귀면·추곡면·아천면· 원당면·완산면·비소면·고촌면) 청송군(부남면·현동면·현남면·현서면·현내면)	포항분견소 연일군 북 면 진안분견소 영덕군 서 면 인비분견소 흥해군 기계면 흥해파견소 흥해군 동부면 장사파견소 영덕군 외남면

1914년 2월 27일 헌병경찰관서를 일제히 개편하였으며, 이어 당시 8월 27일 전국의 헌병분대 및 분견소명과 관하출파견소(管下出派遣所) 수가 일제히 개편될 때 경북의 6개소(포항·왜관·김천·상주·영주·영양, 경찰서가 없는 군지역에 설치됨)의 헌병분대 중의 하나로 포항헌병분대가 설치되었으며 헌병파견소 4곳과 헌병출장소 4곳을 그 관할 하에 두었다. 당시 포항헌병분대 관내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흥해파견소(경상북도 영일군 흥해면)
- 상옥출장소(경상북도 영일군 죽남면)
- 기계파견소(경상북도 영일군 기계면)
- 연일출장소(경상북도 영일군 연일면)
- 청하파견소(경상북도 영일군 청하면)
- 평지출장소(경상북도 영일군 죽남면)
- 구룡포파견소(경상북도 영일군 창주면)
- 장기출장소(경상북도 영일군 장기면)

3.1운동 이후 일제는 강압적인 무단정치로 한민족의 자주의식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문화정치를 실시하였다. 비록 보통경찰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종래의 헌병병력은 국외의 무장 독립군 활동지역에 투입되는가 하면 오히려 경찰기관은 확대되고 경찰인원은 1918년 헌병을 포함한 경찰의 수가 14,500명이었던 것



● 포항경찰서

이 1930년에는 20,147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따라서 감옥도 증설되고, 사상범도 증가되었던 것이다. 1919년 8월 20일 보통 경찰제의 채용으로 경찰서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와 분견소가 폐지되고 대신「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표」가 개정되었는데, 1921년 10월 10일 당시 경북 11곳의 헌병분대가 경찰서로 변경될 때 포항헌병분대가 포항경찰서로 개칭되었다. 당시 초대 포항경찰서장으로 조선총독부 도경무부 셋토고이찌(賴戶甲一)가 취임하였다. 포항경찰서의 관내표는 다음과 같다.

- 연일 경찰관주재소(경상북도 영일군 연일면 생지동)
- 도구 경찰관주재소(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 도구동)
- 구룡포 경찰관주재소(경상북도 영일군 창주면 구룡포리)
- 장기 경찰관주재소(경상북도 영일군 장기면 읍내리)
- 흥해 경찰관주재소(경상북도 영일군 흥해면 성내동)
- 신광 경찰관주재소(경상북도 영일군 신광면 토성리)
- 청하 경찰관주재소(경상북도 영일군 청하면 덕성리)
- 상옥 경찰관주재소(경상북도 영일군 죽남면 상옥리)
- 기계 경찰관주재소(경상북도 영일군 기계면 현내면)
- 입암 경찰관주재소(경상북도 영일군 죽남면 입암리)
- 대보 경찰관주재소(경상북도 영일군 창주면 대보리)

이어 1921년에는 포항경찰서가 지금의 위치에 신축 기공하여, 1922년 5월 18일 준공식을 거행했으며(동아일보), 1930년대에 와서 포항 항구동에 학산파출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1928년 12월 말 현재의 영일군의 ‘경찰관서 및 경찰관리’와 1934년경의 포항경찰서의 다음표와 같은 인원배치는 일제강점기의 이 고장 식민정책의 일단을 엿보이고 있다.

경찰관서 및 경찰관리

경찰관서			경 찰 관 리								
경찰서	경찰관 주재소	합계	경 부		경부보		순 사		합 계		계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1	16	17	1	1	1	3	37	41	38	45	83

포항경찰서관할의 인원배치

및 所 인원		포항본서	학산(파)	연일	대송	오천	동해	신광	청하	송라	상옥
정 원	부 장	6	·	1	1	1	1	1	1	1	1
	순 사	25	4	2	3	2	2	2	2	2	2
	계	31	4	3	4	3	3	3	3	3	3
현 원	부 장	12	·	1	1	1	·	1	1	1	·
	순 사	21	2	1	2	2	2	2	2	2	2
	계	33	2	2	3	3	2	3	3	3	2

서 및 소 인원		장기	구룡포	대보	달전	홍해	곡강	임암	기계	계
정원	부 장	1	1	1	1	1	1	1	1	22
	순 사	3	3	2	2	3	2	3	3	67
	계	4	4	3	3	4	3	4	4	89
현원	부 장	1	1	·	·	1	·	·	1	22
	순 사	3	4	3	2	3	2	3	3	61
	계	4	5	3	2	4	2	3	4	82

※ 포항경찰서는 부장 위에 경부보 2인과 경부인 2인이 배치되었으며, 경부 1인은 일본인 서장이고, 1인은 한국인 사법주임이었다.
 ※ 포항읍내의 기타관공서는 1999년《포항시사》상권 참조

참고문헌

김용제, 《영일읍지》, 1929.
 田中正之助 加納安正《포항지》1935, 遼捨藏《경북대관》1936.
 내무부치안국《韓國警察史》, 국사편찬위원회,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 1967.
 《한국지방행정사》下, 내무부, 1987, 《한국경찰사》, 내무부치안국, 1972.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상, 포항시, 1999.

제3절 외세 침략과 민족의 항전

1. 서구 열강의 침략과 항전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서구자본주의는 중상주의 단계를 이미 넘어서서 원료 공급지의 확보뿐만 아니라 상품 수출 시장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프랑스·미국 등이 산업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는 단순히 천주교·기독교 포교라는 차원을 벗어나 통상을 요구하면서 동아시아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1864년에 등장한 대원군은 1866년(고종 3) 프랑스 선교사를 포함한 수천 명의 천주교도를 박해하는 병인사옥(丙寅邪獄)을 일으켜 프랑스 함대(7척)가 강화도를 침공하는 병인양요(丙寅洋擾)를 유발하였다.

병인양요는 우리 민족이 최초로 겪게 되는 근대 서구 식민주의 세력의 침략전쟁이었다. 통상거부와 천주교탄압은 한편으로 자본주의 침략을 한층 더 가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같은 해에 무장한 미군상선 제너럴셔어먼(General Sherman)호가 대동강에서 통상을 요구하다 불살라진 사건이 발생하고, 1868년에는 독일상인 에른스트 오페르트(Ernst Oppert)일당이 남연군(南延君, 대원군 생부)묘를 도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등 통상을 빙자한 해적행위는 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을 더욱 경화시켰다.

조선과 수호통상을 체결하려는 시도가 미국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1871년(고종 8) 5척의 군함으로 강화도를 침공해온 것이다.(辛未洋擾) 그들은 셔먼호를 격침시키는데 대한 조선정부의 사과와 난파선의 구조 그리고 무력으로 수호통상조약 체결을 기도했으나 조선군민의 저항으로 실패하였다.

왕권확립을 기도한 대원군은 두 양요를 기회로 안으로 내정개혁과 군비확장을 통해 전통사회의 통치체제를 강화하고 밖으로 쇄국정책을 써서 외세의 침투에 대처해 나갔다.

1) 양요 발생과 포항진의 복설(復設)

쇄국정책을 표방한 대원군 집권 당시(1864~1873) 조선왕조의 군사력은 중앙군과 지방군을 막론하고 심히 허약한 상태였다. 청을 제외하고 어떤 나라도 조선과 평화적 교섭에 의해 통상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당시 무력적인 위협에 의해 발생한 것이 양요(洋擾)였다. 그 첫 양요인 병인양요(丙寅洋擾)는 정부의 군비강화를 급속도로 추진하는 촉진제가 되어 중앙군제 뿐만 아니라 지방군비 강화에도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1865년(고종 2년) 7월 영일현 임곡진(林谷津)에 이양선(異樣船) 1척이 표착하여 남자 16명과 여자 1명이 상륙한 사실 (《고종실록》2년 7월)은 당시의 외세침투 상황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된다.

당시 고종 3년(1866)에서 고종 9년(1872)사이에 증설된 변진(邊鎭)은 14개소, 방어영 4개소로서, 14개소 변진 가운데 영일현의 포항진이 이때 복설된 것이다.

1867년 복설문제가 제기된 3년 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던 차에 경상도 감사 김세호(金世鎬)가 장계를 올리면서 성사되어 1870년(고종 7년) 윤 10월에 포항진의 설치를 결정하여 첩사(僉使)를 두게 되었다. 실제 설치는 1871년 봄으로 보인다.

1872년 11월에는 삼군부(三軍府)에서 포항진에 별포수 10명을 배치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토록 하였다. 이때에 영일현에도 별포수 30명이 신설되었다. (《고종실록》9월 11월)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1866년 프랑스군과 충돌한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를 겪은 후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설진(設鎭)과 더불어 가장 강조된 것은 포군(砲軍)의 양성이었다. 병인양요 이후 기존의 삼수병(三手兵, 砲手·射手·殺手)중심의 운영체제가 포수 중심체제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조치는 1874년(고종 11년)까지 부단히 계속되어 조선의 수군력은 다시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군사적 진(鎭)은 적의 침입이 가능한 곳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위치로서 산을 등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사료를 종합하면, 포항진터는 오늘날의 포항시 북구청자리로 판명된다.(상세한 것은 제 5장 근대 태동기 제2절 군제의 ‘포항진의 설패’ 참조)

2) 김천익의 사병창의문

1866년(고종 3)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9월 27일 이용순(李容舜)과 민면호(閔冕鎬)를 대표로 하는 충훈부(忠勳府)의 관리를 비롯한 뜻있는 유학자 89명의 창의사(倡義士)들이 주동이 되어 전국의 유생·무반·일반 백성들과 함께 거족적으로 창의하여 적(賊)양(洋夷, 서양인)에 대항하고 토멸하고자 호소한 격문을 지었다. (《한국사대계》 6 조선후기, 249쪽)

이 고장 영일만 지역에서는 당시 병인양요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강화도에 침입한 외적을 격퇴하기 위해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중앙의 격문이 작성되기 15일 전인 9월 12일 사병창의문(士兵創義文)을 완성하였다. 흥해군 남면 화평동의 김천익(金天翼)공이 400명의 동지들과 회맹(會盟)하여 사병창의문을 직접 작성하였다.

당시 70세의 김천익 공은 흥해와 영일 고을 등 영일만권의 선비와 주민 400명을

사병으로 모집하여 10월 18일 오전 11시에 출전함으로써 이 고장 일월향(日月鄉)의 호국충절(護國忠節)의 기개를 드높였다. 공의 본관은 김해이며, 무오사화(戊午士禍, 1498년, 연산군 4)로 사형당한 탁영 김일손(金駟孫)의 11대손이며, 이 고장에서 효자로 소문난 통덕랑(通德郎) 김유성(金有星)의 아들이다.

이 창의문은 가로 250cm 세로 33cm에 이르는 장문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우리 동방 선비의 기상은 나라 전체의 원기로서 모두가 오랜 세월동안 충과 효의 혈통으로서 간혹 바위굴 속에서 살거나 시골 오지에 살고 있어도 공자·맹자·정자·주자의 학문을 외우고 익히며 문왕·무왕·주공·소공의 풍화에 젖어 들었고 우리 임금님의 성덕에 자맥질해 온 지가 사백여 년이 됐다. 그동안 따뜻하게 옷입고, 편안하게 밥 먹으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처자식과 즐기며, 자신의 영화를 누리는 일들 모두가 우리 선왕의 제례문명에서 출발했거늘 지금 서양 오랑캐가 감히 하늘의 이치를 거역하고 도를 어기는 학문으로 뜻밖에 도성 가까운 지역까지 침범했으니 아! 우리 선비들이 누라서 마음이 오싹하고 뼈가 얼어붙어 맨몸으로 싸워야 한다고 이를 갈지 않으랴.

만일 목숨을 도모하려는 사사로운 욕망에 사로잡혀 삼강오륜을 떨어뜨리고 천가지 만 가지 사악한 일과 나쁜 쪽으로 빠지게 된다고 생각해보면 천지간에 살아남는다 해도 그 치욕됨을 어느 곳에서 용서받을 수 있으리오. 차라리 싸워서 열 번을 죽는다 해도 조상님께 부끄러워 아홉 번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니 어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인가. 나는 본시 지혜와 계략이 어두운 자질이지만 땀땀한 마음은 없지 않아 감히 분에 북받쳐 의병을 일으키니 바라건대 선비님들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서양 오랑캐를 토멸해 고을과 나라의 근심을 편안케 해주신다면 다행으로 여기겠나이다.(원문생략)

▲ 이 자료는 김천익 공의 종손인 김수용 집에서 보관되었던 것을 2008년 1월 9일 김천익 공의 문중사 자료실장인 김삼일씨(포항시립극단 상임연출가)에 의해 햇빛을 보게 되었다. 이와 함께 김천익 공이 81세 때 흥해군수가 발행한 당시의 마을명칭 연구에 자료가 되는 호적부도 발견되었다.

이 김천익 공의 사병창의문은 포항 역사의 정체성과 포항정신을 밝혀주는 귀중한 사료로서 그 가치는 크다. 첫째, 병인양요 시 작성된 양이토벌 호소격문으로는 당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작성된 점을 들 수 있다. 조정의 충훈부의 것보다 15일이나 빨리 작성되었다. 둘째, 70세의 노구로서 직접 사병창의문을 작성하고 격문으로 호소하여 의병 400명을 회맹 모집하여 서울로 출발한 점은 오로지 구국의 충의정신을 발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 이는 우리 고장 특유의 국가와 민족의 위급한 전쟁상태로 인식한 살신성인(殺身成仁)과 사생취의(捨生取義)의 흥익정신이 아니면 당시 400명의 인원이 천리 길을 간다는 결의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희생정신은 이 고장 유사 이래 외적의 침입을 방어해온 군사기지로서의 호국정신, 고려 말 포은 정몽주 선생과 임진왜란 의병들의 충절정신이 승화된 것으로 이후 구한말 의

병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일월정기로 거듭 태어난데 큰 뜻이 있다. 앞으로 400명의 병들의 명단과 출전과정 및 활동상황을 밝힐 수 있는 사료가 발견되기를 기대한다.

3) 장기 척화비(斥和碑)와 흥해 척화비

1866년 병인사옥(丙寅邪獄)시 프랑스 신부의 처형은 프랑스함대의 무력침공을 유발하는 구실이 되었다. 천주교 탄압 때 중국으로 탈출한 신부 리델(Ridel)의 보고에 접한 프랑스공사 벨로네(Bellonet)는 “조선국왕이 우리 동포에게 손을 댄 그날이 곧 조선왕조 최후의 날이다”라고 하며 프랑스 극동함대사령관 로즈(Rose)에게 명하여 함대를 파견케 하였다. 고종 3년(1866) 9월 군함 3척으로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양화진에까지 정찰을 하고 돌아간 로즈는 다음 달 7척의 군함과 600여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침입하여 강화부를 점령하고 선교사 살해에 대한 항의를 해왔다.

이미 청으로부터 침공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방비를 엄히 하였던 조선은 한성근(韓聖根)이 서울로 진군하던 적군을 문수산성에서, 양헌수(梁憲洙)가 강화부를 점령한 적군을 정족산성에서 격퇴함으로써 프랑스함대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었다. 프랑스군은 패퇴하면서 사고(史庫)의 많은 서적과 은괴를 약탈하여 갔다. 이 사건을 병인양요라 하며, 이를 계기로 자신을 얻은 대원군은 더욱 군비를 확충하고 천도교도를 압박하여 쇄국과 척양의 결의를 굳게 하였다.

그러나 고종 8년(1871) 또다시 신미양요가 발생하였다. 미국은 앞서 일어난 셔어먼 호사건을 문제 삼아 북경주재 공사 로우(Low)와 아세아함대사령관 로저스(Rodgers)로 하여금 조선과 통상을 추진토록 하였다. 로저스는 5척의 군함과 1,200여 명의 병력으로 통상을 요구하면서 강화도에 침공해 왔다. 미국 군대는 초지진(草芝鎭)과 광성진(廣城鎭) 등을 점령하였으나 광성진 전투에서 어재연(魚在淵)이 거느린 수비병의 완강한 저항을 받고, 갑곶에 상륙한 미군도 강화수비병의 공격을 받아 40여 일만에 청국으로 패퇴하고 말았다.

프랑스와 미국 군함의 침략을 격퇴시킨 대원군은 쇄국에 대한 의지와 척양에 대한 강한 결의를 나타내기 위해 1871년 4월에 서울 종로와 전국의 관방 요충지에 척화비를 세웠는데, 장기척화비의 내용과 모습은 다음과 같다.

洋夷侵犯非戰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니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則和主和賣國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戒我萬年子孫	우리의 자손만대에 경계하노라.
丙寅作 辛未立	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우다

이러한 민족과 시대의 아픔을 상징하는 척화비가 포항시에 2기가 있으며, 특히 장기면의 것은 그 원형이 보존되어 그 때의 시대정신을 잘 일깨워주고 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전후한 대원군의 실각과 개항은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가운데 임오군란(1882)이 일어나고, 이어 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되고 우리나라가 각국과 교통하게 됨에 따라 전국의 척화비가 철수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척화비인 종로척화비는 1882년 8월 15일에 보신각(普信閣) 부근 땅 속에 파묻혀 있다가 1915년 6월 보신각을 옮겨 세울 때 발견되어 경복궁 근정전의 근정문 서편 행각에 옮겨져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 강화, 경상도 동래군, 함양군, 부산진, 경주 등지에 1925년까지만 해도 종로의 것과 꼭 같은 척화비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니 이는 일제의 소행임이 분명하다.

이 가운데 다행히도 장기척화비는 현재 포항시 남구 장기면 면사무소 경내에 세워져 잘 보호되고 있는데, 그 갈라지고 상처 입은 모습이 우리 민족의 수난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런데 장기의 척화비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보존되어 왔던가? 본래 척화비는 장기 현청이 있었던 장기읍성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현 장기면청사 옆)에 세워졌던 것이 1925년을 전후하여 일제에 의해 당시 포항경찰서 관내 장기경찰관주재소 자리(나중에 지서가 됨)의 댕돌 밑에 파묻혀 있었다.

장기인의 민족정신과 고을주민의 생활을 핍박하던 일본경찰주재소 땅 밑에서 수십 년간 파묻혀 있던 이 척화비는 1951년 4월초 지서 공사 중에 발견되어 면사무소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당시 면사무소 직원이었던 황보양 씨와 김경택 씨의 증언)

이후 1979년에 면사무소 바깥 길가에 옮겨 세웠다가, 장기척화비가 1990년 8월 7일 경북문화재자료 제 244호로 지정된 후 면사무소 경내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포항지역에는 해방기지로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듯 포항시 남구 장기 이외에도 북구 흥해읍에도 척화비가 세워졌다. 흥해 척화비는 2001년 8월 6일 흥해 칠포도로 암각화군 앞의 칠포리~금장리 도로확장 공사 현장에서 발견됐다. 그날 공사 현장 주변의 칠포2리 주민 원광생(67)씨가 공사 도중 땅속에 묻혀 있었던 돌출된 높이 130cm, 폭 40cm, 두께 25cm 크기의 척화비를 발견하여 포항시에 신고함에 따라 이튿날 경상북도에 보고되어 현재 흥해박물관 제남헌 마당 왼편에 보존되어 있다. 사암(砂岩)으로 된 이 척화비는 전체 문자 18자 중 7자만 해독할 수 있었고 나머지 11자는 훼손이 심해 판독이 어려운 상태다. 해독 가능한 글자는 ‘양이침범 비전즉…(洋夷侵犯 非戰則…)’이라는 앞부분의 7자였는데 이후 보존 처리하면서 본래의 원문인 ‘화주화매국(和主和賣國)’을 살려 12자가 되었다.

장기와 칠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의 대표적 관방요충지로 성장 발전되어 그동안 영일만권 전방의 해방기지로서 책무를 다해온 역사·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척화비는 장기와 흥해의 특성은 물론 인근 포함시 영일만권의 여러 관방요해처를 대표하는 근대한국사와 근대항토사의 정신적 고리와 산역사의 실체로서 포함시민이 애써 보존해야 할 소중한 향토문화재다.

2. 영일만권의 전기 의병항쟁

갑오(甲午)·을미(乙未)·병신(丙申)의병으로 지칭하는 전기 의병은 동학농민운동의 실패 후 한층 강화된 일제의 침략행위에 견디다 못한 일부 애국적 유생층과 동학군의 잔여세력 및 농민층이 을미사변(乙未事變, 명성황후 시해사건, 음력 1895년 8월 20일~양력 10월 8일)과 단발령(斷髮令, 음력 1895년 11월 17일~건양 원년의 양력 1896년 1월 1일)의 강행에 자극되어 크게 일어났다. 경상도에서의 의병 봉기는 안동지방에서 먼저 일어나 안동의진(대장: 權世淵)은 1895년 음력 12월 3일에 결성되었다.

그리고 안동부 관할의 각 군현에서 의진이 결성되어 군현을 단위로 활동하거나 안동의진과 합세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경상도 각지의 의진과 타지역, 특히 김하락(金河洛)의 남한산성의진 등과 연합의진을 모색하였다.

권세연에 이어 음력 1월(양력 3월)에 대장직을 이어받은 척암(拓庵) 김도화(金道和) 의병장 이후에는 안동부 관할지역 뿐만 아니라 영일군 등 다른 지역지에서도 의병들이 참여하였다.

김도화 대장은 취임 직후 유능한 인물을 영입하여 진용을 정비하면서 최세윤(崔世允)을 좌익장(左翼將), 김도현(金道鉉)과 권옥연(權玉淵)을 부장, 서상열(徐相烈)을 군사, 이금연(李肯淵)을 종사관에 임명하였다.

최세윤(崔世允, 일명 崔世翰 호는 農臯, 1867~1916)은 흥해면의 학림(鶴林)출신으로서 1894년 동학농민군에도 참여했던 흥해 향리(房書記)였다. 의병정신이 투철했던 그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강제로 단행되자 원수를 갚고자 국내 각처 의병장의 통문에 호응하여 스스로 격렬한 어조의 격문을 만들어 동해의 각군에 발부하여 지역민의 입진을 호소하였다.

농고는 이듬해 1896년 같은 고을의 장상홍(張相弘), 정래의(鄭來儀), 이우정(李寓楨) 등과 함께 의병 수백 명을 모집하여 안동의진으로 달려가 의병장인 김도화에게 휘하 의병대오의 정제함과 군율의 엄정함을 보여 아장(亞將)의 직책(안동의진 左翼將)을 맡게 되었으며, 또한 예안의 의병장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 의병장과의 연결되어 군

무를 의논하여 지략과 능력으로 신임을 받았다. 1월 16일(양력 2월 28일) 상주 함창(咸昌)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공격한 바 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 후 일본세력의 후퇴, 김홍집내각의 붕괴, 단발령의 중지 등에 따른 고종의 의병해산조처로 대의를 내걸었던 의병들이 점차 창의 명분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의병활동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농고는 정래의 등과 함께 일군과 싸우기 위해 5월 하순에 영양군 일월면 오리(梧里)동에 가서 일월산에 진을 치고 있다가 동해안 일대에서 계속 항쟁하는 벽산(碧山) 김도현(金道鉉) 진영에 합세,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그 후 의진이 해산됨에 따라 향리로 돌아와 학림강당에서 인근 고을의 자제들을 교육하여, 방조(傍祖)가 되는 ‘농수(農叟, 崔天翼)선생문집(속집)’을 간행하면서 훗날을 기약하였으며, 1905년 12월 5일(음력 11. 9) 을사늑약 후 그는 산남의진에 참여하여 영일만 고장 의병항쟁의 큰 인물이 되었다.

한편 1896년 단오절에 기계(杞溪) 인비(仁庇)에서 경주연합의진이 결성되었다. 기계면은 예로부터 오랫동안 행정구역이 경주에 속한 고을이었다가 1906년 9월 흥해군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당시 경주의진으로 명명된 것이다.

경주연합의진은 단발령 이후 남한산성에서 의병을 모아 항쟁한 남한산성의진의 김하락(金河洛) 의병장이 남하하여 경주지역의 유림 김병문·이시민·서두표·박승교 등에 연합의진을 제의하여 결성된 의진이다.

김하락 의진은 2월 27일 경기도 이천(利川)을 출발하여 적과 싸우며 여러 지역을 거쳐 3월 27일 의성에 도착하여 의성연합의진을 이루어 각지에서 전투를 했다.

김하락은 참모 조성학(趙成學)의 건의에 따라 본진을 떠나 의성진영과 헤어진 후 입암(立岩)을 거쳐 5월 5일(양력 6. 15)에 기계 인비역에 당도하여 경주연합의진(이하 경주의진)을 추진하였다. 경주의진은 경주지역 유림을 주축으로 의성연합의진도 참여하여 결성되었으며, 본부 진용은 다음과 같다.

도소모장(都召募將) : 이채구(李采久)

참모장(參謀長) : 이준구(李俊久)·이종흡(李鍾翕)·장상홍(張相弘)·

이우정(李寓禎)·박승교(朴承敎)

좌선봉장(左先鋒將) : 서두표(徐斗杓)

우선봉장 : 홍병태(洪秉泰)

좌익장(左翼將) : 안옥희(安玉熙)

우익장 : 안재학(安載學)

중군장(中軍將) : 이익화(李益和)

후군장 : 김두병(金斗柄)

좌봉장 : 이용관(李容觀)

우봉장 : 이상태(李相台)

좌포장(左砲將) : 황성학(黃性學)

우포장 : 이시민(李時敏)

영술장(領率將) : 김병문(金炳文)

김하락의 《진중일기(陣中日記)》에는 창의대장직이 명기 되어있지 않으나 이천의진에서 출발하여 의성의진~청송의진~경주의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사불란(一絲不亂)한 지휘체제를 갖출 수 없는 연합의진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록 명칭은 쓰지 않으나 김하락 의병장이 실질적으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주연합의진 역시 김하락이 창의대장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도소모장 이채구는 신광인, 이종흡은 기계인, 참모장 장상홍과 이우정은 흥해인, 중군장 이익화와 좌봉장 이용관은 울산인이며, 그 외의 의사 중에는 죽장, 기계, 안강, 강동 출신이 있어 경주의진은 경주 북부지역인 오늘날의 포항 서남부지역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흥해 출신의 장상홍과 이우정은 원래 최세운 의병장을 따라 안동으로 가서 그곳 김도화의진에 편입되어 음력 1월 16일 상주 함창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였으며, 김하락의 《진중일기(陣中日記)》에서 “그들은 의지를 숭상하여 발을 싸매고 와서 투신하였다”고 하였다.

경주연합의진은 구 영일군(현 포항시)지역과 경주지역(오늘날의 기계·신광지역도 포함됨)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병사들도 《동경조일신문(東京朝日新聞)》에 ‘경주토민(慶州土民)’이 봉기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아 대개 농민층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이들은 나라를 위하여 사생결단으로 봉기하여 반상(班常)을 가리지 않고 청년전투대를 조직하였다. 의진의 조직을 정비한 경주의진은 5월 6일 안강벌로 나아가, 7일(양력 6.17)에는 조성학을 선봉으로 동문을 공격하여 경주성을 점령하였다.

이날 의진은 인리청에 진영을 마련하고, 이용관(李容觀)·최진엽(崔鎭曄)에게 동문, 이병원(李炳遠)에게 동소문, 황성학(黃性學)·오학문(吳學文), 이시민(李時敏)·박수한(朴壽漢)에게 서문, 김학문(金學文)·노성호(盧性浩)에게 북문을 지키게 하고, 4문 외에도 군막을 만들어 28개의 응성(甕城)을 세웠다. 또한 이준구로 동화(東華)면, 이종흡은 기계면, 김병문은 죽장면의 소모장으로 각각 삼아 의병을 증모하고, 유격대를 조직하여 싸우도록 했다. 달아났던 이현주(李玄澍) 군수가 10일(양력 6.20) 본군의 지원을 받으며 반격해왔다. 3일간 싸웠는데, 이번에는 탄환과 화약이 떨어지고, 김하락 의병장 군사를 독려하며 항전을 계속했으나 더 버틸 수 없게 되자 퇴각하였다.

12일에는 동문으로 퇴각하여 달성을 거쳐 기계의 면창(面倉)이르러 유숙하고, 14일 오전에 기계 이종흡 의병과 합류하여 신광 우각점(愚覺店, 牛角店)으로 후퇴하여 유숙하였다.

15일에는 이준구 소모장 등이 와서 대오를 정비한 후 곧장 흥해읍을 공격, 점령하였다. 다시 진영을 갖추어 인리청에 창의 본부를 설치하고 호장(戶長)·수리(首吏)·수교(首校)들을 불러, 피하지 말고 시키는대로 거행할 것을 분부하였다.

이튿날 본군 무기고에 들어가 탄약을 준비하고 2개 부대의 군사를 모집하여 양만춘

(楊萬春)을 포군 영솔자로 삼았다. 석양에 행군하여 5리 밖 흥해 용전(龍田)에 당도한 이후 어둠 속에 폭우를 무릅쓰고 청하에 달려가 진지를 정했다.

22일에 40리를 걸어 영덕읍에 도착하여 장교청에 진영을 마련하였다.(당시 청하·영덕·영해군은 안동부, 흥해·연일·경주군은 동래부에 속해 있었다.) 24일 영덕에서 의병 100여명을 모집하였다.

25일 김하락의 본대는 축산에 진주하고, 이상태, 이종흡, 장상홍은 2개부대의 군사로 청하에, 황성학·안만근(安萬根)은 2개부대의 군사로 흥해에, 이채구·이준구·홍병태는 5개부대의 군사로 영해에 진주케하였으며, 28일 비가 개이고 행군하여 영해로 들어가 장교청에 진영을 정하였다.

강원도 고성(高城) 이남은 민용호(閔龍鎬) 의병장이 점령한 바 있었으니 바야흐로 고성에서 남으로 영일만까지 동해안은 의병의 천하가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일본상선이 범접하지 못하였다.

이밖에도 연일 논곡의 신태주(申泰周)가 흥해에서 기병하고, 청하에서 김진규(金鎭奎)가 같은 고을의 이순창(李淳昌)·이창모(李昌模)·이도상(李燾相)·이기철(李基轍)과 함께 거의하고, 흥해의 이하정(李廈禎)이 김송몽(金松夢)·정천녀(鄭千汝)·서초간(徐初干)·김인수(金仁守)와 함께 거병하고, 그리고 죽장의 윤면익(尹冕翼)이 거의하여 동해안과 영일지역 일대는 의병의 기백과 행렬로 가득찼다.

김하락의 동해안연합의진은 6월 3일(양력 7월 13일)부터 대구에서 증파된 일본군과 합세한 부대의 반격을 받았다. 각 처의 의병도 모두 합세하여 영덕 오십천에서 대혈전을 벌였다. 그러나 의병들의 화승총으로는 일본의 신식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다. 6월 4일 끝내 패전하고 김하락은 탄환 두발을 맞아 중상을 입고 강에 몸을 던져 죽으니, 따라간 군졸들도 같이 물에 빠져 순국하였다.

남은 의병들은 다른 의진에 연합하기도 하고, 또는 산골로 들어가 후일을 기약하니, 10년 뒤 을사늑약(乙巳勒約) 직후의 산남의진(山南義鎭)으로 다시 일어났던 것이다.

3. 산남의진의 결성과 후기 의병 항전

1) 조직규모

산남의진(山南義鎭)은 을사늑약 직후 영천인 동엄(東廣) 정환직(鄭煥直, 1844~1907)이 고종의 밀지를 받들어 아들 단오(丹吾) 정용기(鄭鏞基, 1865~1907)와 함께 1,000여명의 의병으로 영천에서 거의하여 주로 경북의 영천·영일·청송 등지에서 활동한 영남의 대표적인 의진이다.

산남의진은 1906년 3월(음력) 영천 검단리(현 충효동)에서 거의, 의진명을 산남의진(山南義陣)이라 명명하였다. ‘산남(山南)’이라 함은 조령(鳥嶺)이남의 영남지방을 이른다.

정용기 창의대장(倡義大將)은 이한구(李韓久, 중군장), 손영각(孫永珏, 참모장), 정순기(鄭純基, 소모장) 등과 계획하여 제1기 전기의 의진조직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 (이후 제1대 정용기 대장 활동시기를 ‘제1기’, 제2대 정환직 대장 시기를 ‘제2기’, 제3대 최세운 대장 시기를 ‘제3기’로 대별하고, 제1기를 다시 정용기 대장이 체포될 때까지의 활동시기를 전기로, 석방되어 1907년 4월 이후 재기 활동시기를 후기로 나누어 서술한다)

〈본부 부서〉

창의대장 : 정용기	중군장 : 이한구	참모장 : 손영각	소모장 : 정순기
도 총 장 : 李鍾崑	선봉장 : 洪龜燮	후봉장 : 徐鍾洛	좌영장 : 李景久
우 영 장 : 金泰彦	연습장 : 李圭弼	도포장 : 白南信	좌익장 : 鄭致宇
우 익 장 : 鄭來儀	좌포장 : 李世紀	우포장 : 鄭完成	장영집사 : 崔基輔
군문집사 : 李斗圭			

〈내부기획〉

李韓久 · 鄭純基 · 孫永珏

〈각 지방 연락책〉

李圭弼 · 白南信 · 鄭完成 · 崔基輔 · 崔致煥 · 鄭鎮鶴 · 丁大厦 · 李蒼松

〈각 주군 활동책〉

영천 : 李壽寅 · 李亨杓 · 鄭致錫 · 鄭鎮英	
신령 : 權奎燮 · 成樂熙 · 成樂皞 · 皇甫觀 · 李斗圭 · 李河秀 · 楊錫溶	
흥해 : 崔世允 · 鄭來儀 · 趙性穆 · 金昌洙	
청하 : 李圭相 · 吳壽義 · 金榮默 · 金相奎	기계 : 李鍾崑 · 金泰煥 · 金鶴伊
죽장 : 安守元 · 林秉浩 · 金舜道	영덕 · 영해 : 具漢書 · 金太彦
영일 · 장기 : 金寅濩 · 朴敬化	진보 : 禹永祚 · 金一彦
청송 : 徐鍾洛 · 南錫球 · 南錫仁 · 林中虎 · 沈一之	
영양 · 봉화 : 李世紀 · 南錫佑	예안 · 안동 : 金石井 · 李景久 · 李相浩
比安 · 의성 : 朴泰宗 · 裴淵楫	군위 · 의흥 : 朴匡 · 趙景玉
하양 · 경산 : 鄭春日 · 孫善一 · 孫基燦	대구 · 현풍 : 孫亮允 · 孫亮祥 · 金道彦
청도 · 창녕 : 金聖極 · 朴文善 · 朴龍雲	울산 · 언양 : 金鎮賢 · 崔項祚 · 朴基東
영산 · 밀양 : 朴漢宗 · 權大震	지례 · 고령 : 鄭哲基 · 尹武建
인동 · 칠곡 : 張性愚 · 孫永穆	금산 · 성주 : 鄭煥汶 · 鄭煥集
상주 · 선산 : 梁濟安 · 孫益善	경주 : 洪龜燮 · 洪禹燮 · 徐中杓 · 曹相煥

정용기 대장을 비롯한 17명의 본부 부서장을 선임하고, 내부 기획 3명과 각 지방 연락 책임자 8명 및 남으로 밀양, 북으로 봉화·영양에 이르기까지 24개지역 각 주군 활동책임자 71명을 선발하여 진용을 갖춘 후 기계 운주산(雲住山)의 안국사(安國寺)에 집결하여 출정 고유제를 올렸다.

당시 포항권의 지역 활동 책임자로 흥해의 최세윤·정래의·조성목·김창수, 청하의 이규상·오수희·김찬목·김상규, 기계의 이종근·김태환·김학이, 죽장의 안수원·임병호·김순도, 영일의 장기의 김인호·박경화 등이 선임되었다. 정래의는 최세윤과 함께 10년 전의 전기의병때 안동의진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산남의진의 본부 부서장 17명 가운데 영일권(현 포항시 지역) 출신은 중군장 이한구(죽장), 소모장 정순기(흥해), 도총장 이종근(기계), 도포장 백남신(죽장), 좌익장 정치우(오천), 우익장 정래의(흥해), 장영수위 최기보(죽장) 등 7명으로 전체의 41.2%, 각 주군 활동책은 16명으로서 전체의 23.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참여한 의병수도 포항시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영천(현 영천시)은 의진의 발상지이나 부서장 수는 청송(현 청송군)과 같은 동수인 각각 3명, 지역활동책은 각각 11명과 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남의진이 비록 정환직·정용기 양세 대장에 의해 주도 결성되었다고 하지만, 의진 구성의 중심은 오늘날의 포항과 영천과 청송 주민들이었다. 세 지역 출신의 부서장은 모두 13명, 주군 활동책은 모두 34명으로 각각 전체의 76.5%와 47.9%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수뇌부는 포항지역 출신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말할 수 있다. 그 배경은 첫째, 산남의진의 구성원은 경상도 전역과 서울 등 원근지역에서까지 다양하게 참여하였으나, 의진 거의의 본산인 영천군 자양면이 오늘날 포항시의 죽장면과 청송군의 접경지역이었던 관계로 이 3지역의 출신 인사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었다. 죽장면 매현리(梅峴里)에 세거한 손(孫)씨와 청송군 현동면 월매리(月梅里)에 세거한 남(南)씨 문중들이 대거 참여하여 정환직 문중 다음으로 많은 의병들을 배출한 사실이 주목된다.

둘째, 포항지역은 고대로부터 동해안을 지키는 해방(海防)의 군사지역으로 나라와 겨레를 지키고자하는 충의정신이 남다른 고장이다. 포은 정몽주의 충절정신과 임진왜란 시 흥해의 정삼외·영일의 김현룡·장기의 이대임·청하의 윤락·기계의 김광복·신광의 이의택 등 여러 의병장과 수많은 의병들의 구국정신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까이 있는 산남의진 의거 10년전 약 300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을미년 전기의병에 참여한, 전술·전략이 뛰어나고 지역민의 신망이 두텁고 구국투쟁 신념이 투철했던 최세윤·정래의 등의 인사들에 의해 적극적인 의병소모가 가능했던 점이다.

셋째 산남의진의 총수라 할 수 있는 정환직의 동생 정환봉과 종질 정순기 등 가까운 인척들이 포함 지역에 다수 거주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세 지역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산남의진은 1907년 4월의 제 2차, 1907년 9월의 제3차, 1908년 2월의 제4차 본부부서와 지역활동책임자 수를 합하면 부서장급만 약 100명이나 되어, 조직·규모·활동면에서 영덕·영해를 중심으로 거대한 신돌석(申奘石)의진과 함께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의진이었다.

산남의진은 제1기 전기 단계에서 정용기대장이 의병효유(義兵曉諭)·해산책(解散策)을 내세운 대한제국 정부의 술책으로 정부군에 붙잡히게 되어 처음 계획했던 실질적인 의병항전은 1907년 4월 산남의진이 재결성 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2) 제1기 후기(정용기 대장 재기시)항전과 입암전투

(1) 정용기 대장기의 항전

아버지 정환직의 막후 교섭으로 5개월여의 옥중생활에서 풀려난 정용기는 병든 몸을 추스려 1907년 4월 재기의 깃발을 세우고, 각지에 요인과 격려문을 보내 의사들을 모아 부서를 개편하고 진용을 정비하였다. 제1기 후기의 중요 항전 개황은 다음과 같다.

- 1907년 7월 12일
야간에 청하를 습격하였다. 일본군을 해중(海中)으로 몰아내고 적 수명을 포살하고 분파소를 소각하고 무기를 몰수하였다.
- 8월 18일
이창송·정완성이 강릉부대를 대동하고 입진하였다. 이날 우포장 김일언이 침곡(針谷)에서 일본의 척후병 1인을 잡았다. 그 이튿날 운주산 안국사(安國寺)로 이진하고 포항을 진격코자 정보원들을 연해 등지로 파견하였다.
- 8월 24일
영천에서 분파된 일본군이 자양으로 들어온다는 정보를 받고 본진을 2대로 나누어 1대는 상구미(上龜尾)를 경유하여 검단으로, 1대는 신방(新坊)을 경유하여 노항(魯巷)으로 보내 일본군을 월연후원(月淵後原)에서 포위토록 하였다. 조금 지나 홍귀섭·우재룡 등이 일본군과 영천 관포(永川 官炮)를 생포하여 관포는 석방하고 일군은 참수하여 깃대에 매달아 지역민의 사기를 드높혔다.
- 8월 25일
약 300명 청하읍내 공격하여 적 1명을 포살하고 분파소(分派所) 및 관계건물 소각하였다.

산남의진의 항전개황을 보면, 전과를 얻는 경우는 주로 전면전이 아닌 유격전을 통해 소수의 일군경을 죽이거나 주둔 또는 토벌적병을 내쫓아 적의 분파소(分派所)나 관

계건물을 소각하고 무기고에서 총기를 노획하는 정도이지만 패전할 경우는 다음의 입암전투와 같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2) 입암전투의 참변

정용기 대장은 8월 29일 장병들을 각지로 보낸 후 본진 선발대 100여명을 인솔하여 죽장 등지에서 소모(召募)하다가 매현(梅峴)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30일 이른 아침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 장기(將旗) 2대가 일시에 뒤집혀 엎어졌다. 전군이 놀라자 정대장이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내가 죽어서 서울을 점령하고 일본세력을 내쫓는 징조라면 이에 순응할 것이며, 이는 대승의 징조라 하여 모두의 마음을 달래었다.

그날 저녁 적병이 청송으로부터 죽장 입암(立岩)에 도착하였다는 최후의 정보를 받았다. 이때에는 모든 부대가 북상준비를 위해 출장 중이고, 오직 본부를 비롯한 우재룡(禹在龍)·김일언(金一彦)·이세기(李世基) 세 부대만 있었다.

정 대장은 세 부장에게 각기 작령(雀嶺), 오암(鳴巖), 광천(廣川)의 길목을 막아 북병케 하고 자신의 본대는 이튿날(9월 1일) 새벽에 기습 공격하여 적을 섬멸하기로 하였다. 세 부장은 작전에 따라 북병지점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세기 부장은 입암 뒷산을 경유하여 광천으로 가다가 입암(立岩)에서 일군 수명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적의 병력이 많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작전지시를 무시하고 성급히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군의 취사반이었고, 주력부대인 영천수비대는 유리한 지점에 매복해 있었다. 결국 이세기 부대는 적의 북병에게 집중공격을 받아 패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고 간신히 도주하였다.

이때 매현에서 정보를 기다리던 정용기 대장은 갑작스러운 포성을 듣고 기밀이 누설된 것으로 알고 밤중에 급히 독려하여 입암으로 행군할 때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전초(前哨)가 적과 교전하였는데 승부를 분간할 수 없다.”고 하거늘 급히 입암으로 갔다.

정용기 대장을 비롯한 모든 산남의진의 의병들은 미처 상황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일군과 접전케 되었다. 밤은 벌써 초하룻날 삼경이라 칙흠같이 어둡고 캄캄하여 입암 원촌(院村)에 이르니 적들은 이미 돌벽에 의지하여 의병들의 백색의복을 분별하여 사격하니 적탄이 빗발같이 쏟아졌다.

정용기 대장은 전군을 독려하며 불리한 조건에서 이튿날 새벽까지 용전분투하였으나 참담하게도 이 격전에서 산남의진은 정용기 대장을 비롯한 중군장 이한구, 참모장 손영각, 좌영장 권규섭 등을 비롯한 지휘부의 핵심 부서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의병들이 장렬하게 전사했다.(1907. 9. 1)

이 전투에서 산남의진은 40여명의 인명손실과 함께 입암의 수십 가옥이 소실되고 수십명의 양민들까지 학살 당하고 가산과 재물을 모두 약탈 당함으로써 입암전투는 의병 패전 참화의 전국적 선례가 되는, 살신성인(殺身成仁)과 구국투쟁의 대의를 극명(克明)한 전투가 되었다. 이같이 의진이 패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산남의진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한말 의병항전사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포항 죽장면의 입암(立岩)전투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3) 정환직 대장기(제2기)의 항전

정환직은 정용기 대장을 비롯한 전사자들의 장례를 치른 후 전 장병들의 추대로 64세의 노구를 이끌고 아들의 뒤를 이어 대장직을 맡고, 음력 9월 3일~12사이에 본진을 보현산(普賢山) 주위 인근지대로 옮겨 흩어진 의병의 귀소지로 정하였다. 모든 장령 및 종사자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의병 소모(召募), 정보수집, 군기·군수품 조달 등을 통해 의진을 수습 정비하여 새진용을 갖추어 항전을 시작하였다.

당시 포항은 동해안 일대의 일본군 병력의 수송·주둔·작전 중심지역이 되고 있었다. 일본군의 대병력 이동과 주둔상황은 산남의진이 12월 7일(음력 11월 3일) 영덕에서 전과를 올리고 청하로 회군할 때 각 지역의 측후병들이 올린 보고를 통해서 확인된다.(《山南倡義誌》) 일본군은 의병진압의 어려움을 “선토(鮮土)의 기후는 하동(夏冬)은 길고 춘추(春秋)는 짧으며 한서(旱暑)는 격렬해서 야외행동이 적지 않은 고통을 느꼈고 또 촌락이란 어디서나 한빈(寒貧)해서 물자가 적고 교통 또한 심히 불편하였으므로 군수품의 조달 수송에 심대한 고전을 겪어야 했다.”(《朝鮮暴徒討伐誌》)고 실토하고 있음이 포항을 중심으로 일군의 병력증강과 해로수송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환직 대장은 일본군이 병선을 동원하여 동해안의 의병진압을 강화하고 있는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2기의 중요 항전은 다음과 같다.

•9월 22일

괘령(几嶺)을 넘어 흥해를 습격하여 적을 내쫓고 수명을 포살한 후 분파소를 소각하였다.

•9월 28일

신령읍을 진격하여 적을 패주시키고 함락하여 분파소와 기타 건물 등을 소각하고, 병기창고에서 엽총 400여정을 몰수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기뻐하여 소모에 지원하는 자가 수백 명이 되었다. 신령읍의 승전은 산남의진의 대표적인 승전지로 손꼽히고 있다.

•9월 29일

의흥읍을 진격하였다. 이 때 서문에서 적의 복병을 만나 급히 부대를 나누어 성을 에워싸 공격하여 적이 북으로 도주할 때 추격하여 다수를 죽였다. 적의 분파소와 기타 건물을 소각하고 무기 150여정을 몰수하고 신병을 모집하여 신병과 무기를 화산성에 보냈다.

- 10월 11일
해뜰 무렵에 흥해를 다시 습격하여 토벌군 수십 명을 사살하고 군기 수십 자루를 노획하였다.
- 10월 20일
정암(靜巖)을 출발하여 행군하던 중 일본군 척후 1명, 순검 1명을 사살하였다.
- 10월 29일
이동 중 일본군 척후 1명을 포살하고 서암(西巖)에 도착하였다.
- 11월 3일
전날 일본군 습격에 의한 남경숙(南敬叔, 錫述)의 전사에 분기하여 새벽에 의진을 3길로 나누어 영덕읍으로 진격하여 일군 4명을 죽이니, 적이 동문을 통해 바다 가운데로 도주하였다.

산남의진은 탄약이 부족하고 사면으로 적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성장들과 의논한 결과 경상도지방에서의 항전이 여의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의진의 본거지를 험준거령(險峻巨嶺)의 강원도로 옮겨 의진의 목표인 서울진공을 모색키 위해 부대를 일시 해산하여 북상(北上)을 계획하기로 결정하였다.

정환직 대장은 심복자 수명을 데리고 변장하여 관동지방으로 이동 중에 병을 얻어 청하 각전(角田) 촌가에서 이틀을 머물고 11월 7일(양력 12월 11일) 출발할 즈음에 일본군에 발각되어 사방에서 포성이 일어나고 많은 적에게 포위되어 결국 붙잡혔다. 체포된 후 영덕, 청하, 흥해, 포항, 경주, 영천, 하양, 경산 등지를 거쳐 대구에 도달하였다. 호송 도중 만단의 권유를 뿌리치자 다시 영천으로 이송되었다.

산남의진의 총수이자 제 2대 의병대장이었던 정환직은 마침내 11월 16일(양력 12월 20일) 비장(悲壯)한 절명시(絶命詩)를 남긴 후 영천 남쪽 교외에서 일본군의 총살로 순국하였다. 이로부터 산남의진은 구심점을 잃고 큰 시련의 단계를 맞게 되었다.

4. 제3대 최세운 의병대장의 항전기

1) 제3기 최세운의 입진활동과 의병대장 취임

최세운(崔世允, 1867~1916)은 일명 최세한(崔世翰) 호는 농고(農臯), 자는 성집(聖執), 관향은 흥해이다. 시조는 고려 때 휘(諱)가 호(湖)인 곡강부원군(曲江府院君)으로 25대조이며, 역대로 흥해에서 살면서 대대로 문한(文翰)을 계승해 왔다.

1867년 11월 10일 흥해의 곡성리(曲城里)에서 아버지 재순(再淳)과 어머니 경주 최(崔)씨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재주와 기상이 뛰어나고 성품이 단아

하고 강개하여 일대에 명망이 높았으며 약관 이후부터는 교육에 뜻을 두고 지방 자제들을 모아놓고 한문과 교양을 가르쳤다.

최세윤은 성장하여 향리(鄕里)에서 후학을 지도하면서 평소 다음과 같은 자세로 손오(孫吳)의 병서(兵書)를 비롯하여 천문·지리·음양술수(陰陽術數)·기정변합(奇正變合)의 법을 탐독하여 그 깊은 뜻을 깨우치고자 하였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고 선비는 나라의 원기가 된다. 선비가 세상에 나서 어찌 장구(章句)와 훈고(訓詁)사이에 몸이 늙고 시부(詩賦)나 편장(篇章)을 아름답게 꾸며서 영달을 구하고 국록을 흠치는 도구로 삼을 것인가 복파장군(伏派將軍) 마원(馬援)의 마혁과시(馬革裹屍)의 가르침이야 말로 오늘에 있어 선비의 가장 큰 의리이다.

그는 국권수호의 시대적 사명을 바로 인식하여 문(文)보다 무(武)로써 외세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병정신을 발현한다.

최세윤은 을미의병에 참여하였으나 그 때의 활동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게 되었다. 그는 의진이 해산된 후 고향 마을로 돌아와 학림학당(鶴林講堂)에서 인근 고을의 자제들을 모아 한문과 교양을 가르치고 방조(傍祖)되는 농수선생문집(農叟先生文集) 속집(續集)을 간행하면서 다시 때를 기다리게 되었다.

최세윤의 산남의진 참여는 을사늑약 직후 산남의진을 결성하기 위하여 향리에 내려온 정용기와 관계를 가지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관계란 정용기가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서 수십종의 격문(檄文)을 반포하고 여러 요인(要人)으로 하여금 활동을 전개할 시 거의의 친서를 이한구(李韓久, 의진 조직시의 중군장)편으로 전해 받고 아래의 답서를 보낸 것이다.

사모하는 회포 간절하옵던 차에 글월을 받자오니 위안이 되고 기쁩니다. 삼가 살피옵건데, 글월을 받자옵고 며칠이 지났사온데, 그동안 부모님을 모신 몸이 어떠하시며 합부인의 병환이 차도가 있으신지 궁금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한(世翰)은 세후로 종창이 온몸에 퍼져서 자리에 누운지가 수십 일이요 출입을 못하는 것이 한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내자가 일곱달째 되는 임신의 몸으로서 해소·천식에 속이 답답한 증세가 날마다 병발되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약속한 모임에는 마땅히 지시에 의하여 참석해야 할 것이지만 몸의 병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저와 같은 미약한 존재는 참석하고 앉는 것이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다만 한스러운 것은 높으신 가르치심을 저 버리는 것뿐입니다. 이번 출진에 방책이 이미 서 있지 않는 것이 아니겠지만, 모든 일을 신중하고 치밀하게 해서 웃음거리가 되기에 이르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상대방의 동정을 살피야 하며 경솔과 조급은 금물입니다. 성찰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은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당시 최세윤은 종창이 온몸에 퍼져 자리에 누워 출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임신 7개월의 부인까지 해소·천식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고로 산남의진 결성과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직 구국일념의 대의로 산남의진의 흥해지역활동 책임자로서 참여한 것이다.

흥해지역 활동책으로서의 역할은 1907년 4월 정용기대장 재거시(再舉時)는 물론 정환직대장 항전기에도 지속되었다.

비록 보행이 어려워 후방에 체류하면서도 1895년의 전기 의병정신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의 덕망과 자신의 뛰어난 전술로서 주변과 인근의 지기(知己)·친지(親知)들의 호응을 받아 의진의 의병모집(義兵募集)·무기수집(武器蒐集)·정보탐문(情報探問) 등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그 사명을 다하였다.

의진의 전 활동기간 중 흥해학림(興海鶴林)은 경북 동해안 일대의 실질적인 참모부로 최세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야전군사령관이나 다름 없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그가 의진의 본부에서 큰 직책을 맡지 못한 것은 물론 본부에 참여하여 활동 조차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대 의병대장에 취임할 수 있었던 사실과 의진의 활동 중 흥해 지방에서의 항전 횡수가 가장 많고 그 어려웠던 의병측의 승전을 흥해 지방에서 유독 수차례 얻어낼 수 있었던 사실에서 입증된다.

정환직대장이 제3대 의병대장으로 선임할 수 있었던 인물로는 정환직의 종질이며 정용기의 재종제로서 거의 초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신임이 두터웠던 의진의 3번째 서열 참모장(參謀長) 정순기(鄭純基)를 꼽을 수 있으나, 뜻밖에도 본진의 부서장도 아닌 서열이 훨씬 낮은 지역 활동 책임자인 최세윤(崔世允)이 대장으로 추대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세윤의 산남의진에 대한 기여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1·2기 양세 대장 때의 대표적인 승전지로 꼽히는 곳은 청하·자양·흥해·신령·의흥·영덕 등지이나 3회 이상의 승전을 거둔 곳은 흥해 뿐이다.

최세윤의 활약은 산남의진 측으로서는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능력과 공적이 산남의진의 총수 정환직을 비롯한 의진 지휘부의 주목과 인정으로 두터운 신망을 받았던 것이다.

정환직대장이 취임 초부터 “정환직공이 일찍이 모든 요인들을 모아놓고 우리 산남의진에서 최세윤(한)이 대장의 재목이라 일렀다” “東廣鄭公이 嘗謂諸軍曰 崔世翰이 有大將之才라 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산남의진의 제3대 대장후보로 물망에 올라 있었다.

정환직이 제2대 대장으로 취임하여 의진을 재정비하고 진용을 갖춘 후 9월 24일 북동대산(北東大山)을 출발하여 패령(掛嶺)을 넘어 경북 동해안지역에서 항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청하와 흥해 등지에서 큰 전과를 올린 후 10월 2일 보경사(寶鏡寺)에서

유진(留陣)하면서 부하 요인들에게 후임 대장으로 최세윤을 유촉(遺囑)한 것이다.

최세윤은 정환직 대장이 붙잡히기 전 입암전투 패전의 흉보를 듣고 불편한 몸으로 달려가 정용기대장 이하 여러 장병의 장의(葬儀)를 지내고 정순기를 비롯한 모든 부장들과 숙의하여 정환직을 대장으로 추대하였다. 그 후 산남의진이 청하와 흥해 지방에서 항전하게 되었을 때 병든 몸을 일으켜 정환직 대장을 측근에서 보필, 승전으로 이끌어 천곡사(泉谷寺)와 보경사에서 유진하며 의진의 장래를 걱정하는 등 자신의 임무를 다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남의진은 경상도지방에서의 항전이 여의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관동(關東)이동을 수행하던 중 정환직(鄭煥直)대장이 적에게 붙잡혀 영천 교외에서 총살형을 당하고 말았다.

산남의진은 의진 결성의 두 거목인 양세(兩世) 대장이 순국함으로써 의진 존폐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산남의진은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대비하여 이미 제3대 의병대장으로서의 후계자가 내정되어 있었다. 내정자 최세윤(崔世允)과 줄곧 본부의 핵심 부서장을 맡았던 의진의 산 증인인 정순기(鄭純基) 참모장 그리고 제 2기 본부조직에서 정환직대장 다음의 두 번째 지위에 있었던 이세기(李世紀) 중군장 등을 중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제4차 거의의 깃발을 들게 되었다.

산남의진 본부의 정순기 이하 모든 요인은 보경사 유진(留陣) 이후 향리에서 신병을 치료하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최세윤에게 연명으로 서한을 보내 의병대장으로서의 본부로의 합류를 간곡히 요청하였다.

마침내 최세윤은 하늘에 서고(誓告)하되 “내 만약에 자진(自盡)한다면 다른 날 지하의 제공(諸公)을 무슨 면목으로 대하리” 하고 신병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구국일념의 거의정신과 시대적 사명에 따르고자 1908년 1월 2일 배종자(陪從者) 2인과 함께 향리를 떠나 영천군 자양면 보현산(普賢山) 거동사(巨洞寺)에 당도하여 정순기를 비롯한 모든 장병의 영접을 받았다. 그날 밤 이세기가 일본군에 대한 정보를 받고 부대를 이끌고 출동하여 3일 정오에 광천(廣川)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때 박광(朴匡)이 전사하고 이규식(李圭植)이 중상을 입었다.

산남의진은 본부와 지역부대를 재정비하며, 다음달 2월 5일(양력 3월 7일) ‘제3대 최세윤 의병대장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최세윤이 의병대장으로 취임했을 당시의 전국의 의병활동 양상은 1907년 12월 13도의병연합부대(약 1만명)의 서울진공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13도창의대진소(13道倡義大陣所)가 해체된 후 각 의병진의 활동은 독자적이고 분산적인 지구전으로 이행되어 가고 있었다.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 감행된 일군경의 초토화전술(焦土化戰術)과 야만적인 살

육작전(殺戮作戰)으로 인해 민족적인 반일감정은 극도에 달하게 되고 따라서 의병항전은 최고조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 의병진은 최상의 전술인 유격전법(遊擊戰法)을 구사하기 위해 점차 소수부대 활동으로 분산되고 다원화되어 갔던 것이다. 산남의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산남의진의 제3기 활동영역은 제 1·2기 때보다 다소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정용기대장을 비롯한 본부의 핵심부장들이 입암전투에서 희생되고, 정환직대장이 순국하자 의진지휘부는 약화되고 지방연락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남의진으로서 새로운 전략과 이에 상응한 조직개편이 시급하였다.

이에 崔世允은 대장에 취임한 후 흠어져 활동 중인 각 지역부대를 일원적으로 통솔할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여 제장들과 협의하여 본진을 남동대산(南東大山: 吐呑山과 呑月山 사이 山)으로 이동하였다. 산남의진의 궁극적 목표였던 서울진공작전의 북상경영(北上經營)이 정환직 대장의 순국 후 중단된 상태에서 최세운 대장과 의진 본부는 경상도 1도(道)를 확보할 지구전과 유격전을 위해 제 3기의 조직개편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부 서

대 장 : 崔世允	중군장 : 權大震	참모장 : 鄭來儀	소모장 : 朴完植
도총장 : 李鍾崑	선봉장 : 白南信	후봉장 : 崔致煥	연습장 : 金聖一
좌영장 : 金聖極	우영장 : 洪龜燮	좌포장 : 崔基輔	우포장 : 李圭弼
장영집사 : 李圭相	군문집사 : 許書記		

활동지역과 책임자

활동지역	책임자	본거지
경주·울산·흥해·포항	최세운(崔世允)	남동대산
청송 동부	서종락(徐鍾洛)	주왕산
청송 서부	남석구(南錫球)	철령(鐵嶺)
영천 북부	이세기(李世紀)	보현산
영천 서부	우재룡(禹在龍)	팔공산
영천 남부	이형표(李亨杓)	구룡(九龍)산
신령	조상환(曹相煥)	화산(花山)
의성	박태종(朴泰宗)	춘산(春山)
군위	남승하(南昇夏)	효령(孝令)
청도 경산	임중호(林中虎)	운문산
경산 서부	손진구(孫晉球)	주사(朱砂)山
청하·죽장·기계	정순기·구한서(具漢書)	북동대산

상기 편성의 특징적인 현상은, 첫째 본부는 경주·울산·흥해·포항 등지를 담당하여 남동대산에 웅거하며 각 지역의 분대를 조종하도록 한 후 웅산거령(雄山巨嶺)에 담당 인물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 대한 전 책임을 담당하고 본부 연락을 받도록 하였다. 둘째 본부 부서에서 도포장(都炮將)과 좌익장(左翼將)·우익장(右翼將) 등의 직책을 폐지하여 본부의 조직규모가 축소되었고, 셋째 산남의진의 활동본거지가 양세 정대장의 제 1·2기에는 보현산(普賢山, 영천시 자양면 소재로서 포항시·청송군과의 경계 산)과 北東大山(포항시 송라면 내연산 북쪽에 소재하는 영덕군과의 경계산) 등의 지역이었으나 제 3기에 와서는 최세운 의병대장의 고향 흥해를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의 남동대산(南東大山)이 활동본거지가 되었고, 정순기·이세기·우재룡 등의 핵심 부장들이 본부의 중책을 맡지 않고 지역활동책임자로 역할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의병측이 일군경의 의병섬멸 작전으로 많은 의병장을 잃어 강력한 통솔력의 지휘부를 상실함에 따라 1908년경부터 활동비중이 높아진 지역부대의 정예화작업을 서둘러야 했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산남의진에서도 본부의 부서장으로서 또는 지역활동책으로서 지역사정에 밝고, 지역주민의 인지도가 높고, 지형의 이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해당 지역출신의 이름난 의사(義士)를 중심으로 유격항전이 구체화되었다.

제1기와 2기때 소모장과 참모장을 지냈던 정순기가 청하·죽장·기계지역을, 좌포장과 중군장을 지낸 이세기가 영천 북부지역을, 제2기 때 선봉장을 지낸 우재룡이 영천 서부지역을 맡으며 본부의 부서편성에서 제외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바야흐로 산남의진의 유격전술이 지역부대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편성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성의 하나는 최세운대장은 그동안 의진의 최고 서열에 있었던 정순기·이세기·우재룡 등과 함께 산남의진의 중추를 이루어 최세운은 흥해·포항·경주지역을, 이세기는 영천 북부지역을, 정순기는 청하·죽장·기계지역을, 우재룡은 영천 서부지역을 맡으면서, 산남의진의 주된 근거지가 산남의진 결성 때부터 중요하게 이용되었던 북동대산(北東大山)·보현산(普賢山) 이외에 남동대산(南東大山)이 추가된 사실은 산남의진의 활동 본거지가 최세운 대장의 주된 활동지 흥해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 구 영일군(현 포항시) 동해안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영일만을 중심으로 하는 포항시가 한말 의병활동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서 오늘날 포항시 정신문화의 버리로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산남의진은 일군과의 항전에서 전술상 첫째, 비록 지역부대 중심의 유격전법으로 크게 변모하였으나 산남의진 전체의 원활한 통솔을 위해 본부에 대한 지역부대의 정

보고환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체제가 “흥해군·청하군·영천군·청송군 부근 각 부락은 崔(최세운, 필자주)가 지휘하는 의군(義軍)의 행동구역으로 이상의 각 부락에는 일본군이 내(來)하였을 시는 주야의 구별 없이 의군에게 보고할 약속이 규정되어 있다.” 폭도에 관한 편책(《暴徒ニ關スル編冊》)은 것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최세운 의병대장은 산남의진 의병들에게 아래의 훈령을 내려 대일 항전의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①구체적으로 숙영시(宿營時)에는 2명의 보조를 배치토록 하고, 의심스러운 자가 근접할 시는 신속히 숙사(宿舍) 앞의 보조에게 통보하고 각 숙사는 언제나 출발할 수 있게끔 준비하여 일본군을 발견하면 마을 끝의 보조가 한 발의 총성으로써 위험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마을 끝의 보조는 그 부근 가옥에 일시 잠복하여 일본군의 통과를 기다려 본대와 합하도록 조치하였다. ②주간에 보조를 서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야간에는 검은 옷으로 바꾸어 입고, 우천시는 연(筵)을 머리에 쓰도록 하였다. ③만일 일본군에게 포로가 되어도 우리측 의군(의병)의 행동에 관하여는 하나도 자백치 말라고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는 자는 부모는 물론 그 친족을 모두 참하고 가옥은 소각한다고 경고하였다. ④의병수가 100명 이상 모였을 시는 일본병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기습하여 승리를 기도토록 하였다. ⑤자정 이후부터 3시 반까지의 사이는 일본군이 야습을 기도하는 시기이므로 보조가 엄히 경계하여 조는 일 없도록 명하였다. ⑥일본군이 변장한다고 하지만 걷는 모습을 보고 한 번에 한국인과 구별하여 판별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 폭도에 관한 편책(《暴徒ニ關スル編冊》)

주로 일반적인 전술상의 주의사항과 숙지사항에 대한 훈령이었으나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항목은 ④의 “의병수가 100명 이상 모였을 시는 일본병이 10명 이하일 경우에 기습하여 승리를 기도하라”는 훈령이다. 이 훈령에서 ‘10 : 1’이라는 의병과 일본군의 전력의 격심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전투 현상은 산남의진 항쟁의 전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바와 같이 의병들의 감투정신은 애초에 척왜를 통한 국권회복의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전투의 성패(成敗)는 초월했던 것이다.<不可以成敗而論義理也>

그리고 의병 수 외에 전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무기의 소지와 자금의 확보상태를 보면 당시 최세운 의병대장이 이끄는 산남의진이 4월 3일 영천군 자천면(慈川面) 정각(正閣)에 모인 의병 약 120명이 휴대한 무기는 화승총 약 80정, 엽총 15정, 칼 8자루였으며, 의병 30명이 영천 자양면 보현산 거동사(최세운이 의병대장으로 취임한 장소)를 출발하여 경주군 강서면(江西面) 대동(大洞), 안강면 육통(六通)을 경유하고, 달동(達洞)·세방(細方)·도목(道目)을 경유하여 기계면 인비(仁庇)에 도착할 때까지 각지에서 모금한 돈은 모두 한국 돈 75관(貫, 꾸러미)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하에

서도 산남의진 제3기의 활동은 최세윤대장과 각 지역 활동책(지역부대장)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측 기록인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경찰국편) 제3장(1908년 4월~12월)에 “안동 이남의 지구에 있어서는 적과 최성집(崔成執), 李四玉, 서주일(徐周一), 이만파(伊萬波) 등이 있어 각 150내지 50의 부하로 의성·안덕(安德)·포항 등에 출몰하여 약탈을 자행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본진과 지역부대의 연합작전은 거의 불가능하여 소규모 지역부대의 유격전이 주된 전술이었다. 성집(成執)은 최세윤, 사육은 이세기, 서주일은 서종락, 이만파는 윤부의(尹富儀)의 다른 이름이다.

2) 제3기 최세윤 대장기의 항전과 피체(被逮)

(1) 자료, 《산남의진유사()》

① 본인의 중요 활동(1908년 2~3월)

•1908년 1월 3일(음 1907. 11. 30)

약 60명 장기주재소 공격 : 적 1명 포살, 1명 부상, 주재소·우체소·세무분서 및 한인순사숙사(宿舍) 3호를 방화하였다.

•2월

북동대(北東大)분대로부터 일본군이 침하를 진격한다는 연락을 받고 본부가 지원 출동하여 기계에서 일본군과 충돌하였다. 본부는 기계 남부지역을 방어하고 운주산(雲住山)분대는 기계 북부지역을 방어하여 포위망을 설치하였다. 이에 일본군이 천장산(千丈山)으로 도주하다가 이리령(伊里嶺)에서 아군 복병과 충돌하여 피차 사상자를 내고 수성동(守成洞)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2월 하순

박완식(朴完植)이 신병을 모집하여 부대로 들어오던 마주(馬走)근처에서 일본군과 충돌하여 참패를 당하였다.

•3월 초순

일본군이 비학산을 목표로 하고 포위작전을 시작하므로 본부는 일본군을 달성(達城)평야로 유인하여 일대 격전을 벌여 비학산(飛鶴山)분대를 구원하였다.

•3월 중순

운문산(雲門山) 분대를 지원하여 3월 15·16일 양일간 일본군을 연속 공격하여 자인(茲仁)평야쪽으로 물리쳤다. 다시 일본군이 비학산과 운주산(雲住山)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므로 본부는 양산 분대를 지원하여 싸웠으나 비학산분대는 기북(杞北)에서 운주산분대는 기서(杞西)에서 패전하였다.

3월에 본부가 감포 해안에서 교전하여 적을 격퇴하고, 본부가 운주산부대와 협력하여 옥산(玉山) 근처에서 적을 격퇴하다.

본부에서 이같은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각 지역부대들은 개별적, 혹은 인근의 부대와 연합, 그리고 본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적인 항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지역 부대들의 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② 각 지역부대 전황(1908년 3~7월)

(3월)

- 구룡산(九龍山)부대가 아화(阿火)에서 교전하여 패하다.
- 토함산부대가 입실(入室)에서 교전하여 패하다.
- 본부에서 출동한 부대가 흥해 근처에서 교전하여 참패를 당하다.
- 북동대부대가 영양에 주둔하는 적을 격퇴하다.
- 정래의가 신병을 모집하여 입진하다가 흥해 근처에서 교전하여 참패를 당하다.
- 주사산(朱砂山)부대가 패전을 당하다.
- 구룡산부대가 패전을 당하다.
- 보현산부대가 영천북방에서 적과 교전하다.
- 청송 동진(東陣)이 청송에서 적을 격퇴하다.
- 청송 서진이 청송현서에서 적을 격파하다.
- 청송 동진이 청송에서 적을 격파하다.

(6월)

- 운문산부대가 자인, 청도 접경에서 교전하다.
- 청송 동진이 청송에서 적을 격퇴하다.
- 청송 동진이 진보에서 적을 격퇴하다.
- 청송 동진이 청송에서 적을 격퇴하다.
- 북동대부대가 영해에서 적을 격퇴하다.
- 북동대부대가 영양에서 적을 격퇴하다.
- 북동대부대가 일월산(日月山)근처에서 적을 격퇴하다.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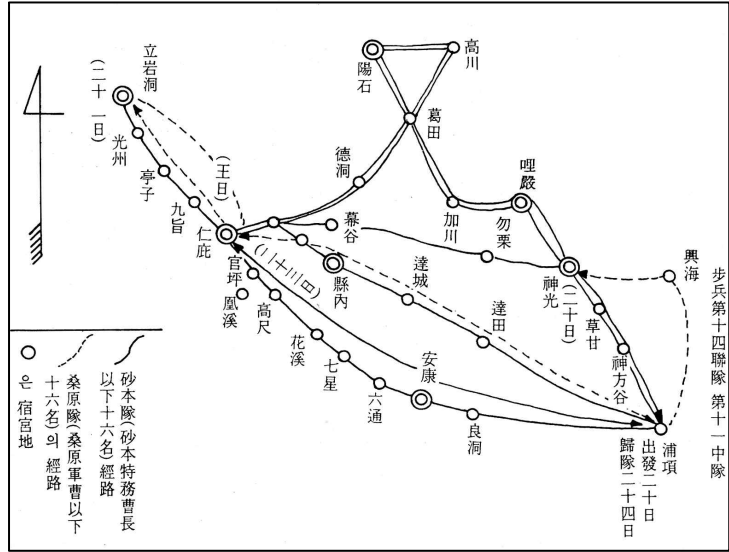
- 북동대부대가 영해로 출전하다.
- 북동대부대가 영양으로 출전하다.
- 북동대부대가 일월산에 침입하는 적을 격퇴하다.

비록 이 기간 중에 산남의진이 정용기·정환직대장 때의 입암(立岩)전투와 같은 패전으로 엄청난 손실은 입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진측이 승전으로 얻은 물리적 전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

따라서 의진의 일군경과의 항전에서 의진측이 얻은 물리적 성과는 제3기 때에도 제1·2기처럼 주로 적의 분파소나 순사주재소 및 관계기관을 급습하여 적 한 두명 내지 수명을 죽이고, 관계건물을 소각하고, 무기를 몰수하는 정도이며, 이같은 결과는 승전의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격전으로 의진측이 패전할 때는 항전의병수의 30% 이

상의 사상자를 내는 참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여기에서 국가와 민족을 사수코자 하는 산남의진의 대의명분이 물리적인 승패를 초월하여 ‘의중사유경(義重死猶輕)’이란 의진 지휘부의 의병정신을 구현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포항헌병대장의 주차군 사령부 보고에 “1908년 1월 13일부터 동년 8월 5일까지 영일군내의 교전



● 포항수비대의 정찰대 행동약도

16회 출전인원 1,036명, 전사자 254명”으로 되어 있어 그러한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당시 일본측은 전 지역에 변장순사대(變裝巡查隊)대까지 파견하는 등 각 지역 수비대(守備隊)의 정찰대(偵察隊)활동을 확장 강화하고, 동해안 인근 지역을 맡는 포항수비대 정찰대(浦項守備隊 偵察隊)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약도 지역의 수비와 정찰을 강화하였다.

1907년 12월 현재 경북 동해안지역의 영해·청하·흥해·영일·경주 등지에 각 보병 1소대 내지 2 소대를, 영덕·영양 등지에 각 보병 1분대씩을 배치하였으며, 1908년 5월에는 울산·영천에 각 보병 1중대를, 자인·하양·아화·장기 등지에 각 보병 1분대를 배치하였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4월경에는 의병측이 영덕에서 참패를 당하였다. 한달 남짓 산남의진의 활동이 거의 중단되는 상태에서도 5월 상순 최세윤대장을 비롯하여 이세기·서종락·윤부의 등의 부대장이 의성·안동·포항 등지에서 일지군(一枝軍)을 인솔, 향전하였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산남의진은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면서 7월까지 경상북도 전역에서 활동하였는데, 특히 이 시기의 주된 활동근거지로 영일군을 중심으로 청송군·경주군이, 격진지로는 흥해·청송·영덕이 꼽히고 있다. 이는 최세윤 의병대장의 향리가 흥해지방이며 그의 평소 정보활동무대가 영일군이 주가 되었던 점이 대장취임 후 산남의진의 본부활동에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최세윤이 의병대장으로 취임하여 체포될 때까지의 본부의 주된 활동경로는 다음과 같다.

보현산(普賢山) 거동사(巨洞寺)→남동대산(南東大山)→기계 남부→달성(達城)평야
→경산 자인방면→기북·기서(杞西)→흥해→감포해안→안강 옥산→의성지역→
동해방면 장기지역

최세운 의병대장은 그동안 지역부대 중심의 유격전술로 싸우면서 400여의 의병을 모집하여 흥해·청하·영덕·청송·영천·의성 등지에서 일군경과 결사적 항전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의진이 남동대산으로 옮긴후 각 지역부대들이 요청하기를 본부가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연락이 불편하다고 하여 본부를 의성 춘산으로 이동하던 중 의성지역에서 일본군을 만나 전투를 벌였으나 참패했다. 본부는 다시 남은 인원을 이끌고 동해방면으로 돌아와서 장기지역에 근거를 두고 각 지역부대와 연락 활동하던 중 1908년 7월 최세운 대장이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최세운 대장의 체포로 의진의 본부가 와해됨에 따라 지역부대들은 구심점을 잃고 해산 또는 개별적 항전을 도모할 수 밖에 없었다. 몇몇 부장들이 자신의 지역부대로 소규모의 산발적인 항전을 벌이며 그 명맥을 유지하였는데, 팔공산 일대의 우재룡 부대, 운문산 일대의 임용상(林龍相)부대, 그리고 보현산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한 이세기 부대 등이 대표적이다. 그들도 체포 또는 전사하거나 아니면 부상하여 산속으로 숨어들어 갔으니 이러한 현상은 의병항전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을 같이 하여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과도 흡사하였다.

산남의진은 최세운 의병대장이 붙잡힌 1908년 7월경, 최악의 고비를 맞이하였다. 이후 진세는 크게 위축되어 의진으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자료에도 그의 피체 날짜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위의 달은 대구검찰청 판결문의 “1908년 음력 2월에서 7월까지 활동하였다는 사실”과 《매천야록》의 융희(隆熙) 2년(1908) 무신조(戊申條) 의보(義報) 중 경북지방의 의성·흥해·영천·청송·옥산·영덕·상주·진보(眞寶)·영해·감포 등의 활동지명이 2월에서 7월까지에만 한정되어 나타난 바를 근거로 하여 추정한 것이다.

산남의진의 활동이 8월 초까지 진행되었으나 최세운대장이 체포될 때까지로 잡을 수 밖에 없는 것은 그의 피체로 산남의진은 구심력을 잃고 이세기(李世紀)·서종락(徐鍾洛)·우재룡(禹在龍) 등 이 이끄는 지역부대들이 뿔뿔이 흩어져 산발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산남의진의 공식적인 활동은 사실상 종식되었다. 그러나 그 후 잔여 의병들은 국내에서 몸을 숨기거나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과 합류하여 활약하였으며, 투옥됐다 출옥한 우재룡 등은 다시 대한광복회에 참여해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이 산남의진은 세 대장의 순국 후에도 투철한 구국정신과 결사적 항전은 1910년 일제강점 이후 전개되는 항일 독립운동의 이념과 투쟁으로 승계 발현하는 원동력이 된데 큰 뜻이 있다.

최세윤 대장은 1908년 7월 장기군(長鬐郡) 내남면 용동(龍洞, 현 경주시 양북면 소재)에서 피잡되고 말았다. 그는 청하로 압송 도중 兄山江에 다달아 자진(自盡)을 결심하고 강물에 투신하였으나 일본경찰과 보조원들의 급구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최세윤 의병대장은 청하헌병분대(淸河憲兵分隊)에 구치되었다가 대구로 압송되어 3년간 갖은 회유공작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1911년 11월 15일 대구 지방재판소에서 10년형의 언도를 받았다. 이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이수되어 8년의 옥고를 겪은 후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없음을 알고 11일간의 단식을 계속하다가 1916년 8월 9일, 50세의 일기로 순국하였다. 당시 옥고를 치르고 있던 한말 의병장들은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때 소위 은사령(恩赦令)에 의해 의병장들이 감형 또는 석방되었으나 최세윤 대장은 이후 6년간이나 더 복역을 한 것으로 보면 일본이 그를 중죄인(重罪人)으로 다루어 장기간의 옥중항쟁이 얼마나 극심했으며 살신성인(殺身成仁)과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의병정신이 얼마나 투철했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최세윤이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누구보다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 누구보다 긴 기간에 걸쳐 신명을 다하여 마침내 산남의진의 제3대 의병대장이 되어 그 역할을 수행 중 일군경에 체포되어 청하로 압송될 때 남긴 “나라가 파하고 집이 망한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는데 아직도 실날같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늘에 부끄럽다. 대장부 이로부터 돌아갈 곳을 알았거니 은(殷)나라에 백이숙제(伯夷叔齊)가 있고 제(齊)나라의 전횡(田橫)이 있었네”(<國破家亡已有年 尙存一縷愧蒼天 丈夫自此知歸所 殷有夷齊齊有田>)라는 시와 그의 부인과 아들의 행적에서 잘 밝혀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8년 3월 1일 최세윤 의병장의 애국정신과 항일투쟁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建國勳章) 3등급 독립장(獨立章)을 추서하였으며, 1976년 10월 26일 흥해 松鶴洞(현 학전리) 공동묘지에 장례되어 있던 묘를 부인 윤영덕 여사의 묘와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國立墓地, 독립유공자 165호)로 옮겨 합장하였다.

3) 최세윤 대장 일가의 천하삼절(天下三絶)

산남의진의 특성의 하나로 부각되는 세 대장의 충효사상(忠孝思想)을 들 수 있다. 제 1대 정용기대장의 입암 전투에서의 장렬한 전사, 아들의 피 무덤을 딛고 64세의 노구로 제 2대 대장직을 수행했던 정환직 대장의 거룩한 순국, 실제 산남의진의 야전군사령관이었던 제3대 최세윤대장의 항전과 8년간의 격렬한 옥중항쟁 및 숭고한 옥사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국적 충절을 크게 고취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산남의진 지휘부의 충의정신은 최세윤 일가에 의해 열(烈)과 효(孝)로 구현됨으로써 더욱 빛나게 되었다. 최세윤 대장의 부인 파평윤씨 尹永德여사(尹世老의 딸, 1868~1917. 7. 1)와 장자 산두(산두, 1888. 7. 22~1912. 9. 9)의 다음과 같은 행적이 그러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부인 윤씨는 일찍이 공의 뜻을 체득하여 어린 아이를 업고 경성의 감옥 가까에서 품 팔이를 하여 사식(私食)을 올려 남편으로 하여금 원수의 음식을 받지 않게 하였고, 공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뜻이 있음을 짐작하고 약간의 명주와 마포를 미리 준비하여 남편이 죽음에 연습하는 도구로 삼았으며, 연습한 시체를 이고 천리길을 내려오며 노숙 중에도 잠시도 땅위에 내려놓지 않았으며, 간신히 시골에 반장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큰 아들 산두는 공이 왜적을 피하여 종적을 감추었을 때 청하헌병 분대에 구속된 바 되어 공의 소재를 알기 위해 고문하여 형벌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으며, 대구에 이수되어서도 여러번 혹독한 매질을 당하였으나 끝내 항거해서 굽히지 않고 죽었다.(《山南義陣遺史》, 335쪽,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 1, 의병항쟁재판기록, 437쪽)

윤씨부인은 남편의 큰 뜻을 받든다는 열(烈)의 일념으로 객지에서 8년간의 갖은 고생의 옥바라지와 순국한 남편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천리 길의 흥해로 반장(返葬)하였다. 이후 병을 얻어 이듬해 7월 1일 순절하였다.

최세윤 대장의 장자 산두(山斗)는 1908년 9월 30일 대구지방법판소에서 폭도(당시 재판판결문에서 의병들을 폭도로 표기함)의 죄목으로 종신형을 받고 투쟁 중 1912년 9월 9일 24세의 꽃다운 나이로 옥중에서 순절하였다.

최세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忠’으로,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烈’로, 아들은 부모를 위해서 ‘孝’로서 천하 삼절(三絶)을 실현한 것이다. 이는 당시 전통적인 윤리가치관의 최상위 이념인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삼강이 한 가정에서 승화된 보기 드문 귀감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최산두(崔山斗)가 아버지의 구국대의(救國大義)를 좇아 일본 군경의 모진 고문을 견디며 옥중투쟁으로 순국하는 데에서 백행(百行)의 근본인 효(孝)의 극치를 발견하게 된다.

세 대장의 의병정신인 충효정신·충군애국정신과 최세윤 일가의 천하삼절(忠·烈·孝)의 가치관은 오늘날 후손에게 애국과 부부의 참사랑과 효도의 참가치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교훈과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이름 없이 산화(散華)한 여타 산남의진의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대의(大義)에서 나라와 국민의 존재가치 및 지역 향토인의 긍지를 재인식하게 된다.

5. 장기의진과 장헌문 의병장 활동

장기는 해방(海防)과 유향의 고장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의병들의 활약이 컸던 곳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국방의 위기를 맞아 정부의 모병에는 소극적인 민중들이 스스로 향토와 국토의 방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당시 장기의 서

극인(徐克仁), 이대임(李大任), 서방경(徐方慶) 등의 의사는 문묘에 들어가서 오성(五聖)과 팔현(八賢)의 위판(位版)을 용암(龍巖)의 석굴에 안치하고, 의병 수백명을 모집하고 관군과 합세하여 장기성을 방어하였고, 경주로 달려가 경주성 탈환에도 참여하였다.

한말 병인양요(1866)로 서양 세력의 침투가 있자 이를 경계하기 위해 세운 대원군의 척화비가 온전하게 보존된, 어느 지역보다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국방의식이 투철한 고장이다.

이후 외세의 침투가 노골화되어 1905년 12월 일본과 을사늑결로 국권이 약탈되어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봉기할 때, 충의의 고장으로서 전통을 지녀온 장기인들은 산남의진 최세운의 휘하 의병들과 함께 구국의 횃불을 들었다.

장기지역의 원로로서 1908년 1월 장기순사 주재소 습격에 참여하고, 장기의진 결성에 장헌문을 도와 산남의진과의 연락을 담당하였으며, 이러 사실이 적에게 탄로나 만주로 피신해야만 했던 정치익(鄭致翼, 산남의진 정환직 총수의 14촌, 당 57세) 의병과 장기와 경주방면에서 활약하였던 장기의진(長髻義陣)의 장헌문(蔣憲文) 의병장을 비롯하여 이름 없이 산화한 산남의진과 장기의진 의병들의 항일투쟁은 이 고장의 충절유풍을 유감없이 발현하였다.

1) 장헌문 의병장 활동

장헌문(蔣憲文)은 1870년 5월 9일 장기현 서면 죽곡리(竹谷里, 현 竹井里)에서 탄생하였으며, 자는 무장(武章)이며 호는 뇌헌(磊軒)이다. 성장하면서 지기(志氣)가 고결하고, 한학에 능하고, 충효의 대의에 투철하였다.

그는 1895년(고종 32)의 명성황후시해와 단발령으로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하자 1896년 장기에서 전기 의병항전에 참여하였으며, 1905년 일제에 의해 을사늑결이 체결되어 국권이 침탈됨을 보고, 이듬해 1906년 5월 고향 장기에서 거의하였다.

장헌문은 김재홍(金載洪)·김종호(金宗號)·김복선(金福善)·이태이(李太伊)·정만춘(鄭萬春)·최봉학(崔鳳鶴)·이무범(李武範)·최용이(崔用伊)·장치일(張致一) 등의 동지들과 함께 300여 의병을 모아 장기의진을 결성하여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었다.

장기의진은 장기를 장기의진의 거점으로 하여 경주와 인근지역에서 일군경과 향전함으로써 산남의진과 기각지세(掎角之勢)로 공동전선을 이루어 의진의 위세를 더 높였다.

열악한 상황에서 적과 맞서 용전분투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막강한 일군경의 화력 앞에 많은 의병들을 잃고, 불행하게도 그는 1908년 5월 7일 총상을 입고 장기 내남면 공동(公洞)에서 동지 8명과 함께 일군경에게 붙잡혔다. 1908년 10월 7일 대구재판소에서 10년형의 언도를 받아 복역을 마치고 1918년 12월경 출소한 이후 구룡포읍으로 이주하여 후학을 양성하며 국권회복을 염원하였다. 그러나 1926년 1월 25일 옥고

의 여독으로 조국의 광복을 못본채 56세로 운명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공의 애국정신과 항일투쟁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1990년 12월 26일 건국훈장 애국장(694호)을 추서하였으며, 1993년 10월 13일 장기 죽정리 선영에 장례되어 있던 묘를 대전 국립묘지(독립유공자묘역)에 이장하였다.

의진의 동지들로서 장헌문과 함께 일군경에 잡히었던 김재홍(27세, 장기 내남면 용동)과 김복선(38세, 장기 서면 박곡동)은 7년형, 장치일(36세, 울산 두북면 태중동)은 5년형, 김종호(52세, 내남면 내곡동)은 1년형, 그밖의 이태이(17세, 내남면 내곡동)·이무범(21세, 경주 남동면 야촌동)·정만춘(30세, 장기 동면 동동)·최봉학(27세, 동면 권리)·최용이(29세, 연일 읍내) 등은 2년형의 연도를 받았다.

이들 외에도 고로(故老)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헌문 의병장의 휘하에서 의병활동을 하던 이종하(李鍾夏)는 의병장이 체포되자 몸을 숨긴 후 아직까지 생사를 모른다고 한다. 오종운(吳宗運), 이종동(李鍾東), 오종규(吳宗奎), 황보용(皇甫庸), 오종갑(吳宗甲), 오진정(吳鎭呈), 오형목(吳衡木) 등도 장기의진에 군량과 무기를 원조해준 사람들이라 전한다.

2) 산남의진과 장기의병

산남의진(山南義陣)은 고종황제의 밀지를 받은 시종신 정환직이 1906년 3월 영천 자양면 검단리(현 충효동)에서 영천군·영일군·청송군·경주군을 비롯하여 남으로 울산, 북으로 봉화에 이르는 1,000여명의 의병과 함께 결성하였으며, 1908년 가을까지 영남의 대표적인 의진으로 일군과 항전하여 민족정기를 더 높였다.

1906년 3월 산남의진(정용기 대장 전기)의 첫 진용을 갖추는 때 영일과 장기지역의 활동책임자로 김인호(金寅濩)와 박경화(朴敬化)가 선임되었고, 이창송(李蒼松)과 정완성(鄭完成)은 서울에 보내 정환직 총수에게 산남의진의 사정을 알리고 강릉부대와 연락토록 하였다.

1907년 죽장 입암전투 직전 8월 하순 의진의 강원도 북상(北上)준비를 결정하여 김학(金鶴)을 최세운에게 보내서 남동대산(南東大山) 유격대에 북상결정 사실을 연락케 하고, 정완성을 장기로, 이종근(李鍾崑)을 흥해로 보내 유격대의 북상을 준비토록 하였다.

정환직 대장 때 박경화는 교외집사(交外執事), 정완성은 통모종사(通謀從事)의 부서장이 되었으며, 박경화는 정탐을 위해 대구 등지로 파견되고, 정완성은 영해진에 연락을 맡기도 하였다. 이러한 산남의진 양세 대장기의 조직과 활동을 보면 여타 의진과 같이 일본 수비대를 비롯한 일군경과 절대의 열세로 항전하는 상황으로 의진에 있어서 정보수집과 첩보전은 가장 중요한 전술의 하나였다.

여기에서도 앞의 최세윤 대장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그는 영일만 동해안 일대의 정보와 첩보전의 대부였음이 잘 들어난다. 비록 흥해지역 활동책임자로 활동했지만 실제로는 동해안 일대 특히 장기지역과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사들과 폭넓은 연고와 인맥을 맺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둘째, 이러한 배경으로 최세윤이 제3대 대장으로 추대되기 직전이지만 1908년 1월 3일(음력 11월 30일) 산남의진 최세윤 휘하의 장기의병 약 60명으로 장기주재소를 공격하여 산남의진과 장기의병들의 자랑스러운 승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 군경은 최세윤을 장기주재소 공격의 주모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장기의진의 활동기간이 최세윤이 의병대장으로 취임한 후 산남의진의 본부로서, 포항·장기·경주의 지역활동 부대로서 거점을 남동대산으로 옮겨 유격전을 전개한 기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 의진이 공조를 취했고, 장현문과 휘하 의병들의 체포로 장기의진이 곧 구심점을 잃었을 때에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최세윤 대장이 이끄는 산남의진에 참여하여 수개월동안 구국의 대의를 이어 항전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

넷째, 제1대 정용기 대장 때의 장기지역의 연락책임자 박경화는 제2대 정환직 대장 때는 교외집사의 부서장이 되고, 정환직 대장 때에는 정완성을 장기지역 연락책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장기와 관련이 있는, 지역의 정보와 첩보에 밝은 인물들로서 중책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장기의진의 실체와 박경화와 정완성의 장기에서의 활동 공적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길 바란다.

3) 장기주재소 공격과 그 밖의 전황

(1) 장기 주재소 공격

1908년 1월 3일(음력 1907년 11월 30일) 산남의진의 포항·흥해·경주지역 활동책임자였던 최세윤(다음 달에 제3대 의병대장이 되었다.) 의진의 이춘화(李春花)를 비롯한 의병 백 수십 명이 장기 순사주재소(巡査駐在所)를 공격하여 한국인과 일본인 순사 수명을 죽이고 총을 약탈한 뒤 주재소, 우체소 세무분서 및 한인숙사(宿舍) 3호를 방화 소각하였다.

(2) 이춘화 의병의 활약

이춘화(李春花, 대구군 서면 삼산동, 52세)는 1907년 11월~1908년 4월 최성집(崔成執;崔世允의 다른 이름) 의병진에 속하여 경북 장기에서 화약 운반 및 수비대와 경찰의 동정을 정찰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고, 장기순사 주재소를 습격하여 한국인·일본인 순사 수명을 처단하고, 흥해와 기계지역에서 금품을 모으는 등의 활동을 벌

이다 체포되어 1908년 9월 4일 종신형을 받았다. 판결문(대구지방법판소, 1908.9.4)에 나타난 그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07년 11월 20일 경 적과 崔成執의 배하에 속하여 화약 운반 및 수비대, 아울러 경찰의 동정을 정찰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작년 음력 11월 30일 경 최성집의 當 1백 수십명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장기군 장기순사 주재소를 습격하여 한국인·일본인 순사 수명을 죽이고 총칼을 약탈한 뒤에 방화하여 數戶를 소각하였다. 또 피고는 본년 4월 25일 그 도당 6명과 함께 총기 4정을 휴대하고 흥해군 擔溪面 李萬洞 어느 집으로 침입하여 돈 40냥을, 동일 동면 淑後洞 어느 집으로 침입하여 돈 40냥, 또 이날 오후 동면 文星洞 어느 집으로 침입하여 돈 2백 냇을, 동 5월 중 같은 마을 洪斗洞 집에서 돈 3백 냇을 탈취하였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장기인들이 장기의진을 결성하기 전부터 이미 산남의진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판결문에서 비록 정치익·장헌문 등 장기인들의 실재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전해오는 고로(故老)들과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순사주재소 공격에서 장기 지사들이 의병에 가담하여 산남의진의 의병과 함께 적과 싸워 공을 세웠음을 유추할 수 있다.(이춘화 의병은 항일투쟁의 공로로 2006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애국장을 추서 받았다.)

(3) 기타 1908년의 전황(산남의진 최세윤 의병대장기의 전황 참조)

- ① 1월 7일 : 의병 60여명이 장기군 수비대를 습격하여 일본인 순사를 죽였다.
- ② 1월 14일 : 의병 50여명이 장기군에 돌입하여 세무서, 경무분파소, 우편취급소 등을 소각하였다.
- ③ 1월 20일 : 경주북방70리 전투에서 의병 100명 중 27명이 전사하였다.
- ④ 1월 21일 : 경주북방80리 전투에서 의병 50명 중 11명이 전사하였다.
- ⑤ 3월 21일 : 경주동방40리 전투에서 60명 중 54명의 사상자가 났다.
- ⑥ 4월 10일 : 경주동방50리 전투에서 50명중 39명의 사상자가 났다.
- ⑦ 5월 11일~13일 : 경주군 내에서 대구 경찰관과 싸워 의병 1명이 전사하고, 2명이 체포되었다.
- ⑧ 5월 19일 : 장기 서남방 약 30리 떨어진 곳에서 의병 약 50명은 포항수비대와 마주쳐서 의병장 이하 20명이 전사하고, 2명은 체포되고, 약간 명이 부상을 당하고, 총 28정 및 기타 약간을 빼졌다.
- ⑨ 6월 14일 : 의병들이 장기에서 싸웠다.
- ⑩ 7월 14일~15일 : 장기 남방 약 70리 떨어진 곳에서 장기분견대 중위 이하 9명과 싸워 7명이 전사하고 총 4정을 빼졌다.

포항지역 의병 공훈 표창자 인물록(36명)

성 명	공훈등급	연 도
강대근(姜大根, 大參)	애 족 장	1990
곽덕산(郭德山, 德允:重泳)	애 족 장	2000
곽이조(郭二祚)	애 족 장	1990
구한서(具漢書)	애 족 장	1990
구회수(具會守, 亨玉)	건 국 포 장	2007
권대진(權大震)	애 국 장	1990
권청송(權靑松)	애 족 장	2008
김상구(金相龜, 高城: 相奎)	애 국 장	1991
김윤진(金潤鎭, 泰煥)	애 족 장	1990
김창수(金昌水)	건 국 포 장	1995
민시식(閔時植, 大平)	애 족 장	1990
박기운(朴基運)	애 국 장	2008
박치윤(朴致允, 致先)	애 족 장	1995
백영촌(白永村, 永根, 南信)	애 국 장	1990
손수용(孫秀用, 秀仁)	애 국 장	1990
손수조(孫秀祚)	애 국 장	1990
손영술(孫永述)	애 족 장	2000
양제안(梁濟安)	애 국 장	1990
윤응원(尹應元)	애 국 장	1990
이규성(李圭成)	애 족 장	1990
이상호(李相浩)	애 국 장	1990
이종흠(李鐘翕)	애 족 장	1990
이준구(李俊久, 濬久)	애 국 장	1990
이진규(李晋奎)	애 국 장	1990
이창순(李昌淳)	애 국 장	1991
이춘화(李春花)	애 국 장	2006
이한구(李韓久)	독 립 장	1963
장헌문(張憲文)	애 국 장	1990
정상득(鄭尙得, 成郁)	애 족 장	1990
정진한(鄭鎭漢, 純基)	애 국 장	1990
조성목(趙性穆)	애 족 장	1990
최돌이(崔丕伊, 聲七)	애 족 장	1990
최세윤(崔世允, 世翰)	독 립 장	1968
최재문(崔在文)	애 국 장	1996
최차돌(崔且丕, 景七)	애 족 장	1990
최치환(崔致煥)	애 족 장	2000

6. 영일군 지역의 3.1운동

33인의 민족대표자들이 고종의 장례날을 이틀 앞둔 3월 1일 태화관(泰和館)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였고, 학생들은 탑골(파고다)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면서부터 그동안의 국내외 산발적인 독립운동은 마침내 한국 역사상 최대의 민족운동인 3.1운동으로 융합, 발전하여 전개되었다. 특히 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평화적인 대한독립만세의 시위운동은 삼시간에 중소도시와 농촌 등 전국 방방곡곡에 파급되었음은 물론 멀리 만주와 연해주 등 국외로까지 번져나갔다. 이제 민중운동화 단계로 접어든 3.1운동은 남녀·노소·직업·종교·사상·지역에 구별됨이 없는 거족적인 독립운동으로 확대되어 참가인원이 200만여 명, 시위와 폭동회수가 1,500여회에 이르고, 전국 218군 중 211군이 이에 가담하였다.

영일군(현 포항시)의 3.1운동은 경북에서 대구(3월 8일) 다음으로 빠른 3월 11일 포항면민(浦項面民) 만세시위에서 비롯되어 3월 12일까지 계속되었으며, 3월 22일에는 청하면·송라면민의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4월 1일에는 연일면을 비롯하여 동해, 지행(현 장기), 오천, 대송, 달전 등 각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4월 2일에는 기계면 뒷산에 봉화가 오르면서 죽장면에서부터 일어나서 신광·청하·송라·흥해 등 각 면, 각 동에서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밖에도 사례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서 영일군 3.1운동 시위 횡수가 9회, 참가 연인원 2,900, 사망자 40, 부상자 380, 피검자 320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소 시위가 여러 차례 전개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1) 포항면의 3.1운동

포항의 3.1운동은 기독교인과 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어 경북에서는 대구 다음으로 빠른 3월 11일에 전개되었다.

포항동에 거주하는 포항교회(현 포항제일교회) 장로 송문수(宋文壽)는 대구에서 대한독립만세 시위운동자로부터 독립운동의 취지를 듣고, 3월 9일 집으로 돌아와서 동교회 영수(領袖) 장운환(張雲煥, 사립학교 영흥학교 교사), 집사 이봉학(李鳳鶴), 교인 이기춘(李基春) 외 1인을 비밀히 만나, 나라 안팎의 정세와 전국 각지에서 불꽃같이 일어나는 만세시위운동의 취지와 배경을 알리면서 대구에서 전개된 것과 같은 3.1운동 만세시위를 모의하여 3월 11일 포항장날(1·6일)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거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적은 벽보첩지와 시위 때 나누어줄 선전문까지 인쇄하는 등 제반 준비를 하고, 3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이기춘·이봉학 등은 송문수로부터 들은 계획을 같은 마을의 김동은(金東殷) 외 수명에게 고하고 이들을 통해 동지를 규합하던 중 불행하게도 사전에 시위계획이 일본 헌병에게 탐지되어 인쇄물을 전부 압수당하여 거사는 성공하지 못했다. 주동자 4명은 피신하다가 독립만세 시위 혐의자로 붙잡히고 말았다.

이 소문이 시내에 전파되자 11일과 12일 양일간 수백 명의 군중이 주동자 없이 자발적으로 장터에 운집하여 만세를 부르고 독립선언서를 붙이며 시위행진을 하던 중에 일본 군경의 저지로 강제 해산되었다. 이날 밤에는 북본동(北本洞, 당시 포항동으로 현재 포항시의 중심마을) 포항교회의 신도 수백 명이 교회에 모였다가 시가로 나와 등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며 예수교 경영의 사립 영흥학교 서편에 이르고, 포항의 각 동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많은 동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차차 이곳에 모였을 때는 군중이 합세하여 천여 명이 되었다.

이에 놀란 일본 헌병들이 강력한 수단으로 만세시위를 제지함에 군중들은 해산되었다. 이후 일본 군경은 사이토 마코도(寺內正毅, 초대 조선총독)가 회장으로 있는 일본인 재향군인회 포항지부회의 협력을 얻어 더욱 감시를 강화하였다.

사전에 체포된 인사들은 4월 2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다음과 같은 형을 받고 대구형무소에 투옥되었다.

송문수(38세) : 징역 6월	이봉학(23세) : 징역 5월
이기춘(21세) : 징역 5월	장운환(36세) : 징역 4월,

한편, 영일군(현 포항시)민으로서 3.1운동에 가장 먼저 참여한 사람으로 확인된 사람은 최경성(崔景成, 36세, 영일군 포항동 거주, 1883. 1. 13~1952. ?)과 허담(許澹, 33세, 영일군 송라면 조사리 거주, 당시 대구의 성경학당 성서강습생) 그리고 허방(許枋, 21세, 허담의 조카)과 장해동(張海東, 19세)이다.

당시 허방·장해동은 송라면 조사리 거주의 학생으로 대구 사립 계성학교 1년생이었다. 이들 4명은 3월 8일 대구의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157명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중 허방과 장해동은 같은 해 5월 31일 대구지방법원 복심(항소심) 재판에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포항 3.1운동 주역의 한 사람인 최경성은 1911년 사재를 기부하여 교회 서편 옆에 사립 영흥학교(현 영흥초등학교, 이명박 대통령 모교)설립에 큰 이바지를 하였고, 초대 교감을 맡아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계몽에 앞장섰다.

1917년 같은 마을(포항동)에 거주하는 송문수와 함께 포항교회 최초의 장로가 되어 시무하던 중 앞서 서술하였듯이 1919년 3월 8일 대구시내에서 있었던 대구 3.1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옥 후 1925년 9월에 포항기독교청년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동아일보》 1925년 9월 24일자), 1927년 7월 22일 설립된 신간회(新幹會)포항지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조선일보》7월 25일자, 《중외일보》1927. 7. 27일자)

그는 다음달 신간회를 대표하여 청년회 대표들과 함께 조선인을 무시하는 포항면장(下村重英) 배척운동을 벌이고(《중외일보》, 1927. 8. 18일자), 1931년에는 사립영흥학교 교장으로서 남문오(南文五)·백영옥(白泳玉)과 함께 20년 역사의 사립 영흥학교의 존폐문제 해결에 앞장섰다.(《중앙일보》1931. 12. 10일자) 1944년에는 포항교회 부설 포항유치원을 창설하여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확실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평소 최경성과 송문수는 같은 마을, 같은 교회 최초의 장로들로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국권회복의 3.1운동에 대한 숭고한 뜻을 함께 품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대구 3.1운동 당시에는 최경성과 송문수가 대구에 있다가(3월 8일 당시 같은 일, 또는 다른 일로 대구에 있었는지는 불명함), 최경성은 대구 3.1운동 시위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런 사실과 함께 거국적인 3.1운동 당위성의 큰 뜻이 송문수를 통해서 포항면에 전해지면서 포항면의 3.1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판결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음은 두 사람이 공판에서 서로 배려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당시 포항면은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로서 조선총독부가 주목하는 지역 중의 하나가 되어 1910년 포항헌병분견소가 설치되었고, 1914년에는 이를 승격시켜, 대구헌병대 관하의 포항헌병분대를 설치하여 영일군·영덕군·경주군·울릉군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일군의 삼엄한 경계와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국권회복을 위해 정정당당히 일제에 맞서 3.1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포항이 비록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에 의해 파행적으로 외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 고장 특유의 일월(日月) 광명사상과 충절정신이 유감없이 발현된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이런 정신들은 포항인이 나아갈 정도를 밝혀주는 포항정신으로서 이 고장 후손들의 영원한 자부심과 긍지로 길이 빛날 것이다.

당시 포항면 3.1운동을 주동한 4인(송문수·이기춘·이봉학·장운환)의 판결문 판결이유(判決理由, 번역본)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판결문(1919. 4. 29)

피고 송문수는 경상북도 대구부에서 조선독립의 시위운동자로부터 위 운동의 취지를 들어 알고 1919년 3월 9일 거주하는 동리에 돌아온 즈음 피고 이기춘, 이봉학, 장운환 및 외 1명에게서 마중을 받고 대구부에서의 시위운동의 상황을 물은 바, 송문수는 이기춘 등을 同洞(포항동) 남쪽 끝의 인적 없는 곳에 데려가서 이들에게 ‘이완용이 조선의 독립을 계획하고 현재 파리에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독립운동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려고 이태왕에게 날인을 구하였는 바, 왕이 이를 거절하여 그 후 왕은 누군가에게 암살되었고 당시 경성에 있는 조선인 玄某가 위와 동일한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예수교 교회의 날인을 받아 평화회의에 제출한 결과 동 회의에서 오는 3월 28일까지 조선인민이 소요하고 있으면 독립을 허용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독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에 따라 조선 각지의 인민이 소요하고 있는 까닭이 되었다.’고 하고 그것을 들어 아는 바를 고함으로써 이들을 선동하여 이에 피고 이기춘, 이봉학, 장운환 등은 송문수와 함께 대구지방에서와 같은 시위운동을 할 것을 공모하고 그 결과 이기춘 및 이봉학은 다음날 10일부터 11일에 걸쳐 同洞 내에서 김동은 외 수명에게 송문수로부터 들은 바를 고하고 이들을 선동하여 동지를 모집하는 중 관헌의 발견된 바가 되어 이때 체포된 것이다.(정부기록보존소 : 1884.12.12 마이크로필름)

따라서 영일군 3.1운동의 중심 발상지는 포항면이고, 포항면 3.1운동의 진원지는 바로 포항교회와 사립 영흥학교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2) 청하·송라면의 3.1운동

송라면 대전리(大田里) 예수교 교회 영수인 윤영복(1893~1943)은 3월 중순 이래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여기에 발맞추어 이곳에서도 거사를 단행할 것을 결심하고 3월 18일경 동 교회의 같은 영수인 오용간(본적 : 포항시 덕수동 191)과 그의 친족 형인 동 교회 교사 윤영만을 찾아갔다. 이들 3인은 오용간 자택과 동 교회당에서 밀회를 거듭하면서 거사를 의논한 끝에 많은 동지를 규합하여 3월 22일(음력 2월 21일) 덕성리(德城里)시장 장날에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약정하였다.

윤영복과 오용간은 3월 21일 오용간의 집에서 각각 큰 태극기 1개와 작은 태극기 20개를 만들어 이날의 거사 도구를 갖추고 동지들을 규합해갔다. 윤영복은 동교회 집사인 이준석을 비롯하여 교도 안천종·안상종·이준업·이영섭·안덕환 등을 규합하고, 오용간은 같은 교회의 교도 윤도치·김윤선·정백용·이상호·김만수·김유곤 등을 규합하였다.

3월 22일 장날 윤영만은 오용간에게 연락을 취한 후 덕성리 시장으로 향하다가 일본경찰에게 검거되고 말았다. 이준석·안천종·안상종·이준업·이영섭·안덕환·윤도치·김윤선·이상호·김만수·김유곤·정백용 등은 윤영복과 오용간으로부터 분배

받은 태극기를 감추어 오후 1시경 동 시장에서 집합한 후 운영복은 큰 태극기를, 오용간은 작은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규합된 동지와 시장의 군중들은 일제히 여기서 호응하였다. 독립만세의 합성은 이곳 시장을 진동케 하였다. 이어 이들은 만세시위로 들어가 덕성리 가로를 누비면서 시위하였다. 시위 군중들은 일경이 달려와 총검의 위협·탄압으로 강제 해산되고, 주동 인물 23명은 검거되었다. 23명의 주동 인물은 다음과 같다.

운영복(尹永福 26)·오용간(吳用干 51)·운영만(尹永滿 35)·이준석(李俊石 24)·윤도치(尹道致 64)·이영섭(李泳燮 22)·이준업(李俊業 18)·안천종(安千鐘 50)·안상종(安常鐘 29)·안덕환(安德煥 54)·김윤선(金允先 55)·이상호(李相浩 29)·김만수(金萬守 24)·김유곤(金有坤 23)·정백용(鄭伯用 29)·안화종(安和鐘 33)·김진순(金鎭淳 30)·김종만(金鐘滿 33)·정재선(鄭在先 22)·정상득(鄭尙得 35)·이명만(李命滿 :李泰夏 20)·김진봉(金鎭奉 22)·안도용(安道用 28)

이들 23명의 대표자가 체포되자, 대전리 마을 주민들은 3월 27일 다시 두곡숲 속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드높이 불렀다. 박은식(朴殷植)의《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에 의하면 청하의 만세시위는 2회, 참가 인원수는 500, 부상자수 50, 피검자수는 40명으로 기록되어 당시의 상황을 일러주고 있다. 이후 포악한 일본 경찰이 총검으로 대전리 마을을 압박하니 80여 호이던 가구수가 50여 호로 줄어들고 말았다 한다.

23명의 의사들은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운영복(수형기록과 사진은 국사편찬위원회《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별집5, 467쪽)·오용간은 각각 징역 1년 6월을, 운영만·이준석은 각각 징역 1년을, 윤도치·이영섭·이준업·안천종·안상종·안덕환·김윤선·이상호·김만수·김유곤·정백용은 각각 8월을, 그 외 사람들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오용간·운영만·이준업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5월 27일 대구 복심법원에서 오용간은 기각되고, 이준업은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거사 전에 붙잡힌 운영만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3) 삼일동지회, 청년회 등 결성과 활동

옥고를 마친 의사들은 국내에서 삼일동지회 및 청년회 단체 등을 조직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고, 해외에 망명하여 항일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1) 삼일동지회(· 一同志會) 결성

① 1차 결성

독립만세 시위운동으로 투옥된 청하·송라 양면의 의사들은 만기 출옥하자 1920년 4월 20일 양면의 3.1운동(3월 22일)과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몇 의사를 추가하여 26

명으로 삼일동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기 3년의 임원으로 회장 오용간, 부회장 허담, 총무 안화종을 선출하고 각부의 사업 계획을 세웠다. 1923년 제2회 선거에서 회장 허담, 부회장 안화종, 총무 김진순이 선임되고, 1926년 제3회 때에는 회장 안화종, 부회장 운영복, 총무 이태하가 선임되었다.

삼일동지회는 매년 2·3회씩 정기총회를 덕성리·조사리·대전리·유계리 등지의 예배당에서 돌아가며 비밀리에 회합하여 회무를 진행 중에 누차 일경의 조사와 심문을 받으면서도 근근히 9년간 유지해오다가, 마침내 영일군 경찰서로부터 본회의 회록(會錄)과 장부까지 압수당하자 곧 엄밀히 해산하여 정식 집회는 중단되었다. 역대회장으로는 초대 오용간, 2대 허담, 3대 안화종이 선임되었다.

1929년 3·1동지회 해산 명령 후 주신회(主信會)로 개칭하였다가 다시 시온회로 개칭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2차 재결성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새국가 건설의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삼일동지회를 복구하고자 했다. 동지들의 거주지를 방문하고 생사를 탐문하니 출타 혹은 사망으로 기존 회원이 반으로 줄었다. 양면(兩面)의 의사들이 회의 창립 시는 양면의 동지로 결성되었으나 광복 후 재건시는 삼일운동으로 투옥된 이웃 지역의 동지를 중심으로 결성할 것을 결의하여 포항면의 최경성 의사에게 통지한 즉 동의와 함께 삼일동지회 복구대회를 포항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받아 1950년 4월 20일 포항에서 개최하였다.(회장 안화종, 부회장 최경성, 총무 정상용, 서기 김광재(金光哉), 각 임기는 1년)

이후 인근지역의 생존자 10여명이 1년에 두 차례 포항·경주·청하·송라 등지에서 회합하였으며, 1954년에는 투옥 당시 철창의 고초를 회상하고 광복 후의 장래를 낙관하면서 동지명안(同志名案)을 편찬하기로 하여 《영일 삼일동지사(迎日 三·一同志史)》를 펴냈다. 광복 후 역대 회장으로는 1950년 안화종, 1952년 허담, 1953년 허담, 1955년 최경성이 선출되었다.

(2) 청하청년회·송라청년회 결성과, 대전야학교 설립 활동

청하·송라의 3.1운동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이후 민족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의 수양·훈련과 민중의 계몽·지도로 항일투쟁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결집·육성하기 위하여 청하청년회, 송라청년회, 대전농우회, 삼일동지회 등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청하청년회에서 오용간은 회장, 운영복은 덕육부장, 이태하는 지육부장 등을 맡았으며, 김종만·김진봉·안화종·이태하 등은 대전야학교 설립에 앞장섰다. 운영만과 오용간등은 해외에서도 활동하였다.

4) 기타 지역의 3.1운동

1919년 4월 1일 : 연일읍내에서 수백 명이 집합하여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운동을 하다가 해산한 후 그날 밤 8시 동해(東海)에서 수백 명이 횃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운동을 하였다. 이날 지행(현 장기)·오천·대송·연일·달전 등 각 면에서 수백 명씩 떼를 지어 만세를 불렀다.

4월 2일 : 기계면 뒷산에 봉화가 오르더니 죽장면에서부터 일어나서 신광·청하·송라·흥해 등 각 면 각 동에서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포항지역 3.1운동 공훈 표창자 인물록(24명)

성 명	공훈등급	공훈추서 연도
김만수(金萬守)	건 국 포 장	1992
김유곤(金有坤)	건 국 포 장	1992
김운선(金允先)	대 통 령 표 창	1992
김종만(金鍾滿)	대 통 령 표 창	1992
김진봉(金鎭奉)	대 통 령 표 창	1992
송기주(宋基柱)	대 통 령 표 창	2006
송문수(宋文壽)	대 통 령 표 창	1992
안덕환(安德煥)	대 통 령 표 창	2007
안도용(安道用, 道鎔)	대 통 령 표 창	1992
안상중(安常鍾)	대 통 령 표 창	1992
안천중(安千鍾)	대 통 령 표 창	1993
안화중(安和鍾)	대 통 령 표 창	1992
오용간(吳用干)	애 족 장	1996
윤도치(尹道致)	애 국 장	1991
윤영복(尹永福)	애 국 장	1990
이명만(李命滿, 泰夏)	대 통 령 표 창	1992
이봉학(李鳳鶴, 鳳學)	대 통 령 표 창	1999
이상호(李相浩)	대 통 령 표 창	1992
이영섭(李泳燮)	대 통 령 표 창	1992
이준석(李俊石)	애 족 장	1990
장해동(張海東)	대 통 령 표 창	1995
정백용(鄭伯用)	대 통 령 표 창	1992
정재선(鄭在先)	대 통 령 표 창	2004
허 담(許 澹)	대 통 령 표 창	1995

7. 국내·외의 독립운동(1910~1945) 참여자와 활동(2009. 6. 4일 현재)

그 밖에 3.1운동 이후 국내항일운동, 학생운동, 만주·일본 등지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여 포항출신으로 그 공적이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훈장이 추서된 국내외 독립운동 공훈 표창자 인물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포항지역 국내외 독립운동 공훈 표창자 인물록(20명)

성 명	공훈등급	연 도	구 분
구상본(具尙本, 月登)	애 국 장	1992	국내항일
권중혁(權重赫)	건 국 포 장	2005	국내항일
김연일(金連日, 基寅:蓮日)	애 족 장	1993	국내항일
김영철(金永喆)	건 국 포 장	2000	국내항일
김인수(金仁秀, 景泰:敬泰)	애 족 장	1998	국내항일
김헌술(金憲述)	애 족 장	1990	일본방면
김홍진(金洪鎭)	애 국 장	1995	만주방면
이갑룡(李甲龍)	대통령표창	1999	학생운동
엄주동(嚴柱東)	애 국 장	1990	만주방면
이재술(李再述)	애 족 장	1990	국내항일
이정우(李正雨)	애 족 장	1990	일본방면
이주호(李柱鎬)	애 국 장	1990	학생운동
이태홍(李泰鴻)	건 국 포 장	1992	일본방면
정기복(鄭基復)	애 족 장	1990	일본방면
정성장(鄭聖璋)	대통령표창	2008	국내항일
채실건(蔡實健)	애 족 장	1990	학생운동
최은석(崔恩皙)	애 족 장	2005	국내항일
최홍준(崔弘俊)	애 국 장	1990	국내항일
하병조(河柄祚)	대통령표창	2006	국내항일
정구용(鄭九鎔)	애 족 장	2002	국내항일

8. 사회운동

1) 청년운동

3.1운동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 청년운동, 여성운동 및 소년운동이 불같이 일어났다. 청년운동, 여성운동, 소년운동이 3.1운동 후 민중의 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아울러 계속적인 항일투쟁의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조직체의 필요성이 절감되던 때에 전개된 것은 시대적 요망이었다.

특히, 민족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의 수양과 훈련은 물론 이를 통한 민중의 계몽과 지도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였다. 그래서 청년운동은 그 당시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지방문화발전과 청년 자체의 수양 및 훈련에 가장 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였다.

1920년대 초부터 발흥하기 시작한 청년운동 단체들은 종교계통의 단체를 포함해서 대체로 민족 계몽적·교육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전국적인 경향에 힘입어 1920년경부터 1932년경까지 영일군에 창립된 청년회는 확인된 것만 30여 개소로서 경북(290개소)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였다. 기미년 이후 창립되었던 영일군 청년운동 단체들의 창립일자와 활동상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영일청년회

1920년 설립되었다. 1921년 8월 6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 개선된 임원은 회장 이일우(李一雨), 총무 최석규(崔錫奎), 덕육부장 김병호(金炳鎬), 지육부장 김병수(金炳秀), 체육부장 김동은(金東殷), 재무 정대여(鄭大汝)·정종만(鄭鍾晩), 간사 오치우(吳致宇)·김찬조(金贊祚), 서기 박용수(朴龍水)·김철호(金哲浩) 등이다.

이 단체는 1922년 12월 25일, 예수교 예배당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조선청년회 연합회 순회강연 단을 초청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정학선(鄭學先)의 사회 하에 유명한 사회주의운동가인 김철수(金喆壽)와 장명현(張明炫)이 연사로 나와 김철수는 “앞으로 세계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장명현은 “새로운 사회 건설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설립된 지 5~6년이 되도록 회관이 없어 곤란을 겪던 차에 지방 유지인 박윤여(朴允余)로부터 토지 250평을 기부 받았고, 회장 정학선 등이 중심이 되어 1924년 3월경, 지방 유지들을 대상으로 건축비 모금운동을 펴 회관을 마련했다.

1925년 2월 10일 기근에 허덕이는 동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영일청년회와 기독교청년회가 공동주최한 강연회에서 7~8명의 연사가 차례로 올라가 강연을 하였는데, 그

중 이기석(李基錫)의 강연내용이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위험한 내용이라 하여 보안법위반으로 입건되어 대구검사국으로 넘겨지기도 했다.

1925년 1월 10일 친일단체인 ‘보천교 시국대동단’이 포항에 도착하여 오대환(吳台煥) 외 1명이 보천교 영일정교부(普天教迎日正教部)에서 일선융화(日鮮融化)란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원근에 있던 보천교도 400~500명이 운집하고 경찰들이 입석한 가운데 친일내용의 강연을 하자 분노에 찬 청년들이 스스로 단상에 뛰어 올라 강연을 막았고 영일 청년회 주최로 당일 오후 6시에 영일청년회관에서 보천교 성토 대강연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의 반대로 다음달 10일로 연기되기도 했다.

이어 영일청년회원들은 보천교 시국대동단이 7대(隊)로 나누어 전 조선을 대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 조선적 거국활동으로 방해활동을 하자는 뜻에서 경성조선청년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에 통지를 하였다.

1925년 5월 1일부터 청년회 회관 안에 노동 야학을 설치, 배움에 허덕이는 60여 명의 무산아동(無産兒童)을 수용하여 교육을 했는데, 선생은 이재우, 이종철, 김용주, 김성출, 김성근, 김병준, 손인술, 하병조, 이운우, 김화섭 등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였다.

1926년 5월 9일에는 국제농민회에서 보내준 동정금으로 좁쌀을 구입하여 형산면에 55호, 연일면에 48호, 포항면에 30호에 배부하였다.

노동 야학은 수용인원이 200여 명으로 불어나 이상갑 등을 중심으로 노동야학 인허가 운동을 벌이고 실제 1928년 3월경 경북도청에 노동야학 인가원을 신청하였으나 불온한 청년회에서 경영하는 야학이므로 인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기도 했다.

(2) 흥해청년회

1922년 8월 5일 회장 박문찬(朴汶燦)의 주재 하에 제13회 정기총회가 열렸다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창립된 듯하다.

1926년 5월 16일 열린 집행위원회 때의 위원 명단은 정처묵(鄭處默)·이제백(李濟伯)·이상현(李相沘)·최문두(崔文斗) 등이다.

1926년 5월 30일 열린 집행위원회에서는 서무부에 정환식·최문두, 재무부에 배○구, 교양부에 정처묵, 체육부에 이제화, 소년부에 이상현이 상무위원으로 선정되었다.

1926년 8월 6일 이상현의 사회로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정기총회 개최 일을 매년 9월 4일 오후 1시로 정하고 회장에는 최문두를 선임했으며, 재외 영일유학생회 주최로 개최기로 한 축구대회에 참여결정, 포항여자청년회 창립총회에 축하문을 발송할 것 등을 의결하였다.

1929년 8월 25일 제23회 집행위원회 때의 의결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 이성우, 위

원 이재백, 이상덕, 최봉호, 박선진, 박영욱, 김용석, 최운학, 최문두 등이 모여 문제된 공의(公醫)의 배척, 인신매매금지운동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

(3) 포항청년회

서울청년회와 조선청년연합회의 주최로 조선청년총동맹이 발기되고 1924년 4월 29일 조선청년 총동맹창립대회가 개최될 때 포항청년회도 발기단체로 참여하였다. 1925년 1월 11일 오후 6시에 포항청년회관 내에서 전날 친일단체인 ‘보천교 시국대동단’의 포항강연 성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병수(金秉秀) 사회 하에 갑자악우회(甲子樂友會) 주악으로 300여 명의 청중과 함께 정학선씨의 추악한 진상해부와 이재우씨의 진정한 비평과 이기석씨의 맹렬한 공격이 끝나자 피 끓는 용사들을 막지 못하여 자유등단을 허용하자마자 김용주, 김종철, 이복수, 임일출, 김성중, 김성근, 방진호 등이 차례로 뛰어나와 열변을 토해냈다. 1928년 1월 13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동야학에 관한 건, 군 청년동맹조직에 관한 건, 신중간과 이룬 배격에 관한 건, 김동덕(金東德) 사건에 관한 건으로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성토강연을 행할 일, 동해안 일대에 거주하는 어민에게 성토문을 작성 배포할 일 등이 토의되었다.

(4) 청하청년회

1920년에 창립되었다. 1925년 7월 18일 총회에서 개선된 임원은 회장 이종호(李鍾虎), 총무 이종우(李鍾又), 서무부, 박두호(朴斗浩)·이석우(李錫雨), 재무부 정신환(鄭臣煥), 평의원 정흥식(鄭興植) 외 4인이다.

1925년 11월 14일 개최된 제3회 정기총회에서는 청하공립보통학교 분교에 노동야학을 개설하여 남자부 50명, 여자부 40명을 모아놓고 조선어, 산학(算學), 일어를 교수(教授)하기로 하였고, 강사로는 박두호(朴斗浩), 이종문(李鍾文), 이종면(李鍾冕), 이종우(李鍾雨), 정태영(鄭泰永), 정상준(鄭尙濬) 등을 채택하였다. 1926년 5월, 지난해 폭풍으로 인한 흉년 때문에 소작농민 중 수백 호가 기근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면사무소의 후원으로 동정금(同情金) 모집활동을 전개하여 면내 빈민 96호에 곡식을 배부하였다.

(5) 연일청년회

영일군 연일면 구읍내동에 있었던 청년회로 ‘영일청년회’와는 구별된다. 1920년경에 창립되었다. 창립 1주년 이상이 되었으나 재정곤란으로 회관이 없어 많은 청년이 방황하던 차에 정태용(鄭泰鎔)·서정석(徐廷錫) 두 사람이 각각 100원씩, 면 유지들이 700여 원을 각 기부하였고 신규회원이 200여 명 되었다.

(6) 칠도()청년회

1920년경 곡강면 칠포리에서 창립되었다(‘칠포청년회’ 또는 ‘漆烏청년회’라고도 한다). 1924년 12월 26일, 칠포 양정학원(養正學院)에서 회장 장인식의 사회로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회원 70여 명이 모여 동네의 공익사업을 위한 결의를 하고 그동안의 사업성과에 대한 품평도 있었다. 창립된 지 3~4년 이래로 학원을 설립한 것이나 동리의 식수를 개량한 것이 부근 동네의 모범이 될 만하다고 하였다.

1925년 10월 17일 임시총회에서 소년부를 개설하기로 의결하였고, 개선된 임원은 회장 박실근, 부회장 이제백, 서기 정상조·서영달, 회계 서영달·정상조, 소년부 최방우·이제백 등이다.

(7) 포항기독교청년회

1922년 포항교회(현, 포항제일교회)에서 창립하였다. 회장에 조용상을 선출하여 지방 청년들의 지적 계발과 민족의 계몽에 앞장섰다. 이 단체의 중요 인물은 최경성, 구성태, 박도원, 이봉학, 정극삼, 정수용, 김은덕, 이재우, 김철우 등이다. 발족 후 1929년까지 이들의 활약상은 전도 활동 외에 결인과 극빈 교우를 구제하며, 체육대회, 음악회, 연극, 동화 구연, 웅변대회, 좌담회 등을 열어 지방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흥여자야학교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음악대회를 개최하여 지방 유지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930년 9월 27일 경북경찰부 형사들이 포항방면으로 출장하여 당시 대구 영천 포항 일대를 중심지대로 삼아 기독교 중심의 민족주의적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던 박문찬(朴文燦, 경북예수교장로회 회장, 당시 부산진 장로교회 목사)이 검거됨으로 인해 드러난 포항지역의 중심인물 이찬수(李讚守)를 검거하여 갔다.

(8) 흥해기독교청년회

1922년경 포항기독교청년회와 비슷한 무렵에 창립되었다. 1923년 5월 5일 흥해 예배당에서 열린 통상회에서 민립대학 지방유치문제에 대해 토의를 하였고 민립대학 지방발기위원으로 박문찬, 송문수, 이성우, 박도환, 노홍식을 선발하였다. 1925년부터 매 정오에 종을 쳐서 일반시민 또는 부근 농촌에 많은 편의를 주기도 했다. 1926년 현재 회장은 박문찬(朴汶燦)이었다.

(9) 창주청년회

1922년 3월 31일 영일군 창주면(현, 구룡포읍) 유지와 청년들이 창립하였다. 창주면 사무소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10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회칙 제정과 임

원선거를 하였다. 선출된 간부는 회장 김치훈(金致勳), 부회장 김진두(金振斗), 덕육부장 서진수(徐晉洙), 지육부장 최성준(崔聖俊), 체육부장 유영○(兪永福?), 사교부장 강상봉(姜相奉), 간사 김경학(金敬學)·김정식(金正植) 재무 허근(許根)·서재수(徐載洙), 서무 김재선(金在善)·서용수(徐鎔洙) 등이다. 구룡포는 일본인 어업지로는 유명하나 조선인의 생활 상태는 극히 가난하여 아직까지 교회당이 없어 예수교 장로 최경성(崔景成)이 힘을 써서 신도 30여 명이 모여 어렵게 예배를 보아왔는데, 경성대영성서公會(京城大英聖書公會) 목사 이홍주(李泓周)와 7인의 복음선전대가 도착하여 1924년 12월 10일 오후 8시에 창주청년회 후원으로 바닷가에 마련된 극장에서 강연음악회를 열었다. 최장노의 사회 하에 방진호(房鎭浩)와 3인의 독창과 이홍주, 김○서(金○緒)의 강연이 있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10) 부조청년회

1924년 10월 22일 부조시장 청년 70여 명이 모여 창립하였다. 이때 피선된 임원은 회장 배영기(裵永琦), 총무 서종한(徐鍾漢), 서기 김성호(金聖浩), 재무 김방우(金方佑)·김봉이(金鳳伊) 등이다. 이들은 제1차 사업으로 무산자(無產者) 남녀 60여 명을 모집하여 노동 야학부를 설립하고 배영기, 김성호, 김방우 외 4명이 무보수로 교사를 맡았다.

(11) 여남청년회

형산면에 있었다. 1925년 3월 8일 여남청년회 주최로 지방발전과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연극을 개최하였고, 방문한 유지들로부터 많은 동정금(同情金)을 모았다. 1925년 3월 26일 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등 11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12) 죽청() 일신청년회

1925년 3월 3일 죽북면 합덕동에서 청년 41여 명이 회합하여 조직하였다. 이들은 풍속개량과 지방발전, 교육격려 등을 결의하고 임원을 선출했는데 회장 김기동(金基東), 부회장 안성곤(安聖坤), 간사 박만식(朴萬植)·박용근(朴龍根) 등이다.

(13) 동촌청년회

1922년 4월경 대송면에서 되었다. 제3회 정기총회에서 개선된 임원은 회장 이우진(李雨珍), 총무 오상근(吳庠根), 서기 이영우(李永雨), 덕육부장 오한상(吳翰根), 지육부장 이영우, 체육부장 고영석(高永錫) 등이다. 1925년 5월에 노동야학을 개설하였다. 일본 동경에서 유학중인 김정진(金正眞)군은 그해 하기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와 조선 어문을 아는 부녀 20여 명을 모집하여 1925년 7월 5일부터 서신문, 산술 및 기타 필

요한 과목을 교수하기도 했다. 학생 수는 남녀 합하여 120여 명이었다. 이 청년회에서는 야학을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야학생 학예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1925년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노동야학의 유지와 수재구호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극을 개최하였다. 1925년 10월 17일 제4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제를 위원제로 변경하는 동시에 회의 명칭도 대송청년회로 개칭하였다.

(14) 형산청년단

1925년 9월 1일 상도동청년단과 대도동청년단을 합쳐 창립하였다. 이때 피선된 위원은 위원장 공문수, 서무위원 오응삼·이종주·공두한, 문예위원 이엽주·강해종, 체육위원 최병구·정상기, 재무위원 양임상·한태호 등이다.

(15) 영일청년연맹

1925년 10월 10일 영일청년회관에서 임시의장 김병수(金秉秀)의 개회사가 있는 후 이재우(李載雨)의 취지 설명을 마치고 창립되었다.

가맹단체는 동촌청년회, 해동청년회, 구룡포청년회, 청하청년회, 이가리청년회, 장기청년회, 칠포청년회, 영일청년회, 학산청년회, 여남청년회 등이며 이때 피선된 위원은 이운우·박형조·이규환·박두호·이백이·정창용·이제백·이재우·이상갑·김상섭·김용주·이종철·김성태·이영근 등이다. 그러나 1928년 7월 8일 제3회 집행위원회에서 발전적인 해체를 결의하였다.

1926년 5월 28일 영일청년회 위원과 회원, 그리고 조선·동아 양 신문지국의 지국장과 기자 등 11명이 포항경찰서에 체포되어 3일간 조사를 받은 후에 같은 달 30일 경주 검사국으로 압송되었다.

검찰에서 심문한 결과 김화섭, 김용주, 이종주, 이상갑, 이正道, 원호이 등은 송치된 당일 밤에 방면되었고, 정학선과 이재우, 하병조, 이복수, 김정쇠(金正鉞) 등 5명은 풀려나지 못했다.

(16) 대송청년회

원래 동촌청년회이던 것을 1925년 10월 17일 정기총회에서 개칭한 것이다. 이때 피선된 위원은 서무위원 손중호·이우진·오우상, 교무위원 김정진·이영우·오한근·고영석, 체육위원 이종화·최윤우, 재무위원 오상근·정부도 등이다. 1926년 7월 4일 같은 면에 있던 유신청년회와 합동하기로 한다.

1925년 11월 초순부터 교양부 경영인 노동야학을 위하여 순회연극단을 조직하고 영일군청년연맹회 및 동아일보포항지국 후원으로 각지에서 순회극을 공연하였다.

1927년 5월 22일 개최된 제7회 집행위원회에서 노동야학 연합학예회 개최의 건, 매월 1회씩 강연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 등을 의결하였고, 1928년 5월 26일 의장 윤선우(尹善祐) 사회로 개최된 집행위원회 토의내용은 실업(實業)선전, 송내 도선(渡船)에 관한 문제 등 현안사항들이 다루어졌다.

(17) 병인청년회

1926년 1월 27일 장기면의 정덕용·정충근 외 10여 명의 발기로 창립되었다. 이는 1925년에 창립되어 장기면 이미 있었던 장기청년회가 운동력과 활동력이 미약함으로 면민들이 유감으로 생각하여 오던 차에 다시 창립된 것이다.

이때 피선된 임원은 회장 정충근, 총무 김입조, 덕육부장 최이출, 교육부장 윤영채, 운동부장 정상용, 간사 정주용, 장문영, 강우조 등이다.

(18) 해룡청년회

1927년 3월경 흥해면 죽천동에서 창립했다. 1928년 3월 15일 제1회 정기총회 때 회장 문봉의(文鳳儀) 사회 하에 지방계발과 민중교육, 기근(饑饉)민 구제에 대해 토의 및 의결하였다.

(19) 영일청년동맹

영일청년연맹의 후신으로 1928년 8월 12일에 ‘영일청년동맹포함지부’가 창립되었다. 이때 피선된 임원은 위원장 이상갑, 위원 최두한·오정근·박계진·이제백·윤선우·김순종·김학봉·원호이·장부득·김병준·이봉도·정진영·이경찬 등이다.

1930년 8월 18일 제2회 정기총회가 위원장 최두한의 사회로 개최되었는데, 이상갑의 개회사가 있는 후 의장에 이종철, 서기 김석종, 김순종 등을 선임하였다.

이날 토의내용을 살펴보면, 자체교양의 건, 경비마련의 건, 대회 연설 안 작성의 건, 영일청년동맹출정식 임원초빙의 건, 신입회원 수락의 건(김성덕 외 13인), 맹원(盟員) 정리의 건, 군동맹 대회 대의원 선정의 건(최두한 외 32명)등이 다루어졌다.

(20) 곡강청년회

1923년경 곡강면 흥안동에 ‘흥안구락부’가 창립되어 지방계발운동에 많은 공헌을 하다가 조선 전체에 청년운동의 바람이 거세게 불자 1928년 6월 2일 곡강면의 각 구락부를 망라한 ‘곡강청년회’로 회체(會體)를 변경 창립하였다.

이때 피선된 임원은 위원장 김상만, 서무부 김성형·김용출, 재무부 이창우·최익춘, 교양부 심상백·김상노, 체육부 설복만·오재동, 소년부 김백출·김준태 등이다.

(21) 장흥동청년회

대승면 장흥동에서 1924년경에 설립되었다. 많은 학령아동이 학비가 없어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1926년 9월에 동사(同舍)에 노동 야학부를 설치하고 70여 명의 무산아동을 수용하여 물질과 정신을 희생하여가면서도 2년 동안 교양에 노력하였다. 1928년경 박춘봉, 정진용, 이만조, 박영래 등 4명이 동해면 어촌 일대의 유지들을 방문하여 다액의 동정금을 모집, 1928년 4월경에 동리에 초가 3칸을 구입하여 야학관(夜學館)을 만들었다.

(22) 동창()청년회

1931년 대보면에 설립되었다. 1931년 3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포항각희(脚戲) 대회를 개최하여 대보면 발전과 바다와 육상의 노동자를 위안하였다.

(23) 신광청년회

1932년 10월 24일 신광면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활동에 들어갔다. 발기인 대표 이원소(李源韶)가 중심이 되어 농촌진흥과 무산(無産) 아동 교양에 주력하였다.

(24) 영일학생회

1920년경 창립되어 포항영일청년회관에 사무소를 두고 지역 문화향상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1924년 1월 6일 포항예배당에서 포항공립보통학교 학생과 사립영흥학교 학생들이 연합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진호(方鎭浩)의 사회 하에 “국가를 보호함에는 문(文)이나 무(武)이나”를 놓고 열띤 웅변을 토하였다. 1925년 하기(夏期)에는 대대적인 사업을 경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25년 7월 24일 개최된 특별총회의 결의내용을 살펴보면, 제3회 영일축구대회 개최 건, 강연회 개최 건을 의결하고 축구대회 상무원으로 김영미(金英米), 최병위(崔柄爲), 강연회 상무원으로 정학선(鄭學先), 최병락(崔柄洛)을 정했다. 1928년 8월 11일 영일학생회 주최로 각급사회단체 후원으로 제5회 영일축구대회가 포항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25) 영일유학생회

재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1921년 창립되었다. 1926년 8월 8일 영일청년회관에서 최병위(崔柄爲) 사회로 열린 제5회 정기총회 토의사항을 살펴보면, 기본금 모집에 관하여는 위원 14인을 선거하여 각 지방 유지들을 호별 방문케 할 일, 창립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음악 및 강연회를 포항에서 개최할 일, 돌아오는 10일에 흥해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할 일 등이 토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한 위원명단은 서무부의 3부

9명, 기본금모집집행위원을 앞의 9명 외 5명으로 정했다.

한편, 하기방학 때는 전영미, 최병위, 박학필, 최병락 등이 중심이 되어 교육과 문맹, 법률의 변천과 우리의 처지, 인생과 의학이란 주제로 각 지역 청년회관을 순회하며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그 외에도, 영일군내에는 기계면의 기계청년구락부, 동해면의 해동청년회, 청하면의 이가리청년회, 장기면의 장기청년회, 형산면의 학산청년회 등이 있었으나 자세한 활동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게 아쉽다.

앞에서 살폈듯이 이들 청년회는 빈한한 청소년과 문맹 성인을 위한 야학, 일반대중의 교화, 계몽을 위한 강연회, 토론회, 그리고 연예 및 오락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들 청년회의 운동은 전기(1924년경까지)에는 주로 知·德·體 삼육(三育)을 연마하고 조장함으로써 청년계를 계발하고 정치·경제적 각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고장의 폐습을 개량하는 등 민족 개량적·계몽적·교육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후기(1925년 이후)에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점차 좌경화되어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어 갔다. 1928년 7월 8일 영일청년연맹위원회는 이상갑(李相甲)의 주도로 제3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래의 연맹제보다 더 고도의 형태로 그 조직을 개혁한다는 취지 아래 연맹해체를 결의한 후 사회주의 성격을 띤 영일청년동맹으로 거듭날 것을 결의한 것이 그 예이다.

2) 여성운동과 소년운동

일제강점기에는 그때까지 여전히 남아있던 신분적 차별의식과 남존여비 사상으로 상징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극복하려는 운동의 하나로 여성운동, 형평(衡平)운동, 소년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여성운동은 여성교육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국권 피탈 이전부터 여성 선교를 목적으로 한 개신교 세력이나 애국 계몽 운동가들에 의해 여학교가 세워져 1910년에는 그 수가 약 200여 개나 되었다. 학교를 통한 교육으로 인해 여성들의 정치·사회의식은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1920년대 신여성론의 등장과 더불어 같은 시기에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사회주의는 여성문제와 기묘한 결합관계를 보이게 된다. 사회주의가 여성문제에 대하여 독특한 관계를 갖게 된 이유는 1920년대가 이른바 자유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여성문제가 한꺼번에 사회적인 담론의 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영일군의 여성운동은 포항부인전도회(1920)와 포항여자청년회(1926), 그리고 흥해부인전도회(1926), 대송면 동촌·괴동 부인회(1933) 등에서 활동을 주도하였다. 이 단체들은 여성계몽과 여성자질향상을 목적으로 강연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야학이나 강습소를 개설하였으며, 전람회·야유회 등을 통해 여성을 자각시키고 견문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였다. 특히 대송면 동촌·괴동 부인회는 1933년 3월에 조직되었는데 회원은 각각 30여 명씩에 달하였다. 이들은 각 논 300평을 공동경작하고 절미저축, 색복(色服)장려, 농한기를 이용한 야학교 설치 등의 운동을 펼쳤다.

(1) 포항여자청년회

1926년 8월 11일, 영일청년회관에서 백명도(白命道) 양의 사회로 박일선(朴日善)의 8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하였다. 회장에는 박일선(朴日善)여사가 피선되었으며 주요 안건은 여성운동 근본정신에 관한 건으로 여성 자신의 사회적 입지와 성적·경제적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고 전통적 인습과 미신을 타파하는 일, 여성의 교양에 관한 건으로 자아 교양에 필요한 고학을 연마하며 문맹을 퇴치할 일, 계급의식을 축진하며 단결적 훈련을 도모할 일, 일반 여성의 교양을 위하여 강연, 강습, 독서, 연구회 등을 수시 개최할 일, 간이 도서관을 설치하여 일반여성들에게 열람케 할 일, 부녀 야학을 실시할 일, 도시 농촌 여성에 관한 건으로 도시여성의 사치와 미신, 악풍과 허영심을 축출할 일, 농촌여성의 위생관념을 조장하며 과도한 음주의 폐해를 퇴치하고 건전한 정신과 체육을 양성할 일, 사상단체에 관한 건으로 모든 신평조와 과학을 연구하여 사상을 통일하며 사상단체를 조직할 일 등을 의결하였다.

한편, 소년운동도 1920년대를 맞이하여 학생운동이나 청년운동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여건과 요망 속에서 일어났다. 미래사회의 주인인 어린이를 인격체로 대접하려는 움직임이 태동한 것이다. 동학의 2대 교주였던 최시형은 일찍이 어린 아이를 때리지 말 것을 강조하였고, 이의 가르침에 따라 천도교에서 소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방정환이 중심이 되어 활동한 천도교 소년회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도 간행하였다. 조철호는 보이스카우트의 전신인 소년단을 창설하였다. 소년운동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인 소년운동 조직으로 조선소년연합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기도 한다.

소년운동의 제 단체들의 활동은 강연회, 동화회, 토론회, 웅변회, 체육활동, 연예회, 오락활동, 문예활동, 회보발행, 어린이날 기념활동 및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항일민족주의 운동의 운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소년운동에 나타나는 항일사상 내지 항일민족주의 운동을 사회주의사상 운동으로 몰아붙여 탄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전국소년운동단체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1926년 5월경에는 그 수가 무려 500여 개나 되었다.

영일군에서는 두호소년자강회(1923. 11. 10)·영일소년회(1925. 8. 27)·영일칠마소년회(迎日七馬少年會, 1925. 9. 22)·흥해소년회(1926. 8. 23)·연일소년회(1929. 6. 3)가 설립되어 소년운동을 전개하였다.

(2) 두호소년자강회

1923년 11월 10일 영일군 두호동에서 학생 49명이 모여 창립하였다. 이때 임시회장 최영식(崔英植)의 사회 하에 동장 이호도(李昊道)와 두호동에 있는 보명학교 교원 박명오(朴明五)의 축사가 있는 후에 회칙을 통과시켰고, 지·덕·체 3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체육부는 야구, 정구, 축구, 해전(海戰) 각방 5종의 운동을 연습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때 선임된 임원은 회장 최영식, 총무 이호준, 덕육부장 박인덕, 지육부장 이상호, 체육부장 최극호, 재무 방주택, 서기 최장호 등이다.

1924년 3월 1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원 전부가 출석한 후 정인용(鄭仁鎔)의 사회 하에 최영식(崔英植)군의 이 회 창립 이래 제반 사업의 보고가 있는 후 회장에 박인덕(朴仁德), 총무 최극호(崔極浩)외 3부의 부장을 선임하였다.

(3) 연일소년회

1925년 8월 16일 연일소년회 주최로 경북축구대회를 연일공립보통학교에서 개최한 것으로 보아 1925년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29년 6월 3일 연일을 괴정리 사무실에서 김찬○(金讚○), 박래곤(朴來坤), 정이출(鄭二出), 정락영(鄭洛永) 등 4명의 발기로 소년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 덕·지·체를 함양할 목적으로 연일소년회가 창립되었고, 이날 창립총회에서 규칙통과, 임원선거 기타 사항을 결의하였는데 피선임원의 명단은 유락부장 정낙영, 담론부장 김찬○, 학습부장 박래곤, 문서부장 안용수, 재무부장 김재준 등이 선임되었다.

3) 신간회(新幹會) 운동~신간회 영일지회의 활동

1920년대~1930년대 초 민족운동은 대체로 두 갈래의 큰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민족주의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운동이다. 그러나 이 두 갈래의 큰 흐름은 민족운동의 이념, 방법, 주도세력 등에 따라 다시 여러 갈래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민족주의 진영에는 좌파, 우파 혹은 타협적,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같은 구분이 있었으며 사회주의 진영에는 1926년 말 현재 350여 개의 마르크스, 레닌 사상을 연구하는 사상단체(思想團體)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그러한 사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민족협동전선으로 창립한 것이 신간회였다.

1927년 2월~1931년 5월 사이에 존속한 신간회는 시기에 따라 전국에 120~150여 개의 지회를 가지고 있었고 회원 수는 약 2만~4만 명에 이르렀다. 신간회는 일본제국주의 통치하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항일사회운동 단체였던 것이다.

1927년 2월 서울에서 신간회가 창립되었고, 경북지역에서는 6월 18일 신간회 김천 지회의 설립을 시작으로 신간회 해소까지 약 18개 군(부)에서 지회가 설립되었다. 영일지회는 1927년 4월 포항교회의 목사를 비롯한 중진들과 지역 유지 측 그리고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발기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다가 같은 해 6월 3일 조선일보 포항 지국 안에서 발기회를 개최하고 설립준비위원으로 김영옥, 최경성, 권의봉, 김화섭, 정학선, 이재우 등 6인을 선정하여 서울 본부 조직부에 승인요구서를 발부하는 한편, 회원모집에 들어갔다. 이들 6인 위원 중 김영옥은 포항교회 목사이고, 최경성은 같은 교회 장로, 권의봉은 같은 교회의 집사였으며, 김화섭, 정학선, 이재우는 포항·영일 청년회의 간부들이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구애되어 1927년 7월 22일 오후 3시에 영일청년회관에서 50여 명이 모여 설립총회를 개최하면서 포항지회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포항지회는 경북에서 두 번째로 창립된 것이다.

창립총회 때는 신간회 본부에서 홍명희가 직접 내려와 “신간회의 현황과 장래”에 대해 의미 깊은 연설을 하였다. 이 날 창립총회 때 선출된 간부들로는 회장에 최경성, 부회장에 김화섭, 서무부에 이종철, 김유원, 김무갑, 재무부에 최효진, 김동이, 이복수, 정치부에 권의봉, 이종계, 김용주, 조사부에 김순종, 최두한, 하병조, 조직부에 정학선, 이상갑, 이종기. 선전부에 김영옥, 원호이(元浩伊) 등이다. 1927년 9월 23일 신간회 제3회 간사회를 개최하여 소위 “재경 영남친목회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적으로 처치하고 지방열 단체의 박멸을 적극적으로 가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영일신간”이라는 회보에도 발표가 된 것인데 당시 영일지회는 일제가 금지 시킨 “신간”지를 “영일신간”이란 제호로 발간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지방열 단체 박멸”이란 당시 전국 신간회를 통해 활발하게 전개된 민족운동의 하나인데 민족주의에 반대되는 지방의식을 배격하자는 운동이었다.

영일 신간회는 1927년 7월 22일 설립대회를 치른 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부들이 간사회를 통해 그 조직체를 비밀리에 운행하여 왔는데, 본부의 승인을 받고 그해 11월 중에 지회 정기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포항 경찰서로부터 상부의 명령이라는 애매한 구실로 집회가 금지되었으므로 11월 23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선후책을 강구한 결과 그해 12월 1일에 영일청년회관에서 40여 명의 회원과 100여 명의 방청객이 모인 가운데 제1회 정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갑자낙우회의 장엄한 주악이 울리는 가운데 회장 최경성씨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회원 점명, 전 회의록 낭독과 각지 단체의 축전 축문을 낭독하고 일반 정세 및 각 부문 사업보고가 있는 후 임시 집행부 선거에 들어갔다. 이날 선거에서 의장 김영옥, 부의장 최경성, 서기 이종철, 김유원, 사찰 이상갑, 이종기 등이 당선되었다. 이어서 규칙통과를 하고 건의안 토의에 들어갔으나 경찰 당국의 간섭으로 원안 중 노동, 여성, 소년, 형평에 관한 4개

조항은 성문을 압수당하였다. 그 다음 순서대로 의사를 진행시켜 원안대로 결의하고, 기타 사항에 들어가서 조선인 보통교육문제를 토의할 때, 회원 중에서 불온한 언사가 있었다 하여 임석 경찰관이 의사를 중지시키고 강제 해산시키려는 등 고압적인 행동을 취하자 장내의 공기는 더욱 긴장되었지만, 연호하는 경찰의 중지명령 속에서도 회원들은 계속해서 악법철폐, 도일 노동자 방지 해금, 재만동포 보호 조항들을 본회 대회에 건의키로 하고 극도로 흥분된 회원들은 만세 삼창을 부르고 난 후 그날 6시경에 폐회를 하였다. 이날 폐회 즉석에서 김화섭, 정학선, 김순종 세 사람은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한편, 이날 열린 정기대회에서 영일지회는 전국의 신간회 운동의 하나로 재만동포 옹호동맹을 결성하여 “기한에 떠는 재만(만주에 있는) 동포에게 보낼 의연금, 구제금 모금 운동을 전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날 결의된 이웃 영해지회 결성은 그 후 경찰당국의 방해로 무산되고 말았다. 청년단체의 단일화는 결실되어 김영옥 목사의 아들 김은석이 포항청년회의 회장이 되었는데, 청년운동으로서는 경북에서 대구 다음으로 가장 활발했다는 평이다. 무산 아동 교육 건은 기존의 포항 사립영흥학교(야간)를 폐교 위기에서 재도약 하게 하였는데 신간회의 권의봉과 김은석 등이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공로가 컸다.

한편, 영일군 포항면 ‘하촌(下村)’ 면장이 모든 일에 조선인을 무시하고 근래에 와서는 조선인 공직자까지 무시하는 태도가 노골화되자 조선인 측에서는 크게 분기하여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하촌면장 배척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1927년 8월 14일에 면민대회를 개최하려고 신간회 포항지회와 포항청년회에서 성명서를 인쇄하던 중에 포항경찰서에서 신간회지회 측으로는 최경성, 김화섭, 청년회 측으로는 이종철, 김순종 등 4명을 호출하여 하촌면장을 배척하기 위한 면민대회는 치안방해이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경고를 함으로써 부득이 중지하였다. 그래서 제2차 계획으로 대표 6인을 선정하여 하촌면장과 군 당국에 직접 질문하여 따지기로 하였는데, 신간회 측으로는 정학선, 김화섭, 최경성, 청년회 측으로는 김순종, 이종철, 이상갑 6명을 질문위원으로 뽑았다.

흥해지역에서는 이제백·이상욱·김광재·최운학·박필환 등이 흥해 망진루(望辰樓)에 설치된 청년회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흥해신간회 벽보사건으로 다수의 회원이 일제에 피검되어 이제백, 박필환, 이상욱 등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기도 했다.

앞서 보았듯이 신간회 영일지회를 비롯한 각 지방지회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정책을 채택하자, 일제는 ‘반항적 기운을 선도하고 민족적 반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이유로 1928년부터 신간회의 정기대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집회를 금지하였다. 이 때문에 신간회는 임시방편으로 복대표대회(復代表大會)를 개최하여 새로운 간부를 선출

하고 활동방향을 결정하였다. 신간회의 간부 선출 및 활동방향과 내용은 각 지회에서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회원들이 본부에 모여 정기대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당시 신간회의 규정이었다. 하지만 일제가 정기대회를 금지하였으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몇 개의 지회가 합동으로 대표, 즉 복대표(復代表) 1명을 선출하고 복대표들이 모여 정기대회를 대신한 것이 ‘복대표 대회’였다. 이에 따라 복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1929년 6월 4일 영덕청년동맹 회관에서 신간회 경주·포항(영일)·영덕·영해·영양 등 5개 지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신간회 영양지회의 조치기(趙致基)가 복대표대회의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대표후보로는 영일지회의 이종철(李鍾哲)이 선출되었다.

이렇듯 일제 강점기하에서 민족 개몽과 일제에 항거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신간회 영일지회는 일제의 강력한 탄압에 못 이겨 점점 쇠약해지다가 기어코 1930년 5월 17일 강제해산 되고 말았다.

4)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사상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았던 1920년대 초까지만 해도 청년·학생 단체는 주로 실력양성론의 입장에서 수양과 계몽을 목적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많았다. 덕(德)·체(體)·지(智)의 수양, 교육의 진흥, 민족 산업의 육성 등을 내세웠고, 금주·금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1922년경부터는 청년운동의 주도권은 점차 사회주의계열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활동목표도 실력양성보다는 무산 계급의 해방을 내세우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학생운동이나 여성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회주의 운동은 노동·농민운동을 조직화하고 노동자·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의 이런 운동은 바로 항일민족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1920년대 초에 많은 공산주의 단체들이 소련 및 일본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신사상연구회(1923)·화요회(火曜會)·북풍회(北風會, 1924)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각종 신문·잡지 등 언론계에 침투하여 사회주의 사상을 소개하는 한편, 통합운동을 벌여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하 ‘조공’이라 한다)과 고려공산청년회(이하 ‘고려공청’이라 한다)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경북 영일 출신으로 1920년 6월경부터 영일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정학선(1896~?)은 1924년 일본 도쿄에서 최원택의 권유로 고려공청에 가입하였다. 그가 포항에서 이상갑, 이재우 등과 함께 고려공청 포항 야체이카(세포조직)를 결성한 것은 1925년 10월 경이었다. 그는 이미 그해 2월경에 있었던 경북 사회운동가동맹 결성에 참여하여 집

행위원 겸 조사부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참이었다. 이때 고려공청 포항 야체이카에 배속된 이상갑(李相甲, 또는 李尙甲 1901~?)은 영일군 포항읍 출신으로 일찍이 3.1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일본경찰에 검거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1925년 8월에 영일 청년회, 그해 10월에 영일청년연맹에서 활동하다가 이 무렵에 조공에 입당하여 포항 야체이카에 배속되었다. 이재우(1904~?) 역시 영일군 포항읍 출신으로 1925년 5월 영일청년회에 가입하였고, 그해 10월경에 포항기독교청년회에도 참여하는가 하면, 1925년 10월경 영일청년회 연맹결성에 참여하여 집행위원, 경북청년연맹 기성회 기성위원회에 선출되어 일본경찰의 집회 금지 명령에 항의하는 해금 교섭 기성위원으로도 활동하다가 이 무렵 고려공청에 가입하고 포항 야체이카에 배속된 것이다.

조공 및 고려공청 야체이카가 결성된 지역에서 안동은 대구와 함께 사회운동이 일찍부터 활발한 곳이었으나, 영일은 상대적으로 사회운동의 강도가 약했던 곳이었다. 그래서 영일군 야체이카는 이후 영일의 사회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 조직이 사회운동의 조직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상관관계를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영일 야체이카에 소속된 이들은 앞서 살폈듯이 이미 1925년 9월 영일청년연맹의 결성을 주도하였고, 후에 있을 1926년 포항여자청년회의 설립에 영향을 미쳤으며, 1927년 신간회 영일 지회의 발기위원 및 설립 후 간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조선공산당(ML당, 제3차 조공)은 1926년 12월 6일 제2차 전국 공산당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대회에서 포항의 정학선이 경북을 대표한 전국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뒤 1927년 8월에 제3차 조선공산당의 각도 기관이 조직되면서 조선공산당 경상북도 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이때 포항에서는 정학선을 책임자로 하여 이재우·이상갑·김하섭·하병조 등에 의해 야체이카가 다시 조직되었다. 이재우는 이미 1925년 경에 고려공청 포항 야체이카에 배속된 전력이 있었고 1926년 영일청년회가 러시아 혁명 기념일에 즈음하여 실시한 강연회에서 “중국운동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바 있고, 조선일보 포항지국장 자격으로 그 해 경동 기자단에 참석하여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는가 하면, 1927년 신간회 영일지회 발기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상갑은 이때 이미 1927년 7월부터 신간회 영일지회 조직부를 맡고 있었다. 정학선은 그해 9월 조선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8년 3월 조선공산당은 제3차 대회를 개최하고, 중앙간부와 지방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때도 포항·문경·상주·대구·안동·영천·김천 등지에 야체이카가 설치되었는데, 포항에서는 기히 조직된 구성원들로 야체이카를 결성하였다. 이때 조직된 경북지역의 야체이카는 각 지역에서의 청년조직·노농조직·신간회 등에 파고들어 조선공산당의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포항·경주·영천 중심의 경동(慶東)기자동맹, 김천의 기자단을 조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28년 1월 6일 김

천에서 경북기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 7일 경북청년연맹을 조직하였다.

1928년 8월 12일 영일청년연맹의 후신으로 영일청년동맹이 탄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단체는 신간회 포항지회 회원과 노동조합의 간부 등과 같이 1928년 7월경부터 조선공산당과 그 맥을 같이하여 활동한다. 이상갑이 조선청년동맹 경북연맹위원회 체육부장으로 선출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1928년 9월에 전국을 무대로 활동을 펼치던 정학선이 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경기도 경찰부에 체포 구속되었다. 이듬해인 1929년 1월, 이상갑은 영일청년동맹 위원장 되어 활동하다가 전국적인 규모로 펼쳐졌던 경찰의 공산당 일제 검거망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가 장춘(長春)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한 후 사회주의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1929년 5월경 그곳까지 찾아간 포항경찰서 형사들에게 검거되어 포항으로 압송되었고, 1930년 5월에는 영일 노동조합에서 간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30년 10월경 이른바 ‘포항공산당 사건’으로 이상갑(李尙甲, 31 점원), 이재우(李載雨, 32세, 조선일보 지국장), 김순종(金順宗, 29세, 중외일보기자), 김화섭(金和攝, 29세, 중외일보 사원), 하병조(河柄祚, 31세), 이말인(李末寅, 31세), 원호이(元浩伊, 29세) 등 7명이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는다.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내용은 1925년 4월경 조선 공산당원인 정학선(鄭學先)의 발의로 ‘4월회’라는 사회과학연구단체를 조직하여 정학선의 지휘로 각 2차레에 걸쳐 조선공산당 ‘야체이카’와 고려공산청년회 ‘야체이카’를 조직하였다가 해산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정학선은 1930년 11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1931년 8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이상갑은 징역 1년 2월에 4년간 집행유예, 이재우는 징역 1년에 4년간 집행유예, 김순종은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 김화섭, 하병조, 이말인, 원호이는 각 징역 8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30년 9월 19일 포항경찰서 순사들이 수일 전에 있었던 흥해청년회 위원장 이재백이 검거되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하여 영일청년동맹회관을 비롯하여 동회 간부 이상갑, 이종철, 김순종, 서명출(徐命出) 등의 가택을 수색하여 여러 종의 문서를 압수한 사실이 있었다. 출감한 정학선과 이재우 등은 1931년 가을 경북 각 지역의 신문 기자 및 지국장들이 결성한 보도 협조망에 참여하였고, 해방 후에도 계속 공산주의 노선을 걸었다. 정학선은 영일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이재우는 해방 후 영일군 인민위원회의 위원장, 1946년 12월 남조선 노동당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상갑은 1945년 12월 전국농민조합 총연맹 결성대회에 참석하여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전농경북도연맹 총무부장을 지냈다. 1946년 2월 민주주의 민족전선 결성대회에 전농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1948년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 인민대회 대표자회의에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9. 일제의 한국 인력과 물자의 강제동원

1931년 만주침략 이후 일본은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한반도를 일본의 중국 진출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제적 지배 정책도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선회하였고,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면서 식민지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정책을 취하는가 하면, 인적·물적 자원 수탈에 광분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인을 전쟁터로 몰아넣어 일본을 위해 싸우게 하였다. 1939년부터는 ‘모집’ 형식으로, 1940년부터는 ‘알선’ 형식으로, 1944년부터는 ‘징용’ 형식으로 일제 말기까지 1백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전쟁을 위한 노동자로 끌고 갔다. 이들은 탄광·비행장·군수공장·철도 등의 공사장에 군대식으로 편제되어 강제수용된 가운데 노예처럼 혹사당했는데, 공사가 끝난 뒤에는 군대기밀을 지킨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학살하기도 하였다. 특히 평양의 미립비행장, 쿠릴열도(사할린) 그리고 유구(오키나와)로 끌려간 노동자의 대부분이 무참하게 학살당하였는데, 그 수효는 7천 명이 넘었다.

1957년~1958년 사이 우리 정부(노동청)에서 작성한 《왜정시피징용자명부》에 따르면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영일군에서만 5,943명이 군인 또는 군속으로 징집되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일본후생성원호국(日本厚生省援護局) 작성의《구일본재적조선인 사망자연명부》에 의하면 당시 강제징집이나 징용된 조선인이 480,693명이라고 되어 있다. ‘구일본재적조선인사망자연명부’에 나타난 영일군 출신 전사자 명단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육군〉

岩本奉述 : 군속, 포항읍 천구정 2, 국향, 관계불명
 松原厚岩 : 군속, 흥해면 용천동, 두광, 처
 岩本鐘壽 : 병장, 흥해면 반천동 656, 득이, 부
 竹原允生 : 군속, 동해면 입암동 1구, 윤강, 형
 秋田正求 : 군속, 동해면 대동배동 10, 유가족 불명
 木村萬石 : 군속, 지행면 대진리 126, 상군, 부
 朱 萬 植 : 군속, 지행면 수성리 403, 유가족 불명
 大原相元 : 병장, 구룡포읍 구만동 65, 재봉, 부
 金山鏡宣 : 군속, 구룡포읍 하정리 3구 학루, 부
 石岡柱龍 : 군속, 구룡포읍 석병리, 유가족 불명
 川本清光 : 상등병, 포항읍 상도동, 원정, 관계불명
 金田福生 : 군속, 포항읍 상도동 252, 상종, 의동생
 海吳德述 : 군속, 포항읍 여남동 343, 천임, 부
 大島珠鳳 : 군속, 포항읍 동 불명, 김갑이, 의형

- 金海万万 : 군속, 대송면 송정동
- 原本守方 : 군속, 송라면 덕천리 210
- 大元藤雄 : 오장, 달전면 이인동 550
- 大野勝平 : 군속, 청하면 청진리 25
- 金海海普 : 군속, 구룡포읍, 유가족 불명
- 金村龜雄 : 군속, 구룡포읍, 유가족 불명

〈해군〉

- 李原正壽 : 군속, 청하면 월포리 139, 대식, 형
- 岩村柱德 : 군속, 지행면 영암리 169, 최보열, 모
- 平沼仁出 : 군속, 지행면 용흥동 179, 남출, 처

또한 ‘근로동원’이라 하여 어린 국민학생과 중학생들을 군사시설 공사에 끌어들이고, 여성들에 대해서도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토목공사에 끌어들이고, ‘애국부인회’라는 어용단체를 만들어 충성을 강요했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에는 악명 높은 ‘여자정신대근로령’(女子挺身隊勤勞令, 1944. 9)이라는 것을 만들어 12세에서 40세까지의 배우자 없는 여성 20만 명을 강제동원 했다. 이들은 일본과 조선 내의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중 상당수 인원을 중국과 동남아지역의 전쟁터로 보내 군인 상대의 위안부(慰安婦)가 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 살아남은 이들은 해방 후에도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었다.

정부는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국무총리 직속으로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2005년 2월 1일부터 진상조사 신청과 신고 접수를 하였다.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종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우리 국민이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경상북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포항시(당시 영일군)에서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총 2,415 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동원 유형을 보면 군인이 451명, 군속이 348명 노무자가 1,598명, 위안부가 9명 순이다. 이는 2008년 현재 살아있거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유족들이 현재의 시점에서 신청한 숫자이므로 접수된 건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강제동원 되었다고 추정된다.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접수 현황(포항시)

(2008년 말 현재)

총 계	성 별		동원지역			동 원 유 형				
	남	여	국내	국외	비고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비고
2,415	2,394	21	221	2180	14	451	348	1598	9	9

한편, 1943년 5월경 당시 포항경찰서장 및 長沼 포항군수, 野村읍장 등이 포항의 유지들에게 군용비행기 할당을 권유하므로 당시 포항읍의 도의원인 김두하(金斗河)가 일금 5만원을 기부하여 비행기 1대를 헌납하였고, 포항에서 양조업과 정미업, 양돈업을 크게 하였던 문명기(文明琦)는 1937년경 10만원을 헌납하여 해군과 육군에 비행기 한대씩을 각 헌납한 사실이 있었다. 이 같은 일제의 영일군민에 대한 인력과 물자의 강제조달은 그들이 패전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The image shows a handwritten document with a grid structure. The columns contain names in Hanja, and the rows contain various personal details. Blue dots are placed above the first few columns. The right side of the document is labeled '東海面' (Donghae-myeon).

● 《왜정시피징용자명부》에 나타난 영일군 징용자 명단 중 일부(●표는 영일군 출신 징용자)

참고문헌

金天翼, <士兵創義文>, 1866년 9월 12일 작성.
 박은식, <韓國獨立運動之史書>, 1919, 대구지방법원, 판결문·형사재판기록, 1919.
 <중앙일보>, 1931.12.10자 <20여년 역사가진 사립영흥학교의 비경> <동 교장 崔景成씨 담>.
 迎日 三一同志會, <迎日 三一同志史> 1953, 文一民 <한국독립운동사>(사)애국동지회 1956.
 국가기록원, <왜정시피징용자명부>, 1957~1958.

- 李炳憲, 《3·1運動秘史》, 시사시보사, 1959,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二, 1966.
- 박일천, 《日月鄉誌》, 일월향지편찬위원회, 1967, 李龍洛, 《三·一獨立運動實錄》, (사)三·一同志會, 1969.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제1권(의병항쟁사), 1972, 《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 제1~3집, 1973.
- 金河洛, 《陣中日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제1집, 1973.
- 金道鉉, 《碧山先生倡義顛末》, 《독립운동사자료집》제2집, 1973.
- 윤보현 편저, 《경북관 독립운동실록》, 중외출판사, 1974.
- 裴勇一, <포항·영일의 3.1운동>《포대학보》제178호, 포대학보사, 1990
- 배용일, <산남의진고> -정환직·정용기 부자 의병장 활동을 중심으로-, 《포항전문대학 논문집》, 제6집, 1982.
- 배용일, <최세윤 의병장고>《사충》31집, 고려대학교, 1987.
- 柳漢喆, <金河洛義陣의 義兵活動>《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3집, 독립기념에 관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권영배, <山南義陣(1906~1908)의 組織과 活動>《歷史教育論集》제 6집, 경북사대, 1991.
-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6.
- 임재찬, <丙寅洋擾 이후 地方砲軍의 增強實態>, 《新羅學研究》제5집, 위덕대학교, 2001.
- 성대경,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역사비평사, 2004.
- 이상준, 《장기고를 장기사람 이야기》, 장기발전연구회, 2006.
-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7
- 김형태, 《목사의 일생》, 대한기독교서회, 2008.
- 국가보훈처, 《大韓民國獨立有功人物錄》1949~2008년도 포상자, 2009.
- 배용일, <산남의진 세 의병대장의 거의정신과 행적의 특성>《산남의진 항일독립운동사 학술강연회 논문집》, (사)산남의진기념사업회, 2009.

제4절 산업·경제생활

한국사회는 20세기에 들면서 18~19세기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사회구조의 근대적 맹아가 싹튼 이래 일제강점기의 파행적 근대화의 변혁과 강행으로 농업 위주의 사회구조는 각종 직업으로 다양하게 분화되기 시작했다. 이 기간 영일만 지역은 일본인의 다수 진출과 함께 일제의 식민정책과 각종 근대 기술을 앞세운 활동으로 전통사회는 와해되어 갔다. 근대적 직업의 분화로 영일만 지역 특히 포항과 구룡포 주민의 직업형태는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1924년과 1935년의 포항의 직업별 호구 인구표를 보면 그 실상을 엿볼 수 있다.

1924년의 영일군, 1929년의 구룡포, 1935년의 포항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관리·교원·종교인·변호사·의사 등의 전문인, 농업인, 상공업인, 어업인, 요리인, 작부, 잡업인 등 다양하다. 영일군은 농업과 어업 다음으로 상업인구가 많고, 구룡포의 경우는 농업 다음으로 어업인구가 많고, 포항의 경우는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상업인구가 가장 많았다. 이는 조선후기의 농촌사회의 변화와 상공업 발달의 근대화가 자생적이 아닌 서구의 사회진화론적 근대화에 편입되는 과정의 현상으로 포항과 구룡포는 일본인 다수 이주지역의 대표적인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1935년 포항의 경우는 상업에 종사하는 일본인의 숫자가 포항 일본인의 42%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포항의 상권 나아가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포항의 한국인 경우도 상업과 교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통적인 농업인구를 2배 이상으로 앞지르고, 같은 업종의 일본인 숫자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한국인 종사자는 전 업종에 걸쳐 크게 앞서나 일본인의 사업 규모와 비교할 수 없는 대부분 영세업자였다.

영일군 직업별 인구수(1924년)

분 야	한 국 인		일 본 인		중 국 인	
	남	여	남	여	남	여
농 립 축 산 업	39,846	31,901	91	67	7	·
어업 및 제염업	3,686	3,054	300	244	·	·
공 업	744	506	127	100	2	1
상업 및 교통업	3,173	2,558	625	578	69	1
공무 및 자유업	696	447	270	160	·	·
합 계	48,155	38,466	1,413	1,149	78	2

구룡포의 직업별 호구수(1929년 6월말)

직업별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관공리	8	8	6	6			14	14
교원	6	6	5	5			11	11
대서인	1	1	1	1			2	2
의사·의생	3	3	1	1			4	4
산파			2	2			2	2
승려			2	2			2	2
무녀매복(賣卜)	2	2					2	2
신문	1	1	4	4			5	5
양잠	238	493			1	4	238	493
농업	1,008	2,463	2	5	2	4	1,014	2,472
공업	3	3	5	5			8	8
어업	365	735	87	162			442	897
무직	37	3,923	3	266			40	4,189
약종매약	3	3	2	2			5	5
전당포			5	5			5	5
여관	23	23	3	3			26	26
주선(周旋)업	2	2	2	2			4	4
고물	2	2	5	5			7	7
요리	3	3	14	14			17	17
음식점	52	52	7	7	4	4	63	63
예작부(藝酌婦)		36		78				114
목욕탕			2	2			2	2
이발	3	6	2	2			5	8
기타	205	108	121	420	5	18	331	546
노동	105	157	6	6			111	163
합계	1,542	8,166	238	866	10	26	1,790	9,058

포항의 직업별 호구수(1935년)

직업별	한국인		일본인		중화민국인		합계	
	戶	人	戶	人	戶	人	戶	人
농업 및 목축업	302	1,695	24	101			344	1,796
어업 및 제염업	219	795	49	236			218	1,031
공업	150	645	83	306			203	951
상업 및 교통업	834	3,581	220	1,080	15	32	1,074	4,693
공무 및 자유업	339	1,507	156	684			495	2,191
기타업자	423	1,698	39	132			462	1,830
무직 및 미상	89	190	9	24			71	193
합계	2,374	10,111	633	2,574	15	32	3,022	12,685

1. 농 업

1910년과 1912년, 이 고장이 아직 영일군으로 통폐합하기 이전의 네 고을(4郡)의 주민 직업과 경지면적 농업자수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4개 군의 직업별 호수(1910)

군 명	공무원	양 반	유 생	농 업	상 업	어 업	공 업	날 품	기 타	무 직	합 계
흥해군	28	65	20	7,731	77	133	25	24	36	62	8,201
연일군	25	4	10	4,626	258	173	42	26	26	-	5,190
장기군	8	402	90	6,572	332	301	31	45	35	2	7,818
청하군	4	7	-	4,030	212	261	57	19	7	12	4,609

4개 군 경지면적과 농업자수(1912)

군 명	경 지 면 적(町)			농 업 자					
	답(畓)	전(田)	합 계	한 국 인		일 본 인		합 계	
				호 수	인 구	호 수	인 구	호 수	인 구
흥 해 군	2,911.3	1,636.2	4,547.5	7,515	22,545	6	16	7,521	22,561
연 일 군	1,241.6	984.4	2,226.0	5,134	24,583	73	155	5,216	24,738
장 기 군	2,233.0	1,124.2	3,357.2	5,958	26,921	-	-	5,958	26,921
청 하 군	1,297.0	1,706.6	3,003.6	3,901	20,477	-	-	3,901	20,477

4개 고을 전체 호수 25,818호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22,959호로 약 89%를 차지하여 농업 인구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타 고을에 비해 논밭 경지가 넓은 흥해군의 농가 비율이 94%를 넘어 가장 높았다.

당시 1911년의 이 고장 각 군의 축우수(畜牛數)와 대비한 농가호수·경작면적은 다음 표와 같다.

경작면적(1911)

군 명	흥 해 군	연 일 군	장 기 군	청 하 군
축우 1두에 대한 농가 호수	5.05호	2.77	1.56	1.96
축우 1두에 대한 경지 면적	52.06단보	7.56	6.30	14.58

포항의 4개 고을 가운데 농우(農牛)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장기군으로 농가 3호에 농우 2두가 있었으며, 경작지가 가장 넓고 농가 호수가 가장 많은 흥해군은 상대적으로 농우소유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4군이 하나로 통합되고(1914) 난 10여 년 뒤의 1926년 12월말 현재 영일군의 토지면적을 보면, 국유답 282정보, 민유답 10,403정보로 합계 10,685정보이며, 국유전(國有田) 182, 민유전(民有田) 10,795로 합계 10,977정보이며, 국유잡종지 22, 민유잡종지 211로 합계 233정보이며, 국유임야 26,369, 민유임야 55,934로 합계 82,303정보이며, 국유미개간지 240정보이며, 국유대지 10, 민유대지 818로 합계 828정보이다. 그리하여 총합계는 105,266정보(국유 27,105정보, 민유 78,161정보)가 되었다.

1928년 영일군의 경지면적과 농업자수는 다음표와 같다.

영일군 경지면적

畓(정보)			田(정보)	합계(정보)	미등록답전(정보)	火田	총 계
일모작	이모작	계					
10,248.9	830.5	11,079.4	10,458.7	21,538.1	292.3	40.4	21,870.8

농업자수

호 수				인 구			
한 국 인	일 본 인	중 국 인	계	한 국 인	일 본 인	중 국 인	계
22,826	154	7	22,987	121,616	763	11	122,390

1928년 당시 영일군 호구수는 호수가 29,794(한국인 호수 : 28,784, 일본인 호수 : 959, 중국인 호수 : 51)인구가 153,921명(한국인 : 149,980명, 일본인 3,780, 중국인 161명)인 것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전체 호수의 77%(한국인 농가는 한국인 호수의 79%, 일본인 농가는 일본인 호수의 16%)로 나타나고 있다.

1928년의 경상북도 인구를 직업별로 나눈 통계를 보면, 포항면의 농업호수 344호로 전체 3,022호의 11%, 농업인구수 1,796명으로 전체 123,685명의 14%로서 타 지역에 비해 그 비율이 크게 낮은 것은 포항이 읍의 전신인 지정면이 되어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면서 직업의 근대적 분화가 촉진된 데 기인한다. 포항은 당시 상업을 비롯한 어업, 자유업 등 여러 업종이 상당한 세를 형성하여 근대 도시사회를 지향하는 산업구조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1928년과 1933년도의 대표적 농축산 작물(쌀·보리·콩, 과실, 가축과 가금, 축산물, 직물, 도축장과 도축수)의 경작면적과 수확고는 다음 표와 같다.

쌀, 보리, 콩(1928년)

쌀(米)		보리(麥)		콩(豆)	
경작면적	수확고	경작면적	수확고	경작면적	수확고
11,270.4정보	109,024섬(石)	9,959.3정보	101,652石석	6,280.2町步	38,356石

과 실(1928년)

평과(苹果)		배(梨)		포도·밤	
재배수수	수확고	재배수수	수확고	재배수수	수확고
7,090	19,174	2,652	5,465	108,190	94,880

가축과 가금(1928년)

종류	소	말	나귀	산양	돼지	닭	노새	면양
마리수	12,717두	800	5	200	943	39,028	3	0

축산물(1933년)

종별	우피	우육	牛脂	우골	돈육	豚脂	계란	계육	봉밀	밀납	山羊乳	계
수량	18,810	135,968	3,374	46,945	7,285	120	1,023,354	19,218	2,500	640	285	
가격	9,723	75,234	925	1,332	3,093	41	20,466	14,553	2,846	470	966	129,679

직물(1933년)

견포(絹布)		면포(綿布)		마포(麻布)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5,120	17,925	24,146	36,220	41,776	54,309

이후 1937년 12월 1일 포항에 이출우검역소(移出牛檢疫所)를 신설하여 사무를 개시하였다.(종래 조선의 이출우검역소는 인천·부산·진남포·원산·성진의 5개소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몽리지역의 확대와 수확고는 농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못 되고, 일제 식량정책의 일환으로 궁극적으로는 영일군 거주 일본인 지주와 일부 한국인 지주에게 그 이익의 대부분이 돌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25년의 다음 표를 참고하면 이해할 수 있다.

경상북도 소작농가 규모별 수지(1925년)

구 모	호 수	수 입	지 출	잔 액
대	4,802	945	924	11
중	18,086	900	929	-29
소	44,909	583	613	-30
세(細)	36,973	341	362	-21
계	104,770	2,769	2,838	-69

자작·소작별 면적

자작 겸 소작농 자작		자작 겸 소작농 소작		자작농(지주포함)		소작농의 소작	
답(畓)	전(田)	답	전	답	전	답	전
3,001.9	3,184.2	3,105.2	2,810.6	2,465.3	2,871.9	2,761.5	1,835.5

수 리 계

종 별	계 수	관 개 면 적	관 계 자 수		
			지 주	수 작 인	계
보	12	286.8정	362	377	739
제	15	292.82	525	415	940
계	27	579.62	887	792	1,679

지난날 식민주의자들은 이처럼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는 까닭은, 입버릇처럼 소작인들이 게으르거나 낭비하는 버릇 때문이라 하였다. 사실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기본수입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데 연유하였다.

이러한 적자생활을 면치 못하는 영일군민의 생활은 일제강점의 경제적 착취에 기인했다. 농민의 대부분인 소작농들은 비료대, 수리조합세, 곡물운반비, 지세(地稅)들을 부담하였고, 또 지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이 궁핍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영일지방에 재래적인 정미방법 대신에 근대적인 기계제 정미를 하는 정미소가 등장한 사실도 이와 관련된 사회현상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도정되는 쌀을 영일군 주민이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 많은 양이 일본인이 먹을 쌀로 도정되었던 것이다. 이는 1928년까지 일본인은 경북도내 각지에 95개소의 정미소를 차려 도내의 생산된 벼를 정미하여 일본으로 실어갔던 사실과 부합된다. 1911년에 增田정미소(오천면), 1913년

에 中谷정미소(포항면), 1926년에 최병기(崔柄基)정미소(포항면)와 金斗河정미소(포항면), 1927년에 村上정미소(흥해면), 1937년에 포항양곡가공압맥공장을 세워 정부 도정 공장업과 임대업(賃擄業)을 하였다.

영일군의 소작료 책정방법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접하지 못해 실상을 밝히기가 어려우나 고로(古老)의 전언에 의하면 도조(賭租, 定租)법과 집조(執租, 執穗)법이 주로 이용되었는데, 특히 일본인 지주들이 집조법을 선호하는 경향이었다 한다. 이러한 경향은 경북지방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일제의 토지수탈로 소작지 수요자가 급격히 늘고 지주의 수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데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조선의 소작관행(朝鮮의 小作慣行)》의 “소작료율은 일반적으로 생산량의 절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5할을 넘어선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토지매매 가격은 소작료율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됨으로 소작료는 상승하고 공과금은 소작인이 부담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조사는 1922년의 것으로 이후에 전개될 소작인의 생활상태를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당시 일제는 이와 같은 식민치하의 어려운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농촌에 여러 명목의 조합설립을 장려 권장하였다. 이러한 조합설치가 한국농민의 자구책을 위해 자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의 일환인 사회사업으로 이루어진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1) 영일수리조합

일제 강점기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다며 생겨난 여러 조합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수리조합이었다.

일본인들은 그들이 소유한 농토의 수확을 늘이고 이 고장의 영농을 위해 수리조합을 조직하였다. 형산강의 물을 이용하는 수리관개사업은 한해(旱害)와 수해(水害)를 방지하여 전천후의 농산물 생산을 가능케 하는 포항·연일지방의 숙원사업이었다.

영일수리조합은 1913년부터 오오츠카쇼오지로(大塚昇次郎)가 앞장서 설립을 제기하여 노력한 결과 1916년 2월 12일에 인가를 받아 공법인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1916년 3월 9일 기공식을 가졌는데, 관민 및 관계자 수백 명이 참석한 큰 행사였으며, 이 사업은 한국에서의 수리사업 중 일본인의 손으로 경영한 최초의 것이었다. 조합건물은 남빈동 동쪽 끝지점에 세워졌다. 총공사비 12만 670원 90전을 들여 7월 21일에 좌안(左岸)에 양수(揚水)를 개시하고 7월 25일에 우안의 통수(通水)를 행하여 8월 5일에 준공하였다. 준공 후 연일·형산·대송면의 각 일부구역의 몽리지역 면적은 논 430정보, 밭 및 잡종지 736정보를 포함한 총 1,400정보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수확은 평년작을 돌파하여 반당(反當, 1段步當) 4두(斗)의 증수를 보게 되었다. 설립

전과 설립 후 1934년까지의 봉리지역 벼농사 성적은 다음 표와 같다.

임원으로는 초대 조합장 오오츠카(大塚), 부조합장 최병한(崔柄翰), 조합회의원 허호일(許浩一) 등 한국인 7명, 나까다니 다께사부로(中谷竹三郎, 후에 조합장이 됨) 등 일본인 12명이 선임되었다.

수리조합봉리지역 수도(稻)성적표

연 도	경작면적	수확고	반당수량	연 도	경작면적	수확고	반당수량
설립전	430반당	5,590石	1.30석	1926	9,358	22,102	2.36
1917	6,300	12,600	2.00	1927	9,049	19,298	-
1918	6,992	15,642	2.23	1928	9,459	23,778	2.51
1919	7,620	17,808	2.34	1929	9,770	28,944	2.96
1920	8,325	18,375	2.21	1930	9,912	32,415	3.27
1921	8,377	19,235	2.30	1931	9,852	30,677	3.11
1922	8,810	20,524	2.33	1932	9,726	33,372	3.33
1923	9,254	33,206	2.47	1933	9,998	33,167	3.22
1924	9,292	21,520	2.32	1934	10,088	28,224	2.80
1925	9,455	12,068	1.28				

영일수리조합설치 이후 1932년 10월 4일 청하수리조합(청하·송라 양면의 각 일부 구역 봉리지역의 경지 면적은 151정보), 1942년 10월 26일 신광 수리조합, 1944년 1월 5일 기계 수리조합이 각각 설치 인가되어 농지면적이 많은 지역에서 수리관개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농지의 개간과 농산물의 수확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청하수리조합은 1933년 1월 15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공비는 8만 4천원이었다.

그리고 각 고장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통해 크고 작은 제(堤)나 보(淤)를 수축 또는 신축하여 벼농사에 도움을 주었다. (당시 영일군의 제언(堤堰)과 보(淤) 및 농촌 관계 기타 조합 상황은 1999년 《포항시사》참조)

2) 포항미두검사소와 영일군농회 농업창고

(1) 포항미두검사소

일제는 영일군의 농민보호라는 미명하에 포항에 포항미두검사소 영일군농회농업창고를 지었다.

포항미두검사소는 1917년 4월 9일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20년 경상북도 미두검사소 포항지소로, 1932년 10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 부산지소 포항출장소’로 개칭되었다.

1937년경의 곡물검사소·지소의 출장소 명칭과 위치, 지소 및 출장소 소속의 검사 지정지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검사 지정지

출장소명	위 치	소 속 검 사 지 정 지			
		쌀 검사 지정지	곡물(쌀 제외) 검사 지정지	가마니생산검사 지정지구	가마니반출 검사지정지구
안 강 출장소	경주군 강서면	강서면 안강리·사방리·양월리 강동면 유금리 기계면 현내동·내단동	경주군 강서면 안강리	영일군 기계면	경주군 강서면 안강리
포 항 출장소	영일군 포항읍	포항읍, 흥해면, 형산면 죽도동	좌와 동	포항읍, 대송면, 연일면, 형산면, 흥해면	영일군 포항읍 형산면 죽도동

초창기에는 포항동(후의 동빈정)의 민가를 빌어서 업무를 보다가 1929년 12월 24일 동빈정 110~4로 신축 이전하였다. 그리고 출장소의 검사곡물은 영일군을 중심으로 한 영덕·청송 및 경주방면에서 송하(送荷)되는 일체의 것으로서 1928년 이래의 검사 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검사곡물 수량

연도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현 미	64,676	21,263	125,127	75,979	129,921	85,549
백 미	1,322	535	6,598	772	3,178	1,167
콩	6,532	1,565	5,238	12,103	17,359	468
띵(가마니)	-	8,074	1,237	1,882	4,566	45,330

위의 수치는 일본이 식량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 쌀의 대량공급을 1920년 이후 산미증산계획으로 실제화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당시의 일제의 식량약탈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

그리고 당시 가마니(띵) 생산검사는 포항읍을 위시하여 흥해면, 대송면, 형산면, 연일면에서 각각 실시되었고, 입반출 검사는 포항읍 포항동에서 행하여졌다.

(2) 영일군농회와 농업창고

영일군농회는 1926년 3월에 창립된 것으로 영일군에 있어서 농사에 관한 각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조직된 것이다. 보통 농사는 물론이고 일반농사에 관한 시설 경영을 행하는 것으로서 면작(綿作), 잠업, 축산, 닥(楮) 및 제지, 각종 농사강습회, 농사간담회, 농사개량 간담회, 병충해 구제 등 기타의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회장직은 군수가 맡게 되어 있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평의원 7, 간사 3, 서기3, 기수(技手) 14, 의원 32, 특별의원9, 회원 30,438명을 보유하고 있다.

영일군농회농업창고는 1931년 7월 총독부가 미곡통제를 위해 농업창고령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영일군농회에 창고를 설치한 것이다.

농창(農倉)의 업무는 벼·현미·백미·보리·콩 외에 가마니·비료 등을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훈증(燻蒸)을 하고, 혹은 금융의 알선, 생산물의 가공 및 건조 판매의 알선, 수집, 운송, 소작료의 수령 대리 등의 일을 하였다.

농회농업창고는 1932년 학산동 17번지 포항읍 소유의 1,575평에 철강콘크리트 이중벽 2층 스테트 단층본동 153평, 하옥(下屋) 51평의 두 건물과 부속설비 64.5평을 세웠다.

당시 1933년과 1934년 이 창고에 입출고되었던 농산물의 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농회창고에 입출고 되는 농산물수량

연도	품목	전년도말현재수량	본년도 입고수량	본년도 출고수량	본년도말현재수량
1933년	현 미		532가마니	532가마니	
	벼		771.6석	777.6석	
	백 미		1,308가마니	1,308가마니	
	보 리		29.0석	.	
1934년	현 미		2,318가마니	2,318가마니	
	벼		3,3038.0석	3,3038.0석	
	백 미				
	보 리	29.0	86.8석	340.0석	36.8

이 표는 일제의 식량약탈정책에 의해 국내의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일본에로의 수출량이 늘어난 상황과 합치되는 것으로 이 고장의 양곡이 엄청나게 유출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식민통치로 인해 한국농민들은 만주와 일본으로 이민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농하여 식민시대의 빈민층인 낱품팔이나 행상의 토막민, 화전민 그리고 농촌빈민이 되어갔던 것이다.

3) 미쯔와() 포항농장

경북에서 포도생산의 대표적인 곳은 연간생산액의 대부분을 생산했던 이 고장의 삼륜(三輪)포항농장(동해면 도구동과 오천면 일부지역)이었다.

1914년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유럽의 포도주 수입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총독 데라우찌(寺內)가 丸見屋商店주인 미쯔와 쯔베이(三輪善兵衛)에게 포도재배를 권하게 된 것이 이 농장창업의 동기였다. 미쯔와는 수원의 모범장에 그 재배지의 조사를 의뢰한 결과 1917년 이곳이 최적지임을 확인하고 그 해 10월에 국유지를 불하받아 바로 개간에 착수하였다. 그 이듬해 1918년 2월에 미쯔와 농장을 설립하여 포도를 생산하고 점차 포도주 양조에도 착수하였으며, 그 제품이 극히 양질로 우수하여 외국산과 비교해서 하등의 손색이 없고 각 방면에서 절찬을 받아 한국과 일본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

1926년 농장면적은 150정보(1정보 3000평), 생산 포도주는 1,000석(1石=1섬:10斗)이었다. 1934년경 농장면적은 200정보, 연산 생포도주 800석, 브랜디 100석, 감미포도주 500석이었지만, 농장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포도수확 35만관(貫), 생포도주 2,000석, 감미포도주 1,000석, 브랜디 500석, 샴페인 및 비세리 100석을 예정하고 있었다. 당시 제품으로 매출되고 있는 것은 식탁용 적생(赤生)포도주, 식탁용 백생(白生)포도주, 감미백포도주, 감미적포도주, 브랜디 등이다. 농장장은 나카노 류이치(仲野隆一), 직원 15명, 한국인 인부 연인원 연간 32,000인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동양 제일의 포도원으로서 그 이름이 외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2. 수산업

동해는 수심이 100m 이상으로 가장 깊은 곳이 4,000여m, 평균 수심 1,700m나 되는 심해이다. 조석간만(朝夕干滿)의 차는 극히 근소하며 굴곡이 적은 해안지형과 아울러 간석(干瀉)의 노출은 거의 볼 수 없다. 동해 해수의 온도는 극히 저온이며 심층에는 섭씨 0.1~3도이다. 대마도해협에서 흘러드는 난류로 동남부 일본은 해안에서 10마일이나 떨어진 곳의 물밀 100m 이상이 아니면 냉수를 볼 수 없으나 우리 동해안은 해안에서 5마일이면 찬물이 존재한다. 경북 동해연안에는 하층 냉수의 유동이 잘 이루어져 때때로 상층 표면에까지 나타남으로써 많은 어족이 회유하고 산란하기 적당한

해저가 많은 한국 굴지의 우량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영일만 해역의 수족(水族)은 실로 광범한 분포로 약 70종에 달하며 그 가운데 어류 50종, 조개류 6종, 해조류 6종, 어수(漁獸) 및 기타 10종에 이른다. 주된 수족을 보면 고등어, 청어, 정어리, 갈치, 넙치, 도미, 방어, 가자미, 전복, 새우, 게, 미역, 천초, 상어, 오징어 등이다.

포항의 수산구역은 영일만 내 110리에 달하는 연안이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통어자와 함께 우리나라 다른 지역 어업자도 다수 내포(來浦)하여 포항은 경북 수산의 1/3을 차지하였다.

일제의 한국 수산업 침략은 1904년 통어조약으로 일본인 어민의 통어와 일본인 이주가 실시되고 강점 후 어업정책의 개선이란 명목으로 수산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식민지화 수탈로 자행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안어업은 자본주의적 경영에 바탕을 둔 근대어업과 영세어민을 주체로 하는 품팔이어업의 두 양상을 띠어 한국 어민은 대부분 후자의 길을 밟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졌다.

1) 영일만 수산계의 변화

영일만 일원이 일본인들에 의해 점차 한국해양의 보고로 개척되자 일찍이 어업조합을 결성 운영하고, 점차 어구·어선의 개량발달과 시험사업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어장이 계속 늘어나고, 양식개발과 공장 설비에 의한 가공제조기술이 진보하고, 한국인의 어업기술과 어획량도 어느 정도 개선 증대되고, 항만의 수축에 의한 해운이 발달하고, 포항에 경북수산시험장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며 경북 제1의, 한국의 대표적 수산업 중심지로 주목되었다.

1917~1924년경의 수년동안은 영일만 140여 곳의 정치연어장(定置練漁場, 청어어장)은 각종 어업 풍어가 계속되어 당시 어획기관의 청어어획고는 160만원, 고등어는 150만원이 넘었다. 그 밖에 영일만 근해에서 잡힌 어획고도 수십만원을 넘었다.

그 당시 포항항은 아침저녁으로 수백의 어선 및 발동선이 각각 큰 고기잡이 깃발을 날리며 출입하여 장관을 이루었다. 수천 명의 어부들이 운집해서 현가고성(絃歌鼓聲)이 밤낮 구별 없이 매우 흥성하여 불야성을 이루었다. 그러다 어황이 부진해지면 일반 경제계 역시 불황을 겪기도 하였다.

포항의 경우 1912년의 어획물 57만원, 제조가공품 12만원이었던 것이 1935년경 어획물 500만원, 제조가공품이 120만원에 이르는 신장을 보였으며, 개량어선 역시 1914년경에 2,519척에 불과하던 것이 1923년에는 무려 7,546척을 헤아리게 되었다.

또한 구룡포는 장기곶(현 호미곶)의 선단(先端)이 위치해 한국 동해안의 최량의 만 형태를 이루고, 만내 수심이 드물게 깊어 좋은 어항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청어, 고등어, 정어리어업 등이 일본 특유의 어장에 가장 접근된 특징으로 어선의 집산이 나

란한 같은 땅으로서 피난의 최적지이며, 구룡포의 근해는 어족이 풍부한 세계적으로 이름난 어장으로서 한국과 일본어업자간에 잘 알려져서 춘추 성어기에는 각지의 건착(巾着)과 유망(流網)어업자들이 몰려들어서 별세계를 이루었다. 특히 영일만 청어어업은 어획시기에 들어가면 7~8백 척의 어선은 각 어항에 밀집되고 각지로부터 상인, 노동자, 작부 등은 어촌에 폭주하여 영일만 각 어촌은 크게 번성하였다. 당시 영일만 수산업발달의 대표적 전진기지로 탈바꿈한 포항과 구룡포는 이 시기를 통해 근대도시화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포항은 영일만 해역의 지리적 환경의 이점으로 일제강점기에 한국수산업 중심지의 한 곳으로 부상, 발전하여 지역발전의 또 하나의 단계를 맞게 되었다. 영일군의 수산업은 1907년 일본어업가·어민들이 이주해 오면서부터 크게 변화하였다. 1909년 7월경 포항에 형성된 일인 이주어촌은 25호 120명이나 되었다. 이후 4군의 어업자호수와 영일군 수산업자호수의 통계는 다음 표와 같다.

어업자 호수(1910년)

군 명	흥 해 군	연 일 군	장 기 군	청 하 군
전 체 호 수	8,201호	5,190호	7,818호	4,609호
어 업 호 수	133호	173호	301호	261호

1910년경만 하더라도 영일만권 동해안 4개 고을의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호수는 모두 868호로서 전체 호수의 3.36%에 불과하였다. 이는 당시 이고장 어업의 전근대적인 낙후성을 반영하고 있다. 1912년 한국 해역에 출어한 일본어업단체로서 영일만 연안에서 조업한 단체는 사가현(佐賀)의 좌하한해어업조합(佐賀韓海漁業組合)과 도오쿄의 죽야군수산조(竹野郡水産組)·여사군수산조합(興謝郡水産組合) 등이며, 포항에 출어한 것은 오카야마현(岡山縣)의 조선만판매조합(朝鮮鰻販賣組合)이었다. 이후 많은 일본인들이 포항에 이주하여 한국인과 함께 수산업에 종사하는 업자들이 크게 증가되었는데, 1928년의 영일군의 경우는 다음 표와 같다.

수산업자 호수(1928년)

호 구 업종 국별	호 수					인 구				
	어 업	양식업	수산물 제조업	수산물 판매업	합 계	어 업	양식업	수산물 제조업	수산물 판매업	합 계
한 국 인	3,306	-	213	282	3,801	13,334	-	623	1,142	15,099
일 본 인	333	-	55	25	413	950	-	196	98	1,244
계	3,639	-	268	307	4,214	14,284	-	819	1,240	16,343

1928년 영일군의 한국인 수산어업자 호수는 3,901호이며, 전체 한국인 수산어업 호수 28,784호수의 13.5%로서 한국인 어업자호수는 1910년 전체 호수의 3.36%에 비하면 크게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비율에는 단순히 어업종사자 이외에도 수산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추가됨으로써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일본인 어업종사자는 대부분 큰 어선과 제조업체를 가진 사업자들로서 연안사업을 거의 독점하는 경우가 되나, 한국인 어업종사자는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한 실정이었다. 1928년의 ‘영일군 수산업자용 선박’의 유형은 다음 표와 같다.

영일군 수산업자 선박용(1928)

업별 국별	어업 및 양식용				수산물 제조·운반 판매용							
	한국형	일본형	기타	계	한국형	일본형	등부선	석유발동기	기선	기타	계	합계
한국인	716	633	15	1,364	28	71	2	-	-	-	101	1,465
일본인	-	477	27	504	-	17	2	26	2	-	47	551
계	716	1,110	42	1,868	28	88	4	26	2	-	148	2,016

포항수산업의 발전은 어선의 개조와 어로의 개선에서 큰 영향을 입고 있었다, 포항항의 5년간(1930~1934)의 선형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포항항 선형의 변화

선형별	1930	1931	1932	1933	1934
발동선	25	40	22	43	51
발동선운반선	20	21	24	28	32
한국형범선	80	40	30	20	20
일본형범선	514	579	652	712	788
운반범선	60	70	90	120	82

한국형 범선은 점차 격감하고 발동선과 특히 일본형 범선이 크게 늘어나 포항항의 어업은 기술을 앞세운 일본 근대어선의 독무대로 화했다.

성업철이 되면 크고 작은 어항과 어촌으로 많은 수의 어업자 및 상인 등이 몰려왔으며, 1930년경 영일만의 대표적인 지역의 경우는 다음 표와 같다.

연안성어철의 대표적 어획과 이주자 직종별(1930년경)

지명	대표적 어획종류	성어철	어주자 직종별									
			어선		어부		상인		식당주점		기생·작부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포항면	고등어 청어	11월~4월	10	40	100	400	-	2	-	3	-	-
형산면 여남·동 환호동	청어 대구	11월~4월	44	11	324	346	4	-	14	-	-	-
창주면 구룡포 리	청어 대구 전복	12월~3월 10월~1월 1월~9월	100	500	9,600	640	-	-	5	5	50	100
동해면 만주대 창대보	전복 갈치 청어	3월~9월 9월~1월 1월~4월	100	20	250	20	2	-	6	2	8	6
동해면 춘암동 입산동 마산동 흥발산	정어리 대구	12월~3월	15	-	550	20	-	-	-	-	-	-

위의 통계로 보아 성어기에 구룡포로 운집하는 유동인구가 만여명이나 된 것이 주목이 되며, 당시 구룡포의 풍성한 어황을 짐작케 한다.

일제강점기에 어황의 호조로 포항을 중심으로 한 영일만권은 한국 수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여 수산업과 상업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영일만권의 정치·사회·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일제 식민정책을 주도하는 일본인이었다.

이러한 역경에서도 한국 수산과 영일만 포항의 수산어업 발전을 위해 활약한 인사들이 전해지고 있다. 향토는 물론 경상북도 외까지 이름 날리던 김동덕(金東德), 김용주(金龍周), 강주석(姜疇錫), 권창조(權昌祚), 이우진(李雨珍), 양우용(梁祐鎔), 이재우(李載雨), 태창호(泰昌號), 이일우(李一雨), 정태원(鄭泰元), 김두하(金斗河), 김병준(金丙俊) 등 제씨는 수년 동안 해안동에다 사무소와 창고를 완비한 후 어선을 각지로 출동케 하여 수산 장려에 맹활약하므로 과거 일개 어촌이 현재 대어항도시, 포항의 칭호를 소유케 되었다고 칭송하였다.(1939. 11. 16 《동아일보》〈포항의 有志, 수산발전에 활약〉)

2) 중요 어업

영일만에 있어서 어업의 종류는 약 20종으로 주된 것은 장시휘리망(杖矢揮羅網), 자망(刺網) 및 일본조(一本釣, 낚시바리) 등이다. 일인의 이주로 어구·어로법이 진보하여 1912년경에 이르러서는 일본식 어업인 시바리아미(縛網), 건착(巾着)망, 대부(大敷)망, 팔각(八角)망, 각(角)망, 호(壺)망, 지예망(地曳網, 후리망), 유(流)망 등이 성행하자 한국인 어업자도 자극을 받아 점차 일본식 어법으로 전환하여 1925~26년경에는 한국 재래식 어업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특히 종래의 청어 어로에 사용하는 장시휘리망과 같은 것은 1917년경에 이미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여 낙망(落網) 또는 표망(瓢網)이 발흥하게 되고, 범선박망 및 건착망어업은 발동선 건착망으로 변하고, 유망도 기선유망으로 대체되어 일찍이 기선 저예(底曳)어업이 융성하게 되어 어로방법이 크게 개선되었다. 영일만 주변 해역의 중요어업은 청어, 고등어, 정어리, 대구, 가자미, 갈치 등이었다.

1934년의 영일군의 어종별 어획고는 다음 표와 같다.

영일군의 어종별 어획고(1934년)

(단위 : kg/원/매)

종 별	수 량	가 격	종 별	수 량	가 격
고 등 어	20,046,810	1,140,712	가 자 미	1,787,782	57,205
정 어 리	13,372,315	215,614	해 삼	158,718	33,860
대 구	6,104,684	246,096	새 우	100,940	20,188
청 어	29,508	885,250	고 래	61,875	6,115
삼 치	144,952	38,186	오 징 어	10,237	171
도 미	4,188	1,989	농 어	44,264	10,469
미 역	907,450	36,298	전 어	23,362	1,226
넙 치	325,897	59,676	계	65,429	6,037
뱀 장 어	218,669	34,987	말린오징어	37,500	4,000
가 오 리	274,406	7,105	참 치	12,525	5,000
천 초	310,548	15,743	공 미 리	123,525	10,500
문 어	212,707	73,504	들 김	740,000	7,400
방 어	318,036	73,513	片口鱒	1,030,242	52,163
상 어	133,125	3,900	잡 어	554,860	31,453
복 어	45,000	1,800	성 계	10,725	754
청 각	11,250	150	쭉 기 미	58,125	1,550
취노래미	33,749	7,200	다 량 어	44,040	5,400

1914년도 영일만의 초창기에 있어서 어획고는 기록에 의하면 청어 4만5천원, 대구 5천원, 연어 1천 300원, 고등어 5백 5십원, 상어 600원, 정어리 800원, 뱀장어 200원, 잡어 400원, 미역 30원, 합계 5만 1천 680원이었다. 1914년의 어획고에 비하면 1930년대 중반에는 작게는 10배, 크게는 100여배 이상 신장되어 상당한 어획량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1934년도 포항의 어획고는 168만 1,279원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64만 540원, 일본인은 104만 739원으로, 적은 숫자의 일본인이 많은 숫자의 한국인의 어획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일제강점기의 여타 산업과 같이 수산업계의 현실이었다. 중요 어종의 어획고는 다음 표와 같다.

포항의 중요 어획고(1934년도)

구 분	청 어	대 구	정 어 리	칼치
한 국 인	198,122원	100,561원	35,969원	60,740원
일 본 인	261,000원	167,520원	119,500원	92,000원
계	459,122원	268,082원	155,469원	152,740원

(1) 청어(: 연어업

청어는 한국 전해역에 산출되며 농밀한 어군을 형성하여 내유(來遊) 한다.(《林園十六志》) 매년 초겨울이 되면 맛좋은 청어는 산란의 목적으로 적당한 연안을 찾아 큰 무리를 지어 유래(遊來)한다. 경북 영일만은 청어 산란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저가 많아 한국 제일의 청어 산란지이다.

포항항은 우리나라 제1의 청어 집산지로서 매년 청어기인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는 극히 번성하여 수천 어선이 정박하며 수천여 노동자가 운집하여 경기는 아연 활기를 띤다. 한국 청어는 대부분이 동해안 일대에서 생산하고 그 중에도 경북 영일만이 제일 유명하다. 전 산액의 반 이상이 영일만에서 생산된다. 그러므로 청어 풍획은 영일만의 경기를 결정한다. 각도의 생산액은 다음과 같다.(1932.1.14《동아일보》)

경상북도 : 3,936,447관(1,574,608원) 함경북도 : 2,655,350관(622,327원)
 함경남도 : 1,089,355관(325,916원) 강 원 도 : 1,803,169관(392,444원)
 경상남도 : 14,588관(10,250원)

영일만의 청어라고 하면 함경 바다의 명태어, 연평 바다의 조기와 아울러 그 생산 계량 상으로나 산액 상으로 보아서 한국의 3대 어족의 하나다. 청어의 산지는 경북 동해안에서 한하지 않고 경상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각 연안에서도 어획되는 것

이나 그 중 경북 영일만이 가장 유명하다.

포항은 수산물의 도시인 동시에 청어의 도시이다. 1921년 1월 중 포항 청어 어획수는 영일만내 17,000통(1桶 : 2천 마리), 만외 약 8000통, 2월 중 영일만 내외 아울러 약 7,000통이 되었다.

포항의 1930년대 전반기 수년간의 청어생산고를 보면 1931년에 432만 9,910관(126만 1,343원) 1932년에 812만 3,111관, 1933년에 735만 2,716관이었으며, 후반기 1936년 1월에는 포항 청어가 전 어획의 3분의 2로서 100만원의 생산고를 올렸다 한다.(《동아일보》1936.1.21)

1934년에는 동해안에서 1년에 5만 톤이나 잡혀 청어알만 하여도 영일만 연안에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백 년 이래 영일만 동해안의 최대 청어 풍어기는 일제강점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구룡포와 시내 여남동에는 영일만 청어 등의 대풍을 반영하는 ‘개도 지폐를 물고 다녔다’는 유행어를 낳기도 하였다.

판로는 생산의 3분의 2가 한국 내에서 소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만주방면에 까지 수출되었다. 영일만 인근에 해초가 많아 이곳에 와서 산란하기 때문에 이 고장 청어 맛이 제일 좋았으며, 청어는 본래 이 고장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특히 일본인들이 애호하여 고급 수산식품으로 꼽혔다.

따라서 청어의 어황 즉, 흥풍은 어업가 뿐만 아니라 포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어 이 고장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청어는 지유성(旨游性)을 지닌 어족으로 영양상으로는 비타민 AD를 많이 머금어 지방질이 풍부하고 육질은 유연하고 맛이 좋고 소화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많이 잡혀 가격이 비싸지 않아 벽지 산촌에까지 그 진가가 알려졌다. 당시 청어가공품인 미카키니싱(身缺鯿, 청어등태기)은 세계적 시장에서까지 호평을 받았다.

청어자원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성쇠(盛衰)변동이 심하였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청어가 풍어를 이룬 경우가 잦아서 포항이 전국적인 수산업 도시로서 명성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영일만의 청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부터 유명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전 한국청어의 7할을 포항의 청어가 차지하여 어획고가 150만원을 내려간 적이 거의 없었다. 그 결과 1934년에는 동해에서 1년에 5만 톤이나 잡혔고, 청어알만 하여도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한다.

지금도 호미곶 구만리에 까꾸리개(鈎浦)라는 이름의 물가지역이 있다. 파도에 밀려온 청어떼를 깔구리(표준말, 갈고리)로 마구 끌어올렸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러한 지명을 통해서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영일군 36개의 어업조합 중 청어 정치어장 소유별은 한국인 117개, 일본인 125개를 소유하고 있었다.(《동아일보》1933.2.17)

청어의 어법에 있어서는 한국인도 일찍부터 진보된 방법을 사용해 왔다. 즉 장시(杖矢)라고 부르는 정치(定置)어업이 그것이다. 그러다가 일본인의 이주와 함께 이러한 종류의 어법도 다시 진보를 보게 되어 한국인의 독특한 장시어업도 1912~1913년경부터 점차 그 모습을 잃어갔다. 이후 일본인 하마다 고래야스(濱田惟和)가 영일만내 동해면에서 표망에 의해 해마다 상당한 실적을 올리게 된 데에 자극되어 청어 어업은 일전하여 표망으로 변하고, 일면 호망과 낙망으로도 변하여 갔으나 1926년경에 이르러서는 호망어업도 자취를 감추고 낙망과 표망이 경상북도 청어어업의 2가지 대표적인 어업방법이 되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청어는 40년 주기로 낚으며, 영일만 동해에서도 여름에 잡히기도 하였는데 이 청어를 염(炎)청어라고 했다 한다. 그리고 어부림(魚付林)이 있고 전기 불이 없을 경우에는 청어가 영일만 안으로까지 들어온다고 한다.

예로부터 오늘날의 포항시 남구 지역인 영일과 장기고을에서는 겨울청어로 진공품인 과메기(貫目)청어를 만들어 전통적인 향토수산식품으로 키워왔다. 과메기는 청어를 말리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청어를 두툼으로 썬어 겨우내 통풍 잘 되는 처마 밑 그늘에서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만든 얼말린 동결건조(冬結乾燥)식품이다. 과메기는 여러 가지 식품으로 애용되었는데, 봄에 햇썩이 나올 때 함께 넣어 잘 끓여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과메기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아니었다고 한다. (본 시사 제5장 제3절 2의 ‘포항의 향토식품 과메기 유래’ 참조)

이에 비해 일본인들은 머리를 끊어내고 내장을 빼고 살코기로 과메기와 유사한 미카키니싱(身缺鱈, 청어등태기)을 만들어 먹었는데, 내장을 들어내었기 때문에 과메기보다 맛이 덜하다고 했다.

(2) 고등어(: 청어업

고등어는 한국의 전 연안에서 산출되는 어종으로서 그 자원이 풍부하다. 고등어는 일본 연해에서는 잘 잡히지 않는 것으로 부근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고등어어장이 유일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영일만 일대 특히 구룡포는 한국 고등어어장 중 가장 중요한 어장으로 해당 업자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가을에는 고등어군의 집단이 농밀(濃密)하고, 어체가 크고 맛이 좋아서 타 어장에서는 그 유례를 볼 수 없었다. 따라서 고등어 어획은 경북수산품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등어의 주된 어구는 유망, 건착망, 연승 등이었다. 고등어잡이 기술의 변천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범선유망(帆船流綱)은 전통적인 한국인의 어업 방법이며,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그 수나 어업성적에 있어서 도저히 기선유망에 비교가 되지 않았다.

기선유망어업(機船流綱漁業)은 고등어 유망어업(범선에 자아틀(winch)을 달아서 그 물을 감아올리는 어업)은 1920년 이후 일본인의 통어자의 창업에서 비롯된다. 5~7월에는 상층수면에서, 가을~겨울간은 약 36m(20尋, 1심은 6척) 내외 수심에서 조업한다. 최초 일본에서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 연안에 통어한 것은 가가와(香川)와 오카야마(岡山) 양현의 어업자였다.

당시의 고등어 어업법은 전적으로 범선유망이었다. 몇년 후 점차 어구의 개선 발달과 함께 약 90m(50심)선 층까지 조업을 늘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선의 동력화가 요구되었다. 1924년 가을 가가와현의 어업자들이 동력화를 도모한 결과 실적이 양호하여 이듬해에 일거에 13척으로 증가하였다.

1929~1930년경에는 대형 어선이 약 150척이나 되고 구룡포·감포는 그 중심 근거지가 되어 경북 고등어어업의 황금시대를 출현시켰다. 그런데 얼마가지 않아 어장이 황폐했기 때문에 1932년에는 출어선 수는 반감되었다. 따라서 1926년경 이후에 이르러서 범선 유망은 기선 유망이 되고, 1935년 현재는 어느 것이나 40마력(馬力) 이상의 발동기를 달게 되었다.

건착망은 정어리의 주된 어구였을 뿐만 아니라 고등어(및 전갱이)의 주 어구이기도 했다. 고등어 건착망어업이 본격적인 발달단계에 오른 것은 1920년대 초기부터였으며 1920년대 중기경부터 고등어 건착망은 기선건착망의 일색이 되었다. 이 기선건착망(機船巾着網)어업은 초기에는 경상남북도 연해가 주 어장이었으나 어획 노력의 과잉으로 점차 어장이 황폐해짐에 따라 1920년대 후기부터는 어장은 동·서 양안으로 이동하여 발달하였다.

1919년 이전의 고등어잡이는 전적으로 박망(縛網) 어업에 의존해 행하였지만 그 후 외두리(片手廻, 편수회)는 기선건착망의 출현에 의해 박망 어업은 선소오(先漕, 선조) 건착망으로 변천하여 자연히 범선박망(帆船縛網)어업은 모두 자취를 감추었다. 1925년경부터 선조건착망도 기선건착망으로 변천하고 이어서 쌍두리(兩, 雙, 手廻, 양수회) 건착망이 1930년대에 발흥하였다.

1934년 12월 경북 고등어어업의 중심지인 구룡포에는 100여척의 건착망이 출어하였으나 어획을 보지 못하다가 13일부터 풍어를 보게 되어 지난 18일까지 5일간 3천만 마리의 어획이 있었다.

포항에 이주한 일본인으로서 하마다 고래야스(濱田惟和)가 1924년 본격적인 고등어어업에 진출했다. 정어리 기선건착선어업 및 기선저예망(底曳網)어업과 함께 자본제적 대규모어업에 속하였던 고등어 기선건착망어업은 일본인의 독점어업으로 시종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인은 주로 영세한 연승어업(연승어업 중에서도 무동력의 범선연승어업)에 종사하였다.

고등어 연승(延繩)어업은 한국인 어업으로서 1925년 울릉도 근해에서 시험하여 좋은 성적을 보아 한 때 보급되었지만 얼마가지 않아 쇠미해졌다. 1932년 경북수산시험장이 영일군 연안에서 시험한 결과 확신을 얻게 되면서 영일만 연안은 한국 내의 주요 고등어연승 해역이 되었다. 이 어업은 소자본으로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보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장은 연안 7마일~10마일 지점에 있는 관계로 범선보다 발동기선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발동기 부조선(附釣船)으로 이행(移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3) 정어리(: 온)어업

정어리 어업은 한해(韓海)어업을 1937년 한 때 세계 제2위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일제강점기 후반기의 어업을 화려하게 장식한 어업이다.

일찍부터 정어리 어군이 내유했던 것은 확실하나 1920년대 이전에는 그 자원이 아주 풍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어리 어업전용의 어구·어법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정어리어업은 어획물상으로 보면, 제온(鯢鱈, 멸치)어업과 진온(眞鱈, 큰 정어리)어업의 둘로 나눈다. 전자는 주로 지에망 및 권현(捲現)망에 의한 것으로서 이 종류의 어업권은 연안 각처에 그 면허수가 89에 달하였다.(1935년 현재) 각 어장은 제조설비를 함께 갖추어 어획물로 즉시 멸치를 제조하고 있었다. 진온어업은 1923년 이래 점차 어획고가 증가하였으며, 그 어법은 주로 자망을 사용하지만 1935년경에는 주로 일본인의 기선건착망의 사용이 늘어났다.

어기(漁期)는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로서 어획물의 대부분은 어유(魚油)와 비료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그 밖에 Fish meal과 Tomato Sardine을 비롯한 제조통조림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조선약유비통제사(朝鮮鱈油肥統制史)》에서 1924년 2월의 어항을 “남해안에서는 어기가 종료하였으나 동북해의 정어리는 그 어군이 더욱 많이 각 연안에 습래(襲來)하여 대단한 풍어현상을 나타내었다. 영일군에서는 청어정치망 및 청어자망에 어획되는데 그 처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가격 저렴과 어망과손 등으로 말미암아 이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 같다”고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영일만 근해의 정어리어군은 절정을 이루었던 것 같다.

정어리 어업의 대표적 어구는 자망(刺網)과 건착망(巾着網)이었다. 1924년부터 자망(流刺網 또는 流網)어업은 타에 앞서 발흥하기 시작했고, 1930년경에는 자망어업의 최성기를 나타냈다. 자망은 범선자망과 동력선에 의한 기선자망의 2종류가 있었다. 정

어리어업의 왕좌를 차지하게 된 건착망어업은 1929년경부터 급속히 발달하였다. 건착망도 범선건착망과 기선건착망 두 가지가 있었는데 1930년대 중기경부터 대부분이 기선건착망으로 전환되었다.

원래 정어리어업은 자망어업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초기에는 총 어획고의 8할 7분까지가 자망어업이 차지하고 있었다. 1934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망 어획고가 높았다. 기선 건착망어업의 급속한 발달로 1936년에는 총 어획고의 70%를 건착망어업이 차지하였다. 이것은 건착어업은 능률적인 어구·어법에 의한 대규모경영이었는데 반해 자망어업은 극히 영세한 어업경영이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최성기에 한국인은 함북지구에서 약 1할, 동해지구에서 약 2할에 불과했다. 한국인은 주로 영세경영인 자망어업에 종사하였다. 1935년경 자망어업의 약 9할 정도는 한국인이 경영하였고 한국인의 자망어업은 대부분이 범선자망어업이었다.

1920년대 중기부터 본격화된 정어리어업은 비약적인 발달을 보고 그 절정에 달했던 1937년에는 어획고가 물경 138만 8천 M/T에 달함으로써 한국 동해안(함북에서 경남까지) 대표적 어업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어장의 명성을 확보했다. 단일 어장에서 단일어종의 어획고로서는 세계적 기록이었다.

그러나 1940년부터 자원감소로 쇠퇴하고 만 정어리 어업은 지금은 한해(韓海)어업의 많은 전설을 남긴 채 기억속에서 멀어져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어리의 풍어로 영일만 고장에는 ‘히야메시가 메시까, 이와시가 사가나까(식은 밥이 밥이나, 정어리가 고기나)’와 ‘정어리는 개도 안물고 다녔다’라는 유행어를 낳기도 하였다.

(4) 대구(: 설)어업

일제강점기 당시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 근해 연안에는 도처에 대구가 회유하고, 대구가 비대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영일만 대구는 각처로부터 애호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어획고가 3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어업이었다.

대구어업에 사용하는 어구는 기선저예망 연승(延繩) 및 낙망 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선저예망이 제일 좋은 성적을 올렸다. 대구연승어업은 주로 한국인 어업자에 의해 조업되어 동기(冬期)에 있어서 청어어업과 비견할만 하였다. 낙망·표망 등은 원래 청어어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영일만 연안의 대구는 대개 12월부터 다음해 4월에 걸쳐 5개월동안 흡사 청어어업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낙망·표망에 의해 대구를 청어와 혼획하여 그 수량도 상당량에 달하였다. 당시 포항과 구룡포지역에서는 청어와 대구 풍어시기를 비교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비본청어, 눈본 대구”라는 말로 비온 후에 청어가 많이 잡히고, 눈 내린 후에 대구가 많이 잡혔다는 뜻이다.

(5) 오징어()어업

오징어어업은 경상북도가 전국 어획고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경상북도에서 울릉도 다음으로 영일만 오징어어업의 어획고가 높다. 오징어의 건조품은 어업자들의 소득뿐만 아니라 연안 영세어민의 경제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징어잡이는 오징어 습성상으로 색이(索餌)에서 오는 일본조(一本釣, 낚시바리)어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어법은 간단하면서도 숙련을 요하였다.

그밖에 겨울철의 영일만 연해(영일만 바깥 동북동 연해와 구룡포 동북쪽 연해)에서는 정치망어장에 접근 승망(乘網)하여 어획하였다. 이들 어업법은 영세어업의 어획임에 특성을 띠고 있다. 오징어의 습성상 일몰·일출시의 색이가 가장 활발함으로 이를 이용하여 조획(釣獲)한다.

출어는 초어기인 8월 하순에 하고, 최고 성어기인 9월 하순(21일)에 제1회 출어를 하고, 10월 중순(17일)에 종료한다. 시험선 계림호(69톤)를 운항하여 어부를 탑승케 하여 성어기의 주 어장인 장기곶(현 호미곶) 북동쪽~동방향 5~10해리 근해에서 조업하였다. 경북의 어획량과 어획고를 보면 1937년에 81,150kg(22,955원), 1940년에 3,077,919kg(472,047원), 1948년에 6,426,684kg(487,726,900원) 이었다. 점차 어획량이 증가하여 일제강점기의 1940년에 크게 증가하였고, 광복 후 1950년부터 어획량이 괄목할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울릉도가 대표적이다.

(6) 고래잡이(捕鯨 : 포경)업

옛부터 동해안의 울산·포항·장전(長箭)·신포(新浦) 등지의 연해에는 고래자원이 풍부한 까닭에 죽은 고래가 접연(接沿)하는 경우가 있어, 그 양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가 표착(漂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도 일본인들은 창(鎗)을 던져서 잡는 포경법을 실천하여 왔으나 우리 어부들은 이 기술이 없으므로 자사(自死)하여 사상(沙上)에 오른 것을 얻을 뿐이었다.(《林園經濟志》)

1834~1853년경 러시아인이 강원도 연안에서 포경, 채육(採肉)하여 일본 나가사키에 매각한 일이 있다. 그 후 러시아선은 조선정부의 하등의 간섭이 없음을 보고 1891년경부터 처음으로 선박의 정계(碇繫)에 편한 연안포만(沿岸浦灣)에 공공연히 출입하게 되었다.(《慶尙南道誌》)

당시 조선정부에서 러시아 포경선에 의하여 조선 동해안에 있어서 노르웨이식 포경업(1864년 노르웨이에서 발명된 것으로 기선에 대포를 설치하고 이 포에서 섬(錐)을 발사하는 법으로 일제강점기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은 1880년경으로 추정되며, 1883년(고종 23년) 김옥균(金玉均)으로 하여금 동남제도개척사 겸 관포경사(東南諸島開拓使 兼 管捕鯨事)로 임명하여 울릉도 개척에 힘썼다는 사실은 포경업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883년(고종 23) 3월 김옥균으로 하여금 동남제도개척사 겸 관포경사(東南諸島開拓使兼管捕鯨事)로 임명하여 울릉도 등의 여러 섬 개척과 함께 동해안의 포경업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래의 회유지(回遊地)는 주로 강원, 함경 및 경상도북부의 연해이며, 포경근거지는 울산만·영일만·강원도 통천만·함경도의 마양도(馬養島)를 위시하여 원산만내의 송전항(松田港), 함흥군의 서호(西湖), 단천군의 차호(遮湖), 영변의 청진(淸津), 경성군의 유진(楡津) 등이다. 고래는 난류의 변측(邊側)에 따라서 깊은 곳을 유행(游行)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가을에 함경도북부에 출현한 고래들은 동해 한류의 세력이 증대할 무렵, 즉 초겨울부터 점차 남하하여 강원·경상 양도 연해를 지나 조선해협을 경유하여 일본 5도(五島)부근에 이르는 심해를 유영하다가 난류의 세력이 점차 높아지는 5~6월경에는 전로(前路)를 더듬어 북상 북귀하는 것 같으며, 4~5월경에는 울릉도 부근에 가장 회유가 많았다.

영일만·울산·울릉도는 예로부터 동해안이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인데다가, 수심이 깊고 갈치와 오징어 등 어족 먹잇감이 풍부하여 고래 서식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포경어장으로 주목된 것이다.

1997년 6월경 포항시 장량동에서 원형에 가까운 7m 크기의 고래화석이 발견된 것은 일찍이 영일만 동해와 고래서식과의 관련성을 말해주고 있다.

1905년 러일전쟁이 끝난 후 1906년부터 한국해의 포경이 재개되어 한국연안의 포경어업은 일본인의 독점사업이 되었다.

1911년경까지는 고래고기의 한국 내 수요는 거의 없었고, 고기는 냉장 또는 염장(鹽藏)하여 일본의 하카타(博多)를 비롯하여(전체의 7할)·시모노세키(下關)·한신(阪神, 오오사카와 고오베)방면으로 출하하고, 내장(오장육부)은 한국인이 소화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영일만 근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래회유지로 1900년 귀신고래를 보았다는 선상일지가 있고, 1906년에는 동양어업주식회사에서 34두를 잡았으며, 1941년 조선수산개발주식회사에서 밍크고래를 포획한 것으로 보아 다양한 고래가 영일만에 서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40년대 포항의 포경선은 3척(일인 회사 1척, 한국인(金元道와 元正道) 2척)으로 1주일에 1~2마리씩 잡았다. 작은 것은 30~35자, 큰 것은 60자로서 큰 고래의 입을 벌리면 높이가 2m 정도였으며, 먼 바다에서 고래를 잡아올 때 장생포의 포경선과 협조하여 3일간이나 씨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연일읍 괴정동의 鄭泰永翁의 증인)

3) 양식업

일찍이 영일어업조합에서 조개류를 영일만 내에 방류한 일이 있었지만, 그 후로는 그러한 번식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1917년 어업조합은 대송면의 해안부근에 치어(稚魚)양식을 하도록 면허를 받아 실시했지만 아무런 이윤이 생기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아 면허권리를 포기하였다. 1923년 이래 바위김(암해태, 岩海苔)의 번식을 도모했는데 결과가 극히 양호하여 우수한 제품을 얻기에 이르렀다.

경북 영일군 연안에서 생산되는 암해태는 1932년까지 연산액 6천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어촌진흥운동이 개시된 이래 어촌부업의 유망한 것을 조사한 결과 영일군내 송라, 청하, 곡강, 영일, 구룡포, 장기의 6어업조합구내에 암해태를 양식할만한 전면적이 1만여 평에 달함을 알고 각 어업조합에서는 해태가 생육할 암면에 시멘트 공사를 하여 평평하게 하고 잡해초가 나지 못하도록 제거한다면 연산 약 5만원의 대증산을 보리라 하였다. 나아가 품질을 개량하고 양식지를 한층 확장한다면 어촌부업으로는 가장 적당하다 하여 각 어업조합에서는 각자 구역에 ‘시멘트’ 농사를 착수하여 1933년 9월까지는 전부 완료됨으로써 당해년 겨울부터 증산이 기대되었다.

이에 당국에서도 어촌의 소득을 개척하기 위해 1933년 3개년 계획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바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이에 번식을 도모하여 1935년경에는 어촌의 부업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1936년부터 매년 1어촌씩 암(岩)해태장 설치를 착공하기로 했다.

4) 수산제조가공업

1912년에 있어서 경북수산가공업의 기록에 의하면 그 제조고가 12만원에서 1935년에 이르러서는 156만 3,495원으로 13배로 늘어났다.

포항에 있어서 제산(製産)품도 초기에는 전자(煎子, 멸치) 및 염장품(鹽藏品)에 불과하였던 것이 1935년경에는 미카키니싱(身缺鯿, 청어등태기)·히라기다라(開鱈, 대구포)·사바부시(鯖節)·니보시(煮乾品)·사꾸라보시(櫻干)·온유비(鱈油肥)·토마도사아딘(Tomato Sardine)·가스츠크(粕漬)·관힐류(罐詰類, 통조림류)·시오가라(鹽辛, 생선젓) 등의 제조가 활발하였다.

(1) 멸치(煎子)제조는 동해안 각지 영일군에 39개소, 영덕군에 15개소, 경주군에 12개소의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그 제품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서 종래는 원산지 수요 외에 거의 부산에 보내고 일본 시장을 향한 것이지만 1930년대에는 어업조합의 자금 공급 기타 판매알선에 의해 국내는 물론 멀리는 만주방면에까지 진출하였다.

(2) 염장품은 고등어·청어를 주로 하였으며, 주된 산지는 구룡포·울릉도·강구의 각 어항이다. 포항의 각 항에 있어서 이들 염장품은 1934년에 36만 2천여원에 달하여 그 후로 더욱 발달할 수산제조가공품으로 주목되었다.

(3) 신결련은 청어등태기 또는 미카키니싱이라 칭하는 것으로 청어가공품이다. 청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좋아하는 기호식품으로서 어획의 대부분은 염장으로 서 각지에 보내지만 1930년에 이르러서는 북해도의 청어가공품이 도처에서 절찬을 받고 있었다.

이 가공품은 1923년경 일본인이 창시한 것으로서 최초는 북해도의 것을 모방하였지만 그후 그것을 개량해서 두 조각으로 갈라서 만들었다. 이후 수산가공의 발달에 따라 업자가 늘어나 신결련의 판매도 상당히 증가되었다.

1931년경까지는 겨우 두세 명의 일본인에 의해 경영되었던 것이 1932년에 이르러 어업조합연합회가 포항에 청어의 위탁판매소를 설치하여 이것을 경북수산회사에 대행시킨 결과 종래 이 부근에서 어획된 것이 선어(鮮魚) 그대로 부산에 회송되었지만 1933~1934년에 이르러 거의 전부 포항으로 집중하여 강원도 방면의 어획물도 역시 포항항에 회송하기 때문에 청어가공품의 제조는 매우 발달하여 1933년에는 17만여 원의 생산액에 달하게 되었다. 포항에서 청어등태기 생산을 가장 크게 운영한 자는 마쓰다히데오(増田秀男)였다.

1934년 경북에 있어서 산지는 포항항을 주로 하여 영덕과 강구에 공장수도 11개소에 달했다. 그러나 시세보다 남보다 먼저 팔려고 하는 지나친 경쟁상법으로 수용지업자에게 속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품질과 출하 통제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1934년 청어가공품조합으로 신결련조합(조합장 田中貢)을 설치하게 되고, 제조에 있어서 한층 새로운 맛을 내기에 이르렀다.

특히 제품의 향상 판매의 통제에 관해서는 산지 검사를 실행하는 한편 그 거래는 일도시 일점(一店) 주의를 철칙으로 중간 도매점의 착취를 피하고, 시종 공정한 시가를 유지하는데 노력한 결과 1935년 창립 1주년이 되기 전부터 성적이 양호하여 조합원 공동의 이익증진에 이바지하는 바 컸다. 신결련의 성가는 점차 높아지게 되어 중요한 수산가공품으로서 장래가 매우 촉망되었다.

만드는 방법은 청어에 소금을 쳐 가마니로 덮어 하루를 재운 뒤 이튿날 등을 타서 내장을 들어내고 머리를 끊어낸 후 줄에 1주일 정도 걸어 말린 후 칼로서 잔뼈(배치실)를 끊어 고른 후 다시 발에 건조시켜 피덕피덕하게 되면 껍질에 포장하여 상품화한다. 이 청어등태기는 거의 일본으로 보내졌으며, 먹을 때는 청어과메기처럼 여러 방법으로 조미하여 먹었다 한다.

(4) 대구포(개설)는 대구어 가공품으로 1934년경부터 박지(粕漬, 살고기 절인 것)를 매출하여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 원래 대구포는 원시적인 가공품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대구고기의 육질로 보아서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시험장과 어업조합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당시(1934년경) 제품으로 판매하기는 일렀다.

만드는 방법은 대구의 머리를 끊고 등을 타서 등뼈와 내장을 들어내고 씻은 후 하루쯤 소금물에 절였다가 다시 물에 씻은 후 다시 말린 것이다. 말라서 납작하게 되면 가마니에 넣어 주로 군용으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조미해서 먹거나 또는 그냥 초장에 찍어 먹었다.

(5) 청절(사바부시)은 선도가 좋은 고등어와 다랑이(시퍼런 줄이 있는 것)의 등을 타서 내장을 들어낸 후 약간 건조시켜 잿불에 구워서 숯처럼 검은 부분은 대패나 칼로 깎아내어 된 것으로 포장해서 주로 일본으로 보냈으며, 일본인들은 이를 멸치처럼 음식의 조미료로 썼다.

(6) 자건품(니보시, 훈제품과 유사)는 학꽂치나 큰새우(大蝦)의 껍질을 벗기고 머리를 떼고 살을 납작하게 하여 조미한 후 철사발에 말린 다음 약한 불에 구운 것으로 기름포장지로 싸서 거의 일본으로 보냈다.

(7) 앵간(사꾸라보시)은 대하의 머리와 껍데기를 떼 뒤 이를 두드려 납작하게 만들어 조미해서 하루쯤 두었다가 불에 말려 만든 것이다(모양이 사꾸라처럼 생긴데서 명명). 오늘날의 쥐치포와 유사한 것이다. 학꽂치로 만들기도 했으며, 이를 사요리보시라 칭했다. 이 앵간은 대부분 포항의 독점형태로 그 공장도 5개소나 달하고 그 산액도 해마다 증가하여 제품은 국내와 일본의 오오사카(大阪)와 코오베(神戸)방면으로 보내져 호평을 받았다.

(8) 온유비(온유, 유아시유, 온비, 유아시시메가스)는 정어리를 술에 찢 뒤 고기를 쇠통에 넣어 바짝 압축하여 살과 기름을 구분하여 만든 것으로 살은 다시 1~3등급품으로 나누어 1등급은 식료품, 2등급부터 등외품은 비료와 사료가 되었으며, 기름도 1~3등급품으로 나누어 1등급은 식용유(정어리기름은 잘 튀겨진다)·화장품·베틀기름·기계기름, 2등급부터 등외품은 저질화장품·세탁비누원료·화약원료가 되었다. 광복 후의 송도조선소 자리에 큰 공장이 있었다.

(9) 토마도사아딘(Tomato Sardine)은 정어리의 살과 뼈만 다듬어 찢 것과 토마토를 섞어 만든 것으로 정어리어업이 발흥하면서부터 1929년부터 수년간 경상북도수산시험장에서 신조법(新造法, 生詰法) 개발에 성공하여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10) 박지(가스츠키)는 선도 좋은 생선(대구·청어·방어·농어·고등어·송어 등)에 간을 하고 피덕하게 말려서 껍데기를 벗기고 그대로 정종지계미로 무쳐 나무통에 넣어 장짠지 담그듯이 하여 반찬과 술안주로 먹었다. 가을·겨울에 만들어 봄 여름에 먹었다.

니보시·사꾸라보시는 포빈(浦濱)통조림공장(항구동 철길가)에서 생산했으며, 여기서 토마도사아딘과 고래고기·고동·전복 통조림도 만들었다. 동빈정(현 동빈동)에도 작은 공장이 있었다.

포항의 수산가공품의 제조는 연년 증가하여 1934년의 이들 제조고는 13종, 87만 8,523원에 달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수산가공품별 제조고(193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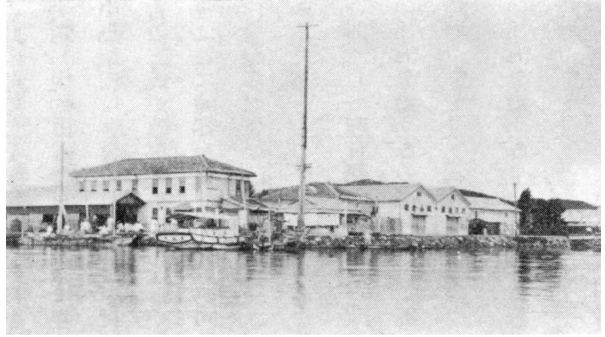
종 류	단 위	수 량	가 격	종 류	단 위	수 량	가 격
절(節)	kg	165	975	앵 간 (櫻 干)	kg	62,841	76,245
염장품(鹽藏品)	kg	2,139,670	362,508	비 료	kg	783,244	158,820
자건품(煮乾品)	kg	1,190,925	176,204	양 초 류		735,500	55,740
통 조 림	箱	424	4,929	공 예 품		323,190	26,504
병 조 림	箇	1,946	1,469	박 지 (粕 漬)	통	235	217
생선젓(鹽辛)	kg	256,979	11,282	기 타		13,500	3,330
수 산 건 제 품	杖	612,500	300	합 계			878,523

5) 어업수산 기관·단체

(1) 영일어업조합

영일군에서 어업단체가 최초로 결성된 곳은 1912년의 포항이었다. 이 단체는 법규에 의해 조직된 어업조합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지만 영일어업조합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합병전후 일본 어민들이 대거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함에 따라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 각종 어업은 극히 난잡하여 사업의 발전보다 목전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동업의 상쟁상태가 계속되었다. 이에 그러한 폐단을 교정하고자 어업자 단체를 조직하

기에 이르렀다. 일인들 중심으로 조직에 착수, 1912년 10월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후 11월 1일 영일만 면허어업협회의 설립을 보았다. 영일만 내의 어업은 해마다 발달하여 만 외 각지에서 드나드는 어선이 800여 척에 달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일본인 입주자도 증가하여 질서 있는 어업활동이 요망되던 차에 일



● 영일어업조합

제가 어업조합규칙을 발표하여 전도의 수산업발달을 기하고자 하였다.

포항에서도 어업조합의 필요를 통감하여 전기 협회원을 중심으로 발기인대회를 열어 영일만내 일대를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일본어업자를 망라하여 1914년 10월 13일 영일어업조합의 설립을 보고 (포항면 동빈동) 12월 8일에 인가를 얻었다. 초대 조합장은 나까다니 다케사부로(中谷竹三郎)가 선출되었다.

전국 최초로 경남 거제도어업조합이 1912년에 설립된 이후 1913년에 14개소(경남 7, 평북 6, 함북 1), 1914년 33개소(전남 1, 경북 2, 경남 12, 평북 8, 강원도 10, 함북 2)가 설치되고, 1940년까지 전 해안을 망라하여 총 206개 지역에 설치되었다.

당시 영일어업조합이 울릉도어업조합과 함께 경북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어 바야흐로 포항은 전국과 경북의 대표적인 일본인 다수 이주 지역으로서 일본 식민어업의 전진기지로 부상되고 있었다.

영일어업조합 설립 당시 일반적으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조합비부담이 과중하지 않는가 하는 기우로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조합의 사업을 이해하고 1917년 자망 및 거휘리망(擧揮羅網)어업제도 실시 이래 그 혜택을 입는 듯하여 가입자가 증가해서, 1918년 출자조합원 529명(한국인 490, 일인 39), 1922년에 772명(한국인 724, 일인 48)이었고 1928년에는 조합원 총 1,018명에 이르렀다.

나까다니가 재차 조합장에 취임하여 곧 어족 남획에 의한 어장의 화폐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당국에 건의하여 1920년 8월에 인가를 얻어 다음과 같은 정리 통제를 단행하게 되었다. ①종래의 어장 200개소를 116개소로 한다. ②자유어업을 허가어업으로 한다. ③무제한 어선을 500척에 한정하여, 조합원은 290척, 일반 어업가는 90척, 경남에서 온 입어자는 120척으로 한다. ④어망의 길이 및 폭에 제한을 가한다. ⑤망수를 65통(統)으로 하고 1통의 부자승(浮子繩)길이는 200심(尋)을 넘지 않을 것으로 한다.

이러한 조치는 나까다니를 비롯한 일본인 대어업가를 위한 통제로서 대부분 영세어

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한국인 어부들에게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될 뿐이었다. 그러나 포항의 일본인 실권자들은 이 정리통제를 업자간의 분쟁과 소요를 방지하여 오랫동안 영일만내 어업을 있게 한 큰 공적이라고 자랑하였다 한다.

1933년경 영일어업조합 관내의 어업지역은 6개 읍면, 22개 부락(포항읍 : 두호동 · 학산동 · 포항동, 흥해면 : 용한동 · 우목동 · 죽천동, 형산면 : 여남동 · 환호동, 대송면 : 송정동 · 송내동 · 동촌동, 오천면 : 청림동 · 일월동, 동해면 : 도구동 · 약전동 · 임곡동 · 입암동 · 마산동 · 흥환동 · 발산동 · 대동배동 · 구만동)으로, 어업종사 호구는 1,020호, 5,100명 가량이었다.

영일어업조합이 창립된 후부터 1935년까지의 역대 조합장은 나까다니, 소노구마오(增野熊雄), 나까다니(中谷), 후쿠지마 잇페이(福島伊平), 오카모토 리하치(岡本利八), 후쿠지마 잇페이, 박윤여(朴允余), 하마다 고래야스(濱田惟和) 등이다. 1938~1940년의 영일어업조합(포항읍 동빈정 소재)의 운영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영일어업조합운영상황

연 도	예 산 액	조합원수	어선수	위탁판매고	대부금	공동구입고	적 립 금
1938	3,166,673	812	1,088	1,574,817	86,880	·	174,712
1939	3,136,501	824	1,220	2,978,806	2,510	175,358	222,687
1940	3,457,762	716	·	3,164,744	64,647	214,348	261,172

위의 통계에서 나타난 액수는 경북의 제일 규모이며,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상황이었다.《조선의 수산》75호의 각도 지정어업조합장 및 이사명단 조(條)에 포항의 영일어업조합의 이사 급료가 130원으로 전국 5위라는 사실이 영일만 근해 어업의 호황 실태를 잘 지적해 주고 있다. 당시 1위는 함북 원덕(元德)어업조합(160원), 2위는 경남 방어진어업조합(140원)을 비롯하여 전남의 고흥군 해태어업조합과 완도군 해태어업조합, 5위는 영일어업조합(130원)을 비롯해서 경남의 부산어업조합과 거제어업조합 및 함남 신포어업조합과 신창(新昌)어업조합이었다.

포항수산업에 관하여서는 정태영(鄭泰永)옹(연일을 괴동동 거주, 어업조합연합회, 구룡포어업조합, 광복시 영일어업조합 등 수산직에 30여년간 종사)의 구술(1992년 2월 9일과 16일, 당시 78세)을 채록 참조. 정옹은 영일어업조합의 경매는 1930년 東京어판장에서 일하던 일인 경매꾼 구리바야시 쇼오시치(栗林壓七)을 초빙함으로써 시작되었고, 당시 그는 영일어업조합 어판장의 경매꾼으로서 전국 경매꾼의 원조라 할만큼 유명하였다 한다. 그가 발로 생선 몇 마리씩 뒤로 재끼면서 경매를 해도 아무도 어찌 못했을 정도로 그 위세가 막강했다고 한다. 그는 광복된 후 일본으로 건너갔다.

(2) 구룡포어업조합 및 기타 어업조합

1909년 대판(大阪)의 유어조(有漁組)가 구룡포항에 사무소를 설치한 이후부터 일본인의 거주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일제강점 후 1913년 말에 도로를 수축하고 시가지를 정리하여 1914년 4월에 관공서가 들어서게 되자 일본인들의 발길이 더욱 빈번해졌다. 특히 구룡포항은 어획량의 증가로 그 항만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1919년 경상북도에서는 감포항과 함께 지정어항이 되면서부터 점차 면세가 커져갔다.

이러한 배경으로 구룡포어업조합은 당시 영일군지역에서는 포항의 영일어업조합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1922년 11월 9일에 설립된 것이다. 주요 사업은 어획물 공동판매, 폭풍경보, 조난구출, 어업자금대부, 어선어구대부, 입진료징수 등이며, 조합원수는 627명(한국인 552명, 일본인 75명)이었다. 이후 청하어업조합(1923.12.20 설립), 송라어업조합(1925.2.20), 양포어업조합(1925.2.20), 곡강어업조합(1926.3.12) 등이 설립되었다. 곡강어업조합은 창립 이래 칠포동사무소에서 사무를 집행하다가 1932년 11월 공비 2천원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1933년 1월 말경 준공되었다.

1938~1940년경의 각 지방 어업조합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영일군 각 지방 어업조합 현황

조합명, 설립 연월일, 소재지	연 도	예산액(圓)	조합원수	어선수	위탁판매고	대부금	공동구입고	적립금
구룡포어업조합 (1922년 11월 9일) 창주면 구룡포리	1938	1,540,045	587	416	229,298	65,225	·	52,459
	1939	2,255,326	811	787	483,790	7,649	64,152	83,837
	1940	2,504,367	849	·	732,453	37,679	110,808	109,612
청하어업조합 (1923년 12월 20일) 청하면 월포리	1938	219,171	285	136	55,958	21,669	1,236	6,376
	1939	273,929	268	75	194,161	1,772	20,890	15,243
	1940	278,919	275	·	495,719	14,573	56,609	15,993
송라어업조합 (1925년 2월 20일) 송라면 방석리	1938	118,034	242	76	11,890	8,728	4,778	1,802
	1939	134,161	265	65	109,343	1,270	2,015	1,802
	1940	177,519	273	·	206,571	6,316	34,715	4,700
양포어업조합 (1925년 2월 20일) 지행면 양포리	1938	450,057	436	279	115,298	16,738	·	39,308
	1939	539,339	426	245	591,832	1,270	25,028	38,997
	1940	469,614	427	·	541,823	9,324	250,300	48,475
곡강어업조합 (1926년 3월 12일) 곡강면 칠포동	1938	79,519	278	62	18,573	1,150	·	398
	1939	117,932	269	65	81,338	1,622	2,300	398
	1940	139,562	317	·	107,722	5,134	20,523	3,199

위의 표에 나타난 어업조합의 개요를 보면, 구룡포어업조합이 1938년 이후 그 세가 크게 신장하여 1938년 경북 제3위의 순위에서 1939년부터는 제2의 강구어업조합을 앞질러 계속 2위를 유지하게 된 것이 주목된다. 당시 구룡포는 고등어어업의 근거지로서 청어·오징어·청어·방어 등의 어장으로도 유명하여 많은 어선이 출입하고, 또한 수산가공제품과 함께 수산물 수출항으로도 각광을 받았다. 이러한 구룡포어업의 성황은 구룡포어업조합의 이사 급료가 110원으로서 강구어업조합, 전남 해남군의 북평어업조합 등과 함께 전국 14위였다는 사실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3) 경상북도수산회

경상북도수산회의 기원은 구한말에서부터 비롯된다. 당시 일본인의 통어단(通漁團)에서 연합조합이란 것을 조직하고 이어서 외국영해수산조합법에 따라 다시 조선해(朝鮮海)수산조합이 되었다. 부산에 그 본부를 두고 연안의 각 요처에 지부와 출장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약간의 순시선을 배치하여 전적으로 일본인 어업자의 편익을 도모하여 수산업의 발전을 기한 것이지만 일제강점후 1912년 어업령 및 수산조합규칙의 실시와 함께 조선수산회로 바뀌어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하고(연일군 포항동), 지역에 출장소를 늘려 수산업의 개선발전과 어업자의 공존공영을 도모하였다.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의 본질적 차이는 전자가 어촌의 건전한 발전을 제일 큰 목적임에 대해 후자는 어촌의 발달과 더불어 특정 수산업의 발달을 목적으로 함이 다르다.

이후 해가 거듭함에 따라 어업자의 증가는 어장의 황폐화를 면하기 어렵게 되어 1923년 1월 13일 새로 조선수산회령이 발표되고, 조선수산조합 경상북도지부는 4월 1일 설립인가를 받아 종래의 수산조합 지부는 도수산회(道水産會)로 개칭되어 경북도 수산회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수산회의 주요한 사업은 ①건의요망 ②회원구제사업 ③강습강화 ④지도장려 ⑤조사 및 시험 ⑥수산선전 ⑦품평회 및 공진회출품 ⑧어장정리 ⑨수산업발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다.

특히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 정치어장은 그 수가 많고 서로 인접하여 어기가 되면 위치관계에서부터 매년 어업자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법에 위반처분을 받는다고 하는 불상사도 나오고 또 어장의 밀집은 어업경영상 불편과 경제상의 불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지 조사상 당국과도 협의하여 대부망(大敷網)·각망(角網)의 16개소를 10개소로 한정하는 것은 수산회의 괄목할만한 업적으로 자랑하였다. 1924년 이후 종래와 같은 분쟁도 없고 어업이익의 증진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지도 장려사업으로서 온류망(鱸流網)어구보조를 비롯하여 자건운(煮乾鱸)제조개선, 해태시멘트상장(床張)양식, 미역제법개선, 연어인공부화, 청어알방류, 유어구

(柔魚具)배포 등 여러 방면의 지도를 시도하여 실적을 올린 바 있다.

1935년 현재의 임원으로는 회장 : 나까다니 다께사브로(中谷竹三郎), 부회장 : 문명기(文明琦)·도가와 야스브로(十河彌三郎), 평의원 : 이일우(李一雨)·加藤棧五郎, 특별의원(관선) : 나까다니(中谷)·난바데리아(難波照治), 특별의원(민선) : 문명기, 위원(委員) : 일본인 3명 셋토고니찌(瀬戸甲一), 다나카 미즈구(田中 貢), 市原重信 의원(議員) : 11명이었다. 회원수는 1,684명, 소재지는 포항읍 천구정(川口町, 현 항구동 포항세관 옆)이었다. 1936년 전국을 총괄하는 조선수산회 회장은 포항의 나까다니(中谷竹三郎)가 맡고 있었다.

(4) 경상북도 수산시험장

조선통감부 설치 이후 1906년부터 한국의 동해·남해(제주도 포함)·서해에 이르는 전 해역에 대해 ‘이주어촌시험’, ‘조선해 출어장려’, ‘한국해 어업조사’ 및 ‘북조선해역 어업시찰’ 등 일본 어업 해외진출의 보호조장을 위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일본은 수산부분에 있어서의 식민지배의 기초 작업으로서 농업에 있어서의 토지조사사업과 유사한 수산업 조사사업을 한일합병 전에 이미 완결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 설치 이후에도 농상공부의 수산과가 수산시험조사를 관장하였다.

영일만권에 대해서도 야마구치현(山口縣)에서 1908년에 ‘이주어촌시험’·‘원양어업 ㄱ카(큰 상어)延繩어업시험’과 1911년에 ‘영일만 ニシン(청어)자망(刺網)시험’·‘타라(대구)연승(延繩)어업시험’을 실시하고, 시마네현(島根縣)에서 1914년 구룡포와 영일만 사이에서 ‘고등어어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21년 10월 포항에서는 수산업자 간담회가 개최되어 270명이 출석하고 도(道)와 관에서도 수산기사 등 29명이 참석하여 수산시험장의 포항설치를 결의하였다.

도에서는 민유지 932평을 매수하고 1922년 9월 29일 청사를 기공하여 1923년 1월 12일에 경상북도 수산시험장을 준공 개설하였다. 그 날짜로 장장(場長)이하 3명의 직원이 임명되고, 도산업과 내에서 그 사무가 개시되었으며, 그 해 2월 16일 포항 두호동의 새 청사에 이전하여 업무를 보게 되었다.

시험장에서는 직원의 임용, 내부설치를 서두르고, 영일업조합으로부터 40마력의 발동기선을 기증받아 부산에서 범선으로 개조하여 7월 7일 부산에서 진수하는 동시에 도비 120원으로 사선(私船) 1척과 전마선(傳馬船) 1척을 신조하여 어로시험과 해양조사를 담당토록 하는 한편 제조시험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기를 구입하여 각종시험에 착수하였다. 이후 1933년에는 67,000원의 공비로 미쯔비시(三菱)조선소에서 계림호(鷄林丸, 강철제의 길이 73척, 폭 17척, 깊이 8척, 총톤수 69.43톤, 85마력 최대속력

10.22노트, 내부 전기장치)를 제작하여 종래의 노후한 시험선과 대체하고, 각종 어업의 시험조사와 어업의 취재 및 조난자 구조 등에 활동하였다.

일본인들은 이 시험장의 사업이 활발하여 각종의 주목할만한 실적, 특히 청어어업개발을 위한 자망 개량과 1925년 전후 고등어와 청어의 훈제(燻製)품을 완전히 신제품이라고 자랑하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청어의 훈제품은 우리나라, 특히 영일만 지역에서 조선시대부터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되는 ‘과메기’가 전통적으로 제조되고 있었다.

청어 가공품으로서는 일본식 제조법인 미카키니싱(身缺鍊, 청어등태기)의 제조에 관심을 보여 1924년에 제조강습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정어리어업이 발흥하면서부터는 토마토사아딘(Tomato Sardine)의 제조시험도 개시하였다.

이후 1936년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해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의 지장(支場)설치가 공포되어 함경북도 청진에 북선(北鮮)지장이 설치되었다가 1944년 5월에 청진의 북선지장이 폐지되고,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 청진지장·동원산지장·동인천지장이 새로 증설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신설된 원산지장과 인천지장에 주문진과 군산에 각각 출장소를 설치하였으며, 1945년 종전(終戰) 직전인 5월 26일에는 종래 각각 원산지장과 인천지방에 소속되어 있었던 주문진출장소와 군산출장소가 폐지되는 대신에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 직속의 출장소로서 군산출장소·포항출장소 및 주문진출장소의 3개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이것 역시 도수산시험장의 폐지에 따른 개편이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1890년대에 이미 수산시험장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수산시험장은 국립의 중앙수산시험장과 지방의 수산시험장으로 2원화되어 있었다.

대한제국말기에 이들 현(縣)수산시험장 중에서 상당수가 직원이나 시험선을 한국연안에 파견하여 수산업에 관한 각종 시험과 조사를 실시했다.

일제강점 이전의 시기에 있어서 일본의 각 현 수산시험장의 시험조사 상황을 보면, 1903년 가을 시마네현(島根縣) 수산시험장에서 부산과 영일만사이의 해안에서 고등어유망·삼치유망 위탁시험을 하였으며, 1908년 5월~1909년 1월에 야마구치현(山口縣) 수산시험장에서 영일만과 남해안사이의 해안에서 동해안어업시험(정어리 揚操網·고등어유망·방어·멸치자망)을 하는 등 일본인 통어자의 어업 육성 및 조장을 명분으로 한 한국 침략을 위한 각종 기본 자료와 정보 수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앙수산시험기관이 병치된 수산강습소에서도 연습선을 파견하여 시험 조사 사업을 하였다.

1907년 9월 9일에는 일본 농림성 수산강습소(동경수산대학 전신)의 초대연습선 가이요마루(快鷹丸, 137톤급)가 수산시험(해류·어족분포·연해수심 등 조사)을 위하여 동해안에 내항하였다가 영일만 대보의 구만 2리 앞 해중에서 좌초되어 교관 1명과 학생 3명이 조난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했다.

(5) 경북수산주식회사

경북수산주식회사는 경상북도 어업조합 연합회의 어획물 위탁 한매업무 대행을 목적으로 관의 지원 하에 1931년 10월 23일 동빈정 391번지에서 자본금 25만원으로 창립하였다. 당시 임원으로 사장 : 나까다니(中谷), 전무 : 하마다료구단(濱田録男), 취체역(取締役, 이사) : 金斗河·시마다가네시브로(島田金四郎)·濱崎喜三郎·후쿠지마잇페이(福島伊平)·하마다고래야스(濱田惟和)·김동덕(金東德)·정용수(鄭用守), 감사역 : 김용수(金龍守)·도가와 야스브로(十河彌三郎)·정도균(鄭道均)이 선임되었다.

이 회사는 본래 대구부 신정(新町)에 본점을 두고 포항에 지점을 설치하여 청어 위탁 판매, 선어염간어(鮮魚鹽干魚, 젓갈) 위탁판매, 매매 수산물의 제조가공 및 판매 어구 부속품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본점 소재지에 있어서 선어의 판매는 실로 대단한 것으로서 초년도의 취급액은 44만 5천원의 거액에 달함에 따라 상당한 이윤을 얻었지만 대구에 있어서는 이미 설치된 어채(漁菜)회사와의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경북수산의 명성이 날로 더해지고 그 거래선은 조선 내는 물론 일본, 만주에서부터 멀리 미국까지 미치어 그 세력이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점을 대구에 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아서 1933년 4월 포항이전을 의결하여 7월 4일 본점을 포항에 이전하는 동시에 지점을 폐지하였다. 새로 선임된 임원은 대표취체역사장(대표이사) : 하마다 고래야스, 상무이사 : 요시모토 노부가츠(吉本信勝), 이사 : 김두하·하마다료구단·후쿠지마켄지(福島憲治)·윤이병(尹離炳)·모도요시(元吉寅龜), 상임감사 : 김용주(金龍周), 감사 : 도가와 야스브로·다나카 미츠구(田中 貢)였다.

이 회사 설립 이래 특히 경북 청어의 판매에 주력하여 경북 청어의 성가를 얻게 된 것은 큰 업적으로 꼽혔다.

(6) 경북어업주식회사

이 회사는 청어를 비롯한 어업 경영, 수산물 가공 및 수산자금 대부를 위해 자본금 15만원으로 1925년 11월 2일에 창립되었다. 나까다니(中谷), 다나카(田中), 오우치 지로(大內治郎), 김두하, 김동덕, 최병기(崔柄基), 아라다 하라요시(新田源吉), 나가후지찌도모 이찌로(中藤友一郎), 박윤여(朴允余), 도가와(十河), 김하옥(金河玉), 十一氏 등이 발기하여 주식 3천주로 그들은 각자 그 소유에 관한 어업권을 가지고 그 주식 불입에 총당하고 이 주식수는 2,998주에 달하였다.

이 회사의 업적은 고기를 잡고, 잡지 않고에 좌우된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소유한 어장은 어느 것이나 영일만의 우수한 지점에 있고 그 평가가격이 근소한데서 매기

(每期) 상당한 성적을 올리고 1935년까지 1, 2년 동안 이월 배당이 10.5%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 나까다니, 전무이사 : 하마다(濱田), 이사 : 다나카·오우치(大内)·요시모토 노부가츠·오카모도 아다이찌(岡部與一), 감사 : 후쿠지마 켄지·김동덕·하마다 료우스케(濱田良之助), 지배인 : 요시자카 쿠니노스케(吉板國之助) 등이다.

3. 상업

근대태동기(조선후기)편에서 시대적 배경과 지리·역사적인 특수여건에 의해 영일만권의 상업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장시가 번창했던 사실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포항지역의 장시는 활발하여 함경도 명태의 경우 40% 정도가 이곳에서 양육(揚陸)되고 쌀이 5~6만석, 콩이 3~4만석이나 집산되고, 청어도 옛 성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상인들은 대구는 물론 안동·의성·예천·김천·상주 멀리는 충청도·전라도방면까지 진출하여 각지의 상거래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인들의 대거 진출에 따라 점차 모든 상권이 침탈당해 대다수의 한국인 상인은 영세상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같은 여건에서도 민족의 숨결과 민중의 애환이 서린 장시는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며 이곳에서 민족의 정기와 한을 분발할 수 있었던 것은 뜻 깊은 일이었다. 3.1 운동이 주로 장날에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1900년대 초부터 각 고장의 상권을 침해한 소수의 일본인 자본가들은 처음부터 점포를 열어 잡화·매약(賣藥)·고리대금을 업으로 하였지만, 큰 자본없이 내한한 대부분의 이주자는 값싼 약품류와 과자류·석유·남포등(燈)을 가지고 행상을 하면서 경제력을 구축해 갔다.

포항의 경우 이 고장에 가장 먼저 입주하여 그 후 실권자로 군림하게 된 나까다니 다케사부로(中谷竹三郎)의 “1901년 가을에 입포하여 잡곡 및 해산물의 구입을 개시함과 동시에 포목·석유·성냥·소금·면사 등의 도매상을 하고 이 지방의 오지방면과도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이다”(《浦項誌》)라는 회고가 초기에 입주한 일본인 상인들의 활동사정을 짐작케 한다.

포항에서는 일찍이 일본인회(1907년 경)가 조직되어 그들의 권리는 확대되고, 고리대금업, 부동산업, 독점무역 등으로 단시일 내에 치부하게 되어 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 영일군 시장의 현황

장시의 상행위는 개시되는 날짜에 따라서 정기시장과 부정기(不定期)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전통적인 장시로서 정해진 날짜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개시되는 것이고, 후자는 대도시에서 상시로 열려있는 시장을 말한다.

당시 영일군 내의 시장 명칭, 위치 및 개시일은 다음 표와 같다.

시장현황(1937년 12월말 현재)

시 장 명	위 치	개 시 일	시 장 명	위 치	개 시 일
포 향 시	포항읍 남빈정	1·6	도 구 시	동해면 도구동	2·7
여 천 시	포항읍旭 町	4·9	외 삼 동 시	송라면 하송동	3·8
생 지 시	연일읍 생지동	3·8	흥 해 시	흥해면 성내동	2·7
아랫 부조시	연일면 중명동	10·20·30	옥 리 시	흥해면 옥성동	4·9
기 계 시	기계면 현내동	1·6	하 성 시	지행면 읍내리	4·9
입 압 시	죽장(죽남면)입암리	3·8	청하(덕성)시	청하면 덕성리	1·6
약 전 시	창주면 놀대리	3·8	곡 강 시	곡강면 흥안동	5·10
신 광 시	신광면 토성동	5·10	창 주 시	창주면 구룡포리	3·8
오천(세계)시	오천면 세계동	5·10			

위의 장시 가운데 하송리시장은 1918년에 우시장을 신설하여 병합하였다가, 1938년 4월 8일에 송라면 광천리로 이전하여 같은 날짜인 3·8일에 개시하였다.

이들 시장에서 취급하던 상품들은 주로 농산물, 수산물, 직물, 청과류, 축류, 철물, 농기구류, 일용잡화 등이었다. 그리고 축류 특히 소매매는 우시장에 이루어졌으며, 영일군의 대표적인 우시장은 연일(생지)시, 흥해시, 기계시, 청하시, 광천시, 장기(하성)시, 입암시였다.

1928년과 1934년의 영일군 각 시장의 다음 표와 같은 주거래 상품 매매고를 통해 당시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다.

각 시장의 주거래상품 매매고(1928)

시 장 명	개사회수	1개년 매매고(원)					
		농 산 물	수 산 물	직 물	축 류	기타잡품	계
하 성 시	67	3,920	5,760	1,300	6,300	9,079	26,359
창 주 시	65	9,000	800	6,300	20	9,000	25,180
도 구 시	72	3,365	2,340	4,700	350	5,150	15,905
연 일 시	66	2,481	6,510	949	154	3,324	13,418
부 조 시	60	6,651	15,843	2,203	118,827	5,381	148,905
여 천 시	68	6,980	10,760	9,800	1,280	12,920	44,440
포 향 시	66	14,020	11,180	9,420	1,120	10,308	46,048
흥 해 시	132	13,380	9,587	6,734	74,735	33,524	137,960
기 계 시	72	33,760	4,442	19,700	83,030	978	14,1910
덕 성 시	72	9,140	9,612	8,240	13,596	5,340	45,928
입 암 시	64	2,960	2,238	1,324	10,563	6,823	23,908
광 천 시	71	5,067	10,650	6,745	2,723	11,076	36,261
곡 강 시	-	-	-	-	-	-	-
계	875	113,424	89,722	77,415	312,758	112,903	706,222

각 시장의 주거래상품 매매고(1934년경)

시 장 명	개사회수	1개년 매매고					
		농 산 물	수 산 물	직 물	축 류	잡 품	계
下 城 市	71	8,210	7,900	2,500	5,010	4,280	27,900
滄 州 市	66	20,160	9,200	18,900	1,520	7,920	57,700
都 邱 市	69	2,691	1,725	3,243	381	3,015	11,055
延 日 市	69	2,750	6,500	2,070	77,650	5,500	94,470
扶 助 市	33	1,500	3,960	990	29,120	2,640	38,210
余 川 市	69	89,260	95,940	9,840	8,565	51,450	255,055
浦 項 市	66	89,152	94,500	9,750	8,240	50,400	252,042
興 海 市	109	55,798	80,984	45,426	30,210	56,135	228,553
杞 溪 市	72	46,014	7,114	4,200	59,526	1,192	118,046
曲 江 市	-	-	-	-	-	-	-
德 城 市	68	12,900	8,420	14,200	12,400	7,900	55,820
立 岩 市	63	4,800	2,100	1,800	11,790	4,200	24,690
光 川 市	62	3,600	10,520	5,400	3,464	6,740	29,724
神 光 市	64	650	7,200	4,000	-	2,500	14,350
世 界 市	60	5,400	3,000	6,000	9,000	6,000	29,400
합 계	941	342,885	299,063	128,319	256,876	209,872	1,237,015

1928년의 매매고가 10만원이 넘는 큰 시장은 부조시장·기계시장·흥해시장이며, 1934년경의 매매고가 10만원이 넘는 큰 시장은 여천시장·포항시장·흥해시장·기계 시장이었다.

1928년의 매매고가 1위였던 부조시장이 1934년에는 매매고가 크게 떨어져 여타 시장처럼 된 것과 1928년에 매매고가 5만원 미만이었던 여천과 포항시장이 6년 후에는 매매고가 20만원 이상으로 크게 시장되어 다른 시장과는 엄청난 차이로 1·2위를 차지하게 된 점이 주목된다.

(1) 신광에 우(牛)시장 개시

위의 표에 신광의 축류가 누락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영일군 신광에는 1930년대 초에 시장을 개시하였는데 그 성적이 좋아 신광의 발전을 위하여 우시장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당국에 교섭 인가되어 1933년 음력 7월 8일부터 개장하였다. 매일 백여두의 소가 모여와 일대 성황을 이룸에 따라 면과 당지의 주조조합(酒造組合)에서 백여원을 인출하여 매시 일마다 소를 매매하려는 사람에게 추첨권을 배부하여 추첨케 하는데 1등 2원, 2등 1원, 3등 50전씩 주었다.

(2) 포항에 우시장 신설

1939년 1월 6일 남부 동해안의 유일한 포구인 포항에 오직 하나뿐인 우시장을 개장하였다. 그동안 포항우역검사소를 두게 되며 우육이출을 계획해온 지 수년을 보내면서 소 매매의 원활에 부심하여 왔는데, 포항은 정부의 중축(重畜)정책에 따라 계획해오던 우시장 신설에 대하여 일치단결의 결과로 개장식까지 거행하여 영일군에서는 넓은 땅을 구입하고, 3천여원의 거대한 경비도 포항읍과 포항홍산주식회사와 손을 맞추어 대규모 소 집산을 원활케 한다하여 1월 6일부터 정기시장 날마다 소가 집중되었다.

2) 부조장의 몰락

조선후기 하부조장(또는 아랫부조장)은 포항장과 여천장이 소포구의 장시인데 비해 대포구의 지형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상거래를 하였으며, 1731년 포항창진(浦項倉鎭)의 설치 이후 형산강의 수로 또는 인근 육로를 통해 경북의 내륙지방인 안동·대구·상주·영천·경주 등지의 농산물과 포항을 위시한 동해안과 남해안의 해산물을 교역하는 큰 장시로 성장하였다.

조선후기와 구한말 남한 3대 시장(서해 강경장, 남해 마산장, 동해 부조장)의 한 곳으로 명성을 떨쳤던 부조시장의 주역들인 보부상단(裸負商團), 인선(引船)보부, 마필(馬匹)보부, 객주·거간(居間) 등 한국의 근대 예비 자본가세력이 일제강점 이후 일본 사

업가와 상인의 대거 진출로 일제의 무차별적인 경제적 침탈이 자행됨에 따라 그 번창한 모습은 서서히 퇴조하여 축류와 수산물의 주 거래장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는 과거의 명맥을 유지했다. 1924년 9월경에는 연일군 연일면 유지들은 종래 하부조시장이 월 3회(10일, 20일, 30일) 개시하던 것을 월 6회로 변경하기 위해 만여 명의 연명 날인을 작성하여 영일군청을 경유, 도당국에 출원하였다.

동년 11월 21일(음력 10월 25일) 도지사의 허가가 얻었으며, 11월 20일부터 축하식을 시작으로 6일 동안 수만 명의 각지 행상과 관민 다수의 출석으로 큰 잔치(별신굿, 시민대운동회)거행하였다. 시민들도 상점을 늘이며 해륙산무역소를 신설하여 많은 상인의 편의를 도우며 시민 대표자 김광언(金光彦)·배영기(裴永琦) 이하 10여명은 아랫부조 시장의 번창을 위하여 경동선(慶東線) 상부조역을 하부조에 이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3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그 명성을 잃어가서 1930년대 말에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3) 포항·여천장의 번성과 상권의 변화

여천장과 포항장은 포항면이 1931년 포항 읍으로 승격, 그 세가 크게 신장되어 영일군뿐만 아니라 경북의 우수한 상업중심지역이 됨에 따라 매매고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부조시장이 쇠퇴하고 대신 포항·여천시장이 번창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1914년경의 형산강방사제(防砂堤)축조공사와 1919년경의 형산강 북하구도수제(導水堤)축조공사, 1931년의 남빈의 매립공사 등으로 형산포(兪山浦)에 기착 정선하던 상선·어선들이 조난의 염려가 없는 포항항에 상품을 양육·선적할 수 있게 된 데에 있다. 이때부터 포항항에 정박하는 선주들은 종전의 형산강하구에서 10리나 떨어진 부조시장 연안까지 인선부(引船夫)들이 배 한 척에 수십명씩 고용되어 끌고 올라가는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그런데 포항과 여천 두 시장의 번창에는 새로운 변화가 동반되고 있다. 두 시장의 규모를 보면, 조선후기에는 포항장이 지리적 위치나 포항창진의 영향으로 여천장보다 절대 우세하였으나 1920년대가 되면 직물과 기타 잡품에서 여천장에게 순위를 빼기기 시작하여,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전 품목에서 여천장에게 뒤지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인들이 포항으로 이주한 후부터 포항의 중심지가 포항장 지역에서 여천장 지역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뒤에서도 언급되겠지만 일본인들이 여천동과 중앙동에 밀집하여 상권형성 등 모든 것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1930년대 후반이 되면 포항의 인구와 더불어 특히 상인수가 상당히 불어나서 포항과 여천장은 좁은 길의 공간에 각지의 상인과 상품 수요자들의 운집으로 자전거가 못

다닐 정도로 붐비었다고 한다. 당시 일반적으로 시장부지와 시설은 자치단체인 부·읍·면사무소가 관리하였고,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사용료를 부담하였다. 이를 징수하는 사람은 부·읍·면의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그 대행자였다.

포항에는 농산물과 수산물거래가 많았으나 그 중에서도 주거래 상품으로 꼽혔던 것은 수산물의 명태·소금·청어·고등어·전복·방어·대구포 등이었다.

함경도지방의 명태가 포항에서 내륙지방으로 거래되어 나갔고, 포항지방의 청어 등 고급 어종은 국내보다 일본에 다량 수출되었다. 특히 동해안 청어는 맛이 좋아서 미카키니싱(身缺練, 청어의 배를 따서 내장을 빼내어 적당히 말린 것)을 만들어 일본에 다량으로 수출하였다.

포항지방의 소금이 일제강점기 초까지는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대만의 값싼 천일염이 수입되면서부터 주거래 상품자리를 내놓게 되고 말았다.

당시 정기시장인 포항의 시장들은 조선후기처럼 도매상인, 즉 거상들의 민족자본이 형성되던 때와는 달리 그 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일본인과 일부 한국인 상인들이 시내 요지에 점포와 상회·회사 등을 차려 상권을 독점하고, 생산품을 원산지로부터 대량구입 하여 수출하는 근대적인 무역거래는 거의 일본인들이 독차지하여 한국자본을 약탈해갔다.

반면 상회(商會)를 가진 한국인들 중에는 조선후기 객주(客主)·거상들의 후예들이 있어 그 주된 상거래라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품거래를 주선하여, 팔고 사는 양편으로부터 각각 구전 5% 정도를 받는 객주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상품운송선과 줄이 달으면 수입이 괜찮았다고 한다.

1914년과 1934년의 포항시장의 다음과 같은 물품거래액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포항시장의 물품 거래(1914년과 1934년)

구 분	농 산 물	축 산 물	직 물 류	수 산 물	기 타	계
1914년	4,100	4,200	4,200	3,500	15,400	31,400
1934년	186,950	16,301	37,110	280,847	391,386	912,594

액수는 엄청나게 늘어났으나 그 이익이 비례되어 한국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일본인들 몫이 되었던 것이다. 일제후기에는 포항의 중심지역인 중정(仲町, 현 불종거리 지역), 본정(本町, 육거리에서 남빈 4거리 사이 지역), 옥정(旭町, 현 중앙치안센타 길가 지역) 등은 거의 일인들이 독차지하여 주거권과 상권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가장 변화한 지역인 중정에 있어서의 한국사람의 점포는 계문사(啓文社)·대송상점(大松商店)·김동상회(金東商會)·송하상점(松下商店) 등 손꼽을 정도였다.

시내 중요지역의 일인 상설점포는 거의 일본들이 이용하여 자기들끼리의 수요공급선이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리(Lee)마트에서 선프린스호텔 사이 지역을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한 요리집(음식, 술집)이 많다고 하여 화정(花町)이라고 이름한 것을 보면, 일본인의 상권장악과 그 활동의 중심지역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당시 한국인의 상회나 큰 점포는 다른 곳보다 본정(상원동)에 많이 모여 있었다.

4) 여천장의 후신 중앙공설시장 퇴조

일제강점기의 여천시장지역은 평소에도 한국인이 노점상설시장을 형성하여 시내 일본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날이면 더욱 붐볐다고 한다. 이 때 상설시장 물가가 정기시장물가보다 비쌌으나 돈 많은 일본인들이 편리하고 가까워서 상설시장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소위 공설시장이라는 것이 제일 번화한 중정(仲町) 한쪽 편에 버티고 서 있어 교통상 큰 장애가 되었고, 더구나 장날인 4일과 9일에는 육정(旭町:여천동)일대와 남빈정 일대를 시장으로 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특히 여천시장은 육정(旭町)도로를 이용하는데 교통위생 뿐만 아니라 도시미를 결여하고 있어 여천시장의 이전문제는 포항읍민이 오래 전부터 갈망해오던 바 1935년 12월 포항읍회에서 여천시장의 문제를 토의하여 예산에서 시장부지 매수비를 계상하기로 되었다.

1938년 초까지도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국의 무성의를 의심하는 여론이 높아가던 중 읍당국은 포항과 여천의 정기장을 포항역 동부편의 대흥동의 한 공터에 옮겨 새로운 포항정기시장(1·4·6·9일 개시)을 마련하여 그해 겨울에 시행토록 하였다.

얼마 후 1940년 9월 여천동의 상설노점시장을 읍사무소의 바로 길 건너 남쪽지역(덕수동 105의 5번지, 면적 245평)에 유치, 상설시장으로서 중앙공설(中央公設)시장을 형성하여 일용잡화·식료품 등을 소매하도록 조치하고, 1941년 3월 31일에 개시하였다. 그러나 중앙공설시장은 잘못된 위치선정, 장터의 협소, 제한된 거래상품 매대로 지난날의 여천장의 명맥을 활발히 잇지 못하고 광복 후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다.

5) 포항장의 후신 대흥동 정기시장의 퇴조

180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죽도동은 현재 죽도2동 지역으로 주로 논과 갈밭지역이었으나 1924년부터 착수된 형산강제방축조공사와 1932년에 준공을 본 남빈동매립공사 등 포항항의 각종 공사의 영향으로 마을 어구까지 배가 드나들 수 있게 되면서

부터 포항장과 여천장은 그 접경지역으로서 더욱 활성화 되어 1920년대까지 선박출입으로 번성하던 부조시장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이 고장의 상권을 주도하게 되었다.

1940년대 와서 읍 당국은 포항과 여천의 정기장을 포함역 동부편의 대흥동의 한 공터에 옮겨 새로운 포항정기시장(1·4·6·9일 개시)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한 후 곧 이어 상품거래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대흥동의 정기시장 역시 덕수동의 중앙공설시장이 잘못된 위치 선정 때문에 여천장의 명맥을 잇지 못한 것처럼 포항장의 명맥을 잇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포항장은 광복을 지나 6.25전쟁 후 죽도시장의 이름으로 그 명성을 되찾게 된다.

4. 공업

영일군지역은 오랫동안 주로 어항이나 상업중심지로 발전해 왔지 특별한 공업원료나 공산품의 산지로서 성장한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도 오랫동안 재래적 수공업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의 제품인 마포·토관와(土管瓦)·호석(芦席, 돛자리)·관물(冠物, 모자)·토수(吐手, 토시)·연관(煙管, 담뱃대)·유기구(눗쇠용구)·나막신·술·간장(醬油) 등이 이 고장에서 생산 거래되었다. 극소수이지만 일본인들도 이러한 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1920년대 와서는 현저히 변화하여 토시·담뱃대·모자 등은 점차 모습을 감추고 정미·조선·철공같은 근대공업이 영일군, 특히 포항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1) 근대적 공장 현황

일제강점기에(1911~1928) 영일군에 세워진 근대적 공장은 다음 표와 같다.

근대적 공장(1911~1928)

명 칭	위 치	공장주명	창업년월	공장 건평수	자본금	종업자수						1개년 취업 일수	생 산 품		
						한국인		일본인		계			종류	수량	가액 (円)
						남	녀	남	녀	남	녀				
(編組物業) 경북製網포항공장	포항면 포항동	堀信成	1922. 2	25	20,000	17	15	3	-	20	15	330	網	5,000	51,500
협판제재공장	상 동	脇坂鹽吉	1927. 7	25	20,000	2	-	1	-	3	-	70	제재	900	14,000
곡원철공소	상 동	谷川原捨吉	1913. 7	20	13,000	1	-	2	-	3	-	250	철공업	-	13,000
전중철공소	상 동	田中久義	1925. 1	12	5,000	2	-	1	-	3	-	300	상동	-	6,000
중곡정미소	상 동	中谷竹三郎	1913. 5	90	10,000	4	2	1	-	5	2	70	백미	9,000	270,000

618 제2편 역사

명 칭	위 치	공장주명	창업년월	공장 건평수	자본금	종업자수						1개년 취업 일수	생 산 품		
						한국인		일본인		계			종류	수량	가액 (円)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본 정 미 소	상 동	楠本清郎	1921. 7	24	10,000	3	3	1	-	4	3	40	상 동	1,260	37,800
전 중 인 접 공 장	상 동	田中忠三郎	1926.11	24	20,000	2	3	1	-	3	3	30	현 미	2,000	50,000
천 구 정 미 소	상 동	川口琴治	1925. 3	24	20,000	2	2	1	-	3	2	70	백 미	2,500	75,000
하 방 정 미 소	상 동	下邦傳	1916.11	16	25,000	3	2	-	-	3	2	60	상 동	4,000	120,000
덕 산 정 미 소	상 동	徳山若次郎	1925.12	11	25,000	2	3	-	-	2	3	70	상 동	2,000	60,000
북 판 정 미 소	상 동	北坂又次郎	1927. 1	20	20,000	2	3	-	-	2	3	30	상 동	1,500	45,000
촌 상 정 미 소	흥해면 중성동	村上那太郎	1927. 1	59	20,000	2	-	1	-	3	-	90	상 동	800	24,000
증 전 정 미 소	오천면 청림동	増田秀三	1911. 4	17	6,000	2	2	1	-	3	2	180	상 동	860	25,800
서 재 도 정 미 소	흥해면 중성동	徐在道	1926.10	31	1,200	2	-	-	-	2	-	150	상 동	300	9,000
박 천 조 정 미 소	흥해면 옥성동	朴千祚	1924. 6	60	2,000	3	-	-	-	3	-	160	상 동	1,000	30,000
최 봉 석 정 미 소	흥해면 중성동	崔鳳錫	1924. 8	62	1,500	2	-	-	-	2	-	150	상 동	650	19,500
최 병 기 정 미 소	포항동 포항동	崔柄基	1926. 1	16	15,000	3	-	-	-	3	-	60	상 동	700	21,000
시 · 정 미 소	상 동	金斗河	1926.12	16	30,000	8	-	-	-	8	-	50	상 동	1,000	30,000
장 택 석 정 미 소	상 동	張澤石	1928. 2	18	1,000	3	-	-	-	3	-	300	상 동	1,500	45,000
이 무 출 정 미 소	청하면 덕성리	李武出	1926. 9	20	1,300	2	-	-	-	2	-	150	상 동	250	7,500
이 은 우 정 미 소	기계면 현내리	李殷雨	1923. 2	11	3,000	3	-	-	-	3	-	80	상 동	300	9,000
북 도 주 조 장	포항면 포항동	福島伊平	1927. 9	160	100,000	2	-	12	-	14	-	150	청 주	430석	45,000
고 천 주 조 장	상 동	古川義平	1911.12	104	50,000	4	1	5	2	9	3	300	상 동	400	4,2000
송 본 주 조 장	흥해면 성내동	松本谷吾	1919. 1	73	30,000	5	-	2	-	7	-	180	상 동	160	16,000
송 본 양 조 장	상 동	상동	1928. 8	59	4,500	5	-	-	-	5	-	365	탁 주	1,200	2,640
영 일 주 조 (주)	연일면 생지동	대표 森永忠藏	1928. 9	50	50,000	3	1	-	-	3	1	135	상 동	203	4,263
창 주 주 조 (주)	창주면 구룡포리	대표 橋本善吉	1928. 7	48	50,000	3	1	1	-	4	1	125	상 동	1,800	36,000
청 하 주 조 (주)	청하면 덕성리	대표 李鍾虎	1928. 9	30	3,125	7	1	-	-	7	1	120	상 동	500	10,100
포 항 양 조 (주)	포항면 포항동	대표 文 明 琦	1928. 6	95	50,000	6	3	-	-	6	3	190	상 동	3,600	82,500
ミツ々포항농장	동해면 도구동	三輪善兵衛	1918. 2	375	400,000	5	2	7	-	12	2	360	브랜디 포도주	28 600	8,400 42,000
도 산 장 유 양 조 장	포항면 포항동	島山小態	1914. 5	34	20,000	3	-	2	-	5	-	250	장 유	250	18,000

명 칭	위 치	공장주명	창업년월	공장 건평수	자본금	종업자수						1개년 취업 일수	생 산 품		
						한국인		일본인		계			종류	수량	가액 (円)
						남	녀	남	녀	남	녀				
대내장유양조장	상 동	大内治郎	1921. 8	30	25,000	3	-	2	-	5	-	200	상 동	400	27,000
양포제빙냉장(주)	창기면 양포리	대표 岩見久光	1928. 3	240	150,000	12	-	4	-	16	-	250	제 빙	3,750 톤	37,500
경북상회관힐공장	창주면 구룡포리	中野健太郎	1918. 5	50	10,000	5	5	2	-	7	5	190	수 산 詰	170	3,560
암본관힐(통조림)	창주면 병포리	岩本衛門	1913. 4	50	12,000	10	5	2	-	12	5	190	상 동	700	12,625
석전관힐공장	창주면 대보리	石田良吉	1922. 3	40	5,000	4	4	2	-	6	4	150	상 동	370	4,000
가등관힐공장	상 동	加藤俊平	1928. 7	30	3,000	2	3	1	-	3	3	200	상 동	600	11,300
구룡포전기(주)	창주면 구룡포리	대표 弘中良一	1927. 10	28	10,000	4	-	2	-	6	-	365	電 力	-	8,400
대흥전기(주) 포항지점	포항면 포항동	대표 小倉武之助	1912. 8	447	-	6	-	9	-	15	-	365	상 동	-	29,443

이 가운데 포항과 구룡포는 수산가공품의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청어가공품인 미카키니싱(신결련)의 제조와 각종 통조림업의 발달은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와 함께 양조·麴子(누룩) 어구제조업도 활발하였다.

2) 포항의 공업상태

1934년의 포항공업상태는 다음 표와 같다. 그리고 당시 공산품의 생산수준이 아직까지 수공업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분야가 많았으며, 그 가운데서도 조선후기 공업에서 고찰한 바의 전통적인 수공업적 제지생산은 일제강점기에 와서도 각 고장에서 그대로 시행되어 농가의 주요 공산품 업종이 되고 있었다.

공업상태(1934)

종 류	호 수			생 산 고		
	한국인	일본인	계	수 량	단 위	금 액
금속제품	5	10	15	7,100	箇	7,850
기계류	-	2	2	54	"	5,020
목제품	9	8	17	8,015	"	9,800
농구	-	1	1	500	臺	12,500
어구	6	7	13	4,600	"	46,300
차량	5	2	7	70	"	1,970
선박	-	5	5	96	척	28,500
양조품	-	8	8	895,935	泊	200,503

종 류	호 수			생 산 고		
	한국인	일본인	계	수 량	단 위	금 액
간장 및 된장	-	7	7	1,465	石	35,910
곡 자 (누 록)	-	2	2	201,300	kg	76,659
국수 및 두부	1	6	7	13,100	"	4,550
과 자	5	5	10	19,500		9,800
관 힐	-	2	2	4,380	kg	44,670
人糞水(식용얼음)	-	1	1	11,050	"	21,050
피 혁 鑿 造	3	-	3	260	"	3,000
유 류	4	-	4	4,900	"	1,850
비 료	5	10	15	490,500	"	4,500
기 타	15	4	19	9,670		4,000
합 계	58	80	138	-		518,432

3) 광산

이 고장 광산 광업권자의 대부분은 외지인이고 영일군민은 금은광 한 곳 뿐이다. 영일군에 소재한 광산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광산 현황(1935년 1월 1일 현재)

소재지	등록 번호	등록 연월일	광산명	鑛 種	鑛區평수와 延長	광업권자	주 소
송라면	10,382	1934. 5.21	보경광산	금은동	959,000	韓圭義 外 2人	영덕군강구면강구동344
상 동 영덕군 남정면	10,971	1934.11. 9	상 동	상 동	828,000	상 동	상동
지행면 경주군 양북면	9,384	1933. 3.27	金玉광산	金銀銅鉛 硫化鐵	952,000	石川庄五郎 外1인	京城府 남대문동 3-19
상 동	9,016	1932. 7.12	水城里광산	水 鉛	992,300	西村幸四郎 外1인	부산부 富平町 1-12
지행면	56	1907. 3. 5	寺坂탄광	석 탄	887,360	中津留孫市 外1인	경성부 南米倉町 211
오천면 동해면	1,094	1926.10.16		상 동	614,828	不二광산 (주)	경성부黃金町일정목칠
상 동	1,616	1928. 9.26		상 동	444,464	清水源吉	下關市大字山岬之町83
지행면	1,784	1929. 5. 6	林中탄광	상 동	87,400	藤木永吉	부산부寶水町일정목112
오천면 동해면	5,947	1934. 7. 8		상 동	370,430	不仁광산 (주)	경성부황금정일정목7
오천면	6,009	1934.10.13		상 동	252,000	상 동	상동
상 동	6,131	1935. 2.26		상 동	505,570	상 동	상동
상 동	7,748	1928. 4.12		상 동	107,010	許 億	진주군 진주읍 水晶洞 590
동해면 오천면	7,766	1928. 5. 8	영일탄광	상 동	618,234	秋山長三郎	福岡縣 鞍手郡 木屋 瀬町 大字野面 1868
신광면	4,419	1932. 3. 2		고령토	63,987	山中九一郎 外一	奈良市 西紀寺町 34
포항읍	8,422	1930.11.25		상 동	23,500	馬崎 勝	창원군 지해읍 住吉町1
영천군 자양면 죽장면	11,130	1934.12.27		금 은	1,000,000	李 東 鎮	영일군 신광면 토성동

5. 제염업(製鹽業)

영일만권에서도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미 관염과 사염이 생산되어 관부와 인근 내륙지방에 공급되었다. 이 고장의 제염은 조선후기에 와서는 그 주생산지의 변화를 보여, 영일만권 네 고을 가운데 유일하게 영일현의 사염(沙鹽)이 토산물로 등장하여 각광을 받게 되었다. 시대가 내려오면서 점차 지형의 변화로 새로운 제염지가 형성되고 제품이 질량에서 양호했던 관계로 영일현 포항의 소금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영일현에는 오늘날의 포항시까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염할만한 곳이 드물기 때문에 영일현의 토산품으로서의 사염은 곧 포항시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다. 조선후기 18·19세기 포항지역의 새로운 개척지와 제염지로서는 송도와 해도지역이 꼽힌다. 해도와 마찬가지로 송도의 남쪽 탄봉지역 역시 염전의 토질이 어느 지역보다 염분량이 높아 소금의 품질이 좋고 운택이 나고 빛이 곱다하여 금산동(金山洞)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송도의 북쪽지역은 염등굴(염등굴)이라 불러 일찍부터 소금굽는 마을로 유명하였다 한다. 염등곡(鹽登谷, 소금이 올라오는 골이라는 뜻)이라는 지명을 통해 그러한 사실의 추정 가능성이 가능하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전오염(煎熬鹽)으로서 이 고장의 특산 토산품으로 각광을 받으며 부조장과 포항장 등을 통해 멀리 내륙지방에까지 운송 판매되었다. 전오염은 ‘소금을 굽는다(煮鹽)’는 표현과 같이 전통적 방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금이다. 이러한 제염의 전통을 광복 후 1950년대 중반까지 이어왔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에도 해도동에서 행해졌던 제염과정을 포항시 총무과장을 역임한 해도동 공용출용의 구술을 1986년에 채록하여, 1999년 《포항시사》에 수록, 참조 바람)

1931~1940년 사이의 영일군의 제염현황(전오염과 재제염)은 다음 표와 같다.

전오염(煎熬鹽)

종별 연도	제조자수		부(釜)수		염전면적 (평)	1년 제조고(製造高)		
	업주(인)	겸업 또는 종업자(인)	주업 또는 제조장수(개)	겸업 또는 부수(개)		수량 (근)	가격 (원)	1근당 단가(厘)
1931	2	12	2	5	9,900	18,197	382	21
1932	8	-	4	-	17,705	276,375	6,909	25
1933	5	7	4	6	12,676	231,938	6,494	28
1934	5	14	4	4	11,500	75,238	1,504	20
1935	3	12	3	3	10,500	65,000	1,300	20
1936	3	12	3	3	10,500	65,000	1,430	22
1937	3	15	3	3	11,700	22,180	965	30
1938	2	9	2	2	7,600	18,200	910	5
1939	2	9	2	2	7,000	52,000	2,080	4
1940	2	9	2	2	7,300	49,000	1,960	4

재제염(再製鹽)

연도	제조자수(인)		제조장수 (곳)	부수 (개)	염전면적 (평)	1년 제조고		
	업주	종업자				수량(근)	가격(원)	1근당가격(리)
1937	1	3	1	3	80,000	75,780	1,667	22
1938	1	3	1	2	84,000	79,500	1,749	22
1939	1	4	1	2	170,000	170,850	5,296	31
1940	1	3	1	2	206,864	208,168	7,286	36

전오염은 1931년에서 1935년까지는 경북에서는 영일군과 영덕군에서만 생산되었으나 그 생산규모는 영일군이 크게 앞섰으며, 1936년부터는 영덕군의 생산은 중단되고 경북에서 유일하게 영일군에서 전오염을 생산하게 되었다.

전오염 업자는 모두 한국인으로서 종업자까지 포함해서 평균 15명 내외, 부수(釜數: 소금가마수) 3개 안팎, 면적 평균 1만평 내외, 생산량 평균 8만여 근이었다. 1930년대 이 고장의 제염업은 전기와 중기에 번창하였다가 후기에 이르러 염전의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고, 수량이나 가격은 이후 보합세를 보이다가, 평균 1근당 가격이 1938년부터 크게 하락한 것이 주목이 된다.

재제염(再製鹽)은 천일염(天日鹽, 전라남도가 대표적인 생산지로 저수지에 해수를 가두어 햇볕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을 가져다가 물에 풀어서 녹게 한 다음 다시 불을 지펴서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것으로 이것도 건지미와 지지미로 나누어진다.

재제염은 1934년 처음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이 만들기 시작했으나, 1935년부터는 한국인만이 이 업에 종사한 것으로 평균 근당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 재제염의 제조장은 학산동에 있었으며, 재제염의 원료인 원염(原鹽)은 대만 등지의 외국에서도 수입되었다.

전오염(煎熬鹽)사업은 1930년대 후반부터 재제염에 밀리기 시작하여 1940년대가 되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하는데, 통계표를 보아서도 그 같은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중국 산둥(山東)지방의 천일염이 수입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태평양전쟁의 막바지에 소금이 귀해지자 포함에는 전오염업자가 갑자기 늘어났다. 광복 후에도 소금수입이 어렵고, 소금이 귀해서 전오염업자 증가현상은 지속되어 20명의 제염업자가 해도를 중심으로 생산활동을 하였다. 광복 후에는 중국의 암염(岩鹽)이 들어와서 재제염으로 생산되었다고 한다.

1950년경에도 전쟁과 과다한 강우량으로 서해안의 천일염의 생산마저 저조하여 소금 품귀현상이 크게 일어났다. 따라서 광복 후 제염업은 소금의 품귀현상으로 활발하였으나 반면에 가마솔의 팻감 과용으로 주위의 산림에 큰 피해를 주기까지에 이르렀

다. 점차 산림 남벌의 단속과 함께 땀값이 귀하여 연료비가 오르고(연료비 때문에 가마솥을 개량하여 갈탄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함) 외국과 서해안의 값싼 천일염이 유통되기에 이르러서는 재래식 제염업은 도산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

6. 포항상공회와 포항상공회의소

1) 포항상공회

포항상공업의 활동은 일찍부터 조직된 포항상공인 단체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다. 그 단체란 일본인이 중심이 되고 일부 한국인이 참여하여 이 고장 상공인의 자각과 권익옹호를 위하여 조직한 포항상공회를 말한다. 포항상상공회의소의 전신인 포항상공회(浦項商工會)는 1924년 한국인과 일본인 회원 90여명(회장, 中谷竹三郎)으로 탄생되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1925년에 포항변영회의 이름으로 갱생했다. 그러나 이 단체 역시 유명무실해지자 봄에 이르러 일본인은 상공회로 분립하고 한국인 측만 변영회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변영회는 박윤여(朴允余)회장을 비롯한 여러명의 성금으로 활동하여 찬사를 받으며, 1926년 8월 8일 오후 1시 산하정(山下町) 영일청년회관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1년동안의 사업보고가 있는 후 앞으로 지방발전 사업시설에 대한 결의를 하고, 임원은 회장(朴允余)이하 전부가 유임되었으며, 특별 평의원에 권전근(權銓斤), 평의원에 정학생(鄭學生) 외 2인을 선임하였다.

일본인 측은 상공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해지자 상공업자 50명이 모여 상우회(商友會)를 조직하여 1926년 말 中元 등의 노력으로 상공업자의 발달과 복리증진에 노력하였지만 상우회는 상공회와 그 성격이 달라 대외적인 공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1930년 11월 조선상공회의소령이 공포되어 1932년 1월 1일 공법인으로 조선상공회의소가 경성(서울)에서 설립된 후 포항 발전의 도약과 대외교섭을 위한 기능을 발휘해야 할 포항상공회 설치가 시급함에 따라 당시 포항읍장 시모무라 주에이(下村重英)가 포항의 발달에 걸맞는 명목상의 상공회 설치를 주장하였다

1933년 2월 포항읍내 유지의 회합을 개최한 결과 이의 설립을 결의한 후 **나카다니 다케사부로(中谷竹三郎)**, 김두하(金斗河), 최병기(崔柄基), 김동덕(金東德), 김용주(金龍周), 박윤여(朴允余), 권태직(權泰稷), 윤이병(尹離炳), 안정웅(安井雄), 오오우에 토메조오(大上留造), 하마다 고래야스(濱田惟和), 오카모토 아다이찌(岡本與一), 셋토고이찌(瀬戸甲一), 다나카(田中), 마츠무라 죠시(松村常市), 와키무라 다츠구라(脇村辰藏), 모리츠카 죠사브로(森塚昇三郎) 등 17인(한국인 8명, 일본인 9명)을 발기인으로서 설립사무

를 위촉하고 수차 발기인회를 거듭하였다.

마침내 1933년 7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8월 10일 임원선출과 특별위원의 추천을 완료하여 포항상공회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포항상공회의 초대 임원명단(한국인 7명, 일본인 10명)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中谷竹三郎(무역업, 道會부의장)
- 부 회 장 : 김두하(수산업, 도회의원, 邑會의원), 大上留造(잡화도매상, 邑회의원)
- 이 사 : 姜疇錫(수산업, 邑회의원), 原田一雄(잡화상, 철공업)
- 특별회원 : 李一雨(수산업), 권태직(경상합동은행 포항지점장),
仲野隆一(三輪포항농장주, 농학사), 濱田惟和(빈전제빙 主, 수산업),
吉川善太郎(식산은행 포항지점장)
- 의 원 : 金斗河, 金東德(수산업, 邑회의원), 강주석, 윤이병(수산업, 邑회의원),
吳福商, 中谷竹三郎, 大上留造, 田中貢(수산업 邑회의원, 消防組頭),
岡部與一(수산업, 邑회의원), 原田一雄, 大內治郎(장유, 양조, 산림경영),
北垣又次郎(미곡판매, 광산), 美花谷伴太郎(茶鋪, 消防副組頭),
古川茂平(壽露양조장 主), 大下幸松
- 부속의원 : 仲野隆一(상공부장), 濱田惟和(수산부장), 田中貢(교통부장),
吉川善太郎(경제부장)

포항상공회는 상공·수산·교통·경제 4부로 나누고 각각 다음의 부서의 목적 및 업무를 정하였다.

그리고 당분간 사무소를 읍사무소 내에 두고 이사 사무 취급자로서 藤村濯纓를 촉탁하고 9월에 이르러 최재원(崔在源)을 채용하여 후지무라(藤村)과 함께 회무에 종사케 하고, 1935년 8월 임기 만료 때문에 몇몇 새로운 사람들이 의원에 선출되어 포항상·공·수산업 발달의 큰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그 임원과 특별회원 등 주요 인물명단(한국인 8명, 일본인 27명)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中谷竹三郎
- 부 회 장 : 김두하, 大上留造
- 이 사 : 강주석, 原田一雄
- 명예회원 : 下村重英(포항읍장), 瀬戶甲一, 森塚昇三郎
- 고 문 : 正分清一, 岡本四郎, 森塚昇三郎, 瀬戶甲一, 難波照治, 下村重英,
角園仁助, 中島才次郎
- 특별회원 : 이일우, 권태직, 濱田惟和, 仲野隆一, 吉川善太郎(식산은행 포항지점장),
각부부장 : 大上留造(상공), 田中貢(교통), 大內治郎(금융), 濱田惟和(수산)
- 의 원 : 김두하, 김동덕, 강주석, 윤이병, 金龍周, 李栢源, 中谷竹三郎, 大上留造,
田中貢, 岡部與一, 原田一雄, 大內治郎, 北垣又次郎, 梶谷伊太郎,
古川茂平, 大下幸松, 脇村辰藏, 福島謙治, 川端孫太郎, 川口琴惠

이상의 35인들이 광복이 될 때까지 포항의 상·공·수산경제를 이끌어 갔던 사람들이다. 이 명단은 당시 포항이 일본의 자본가, 사업자, 기관장들이 의해 주도되어 있고, 동시에 3.1운동 후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책에 의해 조선인을 각종 기관 단체의 명목상 제 2인자로 참여케 하여 일본화를 위한 유화전략을 펴고 있는 가면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인들이 수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회의 대표 및 각 업무의 책임자 및 각종 영향력을 도맡아 행사하여 한국인의 사업 발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였다.

포항의 공공단체인 포항상공회는 몇 년이 지나 1938년경부터 본래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독재와 무기력의 산표본으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자를 망라한 포항상공회는 상공업자의 원만한 발달을 도모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상공회가 하는 일이란 전혀 독재주의여서 회원은 회의 하는 일을 일 년에 3번 발행하는 회보소식 이외에는 잘 알 수 없으며, 가장 긴급을 요하는 중등학교설립 추진문제 등은 소극적인 자세로 유야무야 되었고, 동해중부선 광궤문제 역시 그러하니 상공회의 무기력한 평판이 자자하였다. 포항상공회는 일대개혁을 하여 고문·특별의원 등 관료들이 중심이 아닌 일반회원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인으로 조직된 상공회를 세워 포항상공계의 진흥을 열망하던 상공인들이 1938년 8월 ‘포항상공변영회’를 창립하였다. 도회의원 김용주(金龍周)의 영단으로 종래 포항상공회와 마찬가지로 상인간 친목도모와 사업진흥이란 목적은 같으나 한국측 포항주민 상인과 일본인 측 상인과 비교하여 실로 경제적 차이가 있다 하여 상공회의 매년 막대한 회비 과중의 불편, 제반행사에도 습관적 모순이 있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차제에 김용주씨 이하 유력상인의 적극적 노력으로 7월 중순에 회합하여 명칭을 포항상공변영회 창립의원회를 열었다.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8월 초순에는 제반사를 진행하여 도인가를 앞두고 제1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포항상공변영회의 창립에 따라 한국인 소자본가의 전도에도 변영의 희망이 비치고, 상공회의 매년 책임과중과 회비문제도 자연 해결될 것이라 하여 일반 상인 측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2) 포항상공회의소

1940년대에 이르러 법적인 단체로서의 상공회의소 설립이 요구됨에 따라 상공회의 임원과 의원이 중심이 되어 포항상공회의소 발기인을 조직하고 1941년 11월 각 업계 인사 192명이 포항공립보통학교(현 포항초등학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1942년 4월 11일에 설립인가를 받아 임원과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임원과 의원들의 대부분은 앞의 명단에 나온 포항상공회의의 인사들이었다.

당시 회의소의 예산은 42년에는 16,123원, 43년에는 20,616원이었다. 1940년대 이르러 일본은 전시경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42년에는 중소기업 정리령을 공포하여 기업의 통폐합을 단행하였으며, 각종 경제단체의 전시개편을 강요함에 이르렀다. 1944년 8월 조선총독부는 조선상공경제령을 공포하여 조선상공회의소도 전시체제로 전환케 됨에 따라 포항상공회의소는 중간관리기구인 경북상공경제회의 포항지부로 개편 흡수되었다. 결국 포항상공회의소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벗어나 태평양전쟁의 군수물자 조달, 한국인 징용과 학도지원병의 출전장려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광복을 맞게 되었다. 광복 당시까지 경북상공경제회 포항지부 건물은 육정(旭町, 현 여천동) 52번지(현 중앙치안센터 동쪽 맞은편 한도마트 자리 185평)에 위치하였고, 광복 후 1946년 6월 30일 포항상공회의소가 재발족 되었으며, 포항상공회의소 건물은 6.25전쟁시 불타버렸다.

7. 금융·무역

1) 금융

1910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가 공포하여 민족자본의 형성 및 성장발전을 억제하고, 한반도 경제를 제국주의적 경제 질서에 재편하려는 회사령이 1920년 4월 폐지됨으로써 한국에도 일본자본이 유입되어 근대공업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식민경제정책의 전환은 일본자본주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일본 자본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공백상태에 있는 세계시장에 재빨리 진출하여 공업국으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잇따른 전후의 경제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제는 유�휴(遊休)자본과 실업자를 한국에 방출하기 위해 대한(對韓) 경제정책을 바꾸었던 것이다.

일제는 경제적 침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1906년 설립된 농공은행의 기구를 확대 운영하였다가(1911년 9월에 포항지점을 설치) 1918년에 그 외 5개 은행과 합병, 단일체제로 전환시켜 조선식산은행으로 개편하였다. 식민지경영을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식산은행의 자금은 주로 일본으로부터의 도입과 조선총독부가 인수하는 식산은행 채권발행으로 충당하였다. 식산은행은 보통은행, 저축은행, 권업·흥업은행의 역할을 모두 할 뿐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하여 그 자금을 대지주 농업경영회사 및 ‘산미증산계획’의 토지개량사업과 수리조합·금융조합연합회 등에 제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1918년 조선식산은행이 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농공은행 포항지점도 식산은행 포항지점(현 상원동 김 정형외과의원 부근자리)으로 개칭되었다. 직원은 모두 일인이었

다. 이후 당 은행의 거래실적은 크게 늘어나서 1934년도의 거래금 1,509만여 원, 기말잔금 49만여 원이었는데, 이를 1919년의 그것과 비교하면 취급고에 있어서는 92%, 잔고에 있어서는 213%의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포항식민경제의 발전 속도를 짐작케 해주고 있다.

(1) 영일금융조합

금융조합은 식민지시대의 농촌금융을 장악하기 위한 기관으로 포항지방에 설립된 최초의 금융기관이다.

당시 금융조합은 출자하는 1 구좌를 10원 이사 50원 이내로 하고, 조합원이 1구좌 이상 100구좌까지 가질 수 있게 했으며 도시조합의 대부 한도액을 무담보의 경우 1천 원 이내, 유담보의 경우 3천원 이내로 하고, 농촌조합의 경우 무담보 200원 이내, 유담보 1천원 이내로 한정했다. 예금 이자율이 은행의 그것보다 2~3리 높고 일반은행이 5원 이상인데 비해 5전 이상의 소액구좌도 취급하여 ‘서민금융’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조합원은 대부분 중소지주와 자작농·자소작농 이상이었고 빈농층은 조합비를 낼 수 없어 조합원이 될 수 없었으며 저당할 땅이 없어서 쉽게 대출할 수 없었다.

영일금융조합은 1909년 8월 9일 흥해지방 금융조합으로 설치되어 1911년 포항지방 금융조합이라 개칭하였다가 1918년 ‘지방’ 글자를 삭제하여 포항금융조합(浦項金融組合)이라고 개칭한 후 1920년 5월 7일 도시조합의 설립으로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를 전후하여 장기(1912. 8. 7)·청하(1924. 2. 29)·기계(1927. 3. 9)·흥해(1927)·구룡포·도구·입암 등지에 각 금융조합을 설립하고, 그 구역을 분할하였다. 당조합의 임원인 조합장은 한국인, 이사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것이 특이하였는데, 이는 일제의 회유정책의 일면을 반영한 것이다.

1933년경 영일군의 금융조합실태와 금리를 보면 아래와 같다.

조 합 명	조합원	조합자본금	조합적립금	대 부 금	예 금	차 입 금
포 항	604	19,911	29,450	325,407	302,174	87,462
흥 해	1,262	16,131	4,960	179,973	80,538	116,529
청 하	1,125	11,790	10,999	159,560	71,250	96,372
기 계	1,354	13,820	8,963	175,367	66,934	123,506
영 일	1,164	11,800	9,050	173,613	122,797	75,923
장 기	776	8,410	8,756	125,544	64,121	83,378
도 구	796	13,443	5,433	111,206	51,828	66,700
구룡포	805	5,000	5,654	94,175	378,804	9,700
입 압	510	-	-	62,856	13,817	53,793
계	8,396	110,305	82,695	1,407,701	1,155,263	713,363

① 금융조합금리

- 예금금리 : 정기예금, 年 5分3厘, 据置저금 日 1錢4厘5毛, 통상예금 年 4分5리6모
- 대부금리 : 단기보증 일 3전7리, 단기담보 일 3전4리, 장기 연 1할, 당좌대월 일 3전9리, 手形할인 일 3전4리, 저리자금

한편 당시 흥해 금융조합 이사들이 친목과 공제를 위한 계를 결성하였고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운영하고 있는 난정계를 소개한다.

② 난정계(蘭亭契)

조선후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농촌사회가 변화하고 상공업이 발달할 즈음 유교적인 도덕규범을 강요하는 향약이 양반사회의 동요와 함께 그 기반을 상실해 갈 때 농촌사회의 현실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契: 稷)가 농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성해갔다.



● 1940년의 난정계원 기념사진

계는 처음 친목과 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많았으나 뒤에는 점차로 경제적 난관을 공동의 힘으로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난한 농민들이 많이 가담하였다.

조선후기의 이러한 현상이 일제강점기에도 지속되었을 것이나 그 형세는 식민정책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여 일제강점기의 우리 고장 계에 대한 자료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짐작이 된다.

마침 이 고장 계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게 됨으로써 당시에 친목과 공제를 위한 계가 상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계명은 난정계로서 흥해면 거주의 금융조합 이사 17명[최인백(崔仁伯) 계장, 정순천(鄭順千) 부계장, 서말범(徐末凡)·김복술(金福術)·정삼대(鄭三大)·박경수(朴景守)·강만수(姜滿守)·최주석(崔周錫)·강원수(姜元守)·김도식(金道植)·배형진(裴衡鎭)·이석돌(李石玆)·최홍준(崔弘俊)·이학봉(李鶴鳳) 등]이 1935년 3월 15일 결성하였다.

난정계는 각 계원이 일정액을 출자하여 구입한 답(畓)을 모체로 운영되었으며, 춘궁기 또는 길흉사에 돈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장리(長利)를 받아 재산을 증식하였다. 이 계는 오늘날 당시 계원들의 3세 후손(손자)들에 의해 그대로 운영 존속되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회원은 최해중·정병두·이학봉·박태원·서태식·강용구 등

이며, 현재 공동 관리되고 있는 재산은 흥해읍 흥안동 57번지의 답 367평이다.(자료 제공, 창립계원 강만수씨의 장자이며, 현재 계원인 강용구씨)

(2) 포항금융조합

1918년 6월 금융조합령이 개정되어 종래 농촌에 설립되었던 촌락조합 외에 시가지에서 도시조합의 설립을 인정함에 따라 1920년 5월 인가를 얻어 6월 18일 업무를 개시하였다. 최초에는 포항동 116번지에 사무소를 개설했지만, 그 후 2회의 이전 끝에 1926년 12월 4일 현재의 덕산동 113~1번지(현 포항철강공단 의료보험조합)에 신축 이전하였다. 당 조합은 6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임원으로는 조합장 나까타니 다께사부로(中谷竹三郎)를 비롯하여 일인이 대부분이며 한국인은 소수였다. 당시 당조합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연도	조합원	차입금			적립금	출자금		예금	대출
		특별	보통	계		총액	불입		
1920	169	50,000	-	50,000	-	34,550	3,455	9,770	45,922
1922	202	50,000	16,000	66,000	1,200	37,150	14,860	50,183	117,796
1924	252	50,000	53,927	103,927	12,000	41,450	25,837	86,263	150,843
1926	295	50,000	28,432	78,432	6,000	41,500	24,836	165,748	212,937
1928	322	50,000	10,000	60,000	15,000	38,250	25,019	285,304	257,296
1930	438	16,255	86,604	102,859	23,000	43,125	29,218	265,280	318,278
1932	535	28,212	66,550	94,763	27,800	44,350	30,565	305,209	315,137
1934	700	27,799	2,539	30,338	12,914	46,475	29,028	810,985	304,893

(3) 포항무진회사

무진업(無盡業)은 주로 서민층의 상호 금융의 특질과 계(契)의 성격이 가미된 특수 금융업이다. 포항무진회사는 1923년 9월 15일에 창립하여 10월 3일 영업인가를 받아 업무를 개시하였다. 당시 자본금은 6만원, 불입금은 1만 5천원으로 포항은 물론 부근의 영천·경주·영일·영덕 등 4군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탄생하게 되었다.

처음 5·6년간은 순조로웠다가 계속된 재계의 불황 때문에 타격을 입고 불안한 때도 있었지만 이후 점차 서민금융의 명색을 띠고 그 세가 신장되었다.

1934년말 현재 영업무진조수도 천원회 10조, 오백원회 14조, 삼백원회 14조, 백원회 1조 합계 39조, 만기계약고 85만1천원에 달하였다. 창립 당시의 임원은 모두 일인이었다.(취체역 사장 : 福島伊平)

1934년 말 당회사의 실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진조수와 종별표

종 별	조수	口數합계	給付계약금 합계	종 별	조수	구수합계	급부계약금 합계
갑종 천원회	7	280	280,000	을종 천원회	3	120	120,000
갑종 오백원회	7	280	140,000	을종 오백원회	7	280	140,000
갑종 삼백원회	14	560	168,000	-	-	-	-
갑종 일백원회	1	30	3,000	합 계	39	1,550	851,000

가입계약자 구분표

종 별	원 수	구 수	급부금계약고	과금계약고
한 국 인	671	935	754,300	617,641
일 본 인	531	615	276,700	297,916
계	1,202	1,550	851,000	915,561

계약자 직업별

종 별	원 수	급부금계약고	종 별	원 수	급부금계약고
농 업 자	108	47,700	봉급생활자	382	199,100
상 업 자	379	309,500	기 타	298	269,400
공 업 자	35	25,300	계	1,202	851,000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서 소액무진이 비교적 많고 한국인의 가입계약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농·상·어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어느 정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경상합동()은행 포항지점

유일한 민족계 금융기관으로서 윤상은(尹相殷)과 장우석(張禹錫)이 구포를 중심으로 한 물산(物産)객주와 지주 70여명을 모아 자본금 25,000원으로 1908년 구포(龜浦)저축주식회사를 설립한 데서 비롯된다. 1912년 저축회사를 개편, 자본금 5백만원으로 구포은행을 설립, 1915년 1월에 경남은행으로 개칭하여 본점을 부산으로 옮겼다. 1928년 7월 대구은행(1913년 7월 7일 일제의 선남은행(鮮南銀行)에 대항하기 위하여 정재학(鄭在學)과 최준(崔浚) 등이 설립)과 합병하여 경상합동은행으로 발족하였다. 포항지점은 1921년 11월 10일 포항동 759번지의 1에 대구은행 포항지점으로 개업되고, 1924년 하반기에는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급성장하여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1925. 2. 6. 동아일보), 1927년 12월 25일 포항동 758번지의 2로 신축이전하고,

1928년 8월 1일 대구은행과 경상합동은행의 합병으로 경상합동은행 포항지점이 되었는데, 그 건실한 영업상태와 높은 신용으로 특히 한국인의 이용이 많았다.

그 후 1931년 3월 1일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의하여 소재지가 포함읍 중정 758번지의 2로 변경되었으며, 1941년 10월 2일 은행합병으로 인해 한성은행(漢城銀行) 포함지점이 되었으며 1943년 10월 1일 은행신설합병으로 조흥은행 포함지점이 되었다.

역대 지점장[초대 : 김현태(金顯台), 2대 : 권태직(權泰稷)]과 직원들이 모두 한국인이었으며, 당 지점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종별	연도	1921	1933	1934	1935(6월)
대출	대	40,776원	389,779원	364,949원	458,759원
예금	예	22,534	247,997	294,124	274,284
위체취급 수입	위체취급 수입	26,538	346,992	356,839	266,309
위체취급 불출	위체취급 불출	26,945	347,030	356,626	267,574
이율대출	이율대출	4전	3전 5리	3전 3리	2전 7리
이율예금	이율예금	1전 6리	1전 3리	1전 1리	1전

(5) 우편소

영일군의 각 우편소는 우편, 전신전화, 통상우편집배, 소포우편집배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역할인 우체저금 위체의 업무를 취급하여 그 일익을 담당하였는데, 각 우편소의 우편저금 위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933년 우편저금 위체

(단위 : 원)

局所명	우 편 저 금		진 체 저 금		수 편 위 체	
	예 금	拂 戻	拂 込	拂 渡	振 出	불 도
포 항	79,897,490	83,256,880	671,058,320	227,526,290	338,222,140	449,170,690
천 구	20,039	19,262	27,752	5,554	74,739	51,824
흥 해	20,478	23,617	196,645	19,249	42,757	44,757
청 하	21,832	21,900	125,319	24,606	42,949	50,857
도 구	10,594	10,624	38,912	8,331	13,946	14,272
대 보	49,252	47,786	79,989	3,302	30,853	69,266
구룡포	371,376	367,413	566,486	415,552	246,989	373,263
장 기	113,942	110,875	89,096	31,761	31,717	71,415
기 계	21,970	25,716	114,275	26,669	14,557	21,817
계	80,707,324	83,974,073	672,296,694	228,061,314	338,738,647	449,868,161

※ 우편저금, 전체저금, 우편위체는 현재 체신예금, 우편대체, 우편환으로 개칭되고, 불여와 불도는 지급, 불입은 납입, 진출은 발행으로 개칭되어 있다.

2) 무역

문화개방 이후 급격히 확대된 조선과 일본사이의 무역이 일본 측에 의해 거의 일방적으로 독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합병 후 더욱 뚜렷해져서 한국은 일본에 대한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으로 변질되었다.

1910년 조선의 수출총액은 1,991만 4천원이었고 그 중 일본에 대한 수출액은 1,537만 9천원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으나 1919년에는 수출총액이 2억 2,149만 8천원으로 약 11배 증가했고, 그 가운데 일본에 대한 수출액은 1억 9,984만 9천원으로 90%를 차지하여 거의 완전히 일본에만 의존되어 있었다.

한편 수입의 경우도 1910년의 총수입액은 3,978만 3천원이었고, 그중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2,534만 8천원으로 전체의 63.7%였으나 1919년의 총수입액은 2억 8,491만 8천원으로 전체의 65.3%를 차지하여 역시 증가 일로에 있었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대외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한층 높아갔다. 조선의 일본에 대한 식량공급지로서의 역할이 ‘산미증산계획’ 등의 결과로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이 시기의 무역상황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조선미 생산고에 대한 수출고 비중

(단위 : 1천석)

연간(평균)	생 산 고	대 일 본 수 출	기타 지역 수출	합 계
1917~1921	14,100	2,196(15.57%)	247(1.76%)	2,443(17.33%)
1922~1926	14,500	4,343(29.95)	34(0.24)	4,377(30.19)
1927~1931	15,798	6,607(41.82)	9(0.06)	6,616(41.88)
1932~1933	16,108	7,770(48.24)	59(0.36)	7,829(48.60)

1930년대 이후의 침략전쟁기로 들어오면서 조선무역이 일본무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높아져 갔고 조선이 일본에 수출하는 원료도 군수공업원료의 비중이 높아져 갔다.

1940년에는 군수공업원료가 전체 대일 수출총액의 65%를 점유하는 한편 곡물을 비롯한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출도 1941년에 27%나 차지했다.

반면 이 시기에 조선에 수입된 일본제품은 기계류·직물·금속·제품·차량·선박 등 완제품이 급격히 높아져서, 1942년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총액의 71%나 차지했다. 이는 전쟁시기에 있어서의 군수공업의 이식 및 한국의 병참기지화정책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927년의 포항항의 수출입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수 출	수 입
농 산 물	341,869	244,155
수 산 물	769,193	21,775
공 산 물	189,308	375,359
광 석 물	7,386	9,214
축 산 물	255,540	280,453
계	1,563,296	930,956

1920년대에 농산물 중 양질의 한국 쌀이 일본으로 대량 수출되었고, 영일만 연근해에서 잡힌 방어·전복·대구·청어 등 고급 어종은 거의 전량 일본에 수출된 것이다.

포항항은 일본과의 무역액은 1934년에 6,512,668원에 달하였다. 전년도(1933)의 그것과 비교하면 수출에 있어서 140% 이상 증가되는 놀라운 숫자를 보이고 있으며, 1932년도 무역액 3,242,297원에 비해서 200% 증가세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포항항의 항만가치가 일반에게 잘 인식되어 가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종래 동해중부 연안선의 출곡(出穀)이 장생포에서 일본에서 수출되던 것이 포항항에 옮겨진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1933년과 1934년 2년간의 포항항에서 수출되는 화물수량과 가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종 별	단위	1993년		1934년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현 미	석	80,249	1,661,876	177,143	4,241,551
정 미	"	14,031	300,913	12,569	291,669
대 두	"	10,508	138,129	15,914	214,666
鮮 魚	근	2,020,110	92,820	741,160	37,816
乾魚 煮乾 鱈	"	44,703	10,536	44,482	7,874
成 魚 鯖	"	870	190	62,300	2,500
鮮 具	"	-	-	16,950	1,356
林檎(사과)	"	1,510	150	610	84
고등어통조림	打	-	-	8	10
장 어 통조림	"	640	1,700	664	1,660
정어리 기름	근	-	-	66,798	4,858
석 탄	톤	90	990	-	-
건 어 비 료	근	3,649	16,681	2,898	14,243
魚 泊 비 료	"	5,593	26,531	7,009	34,603
米 糠 비 료	"	3,513	3,917	2,156	2,178
기 타		-	202,136	-	162,535
합 계		-	2,456,399	-	5,018,247

당시 포항항의 화물을 거래하던 곳은 일본의 오사카(大阪)·고베(神戸)·도쿄(東京)·나고야(名古屋) 등과 그 밖의 20여 개의 도시에 달하였다. 그러나 1934년의 포항로의 수입화물은 1933년의 1,648,290원에 비해 153,869원이 감소한 1,494,421원으로 나타난다. 그 까닭은 1933년까지는 형산강의 대개수(大改修)공사가 있어서 각종 자재가 포항항에 하역되었던 것이 그 공사의 완료에 따라서 재료의 수요가 없게 된 결과로 보여진다. 수입화물에 있어서도 오사카가 제1위로 1934년의 액수가 737,135원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시모노세키(下關), 3위는 큐우슈우의 모지(門司)였다. 영일군에 있어서 포항이외의 수출입항으로는 구룡포·칠포·모포항을 들 수 있는데 1924년 부산항에 출입한 연안무역 지방별 수량과 가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 방 명	한 국 산		일 본 과 외 국 산		합 계	
	가 격	톤 수	가 격	톤 수	가 격	톤 수
포 항	483,826	4,354	1,577,894	14,201	2,061,720	18,555
구룡포	136,282	1,225	178,802	1,609	315,084	2,834
칠 포	14,224	128	87,356	786	101,580	914
모 포	5,283	48	11,385	102	16,668	150

1924년의 이 통계로는 부산항에 출입하는 화물이 포항지방의 것이 전국에서 마산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경북 관물인 포항항은 발전하는 무역항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1933년경의 기록을 보면 영일군의 수출품으로 쌀·콩·어류·비료가 수입품으로는 밀가루·사탕·철물류·기계·잡화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참고문헌

- 《조선수산지》1911, 《동아일보》(1920~1940), 早田伊三編, 《朝鮮机上便覽》大阪屋號版, 1928.
 《경상북도통계연보》(1919~1928).
 김용제, 《迎日邑誌》1929.
 조선총독부, 《市街地の商圏》1926, 《朝鮮の聚落》 1933, 《朝鮮米穀要覽》, 1934.
 田中正之助·加納安正《浦項誌》1935.
 조선총독부 《조선광구일람》1935.
 達捨藏, 《경북대관》1936,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경상북도 수산통계연보》
 중앙수산시험장 포항지장, 《경북의 ‘오징어’ 어업개관》1953.
 吉田敬市, 《조선수산개발사》朝水會, 1954, 수산청, 《한국수산사》, 1968
 국립수산진흥청, 《국립수산진흥원 60년사》1981, 해운항만청, 《해운10년략사》, 1986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시승격 50주년), 포항시, 1999
 《경상도칠백년사》, 2006. 포항시,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2009

제5절 사회와 인구 변화

강화도조약(1876) 후의 문호개방은 조선사회의 전 분야에 심한 충격을 주었으며, 러일전쟁 후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이에 편승한 일본인 사업가들의 도항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한국의 생활상·거주 조건들이 특히 영세 일본인들을 자극하여 이주희망자가 격증하였다. 더욱이 일제가 한민족의 의병항쟁과 비무장저항운동 등 맹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저들의 침략정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강점함으로써 한반도는 외세에 의한 질곡과 파행적인 변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영일군의 각 고을, 특히 포항과 구룡포 시내를 중심으로 한 영일만 일대는 그 충격과 변화의 물결이 밀어 닦친 전국의 대표적인 고장이 되었으며, 1914년의 전국적인 행정구역개편 이후 영일군의 인구변동은 큰 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 인구의 변동

1910년에 조사된 1909년의 한국인의 인구통계를 보면 흥해군이 8,116호 37,375명(남 19,824, 여 17,551), 연일군이 5,175호 23,016명(남 12,537, 여 10,479), 장기군이 7,326호 35,017명(남 19,002, 여 16,015), 청하군이 4,602호 22,537명(남 11,724, 여 10,813)이었다.

이 가운데 특이하게 드러나는 것은, 1731년 포항창진(浦項倉鎭)이 설치된 이후부터 영일현의 인구가 4개 군현 가운데 가장 많이 된 현상이 1910년에 와서는 흥해군과 장기군의 인구가 영일군을 앞지르게 되고, 청하군의 인구가 영일군을 뒤쫓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1906년의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흥해군이 경주의 기계면과 신광면 등을 내속하여 8면에서 11면으로, 장기군이 경주의 북도면과 남도면 등을 내속하여 4면에서 6면으로, 청하군이 경주의 죽장면을 내속하여 6면에서 7면으로 증면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인구변동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일제의 침략정책에 의해 일본인의 한반도예로의 이주와 한국인의 만주예로의 축출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일제강점에 따라 급속히 이루어졌다.

일본인이 처음으로 포항에 들어오는 1901년경의 한국인 호수는 20~30호 정도였다 한다. 당시의 포항(포항동)은 현재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시내지역을 말한다.

1910년 연일군 북면의 호구수는 총 531호(한국인 호수 430호, 일본인 호수 101호)로 인구는 3,501명(한국인 3,100명, 일본인 인구는 401명)이었다. 이 때 대다수의 일본인은 행정 단위상 연일군 북면에 속해 있던 포항동의 거주자였다.

1912년의 4군의 호구수(외국인 포함)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군의 호구수

군명	호구 호	한 국 인			일 본 인			
		남	여	계	호	남	여	계
흥 해 군	9,001	24,011	21,339	45,350	80	246	107	353
연 일 군	5,506	14,377	12,499	26,876	202	471	378	849
장 기 군	7,969	21,205	18,548	39,753	122	188	209	397
청 하 군	7,446	13,507	11,958	25,465	13	24	20	44

여기에 중국인의 호구수 약간을 합치면, 각 군의 총 호구수는 흥해군이 9,082호 45,704명(남 24,258, 여 21,446), 연일군이 5,711호 27,734명(남 14,857, 여 12,877), 장기군이 8,091호 40,151명(남 21,394, 여 18,757), 청하군이 4,789호 25,509명(남 13,531, 여 11,978)이 된다.

1914년 3월 1일 4군이 영일군으로 통합된 이듬해 1915년 12월 현재 영일군의 호구는 24,255호(일본인호 566호와 중국인 8호 포함), 129,044명(일본인 2,191명과 중국인 27명 포함)으로 경북에서는 경주군(27,745호 143,822명), 상주군(26,113호 136,663명), 안동군(24,696호 131,216명) 다음으로 4번째가 되었다.

이후의 호구증가를 연도별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영일군 연도별 호구수(1915~1942)

연도 호구	1915	1917	1919	1921	1924	1926	1929	1931	1934	1936	1939	1942
호	24,255	25,996	27,134	27,481	29,267	30,279	29,559	31,784	32,350	33,171	33,829	36,269
남	67,659	73,935	75,902	76,159	78,185	84,218	77,763	83,659	83,572	85,854	87,708	95,165
여	61,345	68,556	69,177	70,298	71,575	77,199	72,222	76,912	79,642	82,948	84,865	95,443
계	129,004	142,491	145,079	146,457	149,760	161,417	149,985	160,571	163,214	168,802	172,573	190,608

표에 의하면 1926년의 인구가 1929년에 감소되고, 1936년에서 1939년 사이의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그리고 유일하게 1942년의 남자수가 여자수보다 적게 나타난 것이 주목된다. 이 가운데 1942년에 남자수가 여자수보다 적게 나타난 사실은 1941년 12월부터 시작된 태평양전쟁에 의한 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강제적이고 발악적인 징병·징용정책의 결과였다.

영일군내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여 인구가 크게 늘어난 포항면을 비롯한 각 면의 호구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포항면·포항읍의 연도별 인구 증가 추이(1914~1942)

년 별	한 국 인	일 본 인	기타 외국인	계
1914	3,026	1,090	23	4,139
1919	3,052	1,696	16	4,764
1921	3,622	1,626	14	5,262
1922	3,988	1,811	18	5,817
1924	4,773	2,207	59	7,039
1925	4,849	2,251	56	7,156
1926	7,719	2,793	56	10,568
1930	9,241	2,164	79	11,484
1931	10,095	2,386	61	12,542
1938	22,957	2,526	23	25,506
1942	32,448	2,775	28	35,251

포항은 1914년 면승격 이후 1917년 지정면을 거쳐 읍모양의 시가를 형성하면서 2~3년간 한국인의 인구는 물론 특히 일본인의 이주가 급증하였다.

이후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 1926년에 인구 1만(10,568명)을 돌파하였다.

1931년 읍으로 승격하면서 한국인의 인구가 포항으로 크게 유입되어 1만 5천을 돌파한 후, 1938년 행정구역을 확대 개편하여 형산면(13개동)과 대송면의 송정동 일부를 통합하고, 시내에 향도동(현 송도동)을 신설 흡수하여 시세가 확장됨으로써 전년도보다 약 1만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 2만을 훌쩍 넘어 바로 2만 5천의(25,506명) 시대를 열었다. 이어 3년만인 1941년에는 급기야 포항인구는 3만(31,833명), 1942년에 3만 5천명에 진입하였다. 이로써 포항은 신흥도시의 형세를 이루며 일제강점기가 끝날 무렵에는 시로 승격할 제반 조건을 갖춘 경북 제2의 신흥도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영일군 각면의 호구현황(1926년)

인구 면명	洞里수	區 수	한 국 인		일 본 인		중국인 및 기타		합 계	
			호 수	인 구	호 수	인 구	호 수	인 구	호 수	인 구
포항면	3	5	1,764	7,719	654	2,793	14	56	2,432	10,568
형산면	13	23	1,445	7,440	2	6	-	-	1,447	7,446
흥해면	14	19	1,955	10,011	32	136	-	-	1,987	10,147
곡강면	11	22	1,515	8,050	5	24	-	-	1,520	8,074
청하면	17	26	2,105	10,999	18	48	4	16	2,127	11,063
송라면	10	19	1,362	7,562	2	2	1	1	1,365	7,565
죽북면	9	15	989	5,868	-	-	-	-	989	5,868
죽남면	10	15	1,490	7,839	5	9	1	3	1,496	7,851
기계면	23	26	3,138	16,311	11	34	3	10	3,152	16,355
신광면	13	17	1,807	9,826	2	3	-	-	1,809	9,829
달전면	9	17	1,080	5,692	4	14	-	-	1,084	5,706
연일면	13	25	1,317	7,347	7	19	-	-	1,324	7,366
대송면	15	18	1,498	7,689	8	32	-	-	1,506	7,721
오천면	16	18	1,558	8,472	4	12	-	-	1,562	8,484
장기면	12	20	1,536	8,425	16	48	2	10	1,554	8,483
봉산면	11	17	1,078	5,465	6	16	-	-	1,084	5,481
창주면	16	30	2,295	13,809	257	952	4	12	2,556	14,773
동해면	10	16	1,314	8,472	58	171	3	8	1,375	8,651
총합계	225	348	29,246	156,996	1,091	4,319	32	116	30,369	161,431

당시 영일군에는 일본인과 중국인 이외의 외국인은 거의 거주하지 않았다. 영일군에서 기계면과 창주면의 인구가 1·2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주목되며, 특히 일본인 이주가 많고 상업과 수산업이 번창하는 포항면과 창주면의 인구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창주와 포항 등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되었던 것은 일제의 식민정책과 영일만 근해의 수산업의 호황으로 많은 일본인들의 유입과 한국인들의 이주로 마을과 고을세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포항은 1931년 경북의 김천·경주·안동·상주와 함께 읍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5개 읍의 인구변화를 몇 시기로 나누어 다음 표로 만들어 비교해 보면 신흥도시로서의 포항 성장의 속도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경북 5개읍 인구 변화표

읍명 연도	1926년	1931	1934	1938	1941	1942
포항	10,568	12,542	13,144	25,506	31,833	35,251
경주	16,828	18,441	19,889	22,539	23,758	26,453
김천	13,333	14,721	16,540	27,793	33,608	35,081
상주	26,283	26,111	27,693	30,054	31,326	33,521
안동	13,612	15,160	18,094	22,210	25,324	28,381

포항읍은 1938년 행정구역이 확대 개편되어 형산면이 흡수 통합되는 것을 계기로 인구가 2만 5천여명으로 늘어나 경북의 5개읍 중에서 상주와 김천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가 1940년의 28,541명을 지나 1941년에 비로소 3만의 시대를 열었으며, 급기야 1942년 말에 이르러서는 경북 제 1의 읍이 되었다. 또한 창주면이 일제강점기에 수산업의 호황으로 구룡포리를 중심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이주가 급증하여 1931년에 인구가 1만 5천을 돌파한 후 1942년 10월 1일에는 창주면이 구룡포읍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당시 구룡포읍의 호구는 호수가 4,485호(한국인 4,251호, 일본인 231호, 외국인 3호), 인구가 23,264명(한국인 22,344명, 일본인 910명, 중국인 10명)으로 경북 11읍중 포항·김천·상주·안동·경주 다음의 6위로 부상했다.

포항읍과 구룡포읍을 중심으로 한 영일군 호구수는 1914년에 상주, 경주, 달성, 의성군 다음으로 5위였던 것이 1915년 이후부터는 경주와 상주군 다음으로 3위가 된 후 마침내 1942년에 이르러서 경주군 다음으로 2위로 오르게 되어, 영일군의 군세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크게 부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대구는 행정구역의 특수성으로 등위에서 배제)

영일군 군세의 성장

도시 연도	1926년	1931	1938	1942
대구부	77,263	102,180	172,040	210,914
영일군	161,417	160,571	174,740	190,608
경주군	170,671	170,803	183,455	193,553
김천군	135,450	137,198	141,841	152,257
상주군	164,770	162,564	181,800	182,978
안동군	152,342	153,798	160,198	165,793

일제강점기를 맞아 영일만권은 일본인들의 희망 이주지로서 다수가 거주하고 수산업을 비롯한 상업의 발달로 경북의 신흥도시, 물류중심항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최근에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 1929년에 만들어진 팸플렛 형식의 ‘경상북도 포항시가도(慶尙北道 浦項市街圖)’와 ‘1930년의 경상북도 ‘구룡포시가도(慶尙北道 九龍浦市街圖)’가 발견되었다. 시가도에 곁들여 지역의 자연환경·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사항을 요약 설명하고 시가지 약도와 사진을 배치하여 당시의 포항지역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이 자료는 당시 河合清治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현 포항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이광희씨가 2009년 봄에 부산에서 입수하여 제공하였다.)



2. 일본인 이주와 증가 추이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개항장과 개시장이 생긴 이후 이 나라 안의 많은 내륙 도시에까지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부터이다. 일본의 계속된 승리가 대륙 또는 한반도 지향을 자극함으로써 일본인 도항자가 급격히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종군했던 자들 중 일부가 직접 내한 정착하기도 하고 혹은 그들의 귀국담에서 조선의 생활상·거주조건 등이 소개됨으로써 정주희망자가 격증하였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일제강점 4·5년 전에 이미 개항장·개시장의 합법을 빙자하여 일본인 이주자들에 의해 점령되었고, 내륙 도시는 내륙 도시대로 이들 불법이주 일본인들에 의해 경제적·무력적으로 장악되어 대한제국은 형체만 남아 있는 국가가 되었다.

1906년 말부터 각 지방별 일본인 수의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1906년 말에 이르러 한국거주 일본인 호수는 21,532호 81,754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관공리·교원·종교인·변호사·의사 등의 전문인, 농업인, 상공업인, 어업인, 잡업인 등 다양하였다. 이 가운데 상공업인이 가장 많으며, 특히 상업호수(7,773호)는 전체 일본인 호수의 36.1%를 차지하였다.

포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1935년말 현재 일본인 이주자의 직업별 수를 살펴보면, 상업 및 교통업 220호 1,080명, 공무원 및 자유업 156호 684명, 공업 83호 306명, 어업 및 제염업 49호 236명, 농업인 및 목축업 24호 101명이다.

당시 서일본 출어지대의 대다수는 연안 수산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또 이미 포항에 달한데다가 농경지는 적고 근대공업도 거의 보이지 않는 영세어업지대였다. 가가와현(香川縣) 같은 곳은 어업자 1인당의 어획고는 전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원 빈약 속에 어민은 넘쳐났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일만 동해안의 중심지인 포항은 그들의 가난 탈출을 위한 희망의 땅이었다. 특히 가가와현의 어업가와 어민출신들이 포항·구룡포·모포 등지에 다수 이주하여 주무대를 이루었다.

1) 포항의 일본인 이주

포항에 이주한 최초의 일본인은 일본 혼슈 주코쿠(中國)의 호오고켄(兵庫縣) 이와지시마(淡路島) 출신으로 농수산물 무역상과 어업을 경영하는 사업가 **나까다니 다께사부로**(中谷竹三郎)이다. 그는 1901년 가을에 포항에 첫발을 디디고 이듬해 1902년(30세)에 이주하였으며, 당시 포항 일대(현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시내지역)의 한국인 호수는 120~130호 정도였다 한다. 그는 1905년 가을 영주할 목적으로 일본식 가옥을 최초로 신축하였다.

그는 포항에서 사업의 번창과 포항사회 각 방면의 각종 최고 직위를 맡아 포항의 대표적 인물로, 제1의 실권자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그는 1910년 일본인회장이 된 후 학교조합 관리자, 영일어업조합장(초대), 영일수리조합장(초대), 포항상공회장, 관선도평의원, 포항금융조합장, 경북수산회 회장, 조선수산회장 등의 중요 직위를 도맡는 한편 포항축항공사, 동해중부선 개통, 형산강제방공사 등의 포항의 숙원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이러한 공로로 1928년 최고의 표창을 수여받아 일본왕의 연회에 초대되는, 일본인으로서 가장 큰 영광을 입었으며, 1933년에는 포항유지들이 성금을 내어 포항군민의 뜻이란 명목으로 포항건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포항 중심부인 포항읍청사(현 포은도서관)내 서남쪽 공원에 그의 동상을 건립하였다. 이러한 송덕비는 걸모양과는 달리 일제에 의한 한국 근대화란 식민통치 은혜론과 맞물려 일제강점의 기만적인 한민족의 말살정책을 한국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인정케 하는 무서운 상징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치욕의 역사적 사건이 영예로운 역사를 잉태하는 씨앗으로서 값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후 1903년 일본 돗토리(鳥取)현의 오쿠다구(奥田龜) 삼형제가 처음으로 지예망(地曳網)을 가지고 출어한 이후 1904년 일본과의 통어(通漁)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일본 어민의 통어 및 이주자가 증가하였다.

1905년경 영주의 목적으로 내포한 사람은 곡물 해산물 무역을 하는 오카모토 리하찌(岡本利八)·이와사 히로이치(岩佐廣一)·오카모토시로우수케(岡本四郎助)를 비롯한 6~7명이 되었으며 그해 말에는 근 20인 가까이 일본인이 내주하였다.

해가 바뀌어 일본인의 내포하는 수가 점점 많아지고, 일본인 여자의 최초 입포(入浦)는 1906년 봄 아마노 하라오(天野源藏)과 함께 내포한 그의 처가 효시이다.

1905년 통감부통치가 실시된 후 관리를 일본 각지에 파견, 어민을 설득하여 단체 이주를 장려하면서 급속히 이루어졌다.

1905년 이후 포항에 이주한 일본인 어민의 출신지는 가가와(香川)·오카야마(岡山)·야마구치(山口)·시마네(島根)·오오이타(大分)·에히메(愛媛)·후쿠오카(福岡)·토야마(富山)·구마모토(熊本)·사가(佐賀)·교오토(京都) 등지였다.

이같은 진출에 따라 연일군(延日郡) 포항부근 일원의 일본인을 위한 영일일본인회[(迎日日本人會 : 회장 오카모토 리하찌(岡本利八), 부회장 나까다니(中谷)]가 1907년 7월에 조직되어 그들의 이주·생활보호·의병경계·친목 등을 주도해 나갔다. 조직 당시 포항에 거주하는 일본인 호수는 22호이다. 그 결과 1908년 포항마을에는 야마구치와 사가 두 현의 어촌인들 25호 120명이 이주하였다. 그리고 그 해에 오카야마현[일본 세토(瀬戸) 내해의 시고쿠(四國)지방 북동쪽 지역] 어선이 돛바리·삼치류를 가져오고, 사람들이 대거 건너와 이주어촌이 건설되었다.

그들은 1909년 봄에는 학교설립의 이야기가 구체화되어 일본인회가 세우는 소학교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당시 입학 아동은 12명으로 포항에 거주하는 학생은 겨우 4명에 불과 했다. 1910년 2월에 회장에 나까다니(中谷)가 당선되어 일본인 사무일체를 인수받아 완전한 일본회의 진용이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1907년 연일군의 일본인은 36명, 1909년에는 204명이 거주하게 되었다. 당시 1909년 말 현재 영일일본인회에 소속된 포항 인구의 일본인은 310명(호수 : 88호, 남 : 191명, 여 : 119명)이었다. 1909년에 포항에는 일본인 이외에도 중국인 1세대 4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1910년 연일군 한국인 호수는 430여, 인구는 3,100여, 일본인 호수는 101호, 인구는 401명(남 212명, 여 189명)이 되었다. 이 때 대다수의 일본인은 행정 단위상 북면에 속해 있던 포항동(현 대흥동 중심의 시가지역)의 거주자였다.

일본인이 처음 들어올 초창기에는 여관보다 요리집이 더욱 번창하여 1909년 4월에는 여자 46인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수산업의 중심지로서 면모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1911년경에는 토야마현(富山縣)인 등이 대부망(大敷網) 경영을 시작하였다. 1911년 4월 일본인 호수 142호, 인구 432명(남 231, 여 201)이며, 농상업이 65호, 관공리가 11호, 기타 66호였다. 1912년에는 호수 202호, 인구 782명(남 455, 여 327)으로 증가되었다. 1919년부터 일인들은 노자(勞資)공동경영의 방식을 취하며 자신들의 이익과 발전을 꾀하였으며, 1924년에는 호구수 553호, 인구 2,510명이었다.

앞의 표에 나타난 바와같이 1914년에서 1942년까지의 포항 거주 일본인의 증가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일본인 인구가 한국인 인구의 약 10~50%를 차지하였다. 1942년에 일본인 인구가 가장 많아졌으나 1938년 포항의 행정구역이 확대 개편된 후 포항인구가 급상승되면서 비율은 도리어 낮아지게 되었다. 이는 일본인들이 당시 포항의 중심지역인 여천동·중앙동·상원동·동빈동 등에 밀집 거주하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2) 구룡포의 일본인 이주

영일만권 어업의 대표적인 지역은 포항 다음으로 구룡포를 꼽을 수 있다. 구룡포에도 일찍부터 일인들이 많이 진출하여 수산업계를 지배해 나갔다. 원래 한국인 2호가 거주하였던 1개 한촌(寒村)이었다. 연안에는 배를 묶어놓을 수 있는 장소도 없었다.

구룡포로 진출하는 첫 어업집단은 1878년경 이시하라 가키츠(石原喜吉)가 주축이 된 일본 가가와현〔香川縣: 일본 세토(瀬戶) 내해의 시고쿠(四國)지방 동북쪽 지역〕건축망(巾着網) 어선들이다. 이때부터 한국의 동해안 연안어업이 조명을 받고 어업과 수산물 운송업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시하라 가키츠가 사망(1927)한 후 아들 이시하라 사카에(石原榮)는 사업을 계승해 구룡포에 정주하며 고등어·정어리 어업과 운반업으로 번성하였다.

1902년 야마구치현(山口縣) 토요우라군(豊浦郡) 돗바리어선 50여척이 내항한 것이 구룡포 통어자 개척의 효시이다.

1904년 가가와현(香川縣)어선이 돗바리·삼치류를 잡아갔고, 같은 해 야마구치현 토우라군 출신의 하마모토 신사쿠(濱本音作)가 어선 30척을 이끌고 원양어업으로 통어를 하다가, 1905년부터 구룡포로 이주하였으며, 그는 후에 나카베이 쿠지로우(中部幾次郎)를 도와 울산 방어진으로 이주해갔다.

1906년에는 그곳 오다마쵸(小田町)의 小田組 80여척이 고등어 어업으로 구룡포에 왔다. 1909년 가가와현의 하시모토 젠기치(橋本善吉)가 이주해와 매제와 함께 동해안을 무대로 선어운반업을 시작하고 후에는 대형 낙망과 건착망어업 및 정어리 가공공장까지 경영하여 당대에 큰 부를 이루었다.

구룡포에 이주하여 대표적 인사가 된 일본인은 오카야마현(岡山縣) 고지마군(兒島郡) 야마다(山田)출신인 도가와 야스부로(十河彌三郎)다. 그는 1902년부터 장기 모포에 거주했으나 모포항은 포항까지 선어수송이 어렵고 잡은 고기를 소화해낼 만 배후도시가 없었던 관계로 1908년 구룡포로 이주하여 정치망어업을 비롯하여 각종 수산업과 상업에 종사,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구룡포어업조합을 설립, 조합장이 되고, 구룡포항만수축기성회 회장·경북수산회 부회장·도평의원 등으로 부와 명예를 차지하여 이름을 떨쳤다. 그 결과 1944년 구룡포공원에 그의 일본 고향마을 지인들과 구룡포 최고 실력자의 한사람인 하시모토(橋本)가 중심이 되어 ‘도가와 야스부로 송덕비(十河彌三郎 頌德碑)’를 건립하였다. 이 비도 앞에서 언급된 나카다니(中谷)의 송덕비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구룡포는 1909년 방장출어단(防長出漁團)이 고등어잡이로 큰 성과를 올린 이래 고등어 어업의 대근거지가 되었다. 1910년부터 이주자가 증가하여 1912년에는 47호가 되었다.

1926년 어항(제1기)이 완성되었고, 1930년의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국고보조(명칭 : 경북빈민구제사업)에 의해서 1935년 축항(제2기)이 완성되었다.

1927년경부터 이주자가 120호를 넘고, 1933년에는 220호로 증가했으며, 그 반수는 어업관계자였다. 더구나 이주인의 7할은 가가와현 사람이었다.

이주어민의 출신지는 가가와현을 비롯하여 오카야마현, 야마구치현, 돗토리현(島取縣), 미에현(三河縣) 등이었다. 그리하여 구룡포항은 하시모토(橋本), 하야시가네(林兼)·이시하라(石原)·이노우에(井上)·다카오(高尾) 등의 일본인 어업겸 운반업자들의 근거지가 되었다.

구룡포항의 고등어 성어기에는 어선·운반선 약 2천척이 내항하였으며, 또한 구룡포는 정어리어업 발흥 이래 전국적으로 한 중심지가 되었다.

창주면이 수산업의 호황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이주가 급증하여 1942년 10월 1일에는 구룡포읍으로 승격하게 되었을 때 구룡포읍의 일본인 호구는 231호, 인구는 910명이었다.

3) 모포(牟浦)의 일본인 이주

포항과 구룡포 이외의 지역으로 일본인들이 이주하여 생업에 종사한 곳으로는 장기군 서면의 모포를 들 수 있다.

일본인 최초의 이주자는 오카야마현(岡山縣) 야마다촌(山田村)〔일본 세토(瀬戶) 내해의 주코쿠(中國) 동남쪽 지역〕출신의 도가와 야스브로(十河彌三郎, 27세)로서 1902년 잡곡과 해조(海藻) 상인으로 이곳에 정주하였다. 그는 정치망 어업을 위해 1908년 구룡포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이곳과 부근지역은 미에현(三重縣) 시라즈카촌(白塚村)의 정어리 지예망(地曳網, 후리망) 어업자들이 출어하던 근거지였다가, 1908년경부터 일본인들이 이주하여 직접 경영하기 시작한 곳이다.

4) 영일군의 일본인 분포

1907~1910년경 한국 도회지의 인구분포를 보면, 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시가 17곳, 인구 5천~1만명의 도시지역이 40곳, 인구 3천~5천명의 시가지지역이 77곳이었다. 포항과 함께 대전·강경·군산·사리원·신의주·용암포·신창·회령 등이 인구 3천~5천의 시가지 지역으로 각광을 받게 된 곳이다.

1914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영일군시대의 영일군과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지역인 포항에 이주하여 산 일본인의 호구수, 영일군 가운데 인구가 많은 면의 일인 호구수, 및 1926년과 1933년의 각 면의 일인 호구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인의 호구수

연도 군면		1914	1917	1919	1922	1924	1927	1930	1932	1935	1937	1940	1942
		영일군	호수	551	767	852	829	1,012	926	931	1,063	1,047	1,013
인구	2,085		3,001	3,359	3,293	4,049	3,708	3,833	4,256	4,135	4,251	4,203	4,199
포항	호수	300	420	430	434	511	530	517	599	617	601	634	634
	인구	1,090	1,643	1,696	1,811	2,207	2,253	2,164	2,445	2,489	2,589	2,469	2,775

인구가 많은 면의 일본인 호구수

연도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42
읍면	호수	654	530	550	549	517	561	599	634
	인구	2,793	2,253	2,282	2,187	2,164	2,386	2,445	2,775
포항	호수	32	-	-	-	23	35	32	-
	인구	136	-	-	-	155	156	124	-
흥해	호수	18	19	19	18	22	20	21	-
	인구	48	63	60	63	72	59	60	-
청하	호수	11	12	9	11	9	8	9	-
	인구	34	44	32	34	36	35	33	-
기계	호수	257	234	246	246	240	281	287	231
	인구	952	889	920	905	983	1,063	1,161	910
창주	호수	654	530	550	549	517	561	599	634
	인구	2,793	2,253	2,282	2,187	2,164	2,386	2,445	2,775

영일군 각면의 일본인 호구수(1926·1933년)

연도	읍면	포항	형산	흥해	곡강	청하	송라	죽북	죽남	기계	신광	달전	연일	대송	오천	장기	봉산	창주	동해	총계
1926	호수	654	2	32	5	18	2	-	5	11	2	4	7	8	4	16	6	257	58	1,091
	인구	2,793	6	136	24	48	2	-	9	34	3	14	19	32	12	48	16	952	171	4,319
1933	호수	605	6	32	3	21	3	죽장 3		10	2	6	8	17	10	지행 29		275	29	1,059
	인구	2,563	18	115	12	70	8	13		31	9	22	39	65	36	92	1,123		114	4,330

영일군의 일본 호구수는 당시 대구부를 제외한 경북의 전 군 가운데에서 제일 많은 숫자이다. 이는 포항과 구룡포에 많은 일본이 이주하여 산 결과이다. 당시 포항의 일본인 호구수는 1921년경까지는 김천과 2·3위를 다투다가 1922년경부터는 포항이 대구 다음으로 계속 2위를 견지하게 되었다.

당시 일인들은 주로 일정지역에 밀집하여 취락을 형성하였으며, 총독부의 비호 아래 확장된 그들의 세를 이용하여 그 고을의 모든 이권을 탈취, 운영해갔다. 이러한 취락형태는 1929년의 일인들의 대표적인 밀집거주마을인 포항면의 포항동에 436호 1,838명, 창주면의 구룡포리의 192호 81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포항의 경우 일본인들은 거의 중앙동(仲町)과 상원동(本町)에 밀집 거주하였다.

따라서 영일군에서는 포항, 창주, 흥해 순위로 일인이 다수 거주하였으며, 특히 구룡포리가 속한 창주면이 2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 주목된다. 일인 다수 거주지역의 도시화로 1931년에 포항면이 포항읍으로, 1942년에는 창주면이 구룡포읍으로 승격하게 된 것이다.

일본인들은 1910~1911, 1914, 1920년대 초, 1931년에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살펴 보건데, 1909년 말부터 의병항쟁이 줄어들고 1910년 일제강점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인의 한국이주가 불안하지 않게 되고, 1914년은 이고장의 연일군 북면 포항리가 영일군 포항면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1920년 전후부터는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며 재력이 풍부한 비교적 도시적인 곳에 특별히 지정면을 설치할 때(1917년) 포항도 이에 해당되어 일본인의 거주 활동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었고, 1931년은 포항면이 포항읍으로 승격되는 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포항은 1920년경에는 포항면 단독으로 인구가 전국에서 30위로 부상하였고, 일본인이 포항면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약 25%로서 그 비율은 전국 15위가 되었으며, 일본인 이주의 증가율이 전국 7위(일인 거주가 1,000명 이상의 지역에 한함)가 된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이 고장의 특수성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통계는 조사자의 조사시기(연도의 월별)에 따라 숫자상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3. 포항사회의 변화와 중요 사건들

1) 일제강점(1910) 직전의 포항사회

1907년 정부는 일제 한국침탈의 마지막 단계인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에 따라 총포화약단속법과 한국군대 해산을 발표하여 사전에 한국군인의 총검을 거둬들이고 군대를 해산하였다. 진위대 해산병은 즉시 의병에 입진하여 한말 후기의병진의 중요 구성원이 되었으며, 산남의진(山南義陣)에도 다수 참여하여 각지에서 봉기함으로써 하루는 영일우체국이 습격이 되고 이튿날은 영천에서 일본인이 살해되는 등 일본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포항 거주 일본인의 불안은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1907년 경주진위분견소의 대장은 부위(副尉) 박창화(朴昌和)였다.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신지식을 가진 친일파로서 당시 경주서장 키네나가 후사키치(杵永房吉)와 밀접한 연락 하에 해산식을 행하였다.

당시 산남의진의 항전활동으로 포항부근의 사정은 매우 불안하고 거주민들의 근심이 그 극에 달하여 포항지역 일본인의 대표격인 나까다니 다께사부로(中谷竹三郎)의 집에 모여 군대를 급파해 줄 것을 관에 신청하기로 결의하여 결사의 각오로 다케다야

수아키(武田安秋)·세토구찌(瀬戸口)·산조오(三藏) 등 3인을 대구로 급파하려고 했다. 그런데 마침 小倉 14연대의 병사 약 30명이 수비대장 中島 중위의 인솔로 포항에 상륙해와 거류민은 겨우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한다. 결사적인 의병의 항전활동에 불안해하는 일본인의 증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나까다니(中谷) 이야기

1907년 7·8월경이라 생각된다. 각지에 봉기한 폭도(일본측 기록에는 의병을 폭도 또는 화적으로 표기, 필자)의 세력은 날로 창궐하여 재류일본인의 피해도 매우 많았다. 그러나 언제 포항도 습격될 지 모른다. 그런데 이곳에는 폭도와 교전할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다. 그때 최초로 내가 집을 2층으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2층이 소위 일본인의 집회소였다. 이 사람들은 매일처럼 모여서 폭도의 대책을 의논했다. 그리고 아마도 대구이사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청에 ‘수비대주둔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 시기에 폭도 대책은 맥주병에 화약을 넣어서 이것을 도화선에 붙여서 폭도에게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스러웠다. 그런데 화약도 200돈중(1돈중은 1000분의 1관) 밖에 없었다. 이것으로는 어찌 할 수 없고 빨리 수비대가 주둔해줘야 한다고 중의를 모으고 모두 비장한 각오로 문안을 짜서 오카모토(岡本)의 집원이며 일·러 전쟁에 종군하여 군조(軍曹)까지 승진한 츠츠나가 센조오(是永傳藏)군에게 집필토록 하였다.

이 청원서를 대구까지 지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큰 임무였다. 중도에는 언제나 폭도가 횡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결사적 각오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중도에서 실패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큰 임무를 맡아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때 갑자기 그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사람이 세토구치·산조오 양인이었다. 모두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이 결사대의 두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수비대에 도착하기 전 폭도의 습격당했을 때의 대책을 연구하고 만사를 츠츠나가군이 지휘하기로 결정했을 때 마침 바다의 기적소리가 들렸다.

이때는 조선정부의 융성호(隆盛號)라는 것이 입항하고 있었지만 그 외에 기선을 볼 수가 없었다. 이상히 생각하여 내가 망대에 올라가 본 즉 일본의 운송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배에는 일본군이 있었다. 조금 후에 한사람의 중위가 인솔한 24~25명의 군대가 근심 속에 쌓인 부락 포항에 상륙하였다. 지옥에서 부처님을 만났다는 말로는 아직 다 표현을 못한다. 그때 재류 일본인의 기쁨이란 문자로 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뜻하지 않는 군대 상륙으로 결사의 각오로 대구행을 결심한 두 사람도 위험지역을 지날 필요도 없어졌기 때문이지만, 이 군대 상륙이 한 시간만 늦었다면 이미 두 사람은 출발했을 것이다. 정말 행운이라고 모두들 기뻐하면서 군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군대가 와서도 들어 갈만한 집이 없었다. 먼저 나의 집과 오카모토(岡本)·이와자(岩佐) 양씨의 3집을 비워서 나누어 자기로 하고 포항을 중심으로 이 부근을 수비하였다.(<<浦項誌>>)

포항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8세기 포항창진(浦項倉鎭) 시대 해운의 중심지로서, 남한 3대시장의 한곳으로서 곡물과 해산물의 집산 중개지였던 잠재력이 일본인들에게 재발견되어 포항은 일본 제국주의와 이에 편성한 사업가들의 침탈야욕의 목표지역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 침탈에 맞서 영일만권의 주민들은 산남의진의 항일투쟁에 참여하여 국권회복의 정기인 의병정신을 표출 함양하며 포항은 새로운 변혁과 갈등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2) 일제강점 후 포항사회의 사건들

(1) 자연과 지리

•1923. 1. 7 《동아일보》 : <혹한 열풍으로 선중강시(船中僵屍)>

경북 포항부근에는 지난 1~2일 간에 서북풍의 맹렬하고 추위가 혹독하였는데,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사람 중에는 배속에서 얼어 죽은 사람도 많다더라.

(2) 정치와 행정

•1922. 5. 18 《동아일보》 : <포항의 연합낙성식>

포항경찰서 신축준공 축하식과 남빈정매축 준공낙성식을 5월 18일에 거행한다.

•1927. 8. 18 《중외일보》 : <조선인 무시하는 포항면장 배척>

영일군 포항면 시모무라 주에이(下村仲英)면장이 모든 일에 조선인을 무시하고 따라서 근자에는 조선인 공직자까지 무시하는 태도가 노골화함으로 조선인 측에서는 크게 분기하여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下村면장 배척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이어니와 지난 14일에 면민대회를 개최하려고 신간회 포항지회와 포항청년회에서는 성명서를 인쇄하는 중 돌연 포항경찰서에는 신간지회 측으로 최경성(崔景成), 김화섭(金和攝), 청년회 측으로 李鍾哲(이종철), 김현종(金顯宗) 4씨를 호출하여 하촌면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면민대회를 개최함은 치안방해이기 때문에 금지한다 선언함으로 부득이 중지하고 제 2차 계획으로 대표인 6인을 선정하여 하촌면장과 군당국에 질문하기로 하여 신간회측으로 정학선(鄭學先), 김화섭, 최경성, 청년회 측으로 김현중, 이종철, 이상갑(李尙甲) 6씨가 질문위원으로 당선되었다는 바 사건은 경찰의 간섭함을 따라 면민들은 더욱 분기하여 점차 험악화 하리라더라.

•1932. 5 .3 《동아일보》 : <포항읍 예산>

1932년도 예산은 전번 읍회에서 173,896원으로 수정 가결하였는데 전년에 비하면 59,194원이 증가되었다 한다.

•1932. 12. 25 《동아일보》 : <포항에 싸이렌>

포항경찰서에서는 정오를 소방종을 쳐오던 바 음향이 읍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또는 불편하여 전기 싸이렌을 설치코자 준비 중이든 바 지난 22일 정오부터 실시하였다 한다.

•1933. 2. 18 《동아일보》 : <민유지 5백 두락을 치도(治道)에 강제 편입>

철경인 원도로를 개수치 않고, 50지주 결속 반대

•1933. 6. 4 《동아일보》 : <포항여남동 모범어촌 소개>(포항지국 이제백)

… 농촌을 황폐케 한 금융자본은 어찌 어촌인들 그저 남겨두었으랴? 농촌이라면 풍부를 예상케 하던 시대도 이미 과거에 속하고 어촌도 농촌과 같이 대자본의 침입, 발동선의 발호로 여지없이 몰락의 도정에 들어가고 있는 참상이다. 이런 가운데 오직 생기 있게 발전의 보무를 내어 디디는 어촌이 있으니 이는 필자가 소개하려는 여남동 모범어촌이다.(위치 : 영일군 형산면 여남동 1·2구(區), 호수·인구 : 960호, 700여명, 어업자 : 126호)

… 여남동도 중산어민 계급의 몰락으로 전 마을 중 경제적 파멸에 직면하게 되어 동네 선구자 수명은 그 대책에 부심강구하여 마침내 대어업주의를 포기하고 소어업주의도 방향을 전환하기로 하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고 실패가 적은 연승어업을 촌어민들에게 장려하였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차차 지도자 여러분의 성의에 감동되어 연승(延繩), 유(流)망 등 소어업을 실행하게 되어 그 실익을 체험하게 되자 전 동네 어업자 126인을 망라하여 어민상조회를 조직하고 영일어업조합의 지도하에 한층 조직적으로 철저히 장려하여 전 동민은 극빈자가 없게 되었고 영일만내 유일의 모범어촌이 되었다.

이에 영일어업조합에서도 현재 극도로 피폐한 어촌의 구제책으로는 소어업 장려에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금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어업조합 '데이'로 정하고 각 어촌에 선전 장려하여 어촌 진흥을 도모하게 된 것도 이에서 동기 되었다 한다.

그들은 공동사업으로 ①어민 상조회 ②어민야학(무산어민의 자녀의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어민야학을 개설하여… 현재 생도수는 77인이오, 희생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은 朴德守, 徐二洙 양씨) ③전자(煎子)공장 경영, ④어획물공동판매(상조회에서는 어업조합으로부터 공동판매 허가를 얻어 그 수수료 5%중 어업조합에 1%, 공동판매 비용으로 1.5%는 상조회의 수입으로 한다)를 운영하였다.

이상과 같이 모범어촌이 되기까지에는 선각자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이 적지 않았는데 그 중에도 중요한 임무를 시종여일하게 열성과 근면을 다하는 분들은 김진술(金進述), 김진필(金辰泌), 김진우(金辰祐祐), 박영석(朴永錫), 김용암(金龍岩), 안기하(安琪)

河), 박덕수(朴德守), 김석근(金碩斤), 서일수(徐一洙) 등이라 한다. 여남동의 특색은 빈한의 차가 현격하지 않고 극빈자가 없는 것이라 한다.

장래계획은 여남동은 어선계류를 위한 축항공사를 비롯하여 포항과의 사이에 전화가설, 도로수축 등 통신·교통의 편리를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모범어촌을 건설하리라 한다.

•1933. 7. 9 《동아일보》 : <어민구제차, 동해안벽공사>

[어민도 구하고 어류도 서식, 일거양득의 희안사(稀安事)]

산의 녹화와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영일군 흥해, 달전, 포항에 3년 전부터 사방공사를 기공하여 지금까지 계속 공사 중인데 해안 일대에는 백사가 강풍에 날려 전답을 매몰하여 황폐케 되어 그 피해가 적지 않으므로 도산림과에서는 해안 사방공사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자 조사에 착수하여 기초적 조사를 마치고 금년어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는데 이 공사는 어민구제 피해방지의 직접 이익도 적지 않을 뿐더러 공사를 실시하고 식목하면 어족의 서식에 유리하여 간접으로 어촌진흥에 도움이 있으리라는 데 제1회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포항읍 함도해안 ◦대송면 해안 ◦동해면 도구동 해안 ◦흥해면 용한동 해안

•1933. 9. 1 《동아일보》 : <모범 농촌 영일 봉계동(鳳溪洞)>

[도박의 소굴이 일약 평화의 마을]

……봉계동의 유지 김성진(金性鎭, 58)씨가 변천하는 사회상을 보고 분연히 일어나 여지 없이 과멸에 빠진 자기 마을의 운명을 만회코저 필사의 노력과 혈심을 기울여 앞날의 한줄기 서광이 비추어와 점차 소생의 보무를 내디디게 되었다.

김인제(金仁濟, 53)씨가 구장(區長)으로 취임함으로써 일층 산업방면에 치중하여 농사개량 부업장려에 전력을 경주하는 한편 폐풍을 교정하기에 전력을 다하여 도박을 절대 금지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전마을 총호수의 반수 이상이 음식점이었으므로 금주까지 실행시켜 점차 음식점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됨에 전 동민이 총동원으로 이 운동에 호응하여 신국면을 타개하여 산업·교육·풍기 등 동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각종 시설은 날로 달로 증가하여 정신적, 물질적 양방면으로 일대 혁신적 신기원을 이룩하여 지난날의 황량하던 자취도 볼 수 없고 금일은 이상적 낙원으로서 해마다 장족의 진보를 하여 실로 전국 농촌진흥사상에 일대 찬연한 이채를 띠고 있다.

[생활의 향상과 수입이 격증]

회를 조직하여 도박, 음주 등 미풍양속을 물란케 하는 폐풍을 엄금하는 한편 부업

으로 가마니 짜기를 장려하여 연산액 2~3천원에 달하고 한건(旱乾)지대이므로 수리계를 조직하여 10만여 평에 한재를 면할 수 있으리만큼 충분히 관계를 할 수 있는 저수지를 파고 농사개량에 게으르지 아니하여 동민들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왔으며 경제적 안정을 얻게 되어 그들의 생활은 향상되고 수입은 증가하여 극빈자는 점차 감소되어 극빈자가 없을 뿐 아니라 극부자도 없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면용(面容)을 찾을 수 없는 자작자급의 한마을 180호의 800여명의 생활상태를 본다면 (地主 : 1戶, 自作 : 5戶, 자작겸 소작 : 50戶, 순소작 : 124호)인데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170戶의 총토지 소유가 100두락 미만이었다. 실로 천양의 차라 아니 할 수 없다……

•1933. 10. 18 《동아일보》 : <청하면사무소 낙성식>

청하면에서는 6,300원의 공비로 70여평의 면사무소를 신축하고 지난 14일 관민유지 200여명을 초대하고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였다는데 앞으로 일간 육상경기와 자전차 경기대를 개최한다고 한다.

•1936. 5. 15

《동아일보》 : <물 기근의 포항읍, 벌써부터 단수 소동>

[주민반대로 수원지 결정 못 하고 읍당국의 무능을 폭로]

포항읍은 인구의 격증을 따라 물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수원지의 저수량은 적어 28만 8천원의 공비로 수원지를 이전확정하려 하나 그 후보지를 흥해, 대송, 오천의 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반대가 맹렬하여 아직까지 결정을 보지 못하고 일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1936. 5. 27 《동아일보》 : <포항시민 운동> - 성황리에 종료 -

제2회 포항시민대운동회는 예정과 같이 지난 24일 포항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다는데 참가 선수는 100여명 관중은 수천에 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1936. 6. 6 《동아일보》 : <난산의 포항수원지문제, 필경 민중운동 폭발>

- 2천의 군중 면사무소에 쇄도, 형산강설에 총동을 받아 -

•1936. 7. 6 《동아일보》 : <포항수원지 문제로 읍의원 모두 같이 총사퇴>

- 형산강 결정에 불만을 품고, 의안 재의 거부 동시에-

•1938. 8. 24 《동아일보》 : <경주 명기를 총동원, 국방헌납금을 기도>

동아일보 포항지국과 대구일보 포항지사와 기타 지방유지의 절대 후원을 받아 포항에 거주하는 최만용(崔萬用)은 지난 21일 고대 신라 때부터 저명한 경주 명기를 총동원 시켜 고대 조선음악을 일반에 감상시키는 동시 국방헌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고대

신라음악의 밤을 연주 시켰는데 영덕·경주로부터 각지 관람자가 집중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한다.

•1939. 9. 17 《동아일보》 : <국방헌금>

포항읍 천철공장(川鐵工場)에서 주인과 직공이 약 1개월간 성의껏 푼푼히 저축한 88원 50전을 국방에 헌납하였다 한다.

(3) 산업과 경제

① 어태항쟁(漁態抗爭)사건

어태항쟁은 거의 포항 전체의 대문제로서 대분쟁을 일으킨 사건으로 타퇴망(打
瀨網)과 자망(刺網) 금지문제이다. 전자는 1912년과 1913년 사이에, 후자는 1916
년에 일어났던 것이다. 원래 포항 재주(在住)어업가는 누구나 청어 정치(定置)어
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정치어업에 가장 위협을 주는 것은 타퇴망이다.
그들은 경남 혹은 일본방면의 어업가들로서 어업기가 되면 이 타퇴망을 가지고
영일만에 들어와 청어잡이에 종사하는 것이지만 이 결과 정치어업가가 있는 포
항 거주자는 현저한 타격을 입고 이대로 타퇴망의 어로를 방지한다면 영일만 일
대의 어군을 멸종케 하고 나아가서 포항 거주 어업가를 생활난에 빠뜨리게 할
염려가 있었다. 이리하여 조선인 어업가 300인의 조인에 의해 관에 진정하여 일
시 이를 금지를 보게 되었지만 그 후 해금되어 1912년 가을 청어어업기에 들어
가 그들은 영일만을 향해 쇄도하여 다시 정치어업의 포항 주민에게 절대적 위협
을 주게 이르렀다. 생계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긴급히 조선·일본 어업자들
에게 회장(回章)을 돌리고 청원서에 날인하여 영일어업협회 이사들이 부단한 노
력과 맹렬한 운동을 시도하여 도와 본부의 양해를 얻게 되어 2월에 타퇴망어업
의 지역을 한정하여 마침내 금지 명령을 발하게 이르렀다.

제2차 어태항쟁은 즉 1916년의 자망(刺網)금지 사건이다. 이 자망어업자도 역
시 타퇴망어업자와 같이 경남 혹은 일본방면으로부터 출어한 자로서 어기가 되
면 정치어업 근처에 쳐서 영일만 일대의 연안을 황폐화시키고 포항 거주 정치
어업자에게 적지 않는 위협을 주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도 타퇴망 금지운동과
마찬가지로 비통한 각오로 이것을 철폐하도록 총독부에 청원서를 제출 요망하여
마침내 그 목적을 관철한 것이지만 이때 영일만 연안에는 자망업자가 있었기 때
문에 이를 위해 조합간부의 신변에 위해를 느끼는 것과 같은 공기가 감돌고 형
언할 수 없는 분위기가 쌓였다고 한다.(《浦項誌》)

② 영일수리조합 기공식 찬가의 가사

1916년 3월 9일 영일수리조합 기공식을 개최하여 포항 초유로 수백 명 인사가 참석한
기쁨과 동해안 1,400정보의 경지가 되살아나는 기분을 뜻하는 것 같은, 무상의 환희를
표현하는 노래가사가 전해지고 있다. 작사자는 미상이다.(《포항지》, 원문생략)

옛날 동쪽의 신이 계셨으니,
 역사에도 이름 높은 영일의 평야에서 수리사업이 일어났다네.
 공사비 총액이 20만원, 조합원은 1,500명,
 관민이 힘을 합쳐 대역사를 하여, 몽리구역이 1,400정보,
 드디어 이익이 증가하여 해마다 쌀·보리 합쳐서 5만석.
 형산강 물을 이용, 최신 원리를 응용하여
 그 전보다는 자유자재로 물을 가감하게 되어,
 계산해보니 3개월 만에 그 넓은 평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네.
 눈에는 여자들이 힘차게 모심기 노래 부르다네.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어 가을날 새가 울적엔
 황금빛 벼 물결이 넘실대면 즐거우리라.
 지금부터 천년만년 후에도 끝없이 흐뜨러지지 않는 기공식.
 다함께 해가 떠오를 때마다 축복하세 만만세

•1925. 1. 17 《동아일보》 : <영일어업자의 궁경(窮境)>

- 여기 2개월에 일미(一尾, 한마리) 어척이 없어 -

•1925. 7. 25 《동아일보》 : <포항 발전책>, 양 회장 상경

포항은 동해안 제1항구로 수산업이 번성함을 따라서 포항항 발전의 계책으로 번영 회장 박윤여(朴允余), 상공회장 나까다니 다케사브로(中谷竹三郎) 양씨가 지난 13일 상경한 바 계획은 포항검역소, 자혜병원 그 외 지방 ○○소를 설치할 운동인데, 지방 일반은 대희망 중이라고.

•1927. 10. 8 《동아일보》 : <포항항 연안에 고등어 대풍획> - 각지 어선 계속 기항 -

지난달 30일 뜻밖에 고등어 10만미(尾)의 대어획이 있는 이래 계속 호황이 이어져...

•1928. 7. 31 《동아일보》 : <불경기의 대책으로 포항에 야시장 개최>

다년간 농어업의 부진으로 불경기의 체감이 절정에 달하여 이를 구제키 위해 몇몇 유지들의 노력으로 금월 28일 저녁부터 여름기간을 통하여 야시장을 열게 되었다 하며 구역은 포항우편국 앞을 비롯하여 중정(仲町 : 중양동) 하시모도(橋本)여관까지로 각 소매상 등의 다수 노점상을 바란다더라.

•1930. 12 .7 《동아일보》 : <포항근해에 대구 등 풍산>

- 그러나 한국사람 배 저예망기선(底曳網汽船)은 없어, 어획고 매일 수만원 -

•1931. 4. 19 《동아일보》 : <포항어선 경기 성황을 이루어>

동해안으로 보아 처음으로 어선 경기가 지난 4월 3일 대동배어우(漁友)상조회 주최와 아랫 동리의 동지청년회 후원으로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참가 어선 20여척으로 근래 드문 대성황을 이루었다 한다.

•1932. 4. 24 《동아일보》 : <참담한 어촌> - 포항1기자 -

한국 3대어업의 제2위를 차지한 청어 어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4월 15일까지가 법정어기이라 한다. 그리하여 한국 제 1의 청어어장지인 영일만 일대는 어기가 되면 수만 어부와 자유노동자들이 운집 하는데 봉건적 인습에서 참혹한 학대와 착취를 자행한다하며 그 노임제도도 공장이나 농장과 같아 일정한 임금을 일정한 기일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오 비폐제로 총어획고의 15%~20%를 노동자들이 분배한다는데, 출어 중 없어서는 안 될 고무장화 갑바(合羽)의복 연초까지 자담하고, 어장주는 단 음식물을 공급하며 철장기(撤場期)에 어획성적이 불량한 어장에는 노임의 분배는 고사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부채를 지는 자도 다수라 한다.

그리하여 어부들의 5개월간 노역은 수포로 돌아가 피눈물을 뿌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참담무비의 장면이 전개되었다.

어찌 어촌뿐이라. 농촌의 상태를 본다면 바로 파종기를 앞두고 영일의 대지주들은 소작 계약을 받고 새로 전일보다 고율의 정조(定租)계약을 받는다. 만일 불응한다면 소작권을 박탈하고 만다. 이같은 정세 하에 소작농의 유일한 생활 조건인 경작권을 쥐고 있는 지주 앞에 잔명을 보존키 위하여 전율하는 소작 농민들의 애통의 소리는 창천하여 영일 일대는 완전한 살풍경이 되었다.

인간의 서러움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이다. 춘궁을 당면한 수천 어농민 대중은 지게미에 사카린을 타서 연명하는 이때 일비주 일야흥에 천금을 아끼지 않는 지주, 어장주 제군야! 반성하여라.

•1933. 10. 8 《동아일보》 : <경북어선 경조(競漕)> - 포항에서 개최 -

경북 영일만에 산적한 21개소의 어촌진흥회에서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는 경북수산진흥공진회를 기회로 오는 15~16 양일간에 연합주최와 불보 포항지국 후원으로 경북어선경조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1933. 11. 24 《동아일보》 : <가을 고등어군 남하, 고등어(鯖) 대풍획>

- 경북 동해 어촌 활기 -

지난 여름 수차의 폭풍을 겪고난 경북 동해안 일대의 어촌은 적막하기 짝이 없는 중 근일 조류가 좋아 가을 고등어(秋鯖群)떼가 남하하기 시작하여 울릉도 근해를 비롯하여 강구, 포항, 구룡포 각 항에는 고등어의 대풍획을 보게 되어 지난 10일 이래 매일 2백만 마리(尾)의 수획을 한다는데 수년래 흥어에 울던 각 어촌은 대 활기를 띠워 불야성을 이루고, 각 요리점·주점은 선원으로 대만원의 혼잡을 이루는 근년래 처음 보는 대풍어라 하며 고등어 한 마리 값은 3전에서 5전까지이라 한다.

•1934. 2. 18 《동아일보》 : <어선보험제를 실시하라> - 지방논단 -

•1934. 4. 10 《동아일보》 : <보천(浦川)어촌진흥회>

영일군 동해면 구만동은 자고로 청어의 명산지이었고 최근 고등어 연승망으로 성어기에는 매일 2~300척의 어선이 출입하는 곳인데, 작년에 보천어촌진흥회를 창립하고 서수봉(徐秀鳳), 서영택(徐永澤), 김경수(金敬守) 등 간부 여러분의 노력으로 난파선 구조, 어촌진흥에 진력하여 그 실적이 현저하므로 영일어업조합에서는 금년부터 모범 어촌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일층 어업부업 등을 장려할 계획이라 한다.

•1934. 4. 15 《동아일보》 : <영일어획풍부> - 전조선 제1위 -

경북 영일만 무진장의 보고를 무대로 혁혁한 발전 도정에 있는 영일어업조합의 작년도(1933) 어획물 공동판매고는 70여만원으로 관내 각출장소에서 취급한 것까지 합하면 백만원을 돌파하여 실로 전 조선 제 1위를 점령하였다고 한다.

•1934. 5. 19 《동아일보》 : <보천어촌진흥회에서 약유비(鰵油肥) 공장직영>

- 성적은 자못 양호 -

영일군 동해면 구만2구는 지난 4월1일 모범어촌의 지정을 받은 어촌으로 당지 보천어촌진흥회에서는 어촌진흥을 위하여 민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금년 봄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할 일 없어 놓고 있는 청년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자금 3,500원으로 정어리 유비(油肥)공장을 직영하고 종업원 30여명과 종업선 2척을 소유하였으며, 영일어업조합에서도 이곳에 ‘사바후시(鯖節)’공장을 설치하고 지방청년들에게 전습(傳習) 중이 라는데 두 공장 다 호성적을 보고 있다 한다.

•1934. 10. 5 《동아일보》 , <출어선 7척 귀환, 어획고 16만여원>

경북 동해안에는 수년째 어흥이 계속되어 당업자의 근경은 물론 일반 재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타개책으로 작년부터 발동기 어업자들이 북양신어장 탐색을 계획하고 노령 연해주 방면에 출어하여 호성적을 보았으므로 금년은 일층 대규모로 지난 3월에 경북 구룡포항에서 발동 기어선 7척이 50여명 어부를 싣고 출어하였다함은 기보한 바이어니와 노령 ‘감차카’ 반도 근해에까지 출어하여 매척 최고 2만8천원으로 최하 1만5천원이란 경이적 호성적을 얻어가지고 최근 무사히 귀환하여 경북 어업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주었다는데 원양어업시대가 출현하리라 한다.

•1935. 3. 15 《동아일보》 : <경북 동해청어 대흥, 2만 어민 살길 막연>

- 여기 1개월 전 철장(撤場)자 속출, 칩뿌리 등으로 연명자 다수 -

경북의 청어어업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민의 생계를 세우는데 금년은 청어어장 개설 이래 처음 보는 어흥으로 정치어장 1개소에 1만여 원씩 투자한데 어획고 100원

미만이 9월에 달하는 참혹한 현상이라는데 가뜩이나 경제파멸이 급속 진행되는 이때 더욱 가속도적 파산자가 속출한다 하며…… 경북연해 2만 900여 어민은 너나 할 것 없이 궁춘(窮春)을 앞두고 생활하여 나갈 길이 묘연하여 벌써부터 절양(絶糧)되는 호수가 각 어촌에 증가하여 풍성하던 과거 자취는 찾아볼 수 없고 각 어촌은 적지화(赤地化)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연안 각 어촌에는 생정어리(生鯉), 칩뿌리(葛根)로 연명하는 사람이 다수라는데 이는 30년이래 처음 보는 현상으로 근년 아무리 어흥이 되었다 하나 청어어기에 는 풍성풍성하였다 한다.

•1936. 4. 8 《동아일보》 : <작년 중 영일 수산액, 310여만원>

- 청어 76만원이 수위 -

경북수산계의 중심인 영일군의 작년 어획고는 310만 2,363원인데, 어류별로 보면 청어 76만 3,100원이 최고요, 고등어 73만 126원, 정어리 39만 2,498원, 대구 28만 1,789원의 순위라 한다.

•1936. 5. 20 《동아일보》 : <영일노조정기총회>

포항에 위치를 둔 영일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8일 포항해수욕장에서 제 44회 정기총회를 부회장 최두한(崔斗翰)씨 사회로 개최하였다는데 출석 회원 200여명이 있다하며 개선위원은 다음과 같다.

조합장 : 김동덕, 부조합장 : 최두한, 평의원 : 정용수(鄭用守)·김두하·

박내수(朴乃壽)·김용주·김병수(金秉秀), 재무 : 이귀봉(李貴奉)·정사?(鄭士?),

감사 : 오정근(吳貞根), 상무 : 김순종(金順宗)

•1936. 7. 21 《동아일보》 : <영일노조 회관을 신축> - 1,500원의 경비로 -

30여년의 유구 찬란한 역사와 500여명 조합원을 포용하고 있는 포항 유일의 사회단체인 영일노동조합에서는 수년 전부터 동빈정(동빈동)에 사무소와 공동 숙박소를 건설하여 조합원의 편의를 도모하여 오던 바 이번 1,500원 공비로 사무실 12평, 공동숙박실 18실을 신축하기로 되어 몇일 전에 착공하였다고 한다.

•1937. 11. 5 《동아일보》 : <포항의 화류계 호경기를 구가>

- 금융경색어무관(梗塞於無關) -

시대적 반영인 아양과 웃음을 파는 계집들이 많기로 저명한 포항의 화류계 경기는 점차 짙어가는 가을과 함께 호경기를 구가하고 있다. 한국인 측 경영의 요리점이 6개소, 바(Bar)가 2개소, 기타 작부를 둔 음식점이 100을 훨씬 넘는 바, 밤마다 이구석 저구석에서 들려오는 장고 소리와 레코드 소리는 질적으로 저하한 포항시민이 그 얼

마나 낭비를 하고 있는가를 증명함이다. 그리고 시대적 현상일지는 몰라도 요리점보다 바 경기가 단연 우세하다는 바, 하루 밤에 50~60원의 매상고는 예사이고, 때로는 100여원까지 오른다고 하니 술과 계집을 사기에는 조금도 주저치 않고 사회적 사업에는 1전을 타산하는 포항시민의 면모를 여실히 증명함이라고 일반은 통탄하다고 한다.

- 1938. 6. 28 《동아일보》 : <지행면 농작 6할은 산돼지와 노루의 피해>
- 1938. 11. 6 《동아일보》 : <흥어의 포항항에 연일 깔치 풍획>
- 부두는 아연 대 활기 -
- 1938. 12. 24 《동아일보》 : <정어리군 대군 남하, 유비(油肥)공장 굴뚝에 검은 연기 자욱> - 포항항에 아연 활기 -
- 1938. 12. 27 《동아일보》 : <정어리 어획 100만 통(桶, 1통 2천마리)에 육박, 노동자 부족으로 더욱 곤란상태 > - 포항시민의 희색 만면 -

(4) 교육 문화 일반

•1923. 5. 5 《동아일보》 : <민립대학 발기인 선정협의회>
경북 포항에서는 민립대학 발기인 선정에 대하여 4월 25일 하오 9시부터 영일청년회 주최로 각 촌락청년회를 연합하여 제반사항을 협의하였다더라.

•1935. 10 .4 《동아일보》 : <전조선 궁술대회, 포항서 개최>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경북수산 진흥공진회’를 기회로 포항 동호정(東湖亭) 주최와 본사 포항지국 후원으로 오는 12일부터 4일 동안 포항에서 전조선 남녀궁술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는데 상은 다음과 같다…

•1939. 8. 29 《동아일보》 : <공원시설 갈망>
경북 제2도시로 전 조선에 굴지의 어항 포항은 현재 시내인구가 3만 여에 달하는 신흥상공도시인데 아직까지 공원이 설치되지 못하여 매년 봄, 여름, 가을이 되면 일반 시민들은 일정한 휴양처가 없어서 심히 유감이라 하며 혹 외방객이 포항을 오게 된다 하여도 지방소개에 대한 손상이므로 일반 시민은 하루라도 속히 … 모갈산에다 공원을 신설하여 3만 어항민에 휴양지를 만들도록 갈망한다고 한다.

(5) 기타 사회일반

•1920. 7. 15 《동아일보》 : <포항화재의 구호금 분배>
포항시내에서 지난 6월 22일 대화재가 일어나 한일인의 상점 및 가옥 50여호가 연

소된 바 이에 대하여 지방유지가의 구호기부금이 1,931원에 달하였는데...

•1923. 10. 23 《동아일보》 : <유학생 위안회 개최>

경북 영일군 포항 거주자로 일본 동경 유학 중 동경지진 재난에서 무사히 귀환한 일반학생을 위하여 지난 15일 포항야소교회 예배당에서 성대한 위로회를 개최하였더라.

•1924. 8. 25 《동아일보》 : <포항금융조합 이사 2만여 원 횡령>

포항금융조합이사 倉田連三은 공금 24,936원이나 횡령한 사실로 포항경찰서에서 방금 취조중이라는데 그는 수년전에 그 돈을 횡령하여 가지고 1922년부터 어업종사로 금년까지 다 써 버리고 본적인 일본 히로시마현(廣島縣)으로 간 것을 금월 3일경에 사실이 발각되어 히로시마현에서 체포되어 포항경찰서로 넘어 온 것이라더라.

•1924. 9. 5 《동아일보》 : <포항면 회계 4천여 원 횡령>

- 횡령검거에도 한일인 차별하여 -

영일군 포항면 서기 3인이 공금 1,500원을 횡령하고 검사국에 갔음은 그 보도한 바와 같거니와 이 사이에 다시 포항면의 池川이라는 일본인 회계원이 4,500원이나 횡령하였되 지금까지 비밀에 묻어두었던 것이 발각되어 한국인 서기는 금전이 적어도 검거하고 일본인 서기는 금액이 많아도 내버려둔다 하여 당국이 차별로 법을 좌우하니 이런 불법한 법이 어디 있느냐 하여 일반의 불평이 분분한바 그 면의 면장이하 직원 전부는 사직하였다더라.

•1925. 5. 29 《동아일보》 : <아사선(餓死線)에 수만명>

누차 보도한 바와 같이 경북 영일군 지방은 작년도 한충재(旱虫災)와 어흉(漁凶)의 여독으로 금번에는 각 면을 막론하고 방금 사경에 이른 인구가 수만 명이라는데 각 지방 청년회에서는 차마 그 비참한 상태를 볼 수 없어서 다소의 구제금을 얻어 하루 이틀이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극력활동 중인데 ...

•1925. 9. 27 《동아일보》 : <金汝登氏의 독지>

영일군 동해면 임곡동 김여동씨는 지난 폭풍우로 인하여 곤란 중에 있는 동민 40여 명에게 벼 5石(10가마니)을 분배하였는데, 동민과 기타 일반은 많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1926. 6. 2 《동아일보》 : <빈민구제모집, 영일군 신광>

영일군 신광면 토성동 이동빈(李東彬)씨는 당지에서는 일류 부호로서 일찍부터 구제사업에 항상 유의하여 오던바 금반 동면일대에 겹쳐오는 재흥으로 살길을 잃고 방황하는 궁민의 참상을 보는 자로 하여금 동정을 금치 못 하는바 그는 이 궁민을 구제키

위하여 미곡 100석을 일반동민에게 배급하여 극궁에 빠진 동의 영세민에게 생로(生路)에 대한 서광을 주었으므로 일반은 감격을 표하기로 위하여 목비를 세우는 등 근처에 칭송이 자자하다더라.

•1929. 5. 9 《동아일보》 : <춘궁을 당한 재민(災民)을 구제코저 활동>

영일군에서는 각 방면으로 한재구제금을 모집하여 총액 5,784원을 거두었다. 그중 50원 이상의 출금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 500원 : 하마다고래야스(濱田惟和)
- 100원 : 최창석(崔昌錫)
- 60원 : 정기재(鄭基在), 이만규(李萬圭), 양봉환(梁奉煥), 최병두(崔炳斗)
- 50원 : 정기환(鄭基煥), 박윤여(朴允余), 정시빈(鄭時斌), 채병호(蔡炳鎬), 정학호(鄭學浩), 곽한철(郭漢喆), 정낙영(鄭洛永), 이종구(李種久), 이원기(李源璣)

•1934. 5. 19 《동아일보》 : <영일의 빈민수 10,500여호>

영일군 반농반어지대로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풍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으나 이 궁춘(窮春)에 연명할 양식이 없어 초근목피로 그날그날의 생을 지속하여 가는 극빈민이 10,509호나 된다는데 각 읍면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포항읍	184	형산면	682	달전면	497	흥해면	787
곡강면	514	신광면	927	청하면	764	송라면	431
죽장면	1,005	기계면	1,192	연일면	574	대송면	949
오천면	642	동해면	321	창주면	326	지행면	704

•1934. 3. 24 《동아일보》 : <영일군에서만 200여명 출발>- 2월 이래의 통계- 경북 영일군에서는 작년 미증유의 재해와 지난 가을의 어흥으로 만주방면으로 유리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떠난 사람이 달전면에 100여명, 흥해면에 10여명, 송라면에 100여명이라 하며 이외에도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1934. 3. 24 《동아일보》 : <200여명 군중이 영일군청에 쇄도>

- 신광학교 교비 문제 -

•1934. 10. 5 《동아일보》 : <영일 신광면 산야에 남녀 습상군(拾橡群, 도토리 따는 무리) 편만(遍滿, 짝잡) - 풍수해에다 총재까지 있어, 전도 막막한 재민(災民) -

•1935. 1. 12 《조선중앙》 : <경주와 포항에서 19명 청년 검속>

- 험악한 선풍은 경북 각 군에 파급, 적색비사(赤色秘社)의 탄로인듯 -

•1935. 3. 17 《동아일보》 : <흥해 북천제방 8만원으로 착공>

흥해는 도내 굴지의 농업잡단지인데 동북으로 흐르는 북천이 하상이 거주지보다 높아 피해가 적지 않으므로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냇가에 소나무를 심어 지금은 연장 10여리의 풍치림이 되었으나 아직 완전하지 못함으로 동면 면장 이홍규(李洪珪)씨의 노력으로 8만원 공사비로 제방공사를 불원 착공하게 되어 준비의 분망 중인데 공비의 3분의 2는 국고와 도지방비의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몽리구역 내 주민의 부담으로 한다는데 몽리 면적은 300여 정보라고 한다.

•1935. 5. 7 《동아일보》 : <회갑연 비로 싸이렌 설치>

영일군 흥해면 학성동 박창수(朴昌洙)씨는 모친 김남이(金南伊) 여사의 회갑연을 폐지하고 그 기념으로 240원을 내어 싸이렌 1대를 기부하여 읍내 천여호에 정시를 알리게 되었다 한다.

•1936. 5. 27 《동아일보》 : <일태삼녀(一胎三女)> - 영일 오천서 -

영일군 오천면 일월동 이말종(李末宗, 29)의 처 한씨(韓氏, 22)는 지난 12일에 일태삼녀를 분만하였다는데 모녀가 다 건강하다고 한다.

•1936. 6. 11 《동아일보》 : <금년 중 만주이민, 1000명을 돌파>

급격한 농촌 경제의 몰락으로 생의 도태를 당한 유리군(流離群)은 연년히 증가하는 현상이라는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포항역을 경유하여 만주로 떠난 단체 개인이 1천명을 돌파하였다는데 작년 동기에 비하여 근 배에 달하였다고 한다.

•1937. 11. 27 《동아일보》 : <날로 밀주성행, 물경 672건>

- 영일군 작년에 비해 200여건 증가 -

•1937. 11. 9 《동아일보》 : <도맥예취기(稻麥刈取機) 발명>

포항에서도 무명 발명가 김개동(金開東, 29)군은 빈약한 우리 발명계에 자그마한 공헌이라도 남기고저 고심참담 3년간 문자 그대로 불면불휴의 노력을 가하여 도맥예취기를 발명하였다 한다…… 본기의 구조는 매우 간단하여서 사용에는 펍 용이하다 하며 벼 보리 등의 립수를 예취함이 흑시 사람의 손으로 함과 같으며 비여진 벼이삭의 혼잡도 완전히 피할 수가 있을 뿐더러 베어진 벼의 처분도 손쉽게 된다는 바 앞으로 농가에 큰 복음이 되리라 한다. 군은 이외에도 수종의 발명품이 있고, 기종과종기는 아주 우수하다는데 이것도 출원중이라고 한다.

•1937. 12. 3 《동아일보》 , <포항항 向島, 조선소 발화> - 火原은 방금 조사 중-

방화데이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밤에 포항에서 대화가 발생되었다. 30일 오후 9

시 20분경에 포항 향도(向島, 현 송도)에 있는 하마다(濱田)조선소에서 원인 모를 불이 일어나서 삼시간에 부속철공소 재목부, 수리기계 등에 인화하여 맹렬한 불길이 꽃밭을 이루어 한 때 포항 앞강에는 일찍 보지 못하던 광경을 이루었는 바 화인은 방금 조사 중이며 손해도 상당하리라 한다.

•1939. 10 .4 《동아일보》 : <포항 포도원 주인, 한재민을 위로>

전 조선에 유명한 포항 포도원은 현재 경북도회의원 나가노 류이치(中野隆一) 소유 인바 매년 남녀 인부수 100여 명씩 채용되는 바 금년같이 심한 한재 때에는 주인측 자선이 더욱 풍부하여 일반의 칭송을 받고 있다…… 그는 이번 국민정신 총동원 영일지부 이사로 임명되자 일체 여비까지 자담하여 가며 도보로 군내 각 면 각 마을을 순회강연과 한재지역을 시찰하며 일반 농가의 불안심을 위안하는 독지가로서 칭찬이 높다고 한다.

•1939. 11. 26 《동아일보》 : <수십소작인들에게 소작료 전부를 면제>

- 포항 강국원(姜國元)씨 -

포항읍 강국원씨는 금년 58세 중노인으로 본시 빈약한 살림을 자수성가하여 현재 포항에서 재산가의 칭호를 받게 되며 자녀들의 교육과 자선사업에 모범 인물로서 노소동락하는 강씨는 금년 한재에 선두로 수십여명 소작료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일반은 그의 교육열과 자선심을 칭송한다 한다.

•1940. 1. 30 《동아일보》 : <한해 소작인들에 작료 전부 면제>

- 장기면 정의적(鄭義迪)씨 미학(美學) -

영일군 장기면 정의적씨는 부모에게 효성과 친족들에게 화목한 모범청년인데 작년 한재로 인하여 살 곳을 찾아 떠나가는 것을 애통히 생각 중 그는 토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던 소작인들도 유리(遊離) 지경에 처한 사람이 없지 않은 모양인데, 특히 작년 추수기에 소작료 전부를 면제해주며, 외에도 일반 농민들에게 동정심이 풍부함을 일반은 칭송한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송덕비

일제강점기 식민근대화 의식에 동화되어 민족 자아를 매몰케 하는 비통의 역사를 상징하는 일본인 거물들의 송덕비가 영일군 내에 3기가 세워졌다.

① 나까다니 다께사부로 동상(中谷竹三郎 銅像) : 1933년 10월 17일 제막식을 성대히 거행했다.(1933. 10. 20 《동아일보》) 이 동상은 포항읍청사 옆 공원에 세웠다. 당시 그의 인물 평가는 앞의<포항의 일본인 이주>참조.

② 하마다고래야스 송덕비(濱田惟和 頌德碑) : 영일만내 어업자들이 1933년 영일어

업조합 인근에 에비스(惠比須, 어로의 신) 신사를 건립하여 그 이듬해 1934년에 신사 경내에 송덕비를 세웠다. 그는 후쿠이현(福井縣) 출신으로 1914년 12월 조선에 들어와 동해면에서 청어어업에 종사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1935년 현재 영일어업조합장으로 강구에서 감포연안까지 30개소의 어장을 소유하며 동해안에 하마타(浜田)어업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그 밖에 유류(油類)와 제빙류(製氷類)를 경영하여 1일 주야의 제빙능력은 10톤, 1년에 2,500톤을 제빙하였다 한다.

③ 도가와 야스부로 송덕비(十河彌三郎 頌德碑) : 구룡포 공원에 1944년 구룡포 실력자인 하시모토(橋本)와 고향마을 지인들에 의해 건립되었다.(광복 후 비문은 파손되고, 현재 비석 형채는 남아 있다. 그의 인물 평가는 앞의 <구룡포의 일본인 이주>참조)

참고문헌

- 河合清治, 《慶尙北道 浦項市街圖》, 조선정보협회, 1929.
 河合清治, 《慶尙北道 九龍浦市街圖》, 조선정보협회, 1930.
 《경상북도통계연보》, 1930.
 田中正之助·加納安正, 《浦項誌》, 1935.
 金鎔濟, 《迎日邑誌》, 1929, 達捨藏, 《경북대관》, 1936.
 《동아일보》(1920~1940) 등 신문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26~1942).
 조선총독부, 《朝鮮의 人口研究》, 1925, 《朝鮮의 市場經濟》, 《朝鮮의 人口現象》, 1927.
 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1954.
 《日帝侵略下 韓國36年史》1·2·3·4, 국사편찬위원회, 1967.
 李鉉淙, <구한말 외국인거류지내 조직체에 대하여>《歷史學報》34집.
 孫禎睦, <개항기 일본인의 내지침투·내지행상 불법정착의 과정>《韓國學報》21.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포항시, 1999
 이상준, 《장기고을 장기사람 이야기》, 장기발전연구회, 2006.
 조중희·권선희, 《구룡포에 살았다》, 포항시, 2009.

제6절 체신·교통·운수·항만

1. 체신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우편제도는 고종 21년(1884) 우정국(郵政局, 총판 : 洪英植)의 설치로부터 비롯된다.

전신시설이 처음 가설된 것은 고종 22년(1885)의 일로서 서울과 인천 및 의주를 연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주에서부터는 청(淸)의 봉황성으로 연결되었는데, 이것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치르면서 청과의 급속한 연락이 필요한 때문에 가설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청의 전보총국(電報總局) 관리 하에 놓여 있었다.

우편사무는 우정국을 설치하고 이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갑신정변으로 인하여 미루어 오다가 1895년(고종32) 농상공부 산하에 우체사(郵遞司)를 두고 1896년부터 우편사무를 시작하였으며, 1900년(광무4)에는 외국과의 우편물 교환도 실시하였다.

1901년에 이르러 농상공부소관으로 통신원관제를 발표하여 종래의 우체사를 전부 동원(同院)의 관할 하에 통일하여 우편·전신·선박·해원(海員) 등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을 계기로 전신시설과 함께 우편사무가 일본의 관리에 위임되어, 1905년 5월 18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한국의 각 우체사, 전보사와 각군 임시우체소의 사무를 모두 끝내어, 각 사소(司所)에 속한 종전 사무는 한국 전보규칙에 의하여 한문 전보 외에는 각기 접수를 필한 우편국과 우편국 출장소 및 각 임시 우체소로 하여금 사무를 집행케 하였다.

당시 우리 고장과 관계된 우체사, 임시 우체소 처리사무 및 접수 연월일을 보면, 1905년 6월 9일 경주우체사(부산우편국 경주출장소) 관할의 연일임시우체소, 흥해임시우체소, 장기임시우체소가 설치되면서 통상우편사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1908년 8월 1일 ‘통감부 통신관서와 동처리사무’에 의해 포항우편취급소, 흥해우편취급소, 청하우편취급소를 설치하여 통상우편·소포우편·우편환전·우편저금·국고사무를 담당하도록 공포하고, 같은 해 12월 1일 연일과 흥해 우편취급소를 신설하였다. 즉 1906년 12월 1일에 개칭된 연일우편취급소가 연일군 북면의 포항동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1908년 5월 1일 포항동으로 이전되어 포항우편취급소(浦項郵便取扱所)로 개칭되었으며, 그 후 연일우편취급소가 새로 설치된 것이다.

1909년 6월 1일에는 포항우편취급소가 포항우편전신취급소로 명칭을 바꾸어 전신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10년 10월 1일 포항우편국(浦項郵便局)으로 개칭하여 전화통화 사무를 개시하였으며, 1912년 2월 24일에 전화교환사무를 개시하였다. 당시 전화

개통 수는 29대로서 3대는 우편국용이고 나머지 26대는 일반 전화였는데 모두 일본인 소유였다. 이런 열악한 전화 사정으로 1920년대~1930년대에 걸쳐 지역민들의 전화 확장 및 타 지역과의 직통 요구 청원이 줄기차게 전개되었고, 1928년 8월에는 동해면 어업조합에서 동해면내 전화가설을 하였으며 1937년 12월에 와서야 포함 전신선 매설공사가 시작되기에 이른다.

1910년 3월 1일에는 장기우편소, 1911년 7월 16일에는 청하우편소, 동년 10월 1일에는 흥해우편소(동부면 서성동), 1913년 10월 11일 구룡포우편소(장기군 외북면 사라리 12번지)가 신설되었다.

1914년 3월 1일 포함면이 승격 탄생되자 동년 12월 4일 포함면 대정정(大正町, 현 포함우체국 자리)에 대지 606평, 청사 91평, 기타 53평의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본정(本町, 현 상원동)의 협소한 구 사옥에서 이전하였으며, 1915년 10월 1일부터는 간이보험 사무의 취급을 시작하였다. 1914년 4월 1일에는 흥해우편소가 성내동에 이전하였으며, 같은 해 8월 1일 구룡포우편소는 부군면(府郡面) 통폐합 후 영일군 창주면 구룡포리 257번지에 이전하고, 1920년 4월 26일에는 대보우편소(대보 3리 886번지)를, 1924년에는 포함면의 학산동에 학산(또는 川口)우편소와 동해면의 도구리에 도구우편소를, 1929년에는 기계면에 기계우편소(현내동 422-2번지)를, 1935년에는 연일면 생지리에 연일우편소를, 1937년 5월 20일에는 죽장면 입암리에 죽장우편소를 신설하였다.

1938년 3월 11일부터 죽장우편소에는 우편저금·보험업무가 개시되고, 같은 해에 6,230원의 공사비로 포함우체국의 증축공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포함우편국의 우편전신전화통수(通數), 爲替(換)저금, 통상우편집배, 소포우편집배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우편전신전화 통수표

연 도	우 편	전 신	전 화
1919	1,124,228	142,700	401,745
1920	624,731	127,697	611,948
1921	867,698	143,355	538,670
1926	1,516,129	75,012	1,043,815
1927	1,327,446	91,036	974,301
1930	1,728,558	102,599	989,632
1931	2,213,590	67,812	1,288,145
1932	2,688,425	64,731	1,212,412
1933	2,813,127	80,463	1,310,736
1934	2,830,915	91,216	1,197,831

위체저금표

연 도	위 체 저 금	세 입	세 출
1919	4,722,528	117,752	14,238
1920	6,011,200	116,022	19,817
1921	5,968,870	131,426	23,632
1926	7,961,392	227,565	25,736
1927	7,966,491	252,516	26,120
1930	8,807,191	227,531	30,161
1931	7,776,688	255,188	29,648
1932	7,832,134	257,090	38,277
1933	8,045,729	278,723	38,128
1934	9,936,935	294,415	41,853

통상우편 집배표

1919	集配	398,551 725,677	1927	집배	547,414 812,145	1933	집배	1,320,151 1,492,976
1920	집배	365,874 458,857	1930	집배	765,126 963,341	1934	집배	1,346,090 1,483,921
1921	집배	421,050 433,416	1931	집배	1,103,871 1,109,719			
1926	집배	541,844 974,375	1932	집배	1,289,389 1,399,036			

소포우편집배표

1919	집배	3,712 8,827	1921	집배	3,626 9,597	1927	집배	2,789 10,098	1931	집배	2,296 9,067	1933	집배	2,392 8,590
1920	집배	3,738 9,597	1926	집배	3,252 10,717	1930	집배	2,492 8,830	1932	집배	2,267 8,594	1934	집배	2,430 8,230

1930년대 영일군의 철도우편업무의 관할구역은 부산지방우신국(郵信局) 부산철도우편국 관하의 경주~포항노선구역이며, 육로체송(遞送)선로는 기계~죽장, 포항~대보(후에 포항~구룡포로 개정)가 대표적이었다.

1941년 2월 1일에는 흥해·장기·청하·도구우편소가 우편국으로 개칭되었고, 동년 10월 1일 죽장 우편소에서는 소아보험업무가 개시되고, 1942년 9월 15일 구룡포 우편소가 기와지붕에 1층 벽돌 건물로 대지 105평, 청사 24.4평, 부속건물 13평 등으

로 축조되고, 1944년 3월 11일 연일우편소가 연일우편국으로 개칭되었다.

해방 후 1946년 1월 1일부터 38선이남의 우편국을 5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각 읍면우편국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3급 우체국 : 포항

4급 우체국 : 구룡포

5급 우편국 : 장기·청하·흥해·대보·기계·연일·죽장·도구

1946년 7월 1일부터 포항천구(川口, 현 항구동)우편국은 포항우편국관하의 포항우편국 천구분국이 되고, 1946년 10월 31일 한(限) 우편국출장소 및 분국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5급 우편국으로 승격시킬 때 포항우편국 천구분국은 포항천구분국이 되었고, 1947년 7월 31일 限 포항의 천구우편국은 폐지되고 동우편국에서 취급하던 업무는 포항우편국에 인계되었다.

2. 철도운수

철도의 가설은 처음부터 일본의 침략적 의도 하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그들의 군사적 침략의 문호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으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경인선을 광무4년(1900)에 완성하고, 그 후 한국의 간선 철도인 경부선·경의선은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 갑작스레 부설한 것이다.

우리 고장의 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은 1916년 4월 29일 조선경변(朝鮮輕便)철도주식회사에 의해 준공되었다. 처음으로 대구~하양간의 14마일은 준공하여 1917년 11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고, 5월 20일에는 하양~금호 간 3.4마일, 9월 1일에는 금호~면악(面惡)간 24.1마일의 공사를 진행하여, 1918년 10월 31일에 하양~포항 간의 협궤선이 개통됨으로써 대구~포항간 전구간의 개통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포항역의 설치와 업무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이어서 포항~학산 간의 1.2마일이 개통됨으로써 전선(全線)의 개통이 이루어졌다. 경변철도주식회사는 1919년 5월 29일에 조선중앙철도주식회사라고 개칭되었다. 1923년 9월 1일 중앙·서선식산(西鮮殖産)·남조선·조선산업·조선삼림 및 양강척림(兩江拓林) 6회사와 합동이 되어 본선은 조선철도주식회사의 경동선(慶東線)이라고 개칭되었지만, 결국 1928년 7월 1일 대구~학산간 107km의 협궤(狹軌)선은 국유철도로 매수된 후 대구~영천간 38.4km는 1936년 9월 5일~1938년 7월 1일에 광궤(廣軌)개축이 되었다. 영천~경주간 35km는 1937년 7월 25일~1939년 6월 1일에 이루어지고 그 후 1939년 11월~1941년 사이에 동해중앙선(東海中央線)인 경주~학산간의 광궤개축이 완성됨으로써 대구~학산의

전구간이 광궤선으로 개통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대구~포항간에 기동차로 특급을 운영하면서 3시간 내로 주파하면서 승차율이 급증하였다.

그동안 동해안의 철도사업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25년말 경북의 요망선(要望線) 중 대구~포항간(慶東線)의 개량이 포함되고, 경상북도수산회의 요망선 가운데 포항~청하~강구~영덕~울진~삼척선과 포항~구룡포~감포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1926년 2월 제국철도협회의 ‘한국에 있어서 철도보급 및 촉진에 대한 건의’에 의하면 당국의 신설 계획선에 포항~울진~삼척~강릉~원산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포항~원산선(東海線)은 1925년 말의 조선산림회의 요망선이기도 한데, 특히 태백산맥의 동편 산림지대를 끼고 있어 무진장한 자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소위 조선철도 12년 계획은 기존의 계획을 합쳐 당시 화폐로 3억 2천만 원의 거액을 써서 1927년도 이후 12년간에 5개선 860마일의 새 철도(新線)를 부설하고, 다시 5개선 210마일의 사설철도선을 매수하고, 이에 수반하여 이미 설치된 선과 차량의 개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동해선은 원산~포항, 울산~부산간으로 341마일이었다. 당시 계획된 동해선의 건설비는 63,000,174원이었다.

동해안은 육상교통이 불편하여 개발이 늦어져 있었으나 동해선의 건설로 강원과 경북양도의 풍부한 해산물의 반출을 촉진하고, 통천·강릉·영일의 석탄 기타 광산물과 태백산맥의 임산물 개발을 쉽게 하며, 장래 함경선과 연락하여 동부 종관선(縱貫線)을 형성하여 주요 간선을 삼으려는데 그 뜻이 있었다.

그리하여 본선은 1922년 갈마(葛麻)~양양간을, 이듬해 1923년 포항~영덕간을 측량하고, 이어서 1926년에는 양양~울진간과 영덕~울진간을 조사하였으며, 1927년 본선의 설계계획이 결정되자 북부는 안변방면에서 실측을 개시하고, 남부는 1930년 1월 부산진~울진간의 실측을 행하였고, 포항이북은 1935년에 실측을 행하였다.

동해선의 북부선은 1928년 2월 안변에서부터 노반공사를 시작하여 1937년 12월 양양까지 192.6km를 개통하고 양양~삼척간 103.9km 및 동막(東幕)~매원(梅院)간 3.7km를 시공하는 중에 광복을 맞이하였다.

동해선의 남부선 건설구간은 부산진에서 북상하여 동래·해운대를 거쳐 울산에 이르는 약 72km로서 공사는 전 구간을 8공구로 나누어 1930년 7월에 부산진~해운대간 3공구를 일제히 착수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공사를 진척시켜 5년 6개월을 소비하여, 1935년 12월 울산에 이르는 사이의 건설을 마쳤다.

그리고 울산~경주간(1935~1936), 경주~대구간(1936~1939)의 광궤개량공사의 완성이므로 광궤선의 영업이 시작되고, 또 경주~포항 학산간의 개량공사도 1939년 11월에 시공되어 1941년에 완성되었으며, 1940년 4월부터 포항~홍해간의 12km의 건설공사를 착수하였다. 그동안의 동해 북·남부선의 건설일람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선 명	구 간	연장(km)	착 공 일	전 통 일	기 사
동해북부선	안변~포항	192.6	1928. 2. 2	1937.12. 1 (공사중지)	1942. 6 노반공사완성
	안변~양양	93.6	1937. 5		
	양양~북평	12.9	1939.11	1944. 2. 11 (공사중지)	1942. 6 노반공사완성 1942. 6 노반공사완성 1942. 6 노반공사완성 1942. 9 노반공사완성
	북평~삼척	3.4	1940. 7		
	삼척~梅粉	8.2	1940. 1	(공사중지)	
	동막~龍化	22.9	1940. 4	(공사중지)	
송라~포항					
동해남부선	부산진~울산	73.0	1930. 7.10	1935.12.16	

이러한 철도시설은 일본의 독점적인 사업이 되어 한국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침략자 일본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하고 토지를 헐값으로 사들여서 부설된 철도는 일제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어, 1910년에 384만 3천원이던 순이익금이 1930년에는 무려 1,668만 1천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므로 철도시설은 환영보다는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일본의 군사·정치·경제적 기반을 굳히고 식민지 약탈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었고, 식민지 한국에서의 상품경제 발전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1936년 봄, 포항·영덕·청송 등지의 500여 명이 만주 이민열차로 포항역을 떠나는 내용의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루한 의복에 허술한 보따리에 바가지를 단 것을 지고 이고 어린자녀들은 혹은 엷고 손목을 이끌고 혹은 늙은 부모를 이끌고 창백한 얼굴에 눈물을 머금고 정든 고향과 친척들을 이별하는 비애에 싸여 프레트 흡은 일시에 눈물바다를 이루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금치 못하게 한다.’(1936. 04. 29. 동아일보) 1932년과 1939년의 동해중부선과 포항역의 여객인원·운수·수입 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동해중부선

연 도	인 원	1일평균여객인원	화물톤수	1일평균톤수	여객수입(圓)	화물수입
1932	720,053	1,974	109,911	301	276,381	156,910
1939	484,190	1,323	72,260	197	193,457	59,414

포항역

연도	구분		여 객 인 원			手小하물(톤)			화 물 톤 수			발 송 취 급 수 입		
	乘 車	降 車	발	송	도	착	여	객	화	물	계			
1932	49,875	47,204	74,095	20,384	19,582	53,741	94,263	148,004						
1930	147,184	126,627	359,413	18,573	18,848	356,755	261,073	95,682						

영일군내에는 동해중부선의 역으로는 포항, 학산, 효자의 3역이 있으며, 1933년의 승객·화물·소수화물의 발착상황과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역 명	인 원		소 수 하 물		화 물		수 입		
	승	강	발	착	발	착	객 차	화 물	계
포 항	53,396	47,102	9,399	26,095	24,022	29,503	69,323	104,160	173,483
학 산	628	601	3,271	130	4,872	350	8,219	45,684	53,903
효 자	4,423	8,064	-	-	-	-	874	-	874
계	58,447	55,767	12,670	26,225	28,894	29,853	78,416	149,844	228,260

동해중부선의 개통은 포항이 신흥도시로 발전하고 식민지 상공업도시로 자리 잡아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포항을 중심으로 한 화물수송은 이로써 크게 편리하게 되었으며, 계절에 따라 비료·청어 등의 대량의 화물을 수송할 때에는 1일 3~4회의 임시열차를 운행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포항역 구내 면적은 4,644평, 청사는 28평, 부속건물 57평이며(1945.7.10 현 역사 낙성)구내의 선로연장은 본선 354m, 나머지 측선은 573m여에 달했다. 그리고 국철이 되고 나서의 포항역의 여객 승강자, 주요화물 발착 및 수입은 다음과 같다.

여객승강자표

종 별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승 차	39,994	58,085	50,095	49,284	48,322	53,396	54,870
강 차	37,110	53,113	49,003	47,745	46,531	47,101	49,186
입 장 자	2,386	3,021	2,694	1,838	1,455	1,228	1,517

주요화물발착표(발송)

종 별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쌀	324	324	217	163	42	135	69
보 리	55	55	28	50	-	-	-
야 채	11	20	39	120	25	25	124
과물(果物)	15	52	11	19	17	17	27

종 별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목 탄	13	-	5	-	299	293	452
목 재	309	427	284	248	310	242	566
석 재	5	8	-	-	-	-	-
鹽 (소 금)	711	622	1,230	1,496	893	1,074	1,418
석 유	79	126	126	189	536	55	684
선어(鮮魚)	4,364	3,437	8,139	14,412	6,383	8,200	4,121
염어(鹽魚)	1,460	3,328	1,848	595	172	435	169
간어(干魚)	353	312	385	434	263	275	116
해 조	66	379	104	160	75	325	247
지 류	30	22	26	92	145	143	270
금 속 류	1	19	-	-	-	902	-
금 속 기 류	37	100	597	678	1,032	903	804
비 료	121	654	961	3,638	4,332	7,202	10,327
시 멘 트	25	93	1,205	1,141	514	445	822
면 포	5	8	-	-	-	-	-
和 酒 其 他	6	110	69	47	365	365	514
가 마 니	30	101	70	142	16	175	35
식 료 품	33	124	63	118	187	181	386
粟 (조)	27	126	83	55	5	-	96
대 두	6	99	6	1	7	-	15
사당(砂糖)	-	146	389	417	935	429	340
맥 주	-	34	127	222	140	233	65
소 맥 분	-	-	1,763	1,861	2,120	2,297	1,024
기 타	312	683	572	887	1,220	1,738	2,740

주요하물발착표 (도착)

종 별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쌀	2,226	3,336	9,154	15,346	9,883	21,292	22,297
보 리	2	54	220	114	42	705	139
야 채	20	96	24	32	38	49	80
과 물	102	117	135	167	105	143	145
목 탄	5	-	-	50	-	3	-
목 재	177	342	714	1,135	1,404	1,004	3,809
석 재	3	8	8	2	-	75	-
석 유	11	13	17	-	35	6	6
소 금	-	30	6	1	-	35	5
선 어	-	-	1	1	1	1	24
염 어	6	7	1		1	1	5
간 어	5	12	7	9	27	4	7
해 조	8	20	32	12	9	5	4
지 류	10	15	14	19	1	1	-
금 속 류	11	73	3	8	4	10	59
금 속 기 류	78	108	44	20	12	1	1
비 료	225	40	40	55	612	468	124
시 멘 트	1	1	395	155	185	122	1
면 포	163	196	1	1	1	1	1
도 기 류	33	76	12	36	52	26	6
화 주 기 타	80	299	177	127	389	93	16
연 초	179	96	173	184	203	268	149
가 마 니	307	465	117	334	184	62	203
식 료 품	23	86	5	5	62	60	152
조	109	122	21	25	130	145	990
대 두	541	191	1,342	2,368	4,377	1,729	2,209
사 당	1	2	72	2	14	52	112
맥 주	1	8	8	3	1	-	26
소 맥 분	1	1	1	1	1	30	1
粿 (벼)	1	1	1	1	1	1	505
기 타	765	825	957	885	1,122	1,156	1,402

역 수입

연도	구별	여객	화차	계
1928		47,530.88	38,227.83	85,649.00
1929		84,141.61	61,123.94	145,266.00
1930		66,003.17	93,403.77	159,406.00
1931		58,057.00	106,315.00	164,372.00
1932		53,135.00	94,264.00	147,399.00
1933		69,323.00	104,160.00	173,483.00
1934		72,007.00	66,445.00	168,452.00

3. 도로운수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철도 도로 항만 등 기초시설의 설비에 총독부의 예산이 집중 투입 되었다. 이는 일본 자본주의가 성숙되기도 전에 군국주의의 파행을 거치며 조선의 산업 기초설비를 식민지 자본의 축적으로 이루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로의 경우 1911년 봄 마산~진주간 도로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경북에서는 1914년 가을 개통된 대구~포항간 도로였다. 도로공사 역시 식민지 지배 구축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되었다. 1907~1910년에 대구~경주사이의 자동차도로가, 1912년에 포항~대구간의 국도 2등도로가 완성되었으며 이후 포항~구룡포간의 3등도로도 개설되었다. 이들 도로공사에 투입된 자금은 모두 총독부예산으로 지출되었고, 도로 용지는 농토가 무상 몰수되었으며 사용된 노동력은 대부분 농민들의 부역동원이나 강제 노동으로 충당하였다.

포항의 자동차교통은 1914년 10월 하순부터 일인 大塚昇次郎에 의해 개시되어 대구~포항간을 하루에 한 번 왕복하는 영업이 시작되었다. 자동차는 미국 포오드사 제품 10인승으로 ‘慶北 1’이란 자동차 번호를 가지고 운행되었으며 이것이 경북 자동차 교통의 효시이다. 이듬해 1915년에 이르러 다시 한 대를 증차하여 대구~포항간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써 계속 운행되었다.

1919년에는 일인(中谷竹三郎, 大上留藏, 福島伊平) 3인이 삼우자동차부(三友自動車部)를 설치하여 포항~영덕간의 운행을 개시 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1920년 11월에는 문명기(文明琦), 한주열(韓主烈)이 한문양행을 설립하여 포항~영덕 간을 운행하게 되었다.

이 두 회사는 치열한 경쟁 끝에 함께 도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결국 한문양행이 삼우자동차를 매수하여 통합하였다. 이후 부속품과 휘발유값의 등귀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이 따랐으나, 점차 교통량의 증가로 한문양행은 해마다 거둬들인 발전하였다. 1922년 가을에는 손흥조가 경영하는 대구~경주선을 매입하여 포항선에 연장시켰고, 1923년 4월에는 대총이 경영하는 대총자동차를 매수 병합하여 동해안 자동차 교통의 통합을 이루어냈다. 이에 한문양행의 조직을 개편하여 한문양행자동차주식회사를 창립하였다.

모든 이권이 일인에게 빼앗기고 민족자본 형성과 연결이 철저히 봉쇄당하는 시대적 상황을 볼 때 근대적 사업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자동차사업이 조선인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은 포항을 통한 조선인의 뜻 깊은 쾌거라 할 수 있다.

한문양행자동차주식회사는 본사를 포항에 두고 사장에 문명기, 전무에 일인이 취임하여 전적으로 자동차 교통업에만 전념하여 해마다 사업이 크게 신장되었다.

1924년 6월 영덕에 본사를 두는 동해산업주식회사(東海産業株式會社)를 창립하여 포항을 중심으로 영덕~구룡포간의 자동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영덕에서 일인이 경영하던 영덕~영양선과 1925년 2월 축산에서 김정한(金楨漢)이 경영하던 영덕~영해선을 매입하였다. 이리하여 한문양행(주)은 동해안 자동차노선을 포항을 거점으로 크게 확장시켰다.

1927년 1월 1일자 포항, 칠포, 연일, 신광 노선의 승합자동차운행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운전노선과 구간	이 수	소요시간	1일 왕복회수	주요 경과지	요 금	
					1리당	편 도
포항, 칠포, 연일, 신광	4리 3町	50분	1회	흥 해	24전	1원 23전

1928년 7월 19일 한문과 동해양사가 합의하여 자본금 40만원을 들여 共榮自動車주식회사를 조직하여, 본사를 대구로 옮기고 종래의 한문양행주식회사의 건물은 그 영업소로 사용하였다.

1928년 12월 말 현재 영일군과 포항면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비롯한 육상운반 수단표는 다음과 같다.

종류와 대수 군면	종 류(대수)						계
	자 동 차	인 력 거	하 차	荷 牛 차	荷 馬 차	客 馬 차	
영 일 군	7	5	108	163	11	6	300
포 항 면	3	5	86	23	4	6	127

이후 1933년경 포항의 자동차교통은 공영자동차주식회사 외에도 山崎자동차가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개통 되어갔다.

1933년경 포항을 중심으로 한 공영자동차주식회사의 노선은 다음과 같다.

포항~대구간 7왕복, 포항~영덕간 5왕복, 포항~안동간 2왕복, 포항~평해간 1왕복
 포항~기계간 1왕복, 포항~안강간 4왕복, 포항~대보간 2왕복, 포항~양포간 2왕복
 포항~보경사간 2왕복, 포항~구룡포간 5왕복

당시 경주~포항간 7리 32정(1리로는 4km, 1정은 60간으로 360척, 즉 108km이다)은 경주~양양선 2등 도로이며, 경주양양선 2등도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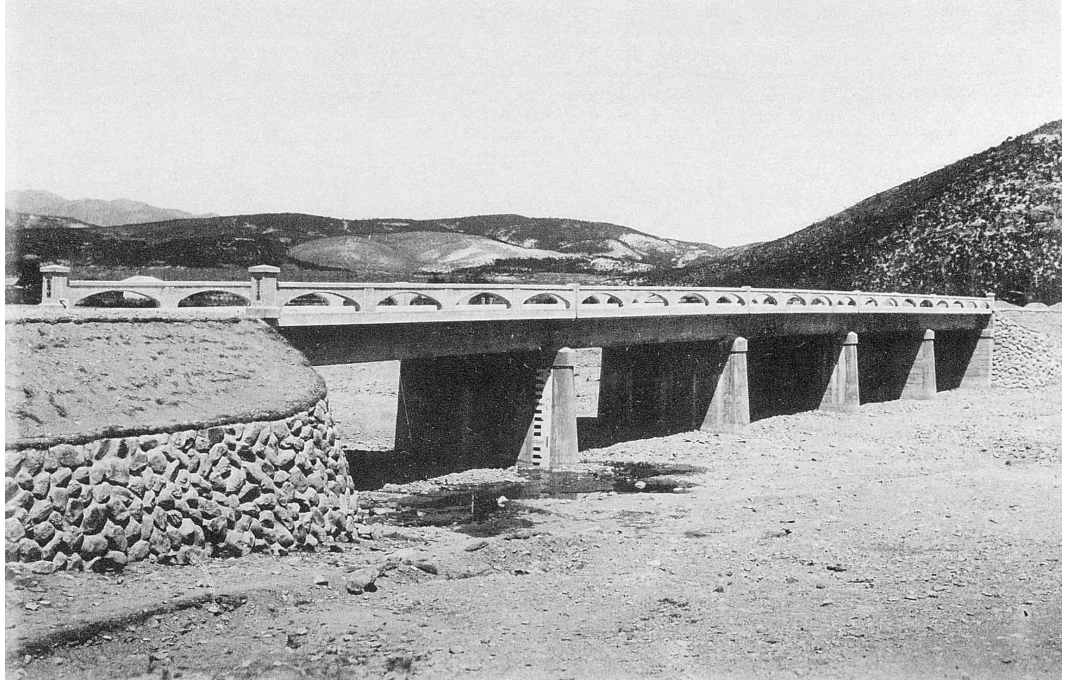
포항~흥해간 2리 12정 흥해~청하간 2리 25정 청하~강구간 5리 13정
 강구~영덕간 1리 24정 영덕~영해간 4리 14정 영해~강원도계 3리 10정
 계 : 19리 26정

그리고 포항~구룡포간(연장 22,892.5m, 1일 3회 운행)은 3등 도로이며, 포항~연일간(연장 7,090.9m 2회 운행), 흥해~칠포간(연장 6,109m, 2회 운행), 흥해~신광간(연장 8,072m, 1회 운행), 안강~기계간(연장 11,127.2m, 2회 운행) 도로는 등의 도로이다.

1944년 2월 9일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발발시켜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전락시키며 부족한 인적자원과 휘발유, 부속품 등의 보급을 위해 열악한 민족자본마저 국유화와 병합을 강행한다. 이에 따라 조선철도자동차주식회사와 공영자동차주식회사를 합병하여 경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로 통합, 개칭하여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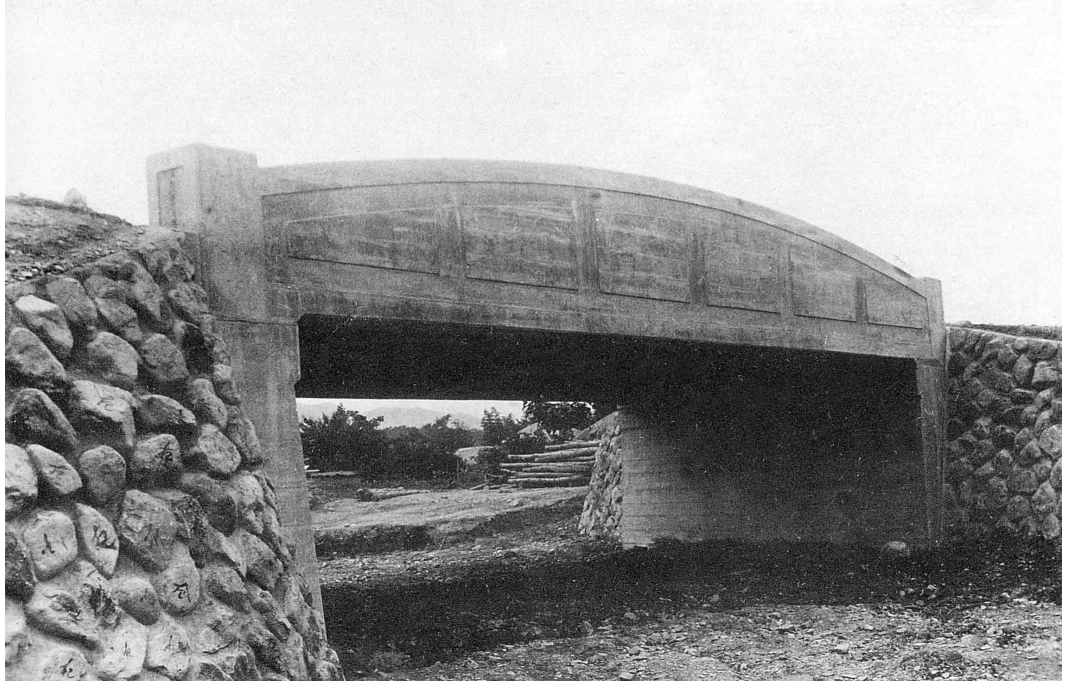
한편 당시 영일군의 2등 도로와 3등도로의 개통을 위한 토목공사 중 중요한 것은 도로교량공사였다.

경주~양양노선의 송라교(송라면 소동 고현리) 토목공사가 각각 1931년과 1932년에 시공되었고, 포항~구룡포선로의 냉천교(대송과 오천면의 동촌과 오천동), 영일교(포항읍) 및 터널굴착(동해와 구룡포의 경계지점)의 토목공사가 각각 1931, 1934, 1934년에 시공되었는데 그 공사내역과 준공된 모습은 다음과 같다.



송라교(松羅橋)

시행연도 및 노선명		1931년도 二等도로 경주~양양선							
소재지	영일군 송라면 광천리 地內				교량총공비	13,123.915円	平米(m ²)當工費	40.506	
橋型 및 橋長	철근콘크리트 T형 單桁橋 교장 60m00				상부공비	4,746.600	"	14.650	
全巾員	5m40	유효幅員	5m00	총면적	324 m ² 00	하부공비	4,627.000	"	14.281
徑間數	5			부대공사 공비		3,750.315	"	11.575	
경간 길이	12m								
상부공	主桁 및 寸法	철근콘크리트 T형 단행장 12m 五連 突緣 두께 15cm 桁高 1m 5 桁향폭 45cm 세가지			主桁 공비		m ² 당 공비		
	橋床	'グラノリシック' 콘크리트 포장 두께 5cm			교상 공비	4,336.500		13.384	
	高欄寸法 및 재료	高上留上 70cm, 長60m 철근콘크리트 만듦			고난공비	410.100	片側 1m 당 공비	3.418	
	콘크리트 및 철근량	138 m ² 72		0 m ² 428	1:2:4 콘크리트 m ² 당 공비	1.0364	철근 1톤 당 경비	89.100	
하부공	橋台	형식	잡석을 넣은 콘크리트 중력식		교대 공비	2,820.000			
		寸法	고기초상 4m90 전면경사 1:0.1 배면에 3층의 계단을 세움		軀體 공비	좌안 947.206 우안 1,088.781			
		기초	자갈층에다가 기초콘크리트 두께 80cm 시행		기초 공비	좌안 371.794 우안 412.219			
	橋脚	袖構造	練積石垣						
		형식	잡석 섞은 콘크리트 重力式		교각 공비	1,807.000			
		寸법	기초 上 4m 9 上部長 5m 55		구체 공비	1,199.507			
		기초	자갈층에다가 기초콘크리트 두께 80cm 강바닥에서 평균 3m 00		기초 공비	607.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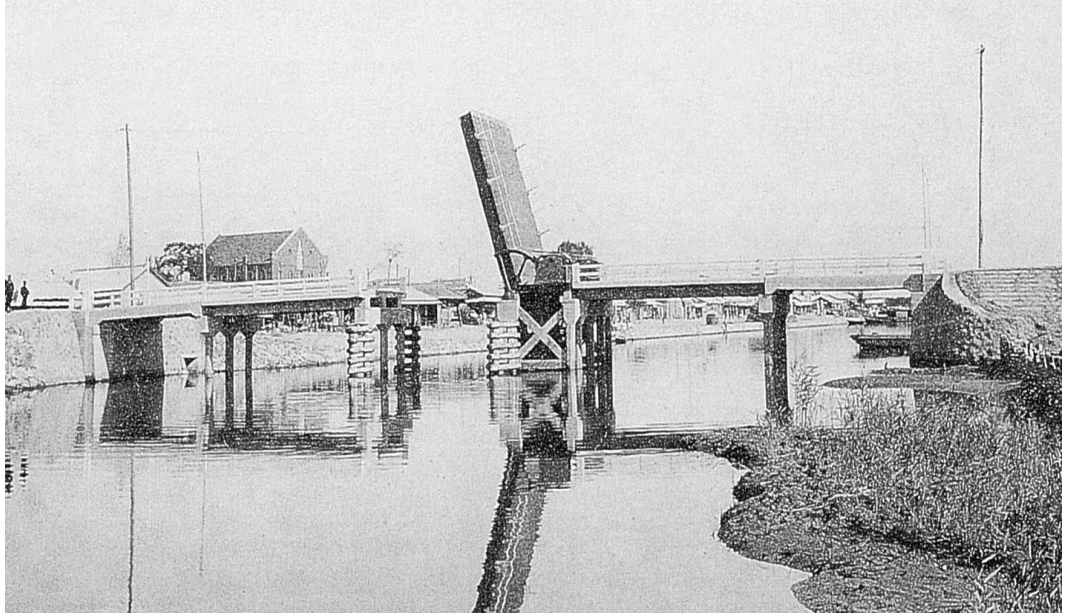
고현교(古縣橋)

시행연도 및 노선명		1932년 이등도로 경주~양양선							
소재지	영일군 청하면 소동리(入會) 영일군 청하면 고현리(入會)				교량총공비	3,395.000円	㎡당 공비	49.635円	
교형 및 교장	下路式철근콘크리트단향교 斜橋 橋長 11m40 斜角 68도				상부공비	1,740.000	"	26.439	
전건원	6m00	유효폭원	5m00	총면적	60㎡40	하부공비	1,283.000	"	18.757
경간수	1			부대공사공비		372.000	"	5.439	
경간길이	11m 40								
상 부 공	주향 및 촌법	철근콘크리트 矩形形 單桁長 11m40 一連桁高 중앙1m60, 양단1m15, 폭50cm, 중심간격 5m50 二本				주형 공비		㎡당 공비	
	교상	철근콘크리트 T형단향 돌목두께 15cm 'گرانولیشنک' 콘크리트포장두께 5cm				교상 공비	1,740.000		25.439
	고난촌법 및 재료					고난공비		편측1m 당 공비	
	콘크리트 및 철조량	27㎡48	4.556kg9	㎡ 당	0㎡402	60kg621	1:2:4콘크리트 ㎡당공비	12.485	철근1톤당 공비
하 부 공	교 대	형식	잡석을 섞은 콘크리트 중력식			교대 공비	1,283.000		
		촌법	高基礎上 4m50 前面경사 1:0.1			구체 공비	969.765		
	기 초	기초	地杭末口 15cm 長 3m00짜리 12本을 박아 넣은 위에 기초콘크리트두께 70cm시행			기초 공비	313.235		
		수구조	연 적 석 원						
교 각	형식					교각 공비			
	촌법					구체 공비			
	기초					기초 공비			



냉천교(冷川橋)

시행연도 및 노선명		1931년도 이등도로 포항~구룡포선					
소재지	영일군 대송면 동촌리(입회) 영일군 오천면 오천리(입회)		교량총공비	15,470.000円	㎡당 공비	31.252	
교형 및 교장	철근콘크리트T형삼연적항 교장 9m00		상부공비	6,376.000	"	12.880	
전건원	5m50	유효폭원 5m00	총면적 495㎡00	하부공비	5,320.000	"	10.747
경간수	9		부대공사 공비	3,774.000	"	7.625	
경간길이	10m0						
상 부 공	주항 및 촌법	철근콘크리트 T형 10m0 三連續 桁長 30m0 三連??厚 15cm 항고중앙 60cm 양단 및 지점 90cm 桁幅 42cm 중심간격 1m80 三本		주항 공비		㎡당 공비	
	교 상	'グラノリツク' 콘크리트 포장 두께 5cm		교상 공비	5,800.000	"	11.716
	고난촌법 및 재료	고상유상 60cm 길이 90m0 철근콘크리트 만듦		고난공비	576.000	편측1m 당 공비	1.163
	콘크리트 및 철근량	152㎡82 20.054kg1	㎡당 0㎡309 40kg514	1:2:4콘크리트 ㎡당 공비	9.709	철근1톤당 공비	78.249
하 부 공	교	형 식	잡석을 섞은 콘크리트 중력식		橋台 공비	2,225.000	
		촌 법	高基礎上 3m5 전면경사 1:0.1 배면3층의 계단을 세움		구체 공비	1,432.528	
	대	기 초	기초는 저항말구 15cm 길이 4m0짜리 16본을 박아 넣고 기초콘크리트 두께 70cm시행		기초 공비	792.472	
		수구조	중력식 옹벽				
공 각	교	형 식	철근콘크리트 構柱式		교각 공비	3,905.000	
		촌 법	고기초상 3m8 柱40cm 角三本建		구체 공비	1,970.964	
	기 초	철근콘크리트杭 5m5를 박아서 지반 밑 약 1m00에서 그것을 잘라서 철근콘크리트의 下梁을 만들고 構柱를 연결시킴		기초 공비	1,124.136		



영일교(迎日橋, 1934년 11월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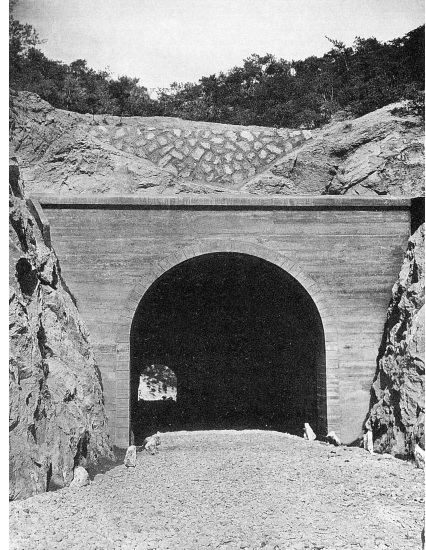
시행연도 및 노선명		1934년 三等도로 포항~구룡포선							
소재지	영일군 포항읍 남빈정과 죽도동 사이				교량총공비	17,778.021円	m ² 당 공비	94.313	
교형 및 교장	철근콘크리트단항 및 T형 綱可動跳上橋 교장 37m70				상부공비	5,896.181	"	31.270	
전건원	5m0	유효폭원	4m5	총면적	188평m5	하부공비	7,819.000	"	41.480
경간수	5				부대공사 공비	4,062.840	"	21.554	
경간길이	중앙경간 9m 70 左右第一徑間 各 6m0 제이경간 각 8m0								
상부공	주향 및 촌법	可動경간T型綱 450mm×175mm×11mm×9,380mm0 二本通中心간격 4m50 좌우제이경간은 철근 콘크리트T형 단항, 항고 55cm 三本通巾42cm 兩單桁은 철근 콘크리트 床板 桁高 40cm			주향공비	2,649.562	m ² 당 공비	54.630	
	교상	跳上徑間板張 좌우경간철근콘크리트 床板에 'グラノリシツク' 콘크리트 포장후 5cm			교상 공비	430.619	"	8.878	
	고난촌법 및 재료	高土留上 60cm 長37m70 內可動경간 9m7 가스관 기타는 철근콘크리트			高欄 공비	620.000	편측1미당 공비	8.222	
	콘크리트 및 철근량	50m ² 72 4.381kg	m ² 당	0m ² 362 31kg2	1:2:4 콘크리트 m ² 당 공비	14.666	철근1톤당 공비	130.000	
하부공	형식	잡석넣은 콘크리트 중력식			교대 공비	4,220.000			
	촌법	高基礎上 4m80 巾 5m5			구체 공비	좌안968.300 우안1,265.364			
	기초	말구18cm장 4m5 소나무통나무 20본을 박은 위에 중간잔들을 두께 50cm로 깔고 그 위에 70cm두께의 콘크리트 시행			기초 공비	좌안951.700 우안1,034.636			
	수구조	練積石垣							
교각	형식	甲及丙橋脚철근콘크리트杭 乙橋脚철근콘크리트 構柱式四本建				교각 공비	3,599.000		
	촌법	甲及丙長 9m0 上部徑 35cm 하부경30cm 八角型 乙 40cm角				구체 공비	2,183.923		
	기초	기초長徑2m91 단경1m 74 高1m 50의 원형철근콘크리트 井筒二個 경간內에는 地杭末口18cm 長 4m5 七本을 박아넣음				기초 공비	1,415.077		

형산교·연일교(연일잠수교)

1931년 포항읍 승격 후 당시 포항읍승격 추진 위원장이었던 中谷竹三郎이 중심이 되어 기성회를 조직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43만원을 들여 1933년에 준공하였다. (당시 쌀 한가마는 8원이고, 노동자 하루 노임은 20~25전이었다 한다.)

삼등도로 포항~구룡포선의 골굴(터널)굴착공사

공비 : 5,9460.760원, 연장 47.25m,
시멘트를 뿜어 넣은 면적 : 630.70㎡
기공 : 1933년 9월 5일
준공 : 1934년 3월 31일



● 당시의 골굴, 일명 고딩이굴

본 골굴(고딩이굴, 동해면 상정리와 구룡포읍 병포리사이의 경계에 위치)은 1923년 구룡포축항 제일기공사가 기공된 동년에 시공하여 암석을 파낸 터널(굴)이 개통 후 암석이 차츰 풍화되어 붕괴가 많이 발생하자, 암면에 석망을 걸쳐 그곳에 시멘트를 분사하여 시멘트바위를 만들어 암석붕괴를 방지하게 하였다.

4. 해운과 항만

1) 해운

(1) 근대 해운

삼국시대(4세기 초)부터 고려중기(1150년대)까지의 해운은 주로 견사항운(遣使航運) 시대(약 500년간)였으며, 고려 중기에서 조선말기(1880년대)까지는 조운(漕運)시대(약 700년간)였다. 188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부터 1912년까지 약 30년간 한국해운은 자본주의 맹아기를 맞는 근대적 도약을 하게 된다.

개항을 전후하여 구미제국과 일본 등 서구열강의 해양세력이 밀려오고 청일전쟁 후 구미의 자본주의 물결이 도도히 밀어닥쳐 한국에도 기선이 도입되어 운항하는 해운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국 최초의 기선해운은 1833년 조선의 외교고문 뮐렌도르프(목인덕, 穆麟德)에 의

해 도입되어 관영으로 시작되었다. 1833년에서 1901년까지 정부투자에 의한 기선해운의 경영을 보면 1883~1886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기선해운, 1883~1886년 국가기관인 전운국(轉運局), 1893~1895년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회사체제를 갖춘 이운사(利運社), 1895~1901년 외국회사의 위탁경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대규모 민영해운업체인 대한협동우선회사(大韓協同郵船會社)가 설립(1900)되어 운영 발전하였다.

그리고 민간해운은 이병선, 김동헌, 김범식 등이 1886년 대흥(大興)상회를 창설하여 미국인으로부터 기선 1척(大登利)을 구입한데서 비롯되는데 이에 따른 해사행정과 선로표지사업은 구한말 1900년과 1902년 통신원과 해관등대국이 각각 설치되면서부터 관리되었다. 그러나 해운도 일본자본에 의해 독점되어 일본 해운업자들이 연안항로(沿岸航路)를 지배하여 경강상인(京江商人)을 비롯한 조선 운수업자들의 근대적 업자 전환을 저지했다. 합방 후 일부 성장한 해운회사를 모두 해산시키고 1912년 1월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를 설립하여 해운업의 독점 및 유사시 군수에 대비함으로써 민족자본에 의한 한국의 해운기업은 말살되었고, 해운발전의 기반은 상실되고 말았다.

(2) 포항 해운

포항항은 조선후기 장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방면의 명태입하를 위한 범선의 출입이 잦고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내륙의 물산 수송을 형산강 수운으로 운송하기도 하였으나 무역항으로서의 입지조건은 형성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구한말 한국정부 소유한 응성호(隆盛號)가 연간 5·6회 입항하는데 불과했다.

문호개방 이후 연안선로를 지배하면서 조선운수업자의 근대적 운수업자로의 전환을 저지한 일본은 ‘합병’ 후에도 종래의 해운회사를 모두 해산시키고 조선우선주식회사를 통하여 해운업을 독점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이 기간 동안 조선을 일본의 군사보급기지나 중계지 일본외항선의 기항지로 이용했으며, 곡물과·목재·광물 등의 수거지로, 일본산 공산품의 소비지로 전락시켰다. 때문에 조선의 산업이나 해운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으며 일제는 일찍부터 한국인의 해운계 진출을 방해하는 정책을 취하여 해기사 자격취득에 통제를 가하고, 해운대리점업·회조업(回漕業)·화물중개업 등의 진출을 억제시켰다.

일제강점 후 1912년 4월에 제도를 개편하여 통신국을 체신국으로 개칭하고 이 체신국에 해사(海事)과를 두어 해사행정을 통일적으로 관장하였다. 이후 지방청도 증설, 개발, 확충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체신국의 해사과가 관해(管海)관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4월 이후 3년간 한반도 연안 각 방면에 9선의 명령항로를 정하여 연안항로를 통일하였다. 명령항로 1기(1912~1914)였던 당시 이 고장에 개통된 최초의 정기선명은 영일만~울릉도선으로 조선우선주식회사의 50톤짜리 1척의 배가 연간 24회 항해토록 한 것이다. 명령항로 2기(1915~1919)의 항로 14선 가운데 1915년 포항~부산간 하루 1회의 정기 기선항로가 개설되었다.

1917년 포항항은 지방항으로 지정되어 울릉도와 내륙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관문이였다. 1918년에는 형산강 북하구를 개수하여 조그마한 어촌에서 지방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여 이후 한국우선(郵船)의 관문이었던 웅기선(雄基線)과 부산~원산선 그리고 부산~울릉도선을 항해하는 기선기항(寄港)이 이루어지고, 대관~청진선·부산~포항항~울릉선·대관~웅기선·조선~북해도~대련선 등이 개설되어 포항과 일본과의 교통이 빈번하게 되면서 점차 포항항이 천혜의 해운 입지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영일만 근해의 중심항인 포항은 1923년 4월 1일 지정항(指定港)이 되면서 크게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1923년까지 이미 부산·주문진·죽전·마산·삼척·감포·구룡포·방어진 등의 항구와 연안항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1923년에는 평균 330척의 각종 선박이 매일 입출항하였으며 그 중에 연간 881척의 기선이 입출항하고, 일반상선(어선제외)의 출항 5,019척, 입항 3,582척을 나타내어 당시만 해도 상당한 규모의 해운을 담당하고 있었다. 외선해운은 1924년 7월 1일 포항과 일본의 빈전(濱田)간에 직통항로가 이루어지면서 비롯되었다.

1925년 4월에 대남중국연락항로인 조선~상해선, 구주 연락항로인 조선~장기(長崎)~대련선을 개시하였으며 그 외에 일본에 도항하는 노동자의 수송을 목적으로 부산~제주도~관문(關門)선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조선상해선과 조선장기대련선은 1939년 당시에 도 조선총독부의 명령항로 조선우선주식회사의 기선 경안(慶安)환(2,096톤)과 금강산환(2,119톤)이 각각 월 2회 이상과 월 1회 이상 운항하였으며, 부산~울릉도선에는 장안(長安)환(330톤)이 월 4회 이상 운항하였다.

영일군에 관계된 총독부의 명령항로와 제관청(諸官廳) 명령항로는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 명령항로

● 대일본 및 외국항로 1924년(7월 1일 현재, 이하 같음)

선 로 명	기 항 항 명	항해회수	사용선박		경 영 자	비 고
			선명	총톤수		
웅기관문선	청진, 독진, 어대진, 성진, 단천, 차호, 신창, 신포, 흥원, 서호진, 원산, 강릉, 포항, 방어진, 부산	월 4	경기환	994	조선우선주식회사	

※ 환()은 광복 후 호(號) 개칭됨

당시 대일본 및 외국항로로는 웅기관문선 외에 청진돈하선(淸津敦賀線) 등 9선이 있었는데 1927년에는 웅기관문선에 경기환 외에 조선우선주식회사의 영강환(榮江丸, 1160톤)과 춘천환(春川, 971톤)이 월 3회씩 운항하였다.

● 연안항로

선로명	기항항만	항해회수	사용선박		경영자	비고
			선명	총톤수		
부산원산선	장생포, 방어진, 감포, 구룡포, 포항, 영덕, 영해, 평해, 죽변, 이해, 강릉, 양양, 간성, 장전, 고저(축산포, 임원진, 고성, 안수, 오리진에 임시기항)	월 7	웅기환 신의주환 충청환	701 708 719	조선우선주식회사	
부산울릉도선(도동)	장생포, 방어진, 감포, 구룡포, 포항, 영덕, 영해, 축산포, 평해, 죽변(해운대에 임시기항)	월 4	온성환(穩城丸)	372	동	

당시 연안항로는 부산울릉도선, 부산원산선 이외에 7선이 있었는데 1927년에는 부산원산선을 월 9회씩 회수를 늘려 운항하였다.

● 대일본항로

제관청 명령항로

선로명	기항항명	항해	사용선박		경영자	비고
			선명	총톤수		
포항빈전선	매항경(每航頃)에 연장	월 3	지다환(知多丸)	499	은기(隱岐)기선 주식회사	도근현(島根縣) 경상북도명령

포항항은 1925년 2월경에는 부산~포항선이 생겨 중부기차랑(中部幾次郎)의 106톤급 녹아도(鹿兒島)환이 월 15회로 장생포·방어진·양포·감포·구룡포를 기항지로 운항하고, 이후 도곡(嶋谷)기선주식회사의 946톤의 비전환(肥前丸)이 월 2회 일본 돈하와 함경도 웅기까지 운항하는 포항돈하선(浦項敦賀線)이 개설되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27년 10월 1일 당시 포항과 관련된 조선정기선로의 해운은 조선총독부 명령항로 ①일본 및 외국항로 ②연안항로는 1924년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며, 일본관청 및 지방청 명령항로의 대일본항로와 연안항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대일본항로

일본관청 및 지방청명령항로

선로명	기항항명	항해도수	사용선박		경영자	비고
			선명	총톤수		
포항돈하선(浦項敦賀線)	往航 : 경유(공진, 무학, 신무학 중 1항) 復航 : 웅기, 청진, 성진, 원산, 울릉도, 및 포항 정박시간을 이용하여 임시기항	월 2	비전(肥前)	946	도곡(嶋谷)기선 주식회사	경상북도명령, 10월9일 포항초발

● 연안항로

자영선로

선로명	기항항명	항해도수	사용선박		경자
			선명	총톤수	
부산포항선	방어진, 감포, 구룡포, 대보 정자리, 양포 임시기항	매일	전주환 발동기선 慶信丸	92 75	조선기선(朝鮮汽船) 주식회사
부산구룡포선	장생포, 방어진, 감포, 양포	월 15	경신환 제3いろは환	67	マルタ회조점
부산포항선	장생포, 방어진, 감포, 양포, 구룡포, 대보	월 15	녹아도환	106	上 同

1928년 포항을 중심으로 한 인근 동해안 항구의 선박출입 상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입출항선박수	항구	포항	구룡포	감포	강구	도동
기선 入港		505척	481척	862척	160척	64척
기선 出港		505척	481척	862척	160척	64척
기타선박 출항		525척	4,241척	47척	407척	3척
기타선박 입항		587척	4,393척	47척	407척	3척
항구주변에 근거를 둔 선박수		5,117척	1,930척	781척	1,080척	1,042척

1930년대 초반 포항항이 중요 기항항이 되었던 정기항로 표는 다음과 같다.

항로	항해도수	사용선		경영자
		선명	총톤수	
대판웅기선	월 4회	海城환	1,519	대판상선(後大昭丸) 同 現 동 동 現 조우(침몰) 현 동 동 도곡기선 同 동 동 조선기선 同
대판웅기선	월 4회	제18小野환	1,366	
대판웅기선	월 4회	先島환	1,224	
대판웅기선	월 4회	제2島海환	1,288	
대판웅기선	월 4회	神天환	1,255	
대판웅기선	월 4회	大昭환	1,519	
대판웅기선	월 4회	나남환	1,254	
대판웅기선	월 4회	춘천환	971	
대판웅기선	월 4회	榮江환	1,160	
대판웅기선	월 4회	신의주환	708	
조선북해도대련선	년 20회	天海완	3,200	
조선북해도대련선	년 20회	朝海완	2,682	
조선북해도대련선	년 20회	일본해완	2,681	
조선북해도대련선	년 20회	明石환	3,167	
울릉도포항부산선	월 2회	太東환	268	

이 밖에도 조선기선주식회사의 기선과 범선이 임시로 기항하여 상당한 하물을 운송하여 포항항 해운경기에 도움을 주었는데, 당시 정기연안항로선표는 다음과 같다.

항 로	항로도수	사 용 선		경 영 자
		선 명	톤 수	
부산원산선	월 8 회	경 성 환	273	조선기선(수령)
上 同	상 동	연(燕) 환	불 명	상 동
상 동	상 동	소 화 환	상 동	상 동

이와 같은 해운량·선박수·기항회수·항로의 증가는 일본자본에 의한 해운업의 독점과 확장에 따른 항만시설의 확충 및 어획고 증가에 크게 힘을 입었다. 특히 포항의 하천개수와 축항사업이 준 영향은 실로 컸다. 역설적이지만 정비 확장되어가는 항만은 철도망과 함께 식민지 경제 침탈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공업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것은 또 파행적이거나 부두노동자를 비롯한 각종 노동자가 성장하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1928년의 포항항의 물산출입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물산	수량	출 항 물 품			입 항 물 품		
		수 량	價 額(円)	도 착 지	수 량	가 액	출 발 지
백 미	1,975石	493,925	부산구룡포	3,280	82,000	부산주문진	
조	298	5,066	부 산	2,994	50,898	부산주문진	
外 米	55	1,155	부 산	1,196	23,920	부 산	
보 리	120	1,440	부 산	2,557	33,085	부 산	
콩	5,419	81,080	부 산	89	1,335	부산·감포	
팥	534	1,090	부산·介邊	193	3,865	부 산	
야 채	5,686	1,819	부 산	100,808	3,464	부 산	
과 일	4,109	3,287	부 산	6,642	11,729	부 산	
청 어	9,498同	569,832	부 산	114동	6,840	주문진	
대 구	7,050斤	2,820	부 산	2,775	1,110		
정 어 리	350.540	7,010	부 산	~	~		
가 자 미	240,000	24,000	부 산	2,166	3,958	부 산	
명 태	76	240	부 산	4,650	16,212	新浦주문진	
상 어	9尾	171	부 산	~	~		
고 등 어	250,000	12,500	부 산	~	=		

물산	수량	출항 물품			입항 물품		
		수량	價額(円)	도착지	수량	가액	출발지
소금	~	~		27,960ㄷ	61,515	부산	
염어(鹽魚)	144,000근	14,400	부산	70,180근	7,018	長箭·통영	
건어	3,650	730	부산	9,650	1,930	주문진	
해초	36,400	7,280	부산	5,074	36,425	주문진元山	
송(松)	~	~		2,869坪	8,607	울진	
송(松)	~	~		12,188本	36,566	蔚珍주문진	
죽(竹)	~	~		2,100본	4,200	부산	
석탄	25톤	534	부산	6,520톤	136,920	부산	
마포	2,400反	11,080	부산	4,660반	21,470	부산·삼척	
면포	33,072	33,072	부산	144,987	144,987	부산	
면사	590丸	3,540	부산	4,210	25,259	부산	
금속제품	116톤	16,258	부산	103톤	16,995	부산	
연초	469個	114,905	부산	32개	7,706	부산	
술	39樽	15,288	부산	113준	45,420	부산	
종이	3개	1,210	부산	74개	28,850	부산·원산	
그물	2,517丸	12,585	부산	21,535	96,907	부산	
노(櫓)	96本	800	부산	~	-		
농구(農具)	147개	320	부산	21	350	부산	
시멘트	370준	1,110	부산	6,458	16,145	부산	
설탕	-	-		1,351包	27,025	부산	
된장	-	-		12,000貫	7,929	부산	
밀가루	22袋	93	부산	6,578	27,628	부산	
간장	70준	1,540	부산	210	4,625	부산	
우피(牛皮)	46,690枚	9,338	부산	8,500매	4,250	부산	
우골(牛骨)	140관	85	부산	-	-		
식료품	24톤	5,455	부산	170톤	39,426	통영·원산·부산	
잡품	39,083개	138,150	부산	5,825	7,325	통영·원산·부산	
석유	2,650罐	9,010	부산	18,525관	61,133	부산	
기계기름	1,500	4,950	부산	10,470	47,584	부산	
총계		1,621,128			1,271,337		

당시 포항항에서 출항되는 물품의 행선지가 거의 부산으로 나타난 것은 인근 물산이 포항에 집산되어 부산을 중계지로 일본에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1928년 이후 포항항의 입출항 물동량은 점차 증가하여 1934년에는 포항항의 무역액이 1928년의 3배나 되는 500만圓까지 달하게 되었으며 1933년과 1934년 2년간의 출입한 기범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입출별	선종	1933		1934		증 감(△)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입 항	기 선	272	202,784	273	207,050		4,266
	범 선	46	1,523	47	1,419	△1	△101
출 항	기 선	273	202,929	276	205,534	△3	2,605
	범 선	51	1,321	85	1,326	△34	5
합	계	642	408,556	680	415,337	△38	6,781

1934년의 포항과 구룡포에 출입한 선박과 출입한 물화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항 만 명	출 입 선 박		수 출 입 물 화	
	선 수(척)	톤 수(톤)	톤 수(톤)	금 액(圓)
포 항	1,700	572,907	81,300	7,434,591
구 룡 포	1,955	139,182	62,458	3,061,287
감 포	43,233	355,220	19,202	1,422,594
강 구	35,591	543,077	18,874	1,778,699

일본이 중국대륙 침략을 개시한 직후인 1938년 5월 1일 부산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항운의 선로로서 부산~구룡포선이 있었다. 조선기선주식회사의 천룡(天龍)환(90톤)과 かなり야환(60톤)이 각각 월 30회씩 운항하였으며, 주식회사カネヤ回漕店の 제2복수(福壽)환(19톤)이 월 10회씩 운항하였다. 광복 직후인 1945년 11월 포항항무청관할로 대양(大洋)해운사의 길영(吉英)과 삼보(三寶)호가 포항~후포간 각각 매일 운항하고, 영복(榮福)호가 포항~울릉도간을 월 5일씩 운항하였다.

한편 선로표지는 교통국산하 부두국 아래에 선로표지감시소가 있었고 중앙에 해사과(海事課) 표지계가 있었다. 광복 당시 전국의 항로표지지구는 7개 지구(인천, 군산, 목포, 진해, 부산, 묵호, 포항)로 포항기지관내에 등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장기곶이고, 등표가 설치된 곳은 대보항·포항·축산남방과제·도동항·구룡포·송대말·감포항이었다.

그리고 포항은 1942년 해무원인가 선박취급수수료 결정건에 의해 2급항이 되었다. 따라서 포항은 일제침탈기에 경상남도 관리하의 지방항(1917)으로서 지정항·세관지정항(1923)과 2급항(1942)으로 운영 관리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그동안 한반도를 그들의 군사보급기지 또는 중계지로, 일본외항선의 기항지로, 쌀과 목재, 광물 등의 수거지로, 일본산 공산품의 소비지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이나 해운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광복 당시 승무 중이던 보통 선원 중에 한국인이 89%, 일본인이 11%였으며, 전 한국인 선원의 18.5%가 고급선원, 전 일인선원의 68%가 고급선원이었다는 구성 비율만 보아도 해상에 종사하는 한국인은 거의 하급선원으로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던 것이다. 대전 중에 한국인 해상요원을 강제 징용하여 전지에 내보냈으며 그 중에는 불귀의 객이 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후 포항은 1945년 광복 당시 포항 부두출장소(부산부두국 산하), 동년 11월 미군정청교통국 포항항무청, 1946년 1월 교통국 포항항만서, 동년 8월 운수부 포항항만서, 1948년 3월 16일 내무부건설국 포항출장사무소와 합병하여 포항항만서에서 해운과 항만을 운영 담당하였으며, 1949. 2. 15 법률 제20호 지방관서 설치법에 의거 교통부 포항해사국이 설치되었고 1951년 포항해사국 관할구역은 경북으로 한정하였다.

2) 항만

(1) 형산강제방과 포항축항공사

천혜의 입지조건을 가진 한반도의 연안은 특별한 인공을 가하지 않고도 선박이나 어선이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래(古來)로부터 항만의 개발은 도외시되었다.

항만시설이 정책적으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침략을 감행한 일본인을 통해서였다. 애초에 이에 대한 관심은 통상이나 어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청·일(1894년), 러·일(1905년)전쟁의 군사시설을 위한 것이었다. 그 후 합방이 목전에 다다르자 조선을 영속화할 목적으로 점차 통상과 어항의 용도로 시공되기 시작하였다.

1906년(광무10)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5개년 사업, 총공비 360여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후 1908년(융희 2)에 사업계획을 3년간 연장하여 총공사비를 증액시켰으며, 합방 후 항만 사업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총독부가 설치되자 일제는 자국 어민의 보호육성이 시급했던 만큼 항만의 수축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여 먼저 기본조사를 행하는 한편 일본인의 이주 어촌이 건설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고보조 하에 수축 사업을 서둘렀다. 즉 1912년부터 1918년 동안

7개항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한 어항당 평균 2,500원 꼴로 겨우 총공비가 45,000원 투입된 것을 보면 아쉬운 대로 어촌의 정박을 위한 방과제공사만 겨우 만든 수준이었다. 포항항의 수축도 이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포항항은 영일군 포항면 형산강 하류에 자리잡고 어업 및 연안무역상 중요한 항만으로서, 당시 여남곶 남단 동경 129도 25분 지점으로부터 임곡동 북위 35도 59분 50초, 동경 129도 27분 30초의 지점으로 그은 선내의 해면을 항계로 하고 있다. 그리고 외항 1,500,000㎡, 내항 1,212,000㎡의 항내수면적을 보유하는 일종(一種)항으로서, 조선후기에서 1910년대까지 해산물·농산물의 전국적인 집산지로 동해안굴지의 어항과 연안무역항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영일만의 풍파가 거칠고 형산강이 범람하는 경우가 있을 때마다 강의 남북 하구가 토사로 메워져 선박의 출입과 어로작업이 불가능해지고 심할 때는 포항주민의 인명과 재산이 손실됨으로 하천의 개수 작업과 포항축항의 문제는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다.

포항에 배가 들어와서 정박계류 할 수 있는 곳은 현 남빈동과 동빈동일대의 북쪽하구였다. 해일과 홍수가 그치면 이 지역의 어민들이 총동원되어 삽으로 강구의 토사를 준설하여 선박의 자유로운 출입을 도왔으나 불가항력으로 항구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였다.

이같은 포항주민의 염원은 포항항만기성회(회장, 光永喜七)를 결성하고 포항의 고충을 당국에 진정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1914년 10월 7일 형산강제방축조공사를 도에서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2년에 걸쳐 실시된 이 공사는 연장이 겨우 56간(1間은 6尺), 경비 3,522원 52전이라는 작은 규모로 이루어져 전체 항만수축으로 본다면 형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포항항의 면모를 일신하는 첫 출발점으로써 갖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1918년 포항항은 어선피난장으로 개발 되었다. 착공 초 총공사비는 135,000원으로 1918년에서 191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시작 되었으나,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생겨 지방비 예산에서 2,595원을 증액하여 총공사비 137,595원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 공사계획은 형산강 북하구의 하폭(河幅) 및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하구 양안에 도수제 우안 연장 355.8m, 좌안 연장 400m를 각각 축조하고 하구의 부지를 평균간조면하(平均干潮面下) 91cm로 준설하였다. 또한 좌안에 있어서는 도수제 보호를 위해 소제수공(小制水工) 6개소를 연장시켜 240m를 축조하고 남하구에 가체절공(假締切工) 1개소를 시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공후 재료나 기타 물가 폭등으로 인해 공사비 부족을 우려하여 예정대로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말았다. 그 후 1922년

총공사비 46,800원을 들여 192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전(前) 공사의 잔여부분인 우안도수제연장 70.9m, 제수공연장 40m를 시공하여 완성하였다.

전자는 1919년 1월 7일 착공하여 1921년 2월 28일 준공하였으며, 이 공사비의 정산액은 137,042원 92전이며, 후자는 1922년 9월 1일 착수하여 1923년 6월 3일 준공했는데 그 공사비 정산액은 46,799원 4전으로 도합 183,841원 96전이였다.

포항항은 1918년부터 시작하여 1920년에 이르기까지 공비 13만 5천원으로 축항공사를 하였다가 1920년부터 재차 4만 6천원을 들여 좌안도스제축조를 완료함으로써 종래 하천의 표사(漂砂) 퇴적으로 어선의 출입에 장애를 이루었던 것을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이 당국이 항만수축에 힘을 기울인 이유는 경제적 요인도 크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격증하는 조난피해에도 있었다. 포항에서도 1923년 4월의 폭풍우 피해로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노출된 것이다. 포항항의 폭풍우 피해는 자주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컸던 것은 1923년 4월 12일의 폭풍으로 그 양상은 다음과 같다.

1919년 8월 24~25일 양일에 걸친 큰 비에 의해 형산강의 출수는 11척이나 되었고 상도, 하도, 죽도 등의 피해는 극심하여 고로(古老)들이 60년 이래의 대홍수라고 전했지만, 사실은 1923년 4월 12일의 것이 가장 큰 공전절후의 피해를 주었다. 4월 12일 아침부터 중국방면에서 점차 남한으로 진행해 온 저기압은 오후 6시경 중심을 울릉도 부근에 두고 악천후는 더욱 험악해져서 북동강풍은 노도를 일으키며 굉장한 기세로 영일만을 엄습하였다. 그 때는 고등어 성어기로서 장기 방면과 경남 각지 및 일본으로부터 출어한 배가 많아 항내는 발동기선, 모선, 어선으로 메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박들은 엄습하는 노도에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필사적으로 방어에 노력하는 어부, 포항경찰서원 및 각 단체의 노력도 하등의 효과 없이 위협은 시시각각 더해 갔을 뿐이었다. 마침내 이튿날 오전 1시경 노도는 더욱 기승을 부려 닻줄은 절단되고, 돛대는 부러지고 키를 빼앗긴 선체는 전복되어 해중에 수몰되고, 선원과 어부는 소리치며 구원을 청하며 필사적으로 파도와 싸웠지만 그 참상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비규환을 방불케 하였다.

당시 포항경찰서의 집계에 의하면 사망 : 311명, 중상 : 16명, 경상 : 17명, 행방불명 : 한국인 230명, 일인 125명, 선박조난 : 발동선 19척, 어선 76척이었다.

위의 기록으로도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지만 사후대책에서도 그 참상은 형언 할 수 없으며 실로 포항은 죽음의 항구와 같았다고 한다. 당시 얼마나 많은 시체가 동빈로 1가와 대신동 벌판에 매장되었는지 이 후 그곳에서 많은 인골들이 나왔다고 한다.

1923년의 태풍과 홍수피해 직후부터 포항항의 무관심에 대한 여론의 비난으로 도당국은 물론 총독부에서도 포항항 개축에 더욱 뜻을 두어 포항의 항만을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성숙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1기 포항항도수제축조공사가 기공되어

형산강치수사무소(兄山江治水事務所)가 독립하였고 이어 대개수가 행해졌다. 이 대개수공사에 3개년간 1,860,000여원의 경비가 투입되어 포항주민은 수재를 면하게 되었으며, 이때 형성된 몽리(蒙利) 면적은 1,991정보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1926년에는 5월 21일 고송궁(일본천황동생)이 탄 제2함대 30여척이 포항항에 닻을 내려 선함의 운행과 정박에 장애가 없음을 증명하게 되었다. 1914~1934년까지 포항항의 각종공사를 일람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공 사	시 행 년 월 일	공 비	공정별 연장		비 고	
형산강 방제축조공사	1914년 1월 7일 착수 1915년 10월 14일 준공	1914년 지출 1,821 1915년 지출 1,700 계 3,521	연장	56간	도지방비	
형산강북하구 도수제 축조공사	1919년 1월 7일 착수 1921년 3월 8일 준공	1919년 지출 8,208 1919년 지출 57,122 1920년 지출 54,630 계 119,968	좌안도수제 연장 천건 우안도수제 연장 천건	200.5간 3간 130간 3간	도지방비 내국고보조 67,500	
상 동	1921년 8월 27일 착수 1922년 3월 15일 준공	17,048	우안도수제 연장 높이(天巾)	30간 3간	1918~1920 계속사업 국고보조공사 잔금처분공사	
상 동	1922년 9월 1일 착수 1923년 6월 20일 준공	1922년 지출 41,056 1923년 지출 5,743 계 46,799			도지방비 내국고보조 23,400	
형산강북하구 응급준설공사	1924년 12월 15일 착수 1925년 1월 20일 준공	1,000			도지방비	
포항호안 수축공사	1926년 3월 2일 착수 1926년 4월 30일 준공	1925년 지출 5,212 1926년 지출 15,678 계 20,890			상 동	
포항항 도수제 축조공사	1928년 2월 8일 착수 1931년 5월 31일 준공	1927년 지출 22,092 1928년 지출 94,426 1929년 지출 106,544 계 237,989	좌안도수제 연장 우안도수제 기부상 및 계측 연장	240m 148m	상 동 내국고보조 80,000 단, 670반납	
공유수면매립공사 (학산동지선)	1928년 4월 21일 착수 1928년 5월 31일 준공	8,580	도로 및 구거 매립취득지	3,695평 3,993평	포항을 시행	
공유수면매립공사 (포항동지선)	1930년 12월 15일 착수 1932년 4월 13일 준공		66,200	도로 및 구거 매립취득지		5,740평 6,850평
형산강 북하구 준설공사	1930년 7월 1일 착수 1931년 3월 31일 준공		9,938	폭(巾) 연장		30m 700m
상 동	1932년 2월 1일 착수 1932년 3월 31일 준공	996	건 연장	50m 140m	도지방비	
포항창방파제 재해복구공사	1934년 1월 7일 착수 동년 준공	28,000	在來傾斜 3할을 4할로 시행		상 동	
형산강개수공사	1931년 8월 15일 착수 1935년 4월 31일 준공	186,000	연장 경비 호안 경비 배수문4개소 형산교	20,833m 334,000 3,353m 2,683m 686m 237,000 54,000 155,000	동 내국고보조 8할	
합 계		2,395,734				

이 기간 동안 포항항만 공사에 사용된 금액은 2,400,000원으로 당시로는 거액 이었지만 완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1936년부터 제2기 공사가 시행되어 총공비 316만원(내국고보조 96만2천원)을 투자하여 강원도 후포, 경북 포항, 경남 삼천포, 전남 거문도, 황해 해주, 함북 용대 등 6개항을 수축하였다.

한 가지 부언 설명을 하면 포항항 수축공사가 미래 포항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나 이 공사가 일인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를 위해 통양포진과 흥해읍성을 비롯한 여러 유적들의 무분별한 석재 훼손으로 문화재 파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빚기도 하였다. 지방항으로서 포항항만은 오랫동안 경남 관할하에 있다가 1947년부터 중앙관리로 편입되면서 총공비 479만여 원으로 3만 입방미터를 준설하였다.

북하구의 남빈과 동빈매립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192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형산강의 북하구에서 남빈 일대는 황무지였다. 1927년 면장(하촌)을 비롯한 지방 유지들은 자력에 의해 이것을 매립할 것을 입안하여 도와 총독부에 수차 진정하였으나 원산·청진양항의 같은 사업 실패로 벽에 부딪혔다. 이에 면장과 도의원 및 유지들은 도당국자를 움직여 매축계획서를 작성하여 1930년 총독부에 가서 토목과장의 교시(매립지에 나무기둥 세우는 것을 돌기둥으로 고쳐 세움)를 받아 공유수면매립면허원을 관에 제출하였다.

1927년에서 4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1930년 11월 17일 남빈매립의 난사업이 면허되기에 이르렀다. 1931년 가을에 이르러 읍(1931년 4월 1일 승격)직영하에 착공하여 공사비 66,200원을 들여 1932년 4월 13일에 준공 하였다. 이로써 읍취득 6,748.17㎡, 도로 개골창(溝渠) 4,775.55㎡의 결과를 얻었다. 공사준공과 함께 매립공비 지불을 위해 읍회에서 분양할 것을 결의하여 공매 수속을 밟도록 하는데 1932년 7월까지 공사비를 지불한 읍은 실로 7만여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동빈 일대를 정지하여 이용가치를 높이고, 임대 사용하던 읍사무소를 신축하는 등 일석이조의 결실을 올리게 되었다.

(2) 구룡포항과 축항공사

구룡포항은 현재 영일군 구룡포읍 연안에 자리잡은 동경 129도 33분, 북위 35도 59분에 위치하며, 사라 끝에서 병포리 북쪽 돌단(突端)에 그은 선 안을 항계(港界)로 하고, 항내수(港內水)면적 377,000㎡를 보유하는 2종항으로 동해안의 주요 어항의 하나로 발전되어 왔다.

조선후기까지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어촌마을에 지나지 않았으나 1906년 이후 일본인의 이주와 왕래가 잦아지면서 마을세가 크게 성장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의 향천(香川)현 어업인들이 단체로 상륙하면서 이른바 어업단인 ‘소전조(小田組)’와 그 후

대판의 ‘유어조(有漁組)’가 합세하여 본항을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특히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춘어(鱻魚:삼치)의 회유가 시작될 때는 근해 어장에서 어로행위를 본격화한 곳이기도 하다.

그 후 1909년 유어조가 본 항에 사무소를 설치한 이후부터 일인의 거주인구가 늘어났으며, 한일합방 후인 1913년 말에는 도로 수축과 시가지 정리 및 1914년 4월에는 관공서까지 들어서면서 일인들의 발길은 더욱더 빈번해졌다. 특히 구룡포항은 어획량의 증가로 항만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1919년 경상북도에서는 감포항과 함께 지정어항으로 선정되어 점차 면세가 커져갔다.

초기에는 고등어어업의 근거지로 발전한 어항이었지만 일제강점기동안 일본인의 수탈의 주요 어장으로 성장 특히 청어·오징어·방어 등의 출하량이 많아 어선의 출입이 잦아지고, 수산가공품과 함께 수산물 수출항으로도 각광을 받았다. 1928년도 구룡포항의 물산출입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품목	수량	출 항 품 목			입 항 품 목		
	수량	가액	도 착 지	수량	가액(円)	출 발 지	
백 미	~	-		1,300	39,000	부산·포항	
외 국 미	-	-		2,400	67,200	부 산	
조	-	-		3,000	36,000	부 산	
콩	400	4,800	부 산	-	-	부 산	
과 일	-	-		1,400	1,750	부 산	
고 등 어	3,400,000	750,000	부 산	-	-	부 산	
대 구	500,000	45,000	부 산	-	-	부 산	
정 갱 이	25,000	8,000	부 산	-	-	부 산	
갈 치	18,000	8,000	부 산	-	-	부 산	
가 자 미	12,000	15,000	부 산	-	-	부 산	
사 요 리	5,000	21,000	부 산	-	-	부 산	
삼 치	400	600	부 산	-	-	부 산	
방 어	1,500	1,200	부 산	-	-	부 산	
청 어	600	360	부 산	-	-	부 산	
잡 어	50,000	5,300	부 산	-	-	부 산	
전 복	15,000	17,000	부 산	-	-	부 산	
다시마	15,000	6,000	부 산	-	-	부 산	
해 태	200	1,600	부 산	-	-	부 산	

수량 품목	출 항 품 목			입 항 품 목		
	수 량	가 액	도 착 지	수 량	가 액(円)	출 발 지
해 삼	2,600	1,400	부 산	-	-	부 산
굴	500	1,500	부 산	-	-	부 산
목 재	-	-		150,000才	20,000	강 원 도
석 탄	-	-		100톤	1,700	부 산
술	-	-		350石	35,000	부 산
간 장	-	-		310	18,000	부 산
된 장	-	-		5	700	부 산
석 유	-	-		1,500罐	6,000	부 산
석 회	-	-		50袋	250	부 산
시 멘 트	-	-		50樽	600	부 산
면 직 물	-	-		-	30,000	부 산
잡 화	-	-		5,000個	60,000	부 산
총 계	-	839,060		-	316,200	

이러한 발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룡포항 일본인의 다수 거주지화에서 크게 힘을 입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일찍이 이루어진 구룡포항의 축항공사가 일익을 담당하는데 주요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룡포항의 축항공사는 창주면(당시 구룡포리는 영일군 창주면 소속임)에서 1922년 도부터 1924년도에 걸쳐 총공사비 35만원(국고보조 13만원, 내지방비보조 10만원, 면비 12만원)을 계상하여, 방과제 연장 182m의 축조를 기획하고 1923년 2월 28일 기공을 한 후 1926년 8월 2일에 준공하였다.

이즈음 개수된 어항으로는 포항·구룡포·감포·방어진·주문진·5개항으로 동해안의 진면목을 일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축항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룡포항은 1925년경 부산~원산선과 부산~울릉도선의 선박기항항이 되었으며, 1920년대 초에 삼치·방어·청어 등의 어획량 증가로 연간 어획물 취급고 60만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4년경 구룡포 출입산 선박이 1,955척, 톤수가 139,182톤, 수출입 물화가 62,158톤, 금액이 3,061,287원에 이르게 되어 영일만을 중심으로 볼 때 포항 다음 가는 항구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1942년에는 경북에서 11번째로 읍 승격의 영광을 안기도 했다.

(3) 대보항 방파제 축조공사와 장기곶등대 건립

대보항은 구한말 장기군에 속하여 보천리(浦川里)라 칭하였으나, 1914년 부군면 통폐합시 부락 중앙을 관통하는 소천(小川)을 경계로 남쪽은 창주면 대보리, 북쪽은 동해면 구만동이라 개칭하였다. 지리적으로 장기곶 맨 끝단에 위치하여 3면이 동해에 접해있는 곳이며, 배면구릉은 경사가 완만하고 서쪽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동경 129도 33분 40초, 북위 36도 4분 30초)

대보항의 특징은 소형어선의 피난항으로서 요지에 위치하고, 해안은 암초가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수심이 6심(1尋, 8尺)에 달하는 곳도 있다. 해저는 모래자갈이고 선박계류에 편리하며 한난(寒暖)의 두 조류가 교차하여 고등어·청어·정어리·갈치 등의 어장이 크게 형성된 동해안 어장의 보고이기도 하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촌이었으나 한일합병을 전후하여 포항과 구룡포에 일본 산구(山口)현, 북강(福岡)현 방면의 출어자들이 진출하여 대보항 부근일대가 풍부한 어장임을 발견함으로써 해마다 선박의 기항·정박수가 증가하고, 호구 역시 증가하여 1930년대 후반에는 한국인 644호(4,208명), 일인 26호(84명)나 되는 큰 마을로 성장하였다.

예로부터 장기곶 앞바다는 남북기류와 조류가 교차하는 지대로서 동해안에서 제일 험난한 항로였다. 항구는 북동을 향하여 완전히 열려있지만 방파제가 없어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풍랑조류를 예측하기 힘들고, 갑자기 풍랑이 일면 닻을 올리고 피난할 틈이 없어, 해마다 선박과 인명의 피해가 심한 고난의 항구였다. 그러므로 어로자들이 이곳을 근거로 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적었으며 목전에 수산물 보고를 두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하나 그 어획물의 대부분은 모두 타항으로 방출되는 등 항만을 발달시키는 데는 저해가 컸다.

이러한 까닭으로 오랫동안 인공방파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나 구체화 된 시기는 1934년 제2차 빈민구제토목사업의 실행이었다. 도(道)가 직영으로 방파제연장 140m 축조를 시작하여 1934년 6월 1일 착공, 1936년 4월 31일에 준공하여 종래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그러나 항구는 아직도 넓고 폭은 300m로 방파제내의 이용면적이 협소하였기 때문에 심한 파도가 일면 정박지에 넘어와 선박계류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약 100여m 방파제를 더 연장하여 항내 얇은 곳의 암초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닻을 내릴 수 있는 곳을 만드는 제2기 사업실시가 요구되었다. 당시 축조된 방파제의 공사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공사는 주로 북동풍에 의한 파도를 방지하고자 항내 북쪽을 기점으로 한 연장 140m의 사석제(捨石堤)를 축조하는 것이다.

공법은 천단(天端)폭 5m, 두부(頭部) 10m, 높이는 평균 간조면상(干潮面上) 2m로 하고 긴폭 2m, 높이 1.5m의 철근콘크리트 각주(角柱)를 기부(基部)로 하여 50m 지점에서 두부로 향하게 하였다. 그리고 74m간 외측에 1단 및 두부내외측 공히 2단으로 병치하여 이것을 방파제 중심부에 한 개 \bigcirc m²의 석재로 채우고 그 위에 콘크리트(배합 1:3:6)를 채웠다.

방파제 두부 중앙에는 장기곶 등대가 건립되었다. 관세국고시 제58호에 의해 1908년 12월 20일 영일만의 동쪽 동외곶(冬外串, 북위36도 4분 46초, 동경 129도 34분 9초)에 등대와 무적(霧笛)을 건설 가동하였다. 등탑은 백색의 연와(煉瓦)석조 8각형이며, 높이는 기초부터 등불까지 87척(29m)으로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쌓은 독특한 서양식 건축양식과 기술로 이루어진 등대이다. 내부는 6층으로 설계되어 있고, 천장에는 층층이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얏꽃문양이 조각되어 있다.(아래 위 여덟 잎의 고동색 꽃받침 속에 연분홍의 오얏꽃이 양각되었으며, 오얏꽃문양은 경술국치 후 일인들이 일본을 상징하는 국화(菊花)의 둥근문양을 그와 꼭 같은 크기로 만들어 그 위에다 부쳐진 후 가려져 있다가 광복 후 국화문양을 뜯어내고 난 후 뒤늦게 오얏꽃문양임이 밝혀져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방파제 공사비는 총 7만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본공사 시행 중 1934년 12월 28일과 1935년 1월 16일에 북동풍의 대폭풍우의 풍랑을 만나 선박 및 공사 중의 방파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리하여 재해복구비로 도비 8천원을 투입하여 총 공사비 78,000원으로 전공사를 준공하였다.

공사에 사용된 돌은 20,400m³이며, 계획당시에 현지 석재채취량은 굴착의 결과 암질이 조악하고 매장량이 적기 때문에 채취장을 변경하여 약 7마일 떨어진 구룡포항 확장공사 석재채취장 및 장기곶을 중심으로 하였다. 북쪽은 동해면에서, 남쪽은 경주군 양포부근에 이르는 약 30해리의 해안 및 해저에서 중량 3톤~9톤의 큰 돌을 주로 채취한 것이다. 이들 석재는 6평적석재(積石材)운반선 8척, 기중기선 3척(10마력 2척, 16마력 1척) 예선발동기선 2척(50마력 1척, 40마력 1척)을 사용하여 채취 운반하였으나, 이들 선박은 항내 닻을 내리는 자리가 암초지대여서 항시 계류하는 데는 위험이 따랐다. 그래서 부득이 그날 작업을 마치면 모두 구룡포항으로 돌아가 계류하는 등 많은 장애와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방파제축조공사로서 드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장기곶등대가 있는 대보지역은 일찍이 조선 명종 때 천문지리학자인 남사고(南師古)의 해미등(虎尾燈)이라 기록(《格庵南師古山水秘錄》)된 바 있으며, 민화(檀城江山猛虎氣像圖)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호랑이가 중국대륙을 향해 포효하며 웅비하는 모습에서 꼬리부분에 해당되는 곳이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민족을 예속하기 위

해 순하고 약한 토끼에 비유하여 토끼꼬리라 잘못 지칭한 곳이기도 하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 침략을 본격화 할 무렵인 1907년 9월 9일 동경수산대 수산강습소실습선 가이요마루(快應丸, 137톤급)이 수산시험(해류·어족분포·연해수심 등 조사)을 위하여 동해안에 내항하였다가 영일만 대보 구만 2리 앞 해중에서 좌초한 사건이 발생하여 36명 탑승자 중 교관 1명과 학생 3명이 조난 실종되었다.

그 후 20년 후 영일만 입구 구만동에 세워진 목제기념비는 낡고 썩게 되어 1926년 9월 9일 당시 조난자인 小澤嘉助 등 제 11회 졸업생이 발기인이 되어 석조기념비 ‘水産講習所實習船快應丸遭難紀念碑’를 세우게 되었다. 해방 후 이 비는 일제침략을 호도한 왜곡된 내용의 비로 인식되어 주민들에게 파괴되어 방치하였다.

그러나 그 후 한일국교정상화로 양국인들의 왕래가 자유롭게 되자 1971년 10월 재일교포 한영출(韓永出)의 주선으로 방치되었던 비를 다시 세우게 되고, 동경수산대학교 요수회(樂水會)와 구만 2동 주민들이 비를 매개로 자매결연을 맺어 일본인들의 내왕이 늘어났다. 특히 오늘날 구룡포 적산가옥 보존과 더불어 일본관광객 100만의 시대에 그들의 찬란한 역사와 유물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시련과 극복의 아픈 역사도 소중한 역사의 가르침으로 되새긴다면 이 비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 질 것이다.

장기곶 등대는 1982년 경상북도기념물 39호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에는 호미곶 등대로 개칭 되었다.

참고문헌

- 내각법제국 관보과, <경상북도 冬外串燈臺及霧笛의 新設>《官報》 제4254호(관세국고시 제58호), 1908년(융희 2년) 12월 26일자 《동아일보》(1920~1940)
- 金鎔濟, 《迎日邑誌》, 1929
- 田中正之助·加納安正《浦項誌》, 1935, 達捨藏,《경북대관》, 1936
- 총독부 내무국편《港灣要覽》, 유천면, 《朝鮮交通及運輸》
- 경상북도, 《窮民救濟時局應急事業道路橋梁 寫真帖》, 1936
- 영남일보사 동해지사, 《東海明鑑》, 1955
- 수산청, 《한국수산사》(대보항의 연혁 및 공사개요), 1968
- 체신부, 《韓國郵政史》, 1970, 《韓國鐵道史》, 제2·3권, 1979
- 《한국철도사》제2·3권, 1977, 해운항만청, 《한국해운항만사》 1980
- 해운항만청, 《항만건설사》, 해운항만청, 《해운10년약사》, 1986
- 포항시, 《포항시사》 상, 1999. 《경상도칠백년사》, 2006
- 이상준, 《장기곶을 장기사람 이야기》, 장기발전연구회, 2006.
- 포항시,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2009

제7절 근대의 문화

1. 근대교육

개항이후 서양의 근대문화에 접하게 된 우리정부는 전통적 유교교육을 청산하고 서구의 신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1886년(고종23)에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하였다. 이어서 교육입국조서(教育立國詔書) 발표로 신교육을 실시하는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외국어학교 등 각급 관립학교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립학교는 대개 관리양성을 위한 경향으로 양반출신 고관들의 자제가 주로 다녔으므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를 못하였다. 이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에 종사하여 독립의 기초를 닦고자 하였다.

근대적 사립학교의 시초는 1883년 원산에 세워진 원산학사(元山學舍, 鄭顯奭 설립)이다. 이후 배재학당, 이화여학교, 송실학교, 보성학교 등 미국 선교사 계통의 학교와 한국인 설립의 사립학교가 수없이 들어섰다. 그리하여 1910년 합방될 때까지 불과 몇 해 사이에 전국에 무려 3,000여에 달하는 사립학교가 세워졌다.

일제는 이러한 사립학교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제정하여 사립학교 존속을 인가제로 하고, 교과서도 인가된 것만 사용하게 하며, 일본어를 교수 용어로 사용토록하고, 사립학교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교과목은 일절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많은 사립학교가 폐교되었고 대신에 일본인 아동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인 심상소학교를 일찍부터 곳곳에 설립하였다.

3.1운동 후 일제는 총칼의 무단정책보다 가혹한 식민통치를 위장하기 위한 소위 문화정책을 실시하였다. 1922년에 다시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내선일체(內鮮一體)·내선공학(內鮮共學)을 내세워 일본과 동일한 학제로 개편하였다.

보통학교는 4~6년, 고등보통학교는 5년,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5년, 실업교육기관은 3~5년, 전문학교는 3년 이상으로 하고, 사범학교(남자 6년, 여자 5년)와 대학(예과 2년, 학부 3~4년)을 신설하는 등 일본의 학제와 맞추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학제와 한국인을 위한 학제를 따로 마련하여 한국인과 일본인을 교묘하게 차별하였다.

일제는 한국인에게는 일본의 식민정책을 비판하고 독립사상을 주장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만 주력토록 한 것이 그것이다. 한국인을 위한 고등교육의 필요성으로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 대학설립을 위한 조선 민립대학 설립운동의

일환으로 포항 지역에서는, 포항 청년회 주최로 민립대학 설립 발기인 선정협의회가 구성되어 확산하기도 하였다(1923. 5. 5 동아일보).

그리하여 일제는 ‘3面 1校’의 보통학교 설립계획을 세워 초등교육의 확충에 힘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 결과 1919년 전국에 1,320개교이던 학교가 1925년에는 2,045개교로 늘어났으며, 학생 수도 131,975명에서 500,710명으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인적·물적 보급기지로서의 한국의 위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교육을 한층 강화하였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해 소학교 6년, 고등소학교 8년, 중학교 5년, 고등여학교 4년, 전문학교 2년, 대학 4년, 사범학교 7년 등으로 개편되고, 1943년 제4차 교육령인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 조치령」에 의하여 전시교육체제로 완전히 바뀌지게 됨에 따라 학교교육은 완전히 전쟁수행의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존속한 사립학교들은 여전히 민족교육의 중심지로서 민족운동의 터전이 되었다.

포항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은 사립학교들로서 1902년부터 1910년 합병을 전후하여 거의 한국인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고장 근대교육의 효시는 1902년 연일현 북면 상도동에 세워진 호상학교(湖上學校)이다. 이후 광복이 될 때까지 한국인 민족운동가들의 사립학교와 일제의 한국인 우민화교육정책에 의한 공립보통학교가 당시의 영일군 전역에 설립되었다.

1) 초등학교

(1) 사립학교

① 호상학교(湖上學校)

1902년 5월 당시 상도동의 부호 최익수(崔翊洙)가 서양과 일본의 신식문명을 후진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사재를 털어 상도동에 설립한 학교로서 초가 3간에 학생 50명을 모집하여 국어·산술·국사·일본어 등의 교과목을 가르쳤다고 한다. 당시 일본어 교사로는 우연히 상도동에 나타난 일본인 의사 니히지마 히로시(西島弘)를 채용하였는데, 그가 바로 이 고장 최초의 양의였다고 한다. 학교의 재정은 최옹이 혼자서 전담하였고, 학생들은 보리수확과 벼 수확기에 각각 1말(斗)씩 거두어 한국인 강사 1인의 생활을 보조하였다.

이 학교는 7년간 이 고장의 근대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다가 일제의 한국침략이 본격화 될 무렵인 1909년 강제 폐교당하여 연일의 광남학교와 합병하게 되었다.

② 광남학교(光南學校)

1906년 3월 11일 지역 유림에 의해 현 연일읍 생지동에서 설립되어 2년가량 운영되다가 1909년 5월 26일에 연일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1911년 10월 16일 4년제 4학급으로 개교되었으며 초대 교장은 마쓰무라 코우키(松村洵喜)였다. 1938년 4월 1일 일본직령 103호에 의하여 연일공립심상소학교로 개칭되었으며 1941년 4월 1일에 연일공립초등학교(연일초등학교)로 개명되었다. 지난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넘긴 현 연일초등학교의 전신이다.



● 1920년대 연일공립보통학교 교사



● 연일공립보통학교 1회 졸업생(1912. 3. 24)

③ 의창학교(義昌學校)

1908년 5월 10일에 흥해면에 설립되었으며, 1911년 3월 18일 흥해공립보통학교로 인가가 나서 1912년 4월에 개교하였다.

1914년 2월 7일 화재로 제남헌(濟南軒)으로 옮겨 1920년 12월 27일 교사를 증축하였고, 1923년에 약성동 뒷편에 신축, 1927년에 다시 증축하여 학교를 전부 이전하였으며, 1929년 신학기 당시 재학생이 288명이었다.

이후 1938년 4월 1일 의창공립심상소학교에 병합된 후 1941년 4월 1일 의창공립국민학교로 분리 개편되고, 광복 후 1946년 4월 1일 흥해국민학교로 개명되었다. 현 흥해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④ 장명학교(長明學校)

1909~1910년경 당시 군수 김영수(金永銖)에 의해 장기 마현리에 설립되었으며, 1911년 7월 24일 장기공립 보통학교로 인가가 나서, 그 해 9월 1일에 개교한 후 1926년 11월 30일에 증축하여 1929년 신학기 당시 학생 수 297명이었다. 1938년 4월 장기심상소학교 개명되었다. 현 장기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⑤ 천일학교(千一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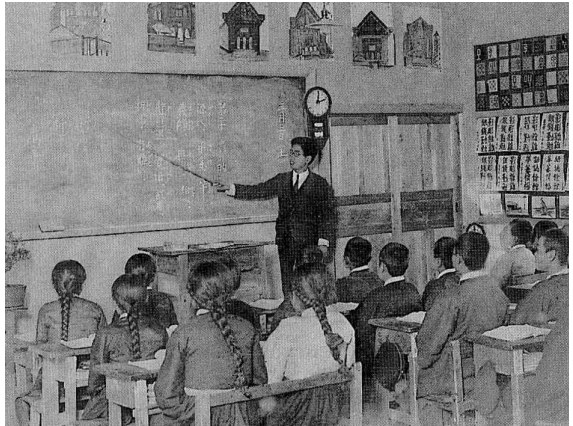
1910년 6월 10일 청하현의 유지 이종락(李鍾樂)과 곽태섭(郭太燮)에 의해 청하에 설립되었으며, 1912년 4월 1일 청하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가 나서 그해 7월 12일 개교하였다. 현 청하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⑥ 송라학교(松羅學校)

1910년 당시 송라면장 이익호(李翊鎬)의 알선으로 보경사의 재산으로 보경사 내에 설립하여 광흥학교(廣興學校)라 칭하였다. 후임 면장 이병호(李秉鎬)가 학교를 광천리로 옮겨 증축하고, 독지가 곽한철(郭漢喆)이 기본금을 보충하여, 1929년 6월 11일 송라공립보통학교로 승격 인가되어 9월 15일에 개교되었다. 1929년의 학생 수 160명이었다. 현 송라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⑦ 영흥학교(永興學校)

이 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포항교회(현 포항제일교회)의 신도들이 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것이다. 남문오(南文五)가 재정을 맡고 신도들과 협의하여 1911년 11월 1일 사립영흥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에 정일찬(鄭日贊), 교감에 최경성(崔景成)을 선임하였으며, 학제는 4년제로서 당초에는 포항교회를 임시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1학급의 불과 10여명의 학생으로 출발하여 국어·한문·산술·성경·찬송가 등을 가르치며 곧 갑반과 을반으로 양분하였다. 그 후 학생이 증가하여 1912년 1월에 병(丙)과 정(丁) 두 반을 증설하고 교직원을 개선하여 교장에 백영옥(白泳玉), 교감에 정수용(鄭守鎔), 간사에 정덕삼(鄭德三), 교사에 김기숙(金基淑)을 선임하고, 이어 최자선(崔子善)을 채용하였다.



● 사립 영흥학교 4학년 수업광경(1934년 3월)

1912년 2월경에 교회당 서편에 교실 수간을 신축하고 동년 6월 23일에 준공함과 동시에 경주교회 사립계남학교(私立啓南學校)와 안강 양월리 사립영창학교(私立永昌學校)와 연합하여 대운동회를 개최하였다.

1912년 12월 14일 남문오의 명의로 당국에 설립인가를 제출하여 1913년 3월 28일 사립영흥학교(私立永興學校)의 명칭으로 설립인가를 얻어 법적으로 탄생되었다.

1916년 3월 23일 제 1회 졸업생 4명 (백순남(白順南)·김재덕(金在德)·이관수(李觀洙)·최치봉(崔致鳳))을 배출하고, 설립자에 남문오, 교장에 백영옥, 교감에 정수용, 사감에 정덕삼, 교사에 조기철(曹基哲)이 선임되었다. 1923년에는 학생수 97명, 1929년 신학기 학생 수 77명이었으며, 수업연한은 4년이었다.

1936년에 이르러 사립영흥학교는 크나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그동안의 민족교육으로 일제의 압제 밑에서도 국민계몽과 민족사상 고취에 끼친 공적이 실로 컸으나 1930년대 일제의 대륙 침략정책으로 한국인의 경제생활이 더욱 압박을 받게 되자 학교는 결국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일제가 1935년경부터 각 지방에 신사(神社)를 세워 참배를 강요하는 가운데 특히 기독교계 학교와 종교계가 큰 핍박을 받게 됨에 따라 사립영흥학교와 포항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 평양의 숭실(崇實)학교와 송의(崇義)여학교 등이 자진 폐교한 것(1936. 10)을 비롯하여 각 지방의 기독교계 학교가 자진 폐교하거나 또 일본 측의 강압으로 폐교되고 있었다.

어려운 시기에 영흥학교는 새로운 경영자를 교섭한 결과 1937년 사업가로서 지방 유지인 김용주(金龍周)를 맞이하여 새 설립자겸 교장에 김용주, 교감에 최경성, 이사에 윤기달(尹基達), 정응삼(鄭應三), 이재우(李載雨), 김병준(金丙俊)을 선임케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학교후원회를 조직하고, 고문에 김두하(金斗河)·정상오(鄭相五)·윤이병(尹離炳)·권태직(權泰稷)·윤광희(尹光熙)·정용수(鄭用守), 회장에 이일우(李一雨), 부회장에 김동덕(金東德), 평의원에 이우진(李雨珍)·이백원(李百源)·조기식(曹淇植)·이석재(李錫在)·강주석(姜疇錫)·강상문(姜相文)·윤기달(尹基達)·박동주(朴東柱)·신주택(申周澤)·김병준(金丙俊)·이제백(李濟伯) 등 지방유지들을 선임하여 같은 해 4월 포항동 446번지에 교지를 매수하고 교사신축에 착수하여 6월에 준공 이전하였다.

당시 교사와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문맹의 성인·주부·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야학학교도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수강생이 40~5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후 사립영흥학교는 새로운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광복을 맞이하여 1946년 11월 7일 공립의 교명 영흥국민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보게 되었다. 현재의 포항영흥초등학교의 직전 교명인 포항영흥국민학교는 1949년 8월 13일에 개명된 것이다.

역대 교장은 정일찬, 백영옥, 남문오(설립자), 백영옥, 김복출(金福出), 김용주, 배수인(裴洙仁) 등이었다.

⑧ 진명학원(進明學院)

1916년 4월 송라면 조사리 침례교회 안에 허담(許膽)이 설립하였다. 4년제로 허씨 문중에서 맡아 경영하여 4회까지 졸업생을 배출하다가 광천리의 광흥학교로 합병되었다. 합병 당시 교장은 허방(許紡)이었다. 현 송라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⑨ 사립학술강습소·오천학술강습소(烏川學術講習所)

1919년 당시 면장 진성련(陳性鍊)의 알선으로 기부금을 모아 1922년 교사를 건축하였으며, 1929년 신학기 당시 학생 수 100여명이었다.

1930년 7월 3일 오천공립보통학교로 인가되어 9월 15일에 개교되었으며, 1938년 4월 오천공립심상소학교로 개편되었다. 현 오천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⑩ 대동배 동성학원(東成學院)

1920년 4월 5일 김영원(金永源)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던 사설강습소를 5년제 사립학원으로 인가를 얻어 설립하였다.

1934년 5월 17일 동해공립보통학교 부설 대동배간이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5월 25일 개교하였으며, 1943년 4월 17일 대동배공립국민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4월 26일 대동배국민학교로 개교되었다. 현 대동배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⑪ 동촌학교(東村學校)

1921년 이종엽(李種燁), 오상근(吳祥根), 김종원(金種遠)에 의해 대송면 동촌동에 설립하였으며, 1924년 사립보통학교로 총독부 인가를 받고 대성(大成)으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⑫ 동명학교(東明學校)

1921년 최석구(崔錫九), 윤화백(尹化伯), 최석엽(崔錫燁) 외 10여 명에 의해 흥해 죽천리에 하였으며, 1925년 6월에 두호동 보명교 교장 사사키에츠조(佐佐木悅藏)가 운동장 부지를 희사하였다.

⑬ 보명교(普明校)

1922년 5월 10일 일본인 유지 佐佐木悅藏·장만준(張萬俊)·이호도(李昊道) 외 여러 명에 의해 포항면 두호동에 설립되었으며, 1923년 11월 27일 학술강습소로 도의 인가를 받았으며, 오직 교장 佐佐木悅藏의 독지(篤志)로 유지되어 1929년 신학기 당시 학생 수 94명이었다.

⑭ 배영학원(培英學院)

1922년 2월 24일 청하면 이가리에 유지 최병룡(崔柄龍)의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교감 정갑수(鄭甲壽), 장무(掌務) 황관수(黃寬守) 외 약간의 유지들이 후원하여, 1929년 신학기 현재 학생 수 60명이었다. 1935년 5월 20일 청하공립보통학교 부설 이가간이

학교로 개편되었으며, 1943년 4월 17일 이가공립국민학교로 설립 인가되었다. 현 이가초등학교 전신이다.

⑮ 명진학숙(明進學塾)

1922년 이석규(李錫規), 정철검(鄭喆儉)에 의해 기계면 울산동에 설립하다.

⑯ 신광학교(神光學校)

1922년 신광면 유지 이종윤(李種允), 이원기(李源璣), 이동빈(李東彬)의 알선으로 토성동에 설립되어 이름을 신명의숙(神明義塾)이라 하고 후에 장당리(長堂里)에 옮겨 세웠고, 1928년 3월 다시 독지가 이종구(李鍾久)와 이원기가 힘을 합쳐 이곳으로 옮겨 세움으로써 신광보통학교로 승격되었다. 1929년 신학기 당시 학생 수 100여명이었다. 현 신광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⑰ 대성학원(大成學院)

1923년 3월 대성보통학교의 명칭으로 죽천동의 마을 유지들이 설립하여 주민부담으로 운영되었다.

⑱ 양정학원(養正學院)

1923년 4월 장원식(張源植)에 의해 칠포에 설립되었다.

⑲ 보명교(普明校)

1924년 동해면 구만동에 지방유지가 설립한 학술강습소로서 1929년에 동창교(東滄校)로 개명하고, 학교운영에 열성적인 인물은 김종영(金鍾永)·서용범(徐龍範)·서동익(徐東驥)·하두호(河斗浩) 등이었다.

⑳ 남명학원(南明學院)

1926년 죽남면 입암리에 설립된 것으로 1929년 신학기 당시 학생 수 70명이었다.

㉑ 성동학원(城洞學院)

1928년 창주면의 지방유지 황보예(皇甫藝)·황보형(皇甫榮)·황보간(皇甫竿) 등이 설립한 것으로 1929년 신학기 당시 학생 수 60명이었다.

㉒ 산서학술강습소(山西學術講習所)

1936년 5월 1일 장기 산서리에 설립, 1946년 9월 1일에 장기국민학교 산서분교로 개칭되었으며, 현 산서초등학교의 전신이다.

(2) 공립학교

우리 고장의 공립학교는 각 고장의 선각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가 공립보통학교의 인가를 받아 교명을 개칭하여 재출발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공립보통학교로 출발하는 경우 둘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앞의 사립학교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연일공립보통학교(1909년 사립광남학교를 개명)·흥해공립보통학교(1911년 사립의창학교를 개명)·청하공립보통학교(1912년 사립천일학교를 개명)·장기공립보통학교(1911년 사립장명학교를 개명)·신광공립보통학교(1928년 신광의숙을 개명)·송라공립보통학교(1929년 사립광흥학교를 개명) 등이 대표적이며, 후자의 경우는 기계공립보통학교·창주공립보통학교·동해공립보통학교·죽북공립보통학교·죽남공립보통학교·대송공립보통학교·형산공립보통학교·곡강공립보통학교·달전공립보통학교·죽천공립심상소학교·제2영일초등학교·흥환공립국민학교 등이 있다.

영일군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공립보통학교는 연일공립보통학교이며, 포항의 중심지에서는 포항공립보통학교가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공립보통학교의 교장은 거의 일본인으로 채워져 식민지교육을 주도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공립보통학교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 연일공립보통학교

1909년 5월 26일 인가되어 1911년 10월 16일에 개교되었다. 1941년에 연일공립국민학교로 개명되었다. 현 연일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② 포항공립보통학교

1913년 4월 연일공립보통학교 분교로 개교하였다가 포항공립보통학교로 승격 설립 인가가 된 것은 1916년 5월 13일이며, 12월에 교사를 신축하여 1917년 4월 10일에 개교하였다. 1919년 4월 16일에 증축하였으며, 1929년 신학기 당시 학생 수 602명이었다. 현 포항초등학교의 전신이다.

706 제2편 역사

개교시 명칭	인가 및 개교 연월일	전 교명	현재의 명칭	비 고
연일공립보통학교	1906.3.11인가, 1911.10.16개교	사립광남학교	연 일 초 등 학 교	1941.4.1 연일공립국민학교로 개칭
흥해공립보통학교	1911.3.18 인가, 1912.4 개교, 1938.4.1 의창공립 심상소학교에 병합	사립의창학교	흥 해 초 등 학 교	1941.4.1 의창공립국민학교로 분리개칭, 1946.4.1 흥해국민학교로 개칭
장기공립보통학교	1911.7. 24 인가, 1911.9. 1 개교	사립 長明학교	장 기 초 등 학 교	1938.4 장기심상소학교
청하공립보통학교	1910.6.10 설립인가, 1912.7.12 개교	사립 千一학교	청 하 초 등 학 교	
포항공립보통학교	1916.5.13 인가, 1917.4.10개교	연일공립보통학교 분교	포 항 초 등 학 교	
기계공립보통학교	1920.9.29 인가, 1921.9.27 개교		기 계 초 등 학 교	1941.4.1 기계공립국민학교
창주공립보통학교	1923.12.4 인가, 1924.6.10개교		구룡포초등학교	구룡포면장 金鏞俊과 면의 유지들이 설립
송라공립보통학교	1926.6.11인가, 9.15개교	사립송라교 →사립廣興학교	송 라 초 등 학 교	처음 보경사내에 세웠다가 光川리로 옮김
신광공립보통학교	1928. 3 설립	신명의숙(神明義塾)	신 광 초 등 학 교	1941.4.1 신광공립국민학교
동해공립보통학교	1928.7.19 인가 1928.12. 1 개교		동 해 초 등 학 교	1938. 4 동해심상소학교, 1941. 4. 1 동해공립국민학교
칠포공립보통학교	1929. 9		칠 포 초 등 학 교	흥해를 칠포리소재
죽북공립보통학교	1930.6.17 인가 1930.10.13 개교	1940.4.1 6학년인가	죽 북 초 등 학 교	죽장면 합덕리 소재
오천공립보통학교	1930.7.3 인가, 10.13 개교	사립학술강습소	오 천 초 등 학 교	1938.4 오천공립심상소학교
죽북공립보통학교	1930. 10		죽 북 초 등 학 교	죽장면 소재
죽남공립보통학교	1931.6.25 인가 1931.9.25 개교		죽 장 초 등 학 교	죽장면 입암동 소재
대송공립보통학교	1932. 9, 17		대 송 초 등 학 교	1941년 대송공립국민학교
신광공립보통학교 부설반곡간이학교	1935. 4. 1		비 학 초 등 학 교	1943.4.1 비학국민학교
형산공립보통학교	1935.4.23 인가 1935.5.26 개교		포항동부초등학교	1946.4.1 동부국민학교
곡강공립보통학교	1935.4.23 인가		곡 강 초 등 학 교	흥해를 용천동 소재
달전공립보통학교	1936.7.18 인가 1936.9. 1 개교		달 전 초 등 학 교	1941.4.1 달전공립국민학교
장기공립보통학교 부설간이학교	1937. 4. 2 개교		계 원 초 등 학 교	1942.5.12 계원공립국민학교
창주공립보통학교 부설공당간이학교	1939.8.17		내 북 초 등 학 교	1944.3.24 내북공립국민학교
제2영일국민학교	1941.3. 인가 1941.4.11 개교		포항남부초등학교	1946.3.30 포항남부국민학교
오천공립국민학교 부설간이학교	1942.5.18 인가 1943.5.14 개교		문 충 초 등 학 교	1944.3.1 문충공립국민학교
기북공립국민학교	1943.4.1인가, 1943.5.13개교	대곡간이학교	기 북 초 등 학 교	기북면 용기2동
흥환공립국민학교	1943.4.15 인가 1943.5.14 개교		흥 환 초 등 학 교	동해면 흥환동
달전공립국민학교 자 명 분 교	1944. 4. 1		자 명 초 등 학 교	1957.6.10 인가, 1958.4.1 개교 자명국민학교

(3) 소학교

① 포항심상고등소학교(浦項尋常高等小學校)

1909년 4월 포항에 이주한 일인들이 중심이 되어 도비(道費)보조와 면비(面費) 그리고 일인들의 기부금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18평 5합의 교사(校舍)와 12명의 학생으로 출발하였다.



● 개교 당시의 포항심상소학교(1909년)

이후부터 광복이 될 때까지 포항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소수의 한국인 유지 자녀도 다녔음), 학제는 8년제였다. 광복 후 1946년 4월 13일

공립으로 이관되어, 포항중앙국민학교로 개칭되어 새로운 출발을 보게 되었다. 현 포항중앙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② 구룡포심상소학교

창주면 구룡포리에 1915년 6월에 설립되었다.

③ 흥해심상소학교

1916년 10월 흥해면 약성동에 일본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29년 신학기 당시 학생 수 514명이었다.

이후 1938년 4월 1일 의창공립심상소학교로 개편하여 흥해공립보통학교와 병합하고, 1941년 4월 1일 흥해국민학교와 의창공립국민학교로 분리 개편하여 흥해국민학교가 되었다. 광복 후 폐교되었다.

④ 동해심상소학교

동해공립보통학교를 1938년 4월 교명 변경하였으며, 1941년 4월 1일 동해공립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현 동해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⑤ 오천공립심상소학교

1938년 4월 오천공립보통학교를 개칭하였으며, 현 오천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⑥ 기계심상소학교

1938년 4월 1일 기계공립보통학교(1921년 개교, 4년제)를 개편하여 개칭한 것이며, 1941년 4월 1일 다시 기계공립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현 기계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⑦ 죽남공립심상소학교 부설상옥간이학교

1938년 7월 15일 설립인가를 받아 1938년 9월 2일 개교하였으며, 1943년 5월 18일 상옥공립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현 상옥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⑧ 대보심상소학교

1939년 4월 14일 인가되어 1939년 4월 26일 개교되었으며, 1942년 12월 4일 대보공립국민학교로 개명되었다. 현 대보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⑨ 죽천공립심상소학교

흥해 우목동에 1940년 3월 20일 설립인가를 얻어 1940년 5월 1일 개교하였으며, 죽천초등학교의 전신이다.

⑩ 죽남공립심상소학교 부설두마간이학교

1940년 5월 7일 설립인가를 얻어 그해 5월 15일 개교하였으며, 1944년 4월 1일 두마공립국민학교로 개칭되었으며, 현 두마초등학교의 전신이다.

2) 중등학교

(1) 포항공립고등여학교()

포항의 여자교육기관의 설치는 당시 포항읍 주민들의 요망사항으로 관계당국과 수차 교섭하였으나 시기상조의 이유로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38년 포항읍이 형산면의 13개 등을 흡수하여 총 28개동으로 확장이 되면서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그해 7월에 포항공립고등여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회장 : 오오우찌지로(大内治郎, 대송면 송정동에서 송도까지 모래밭에 소나무를 심어 방풍림 형성에 큰 기여를 함), 간사 : 김동덕(金東德), 김두하(金斗河), 이일우(李一雨), 강주석(姜疇錫) 등 20인]

1938년 9월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1939년 3월 13일 총독부고시 제213호로 학교 설립 인가를 얻어 즉시 학생모집에 착수하였다.

한국인 자녀들의 희망자가 많아 한·일인(韓日人) 사이에 일시 의견대립을 본 적도 있었으나, 1학년 1학급 55명을 모집하고 1939년 4월 10일 개교식·입학식 겸 시무식을 거행하였다. 교사는 포항읍 학산동 234번지 창고를 빌려 임시로 사용하다가 1939년 12월 20일 신축교사를 준공하여(현 포항여고 자리) 이전하였다.

광복 후 1945년 10월 18일 개교한 후 11월 제1학년의 학급을 2학급으로, 1946년 7월 2일 제1학년의 학급을 3학급으로 증설 편성하고, 1946년 9월 1일 포항공립여자학교를 포항여자중학교로 교명을 개칭하고 수업연한을 6년제로 변경하였다. 1951년 8월 25일 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여자고등학교에 여자중학교를 병설 인가(문교부)하였다. 1972년 3월 15일 포항여자중학교와 포항여자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2) 포항공립중학교()

1942년 9월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1943년 3월 31일 한국인·일본인 공학의 포항공립중학교로 인가를 얻어 동년 4월 9일 초대 교장으로 日인이 취임하여 1943년 4월 16일 제2영일국민학교(현 남부국민학교)에서 5년제 중학으로 제1학년 1학급을 모집하여 개학하였다. 1945년 4월 1일 두호동 200번지(현 우방하이츠)에 교사를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광복 후 1945년 10월 18일에 포항중학교로 교명을 개칭하고 제3대 교장 강구원(姜球遠)이 취임하였다. 동년 11월 5일에 학칙변경에 따라 6년제로 변경하고 각 학년을 다시 모집하였으며, 1946년 9월 학급을 증설하여 1학년 3학급을 모집하고, 별도 야간부 1학년 1학급을 모집 설치하였다가 1949년에 야간부를 폐지하고 주간부 각 학년에 편입하였다. 1951년 7월 18일 학제 변경에 따라 3년제로 변경되는 동시에 동년 3년 졸업생과 5년 수료생을 내었다. 1960년 8월 25일 학산동 205번지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3) 영일군의 서당(書堂)

서당은 옛부터 내려오는 글방이자 일종의 사설교육기관으로 훈장(訓長), 접장(接長), 생도(生徒)로 조직된다. 훈장은 선생, 접장은 학생의 대표 통솔자, 생도는 학생을 말한다. 《천자문(千字文)》, 《동몽선습(童蒙先習)》, 《명심보감(明心寶鑑)》, 《사략(史略)》, 《통감(通鑑)》을 비롯하여 경서의 강독, 제술, 습자 등의 3학과를 교수하였다.

서경(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의하면 고려 때부터 발달한 것으로, 조선시대에 극성하였으며 선비들은 대개 서당을 거쳐 향교 또는 사학(四學), 이어서 성균관에 진학하였다.

서당은 근대식 학제가 시행된 후에도 보통교육의 보조기관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며, 1929년 일제 때 도지사의 인가제로 관청의 감독을 받은 적도 있다.

일제 당시까지도 영일군내에 많은 수의 서당이 남아 있어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서 당 수	교 원 수	생 도 수			경 비 (원)
		남	여	계	
27	28	206		206	

2. 종교

1) 불교

조선시대에 억불숭유(抑佛崇儒)정책에 의거 불교는 토속신앙과 함께 주로 부녀자들의 민간신앙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그 호국사상 및 원융(圓融)철학은 휴정(休靜)·유정(惟政)·언기(彦機)·태능(太能) 등의 고승들에 의해 명맥이 보존되었으며 이러한 불교사상은 국난을 당할 때마다 의병운동으로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많은 사찰이 임진왜란과 구한말 일제침략시 의병항쟁의 본거지가 되었던 사실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고종 32년(1895)에 인조 이래 근 3세기 동안이나 승려의 도성(都城) 출입금지하였던 것을 해금하였으며, 광무 6년(1902)에는 사찰령을 발표하고 승려의 도첩제를 부활하여 포교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합병 후 1911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 ‘사찰령’과 그 ‘시행규칙’을 공포하며 불교계를 장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1902년 당시의 사찰 16본산을 31본산으로 크게 증가시켰다. 그리하여 그 당시 이들 31본산 중 경북에는 대구 동화사(桐華寺)·영천 은해사(銀海寺)·의성 고운사(孤雲寺)·문경 금룡사(金龍寺)·장기 기림사(祇林寺) 등 5본산을 두게 되었는데 이 고장의 사찰들은 기림사를 본산으로 한 말사로 있었다(1962년 4월 12일부터는 전국 25교구 본사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경북은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고운사 등 5본사가 지정되고 이 고장의 사찰들은 불국사의 관할 말사로 되어 있다).

조선총독부의 사찰령의 공포는 불교의 보호육성에 다소의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종교를 식민지정책에 악용하려는 한낱 저의에 불과했다. 그들은 본존불 앞에 일본천황 성수만세의 패를 세워 매일 축찬을 하도록 강요하고 주지를 총독이 임명케 되어 있음으로 주지와 승려, 승려와 신도들 간에 불화와 분열을 조성·이용하여 일본의 여러 종파들로 하여금 한국의 사찰을 그들 종파의 말사로 편입토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그들의 불교제도를 한국에 준용 실시하여 1926년 승려의 대처(帶妻) 제도를 합법화하여, 비구승에 한하여 본(本)·말사(末寺) 주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일제는 대처식육(帶妻食肉)을 허용케 하였다. 이와 같은 그들의 종교적 식민정책은 그 후 한국 불교계에 큰 혼란을 야기시켜 비구승과 대처승간의 상호분열과 불화 반목이란 분규의 씨를 뿌린 셈이었다.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41)이 발발되자 일제는 사찰소유의 금속공출을 명하고 적국항복 기도법요(敵國降伏 祈禱法要)를 강요하는 등 불교를 그들 전쟁의 도구로도 이용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복이전까지 설립되어 있었던 사찰은 다음과 같다.

지방명	사찰명	종파	사찰창건일	소재지	비고
포항	죽림사 관음사	조계종 상동	신라대창건1929년재건 1930년 金震宇창건	용흥동 88 덕수동 939~1	구분 정 상동
구룡포	용흥사	법화종	구한말	구룡포리 709	
흥해	임허사 천곡사 고왕사 용화사 옥선사 용주사	조계종 상동 원효종 법화종 상동 상동	1917년 신라 선덕여왕시 1944년 1942년 1940년 1940년	옥성동 131 학천동 796 옥성동 367~3 곡강2동 1027 용천동 30 용천동 429	구분 丙
오천	오어사	조계종	신라 진평왕시	항사동 34	구분 丁
신광	법광사	법화종	신라 진평왕시 창건 (1936년 재건)	상읍 875	
청하	아혜사 법성사	상동 상동	1943년 1943년	서정리 605 유계리 714	
송라	보경사 문수사	조계종 태고종	신라 성덕왕시 1943년	중산리 622 중산리 2구	구분 甲
기계	대성사 무학사	조계종	일제시대초 1935년	화봉동산 75 문성동산 8~1	구분 정 상동
동해	몽운사 선암사 진불사	법화종 상동 태고종	1940년 1935년 1912년	금광 64~1 공당 736 중흥 80	
지행	고석사	조계종	신라선덕여왕 7년	방산 887	구분 정
대보	해봉사 (명월암)	법화종	신라선덕여왕 5년	강상리 1066	

이 가운데 죽림사(竹林寺)는 신라 때 창건된 몇 안 되는 사찰중의 하나로서 포항시 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고찰이다. 1809년 己巳년(순조 9) 죽림사가 중창될 때의 죽림사 상량문(竹林寺 上樑文)이 보존되어 있어 앞의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상량문 원문은 생략, 원문은 1987년 발간의 《浦項市史》 341~342쪽 참조 바람)

상량문의 “지금 포항 죽림산은 신라 때 봉비산(鳳飛山)이라 하였으며 그 아래 한쪽 구역을 절터가 있으니 이것이 그 당시의 죽림사 자리다”라는 대목이 있어 이 고장의 불교사는 물론 이 고장의 역사를 이해하는 길잡이로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죽림사가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실과 오늘날의 죽림산이 당시에는 봉비산으로 불리어졌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사료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고고학적 탐구로 그 모습이 밝혀지겠지만 봉비산(죽림산)과 대흥산(大興山, 오래전부터 大王山 또는 大安山으로 잘못 기재되어 오늘날까지 불리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명칭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은 유사 이래 포항시내 중심지역의 모산(母山, 鎭山)으로서 포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1809년 새로 지은 절 이름을 그대로 죽림(竹林)이라 하고 본전(本殿)은 자광전(慈光殿)이라 하였다.

이후 죽림사는 재건된 지 120년 후인 1929년(己巳) 용흥동 91번지에 다시 건립되었다. 당시에 건립된 죽림사 실기문(竹林寺 實記文)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竹林寺 實記文

歲在丁卯(1927) 8월에 시임 면장(時任 面長) 權銓斤, 주승(主僧) 金魯聲 양인이 시임 군주사(郡主事) 朴晚洙, 신도 朴允余·李榮增·李一雨·金斗河·金奎淵 6인이 불교기성회를 조직하여 선(善)남자·선여자를 다수 모집하여 초옥 5칸을 포교당 명의로써 매득하고 불교협회를 성립한 후에 포교당 법당(法堂)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사(己巳) 5월分에 주승 김노성, 신도 이영증 양인이 경주군 양북면 대본산 기림사(祇林寺)에 왕(往)하여 의연금을 요구한 결과 기림사 칠성각(七星閣)이 내부의 정화(楨畫)는 전무하고 외부의 재목이 완전함을 견각(見覺)하여 의연금의 본의는 소각하고 칠성각 재목을 양수(讓受)하기로 간걸하니 당시 주지 鄭曉隱이 칠성각 재목 전부를 양여하기로 정기(定期)하고 동해선(東海船)으로 운반한 후 남녀 신도의 선과(善果)를 득하여 다수 의연금을 모집하여 드디어 당조(當造)하니 이에 기사(己巳) 6월 12에 입주(立柱) 상량(上樑)한다.
世尊應化 2956 己巳 6월 12일

이 실기문을 통해 1929년 1월 12일 건립공사를 시작하고(‘竹林寺新建擇日’ 6월 12일) 상량한 죽림사(曹溪宗 소속)는 당시 본산(本山) 기림사 칠성각 재목을 양여받고 신도들이 의연금을 모집하여 이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동학

19세기 후반에 들어선 조선은 내부의 누적된 사회모순과 점진적인 외세의 압력으로 격심한 진통을 겪게 되었다. 서민 의식의 성장과 지도층에 대한 불만 및 외세의 종교적·군사적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의 팽배로 조선사회는 극도로 불안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기존의 민중신앙은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국초 이래 역불책으로 침체되어 간 불교는 토속신앙인 무격(巫覡)신앙과 결부되어 미신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였으며, 유교 또한 양반통치체제의 동요와 중세적인 폐쇄된 사상의 고집으로 민중으로부터 소외되었으며, 현실도피적인 허무사상의 도교 역시 대중적이 못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기성종교의 침체에 반하여 무격신앙과 조선왕조의 멸망을 예언하는 정감록(鄭鑑錄)을 비롯한 각종 비기(秘記)·참서(讖書)가 성행하고,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 전래된 천주교가 도시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타고 발생한 것이 동학이었다.

동학은 철종 11년(1860) 경주출신의 잔반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에 의해서 제창되었다. 儒·佛·仙 3교의 장점에 민간의 무격신앙을 가미하여 새로운 민족적인 종교로서의 이념과 형태를 갖추고 西學(천주교)에 대항한다는 뜻으로 교명을 동학(東學)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교리 가운데는 서학적인 요소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동경대전(東經大全)》, 《용담유사(龍潭遺詞)》에 나타난 동학의 근본사상은 인간이 곧 하늘(天=神)이라는 인내천(人乃天)사상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하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한 이 가르침은 사회적 신분과 계급을 초월한 만민평등의 사상이었다. 또한 전통적인 토속신앙과 결부한 동학은 부적을 태워 마시고 주문만 외우면 무위자연의 진리를 터득하여 영세무궁할 것이라는 주술적인 무위이화(無爲而化)사상을 내세웠다. 인내천사상을 대도의 근원으로, 성(誠)·경(敬)·신(信)을 도의 본체로 수심정기(守心正氣)를 수도의 요결로 삼았던 동학은 개인적인 구도에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 보국안민(輔國安民)과 광제창생(廣濟蒼生)의 사회개혁사상을 부르짖어 반봉건적인 혁명의식과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을 고취하였으며, 동시에 말세와 개혁을 내세워 지상천국의 건설을 약속하였다.

동학의 사상과 교리는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그 개혁을 갈망하던 농민들에게 크나큰 복음이 되었으며 이는 농민들의 생활 관념과 부합하였기 때문에 더욱 쉽게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동학의 교세는 더욱 확산되어 경상·전라·충청도의 3도에 신도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자 조직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조정(朝廷)의 사교(邪敎)탄압의 열풍이 거세지자 최제우는 1862년 11월 9일 경주 용담정

을 떠나 흥해 매곡리(興海 梅谷里, 현 매산리) 신도 손봉조(孫鳳祚)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숨어 포교하다가, 1863년 1월 6일 다시 용담정으로 돌아갔다.

흥해 매곡리는 흥해읍의 동남쪽 장기·연일·구룡포, 서쪽이 신광·기계·영천은 물론 북쪽의 청하·영덕·영해 방면에 이르는 교통이 편리한 중간지점이다. 최제우는 여기에서 동학포덕(布德)에 있어서 주목할 접주제(接主制)를 실시하였다. 접주제란 전국을 여러 교구로 나누어 접이라 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각지에 16개의 접소를 두고 그 지방인물을 뽑아 다음과 같이 접주로 임명하였다.

경주 : 李乃兼	경주府面 : 白士吉·姜元甫	영덕 : 吳命哲
영해 : 朴夏善	대구·청도·경기도 : 金周瑞	청하 : 李民淳
연일 : 金伊瑞	안동 : 李武仲	단양 : 閔士樺
영양 : 黃在民	영천 : 金先達	신령 : 河致旭
고성 : 成漢瑞,	울산 : 徐君孝	장기 : 崔仲羲

이 가운데 장기고을의 접주 최중희는, 경상도 유림들의 빗발치는 비난과 함께 조정의 지시를 받은 관리들로부터 신상의 위험을 느낀 최제우가 1861년 11월 경주를 떠나 전라도 남원 교통산 은적암에 피신하여 납접지도부 결성을 도모하고 1962년 봄 경주로 돌아올 때까지 동행하여 시종과 심부름을 도맡았던 최제우 측근의 인물이었다.

초기에는 최제우의 고향인 경주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내의 포교가 크게 성공적이었다. 경상도는 물론 전라·충청·경기에 이르는 광범위한 포교를 전개하여 철종 14년(1863)에 신도수가 3천을 넘었다.

최제우는 흥해에서 영천 신령을 거쳐 이듬해(1863) 3월에 용담정에 돌아오자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전국의 접주들을 모아 용담정에서 7월 초순부터 한 달 가까이 동학사상과 교리, 접(接)의 조직과 운영방법 등 전반적인 것을 교육하였다. 동학의 전파는 파죽지세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반봉건성을 띤 동학이 점차 민중의 지지를 받게 되자 그 유행을 위협시킨 조정은 이를 흑세무민(惑世誣民)의 사교라 규정하여, 1863년 12월에 교조 최제우를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최제우는 이듬해 대구에서 흑세무민(惑世誣民) 좌도난정(左道亂正)의 죄로 3월 10일 대구 남문 관덕정 뜰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면서 교세가 일시에 위축되어갔다.

이렇듯 동학을 씨 뿌려 싹 트이고 건실하게 창도한 이가 수운이라면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열매를 맺게 한 이가 바로 2대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이다. 해월이 성장한 유년기와 생업과 가족을 부양한 청년기, 동학에 입도하여 남다른 수련

끝에 천어(天語)를 받아 신실한 종교적 사상적 깊이를 더한 종교적 결실기를 이룰 수 있었던 지역이 바로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와 마북리였다.

(1) 최시형의 삶

동학 제2세 교조로 해월은 ‘최 보따리’라는 별명이 있듯이 동학을 박해하는 관가의 지목을 피해 산간벽지를 누비며 일생을 피신생활로 일관하면서 지하포교에 전념했다. 이러한 그의 헌신적인 포교활동과 교단정비를 통해 동학은 급성장하여 온건한 방법으로 동학의 합법화 시도하여 교조신원운동을 통하여 교세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 신광면 기일리 올금당 한지공장 옛터

라 최대의 농민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하였다.

순조 27년(1827) 3월 21일 경주 황오리에서 아버지 최종수(宗秀)와 어머니 월성 배씨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났으며 처음 이름은 경상(慶翔)이고 후에 時亨으로 고쳤다.

5세 때 어머니를, 12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남의 집 머슴살이 등으로 생활하였는데 해월이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마북리 금등골(琴登谷, 劍嶺谷, 劍谷, 원명은 금등곡(琴登谷)이었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검등곡으로 또는 검악(劍岳)이라 불렀다)로 처음 온 것은 동학에 입도하기 8년 전이다. 원래 마북리의 남쪽 마을 터일[基日里]은 해월이 어릴 적부터 청년기까지 성장한 곳이며 이 터일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올금당이란 자연부락이 있는데 해월은 이곳의 한지 공장에서 17세때부터 19세까지 약 2년간 직공으로 생활하기도 하였다.

해월은 터일에서 결혼을 한 후 처가가 있는 흥해 매산동에서 한동안 농사를 주업으로 생활을 하였으나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28세에 자신이 성장하였던 터일의 오른쪽 마을 마북리로 이사를 하였다. 이 마북리에는 대략 6년 동안 거주하면서 지방 사람들의 천거로 집강(執綱, 오늘날의 면장이나 이장)이라는 소임을 맡았다. 재임하는 6년 동안 주민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좋은 일은 표창하는 등 공덕이 많아 마을 사람들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워 공로를 칭송하였다고 하나 그 흔적은 찾을 길 없다. 그러나 마북리에서의 생활이 여전히 형편이 어렵게 되자 이곳에서 10여 리 정도 더 산 쪽으로

들어간 깊은 계곡의 검곡(劍谷)에 정착하여 화전민 생활을 하였다.

해월이 검곡에서 은거 중 수운에 대한 소문을 듣고 90리 길을 걸어 용담정을 찾아 1861년(철종 12)에 입도하고 한 달에 2~3차례로 용담을 찾아 도를 닦고 이치를 익혔다.

1862년 박해를 피해 수운을 흥해읍 매산리(梅山里) 매곡(梅谷)에 사는 손봉조(孫鳳祚)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고 포교활동과 조직 정비에 힘을 쏟았다(이때 최초의 교단 조직인 접주제를 체계화함).

이듬해 7월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되어 모든 접주의 위에 있게 하고, 道號는 海月堂으로 동학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8월14일 수운으로부터 2대 교주로 도통을 전수받게 된다.

이 때 수운은 『수심정기(守心正氣)』라는 네 글자를 써서 해월에게 주며 신조로 삼게 하였고 『龍潭水流四海源(용담수류사해원, 용담에 물이 흐르니 사해바다의 근원이요) 劍岳人在一片心(검악인재일편심=검악에 사람이 있으니 일편심이라)』라고 쓰게 하고 일반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도통전수식(道通傳授式)을 행하게 하였다.

1863년 12월 최제우가 체포되자 관헌들의 눈을 피해 옥바라지하다가 ‘고비원주(高飛遠走, 높이 날아 멀리 가라)’는 밀지를 받고 도피 생활하였고 수운 처형 이후에는 수운의 가족을 돌보며 교단조직 재건에 힘썼다. 이런 와중에서도 검동골은 해월의 정신적인 고향으로 각종 회합과 설교가 이곳에서 행해졌다.

1871년 교조의 신원운동(伸冤運動)을 빌미로 이필제(李弼濟)가 영해(寧海)에서 민란을 일으킴으로써 탄압이 강화되자 다시 지하로 잠적하였다.

그러나 은둔만 한 것이 아니라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東經大全)》을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에서 포교용 가사집인 《용담유사(龍潭遺詞)》를 충청도 단양군 샘골에서 간행하여 교리를 정비하였고 육임제(六任制, 教長·教授·都執·執綱·大正·中正)를 정하여 교단을 정비하고 교세를 확장해 나가서 정부를 상대로 교조신원의 정당성과 신도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교조신원운동을 벌여 전라도 삼례집회, 서울 복합상소, 충청도 보은집회에서 2만여 명을 동원하는 조직력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1894년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은 공주 우금치 전투를 끝으로 일본군에게 무자비하게 진압되면서 해월은 다시 평안도, 함경도 등지로 피신하였다가 1898년 원주 송골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7월 21일 좌포정(현 종로구 묘동 단성사 뒤)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시구문 밖에 버려진 해월의 시신을 제자들이 은밀히 수습하여 몇 번의 이장 끝에 1900년 경기도 광주군(현 여주군) 금사면 주록리 천덕산에 길고 긴 혁명가의 고단한 몸을 누였다.

1897년 3대 교주로 손병희(孫秉熙)에게 도통이 전수된 동학은 일제의 압력과 친일파의 회유를 단칼에 베어내고 천도교(天道敎)로 개명하였다.

(2) 최시형의 사상

해월의 사교의 저변에는 사인여천(事人如天, 사람을 한울처럼 대우하고 섬기라는 뜻)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귀천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상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한울을 키워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동학이 기본이라는 양천주설(養天主說)로 체계화하고, 우(愚)·묵(默)·놀(訥)을 강조하여(새 세상이 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니 인위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비폭력 무저항의 사상을 강조하였다.

민중층에 속한 최시형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유교적 사유체계의 영향을 적게 받았기에 비판적 지식인들에 비해 이러한 깨달음이 용이했던 것이다.(뒷날 최시형은 자신의 민중적 생활기반을 토대로, 2대 교주로서 자신의 가르침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과 결합하여 보여주게 된다.

즉, 최제우가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현실인식과 비판능력에, 민중으로서 최시형이 가지고 있던 구체적이고 엷매이지 않은 건실한 지도력이 결합되면서 동학은 새로운 전개국면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입도 당시 주목받지 못했던 최시형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 그리고 학문적 배경이 별로 없는 민중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실한 수련생활로 점차 동학 내에서 모범적인 제자로 부각되었고, 최제우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해월을 2대 교주로 선택한 수운의 혜안은 동학을 면면이 이어지게 하였다.

우리나라 정치, 사회, 종교와 사상사에 큰 획을 그은 수운과 해월의 족적은 흥해읍 매산리와 신광면 기일리, 마북리 등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점으로 흥해 매곡리와 신광 마북리는 동학의 교조(敎祖)와 제2대 교주가 몸을 피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동학포교책의 모체가 되는 접주제를 구상 실시함으로써 동학사의 중요지역과 중요시기가 되는 뜻 깊은 지역이 되고 있다.



● 처형 직전의 해월 최시형

(동학은 조선후기에서 서술해야 하나 다른 종교와의 상호 비교를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제강점기에서 서술하였음)

3) 대중교(大倮敎)

나철(羅喆)과 등은 한국이 일제에 의해 반식민지화된 근본적 원인이 사대주의사상에 있다고 단정하고, 한국의 독립은 몇 사람의 정객이나 지사·열사에 의한 대일 민간외교 또는 매국노 암살 등으로는 이루기 어렵고, 오로지 거족적으로 대일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사상적 구심체, 즉 주체적인 자주독립사상이 있어야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1908년 말 일본에서 귀국하여 한배검에게 보국안민(輔國安民)·제인구세(濟人救世)의 대원(大願)을 기원하고, 나아가 신교(神敎)의 중광(重光)과 종도(宗道)의 재천(再闡)으로 민족의 행운과 동양의 평화를 증진시키려는 뜻에서, 1909년 1월 15일 서울 북부 재동 취운정(翠雲亭) 아래 6간 초옥 북벽에 ‘단군대황조신위(檀君大皇祖神位)’를 모시고 단군교포명서(檀君敎佈明書)를 공포하여, 단군교를 민족종교로서 새로이 중광(重光이란 어둠에 잠겼던 단군교를 다시 밝혔다는 뜻)하였다.

나철은 포명서에서 단군을 구심점으로 한 민족종교를 창시하여 자위투쟁을 전개하여야만 국권회복을 성취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나철 등은 민족종교의 원류가 단군 조선으로부터 계승되어 부여에서 대천교(代天敎), 신라에서 송천교(崇天敎), 고구려에서 경천교(敬天敎), 발해에서 진종교(眞宗敎), 고려에서 왕검교(王儉敎)로 내려오다가 몽고의 침략으로 고려 원종 때 단절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고유의 민족 종교를 중광 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국권회복을 이루기 위해 단군교(檀君敎)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단군교는 중광 이래 일제의 강력한 무단통치체제의 과정 속에서도 교세를 확대하여 “시교(始敎) 1년 만에 교도수가 2만여 명에 달하였다”고 하는 데, 그 중 서울의 교도수가 2,748명, 지방의 교도수가 18,791명이었다. 이처럼 교도수가 확대되어가자 단군교는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1910년 7월 30일 대중교(大倮敎)라 개칭하였다. 그러나 대중교는 국내에서의 투쟁에 한계성을 통찰하고, 총본사(總本司)를 만주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중교에서는 1910년 10월 25일 북간도 삼도구(三道溝)에 지사를 설치하였고, 1911년 7월에는 나철 교주 스스로가 동지들과 함께 서울을 출발하여 강화·평양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백두산 북쪽 청파호(淸波湖)까지 답사한 다음 1914년에는 백두산 청파호에 대중교총본사(大倮敎總本司)와 함께 고경각(古經閣)을 설치하였다.

이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국 전역을 남도교구, 남만주로부터 중국 산해관까지를 서도교구, 동만주 일대와 노령의 연해주지방까지를 동도교구, 북만주 일대를 북도교

구, 중국과 일본 그리고 구미지역을 외도교구(外道敎區) 등 5교구를 설정하여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각지에 교단조직을 설립, 포교활동과 민족교육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전쟁과 독립운동을 추진해 나아갔다. 당시 각 본사(本司)의 책임자를 보면, 동도본사(북간도 왕청현汪淸縣)의 독립군기지) 서일(徐一), 서도본사(上海) 이동녕(李東寧)·신규식(申圭植), 북도본사(노령 巢鶴嶺) 이상설(李相高), 남도본사(서울) 강우(姜虞)이었다.

대종교는 총본사를 만주로 이전한 이듬해인 1915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가 대종교를 종교를 가장한 민족독립단체로 불법화함에 의해 12월 21일자로 강제 해산당하고 말았다. 나철은 일제의 탄압조치에 대항하며 금압해소에 전력을 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해 만주에서 귀국하고 다음해 1916년 8월 15일 일제의 폭정에 통분하여 구월산 삼성사(三聖祠)에 참배한 후 유서를 남기고 그곳에서 자결 순교하였다.

교주가 사망하자 제 2세 교주 김교헌(金敎憲)은 만주로 망명하여 종리(宗理)와 교사(敎史)의 연구·편찬(神檀民史와 神檀實記), 시교당(施教堂)의 확대 등을 통하여 포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로써 민족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김교헌은 1922~1923년 2년 동안 46개소의 시교당을 설치하였는데 지역별로 보면, 만주지역이 34개소, 한국이 6개소, 노령지역이 3개소, 중국 본토가 3개소였다.

1920년 일본군의 만주출병으로 인하여 대종교인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대종교는 이에 대응하여 독립전쟁과 독립운동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이는 김교헌교주의 노력에 힘입은 바 컸다. 1921년에는 서일, 1922년에는 신규식이 사망하여 이로 인해 김교헌은 크게 상심하던 중 1923년 11월에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 윤세복(尹世復)이 제 3세 교주가 되었다.

평소 대종교에 대한 신앙심과 독립정신이 뛰어난 윤세복은 1926년 12월에 동삼성(東三省) 당국으로부터 대종교 포교금지령까지 내려져 큰 타격을 입는 등 수난 속에서도 시교당을 증설하고 1936년에는 대종교의 종립학교(宗立學校)인 대종학원(大宗學園)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포교활동과 함께 독립운동에 힘을 기울였으며, 광복 후 1946년 2월 귀국과 함께 대종교총본사를 서울로 옮겼다.

우리 고장의 대종교를 보면, 옹희 연간에 전국적으로 교세가 떨칠 때 교방원(敎坊院)이라 하여 1군단위로 설치하였는데, 장기·연일·흥해·청하·기계 등지에서 교방원이 있어 그 신도 수천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모(安某)씨가 지도하였던 청하의 교세가 가장 컸다 하며, 그는 후에 송라면 대전리에 이거하여, 3.1운동 당시 대전리에서 다수의 애국 의사를 배출하게 되는데, 대종교의 민족독립운동정신과 그의 영향력이 컸음을 말해주고 있다.

4) 기독교(개신교)

우리나라에서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885년(고종 22)경부터이다. 1885년 우리나라가 구미제국과 수교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문호를 개방하여 외국인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입국하게 되어, 개신교는 그 포교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1885년 미국 북장로(北長老)교회의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미국 감리(監理)교회의 선교사 아펜젤러(H. G. Appenzella)가 인천에 상륙하면서부터 주로 미국계 신교의 각 교파에 속하는 많은 선교사가 입국 포교하였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미국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교회양식을 본받게 되었으며, 개신교는 정식수교를 통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확고한 선교정책에 따라 포교되었으므로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 개신교는 합병 후 일제의 탄압으로 수난을 받기 시작하였다. 신민회와 교회를 망라한 서북지방의 민족세력을 발본색원하려 했던 소위 안악사건(安岳事件), 데라우치총독(寺內總督)암살을 음모했다 하여 서북지방의 기독교인들을 대거 검거한 ‘105인 사건’ 등이 그 첫 조짐이었다.

1915년에 와서 총독부는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하여 많은 기독교계 학교의 교육을 통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일제의 무단통치에도 위축되지 않고 1919년 3.1운동에 대거 참여하여 민족적 저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당국은 수많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직자와 교인을 살해하였다.

한국의 기독교는 3.1운동을 통하여 민족화·민중화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1운동은 당시의 단순한 항일운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평등·정의의 성서적 이념을 통하여 후일의 역사에도 계속하여 교훈과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지표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국어운동, 독립자금조달운동, 교육계몽 및 농촌운동 등을 폭넓게 전개하였다.

일제는 1935년경부터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강요함으로써 한국 기독교에 최대의 멩에를 씌웠다.

그러나 주기철(朱基澈)목사를 비롯한 여러 거부자들이 나와 이에 항거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적 여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근대화와 항일운동에 앞장서서 종교적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고장에서도 전개되어 가장 먼저 구한말 1905년에 흥해교회가 이춘옥·김균옥·김성옥·이기우 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어 1906년에 대도교회, 1907년에 괴동교회·조사리교회·화봉교회, 1908년에 포항교회·발산교회·대곡교회,

1909년에 송라침례교회·계원침례교회, 1910년에 화진침례교회가 설립되었다. 이 가운데 흥해교회와 포항 중심지에 설립된 두 교회의 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흥해교회(興海教會)

1905년 5월 1일 이춘옥·김균옥·김성옥(김상현) 등이 대구합동 공의회 맹의와(孟義窩, 서양 선교사)와 선교사로부터 파송 받은 이기우에게서 복음을 받아 김균옥 집에서 첫 예배를 가졌으며, 당시 초대 교육자는 서성오였다.

1908년 2월에 약성동에 초가 3칸을 구입하고 벽을 헐어 예배당으로 사용하였으며, 초대 영수로 이춘옥이 피선되었다. 1910년 2대 영수로 최기영이 피선되고, 1912년 3월 중성1동으로 교회를 이전하여 김문여전도사가 2년간 시무하고, 1914년 3월 중성동 소재 대지 250평에 40평 목조건물로 교회를 신축하여 금석문 전도사가 2년간 시무하였다.

1916년 2월 박문찬 목사가 부임하여 9년간 시무하게 되고, 1917년 5월에 교회 부설로 사립명신학교를 설립하였다(설립자 : 편도현). 1920년 3월 김만성 전도사가 부임하고, 1922년 김대현, 송문수가 1926년에 김호용이 장로·장립이 되었다.

1926년 3월 대폭풍우로 교회가 완전 붕괴되어, 동년 5월에 학성동(현 위치) 145번지로 이전하여 대지 400여평에 목조건물 50평의 교회를 신축하여, 박영조 목사가 10년간 시무하게 되었다.

1936년 건축위원회를 결성하여(위원장 : 송문수) 교회를 70평의 현대식 시멘트콘크리트 건물로 개축하였다. 현재의 교회 명칭은 흥해중앙교회 이다.

(2) 대도교회(大島教會)

포항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1904년 봄 미국인 선교사 맹의와(孟義窩)와 조사(助師, 원래 어학을 가르치고, 선교사를 수행하며 자연히 선교사의 교회일 처리까지 관여하는 안수받지 않은 목사격임) 김병호(金炳鎬)의 전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때 라마교(羅馬敎)서적을 다년간 연구하던 최경언(崔景彦)·김란수(金蘭洙)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귀주(歸主)하자 정일찬(鄭日贊)·공시진(孔時振)·윤기효(尹基孝)·김병수(金炳洙) 등이 잇따라 믿게 되어 서숙(書塾)에서 임시로 집회하였다.

이후 1906년 초가 삼칸을 매수하여 예배당을 마련함으로써 대도교회가 설립되었다. 당시 설립자 맹의와와 조사 서성오 및 집사 김란수가 사무를 시작하였다.

이어 교세가 확장되자 1919년에 기와집 6칸을 신축하여 예배를 보다가 1945년 광복을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대도교회는 처음 대도동 511번지에서 466번지의 3으로 옮겨다가 다시 426번지로 옮겨(1970)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포항교회()

1905년 안의와(安義窩, 아담스, James E Adams)목사와 서성오·김상오가 우리 고장에 와서 전도한 후 1906년 맹의와 선교사가 포항지방 담당 순회선교사로 왕래하면서 포항지역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1908년 1월 5일 포항교회를 조직하여 중앙동 451번지에 초가 3칸을 구입하고 교회당을 설치한 것이 오늘날 포항제일교회의 전신이 된 것이다. 당시 당회장 맹의와목사, 조사 황경선(黃敬善)·김순녀(金順女), 영수(領袖:교회의 대표자로서) 선교사 부재시에 교회의 제반 일을 총괄했던 안수 받지 않은 장로격임) 이찬유(李贊裕), 집사 남문오(南文五)가 시무하였다. 이때 통영에서 온 김상오가 개척활동에 열성을 다하였다. 1910년 초가 5칸을 구입하여 예배당을 확장하였다.

1911년에는 포항교회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사립영흥학교를 설립하고, 황경선조사를 파송하여 칠포교회를 개척하였다.

1918년에 김병호(金炳鎬)목사가 부임하고, 최경성(崔景成)이 장로가 되어 당회를 조직하였다.

1919년 교인들이 3.1운동에 참여하여 포항의 3.1운동을 주도하였다(본 시사 제 2장 4절의 3.1운동 참조바람). 모든 여건이 어려웠던 일제의 탄압 하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한 것은 사립영흥학교를 설립하여 2세 교육을 주도한 것과 함께 포항교회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포항사의 햇불로서, 포항정신의 정수(精髓)로서 포항인의 자랑과 긍지가 되어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1920년 포항교회 부인전도회가 전도활동 뿐만 아니라 자체 기부금과 연극회 등을 통해 사립영흥학교 기금조성에 힘을 쏟았고, 포항기독교 청년회는 야학 지원과 금주운동에 열성이었다.

그 후 1933년 2층 벽돌 건물로 190평의 교회당을 신축하여 교세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1935년 이후 노골화된 일제의 신사참배강요로 각 지방의 기독교 학교가 자진 폐교되거나 일제의 강압으로 폐교되는 수난기에 포항교회는 1937년 사립영흥학교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폐교의 위기를 극복하였다. 1944년 성결교회와 합동한 후 광복을 맞았다.

일제강점기에도 영일군의 각 고을에 많은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교회의 현황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지방명	교회명	설립연도	설립자 및 최초의 신도	소재지	비 고
포항	대도교회	1906년	미국인 선교사 孟義窩, 助師 徐聖五, 執事 김난수	대도동 426	1904년 맹의와와 조사 金炳鎬의 전도에서 비롯
	포항교회	1908년	맹의와, 조사 黃敬善, 金順女, 領袖 李贊裕, 집사 南文五	중앙동 451	1905년 金相五가 신주(信主) 전도함
	포항성결교회	1932년	吳台相 전도사와 18명의 신도로 창설	1937년 죽도동에 24평의 교회신축 이전	양이록·유도택·박장이 전도사 표교에 전력
구룡포	구룡포교회	1925년	박덕일 목사·이억조·이부갑·김기수	구룡포리 463	
흥해	흥해교회	1905년	맹의와·조사 서성오·이춘옥·김균옥·김성옥·이기우	학성리 145	현흥해중앙교회와 흥해제일교회 전신
	철포교회	1911년	맹의와·황경선·김홍규·김필오·영수 장원식	철포리 570	1905년 김필오가 신주 전도함
연일	괴동교회	1907년	맹의와·서성오, 설립자 박군현, 영수 박문찬, 집사 박천필	괴동동	초명은 장흥교회, 현재는 대승교회
	중명교회	1913년	윤감찰이 중간 1동 540번지에 세움	중명2동 633	1916년에 중명으로 옮김
	연일교회	1920년	이상기 장로·송만현·영수 이영수·박영곤·송영수	생지동 189	
	효자교회	1921년	역대 長案 백화기·조동하·김창복·김원찬·이영수·정효준	효자동 462	
신광	신광교회	1936년	李春仲 목사 전도	토성동 480~3	
청하	청하교회	1914년	吳用干·정우용 외 5인	덕성리 255~3	현 청하제1교회
	월포침례교회	1915년	서옥이	월포리 245	
	유계교회	1917년	李相浩	유계리 466	
	동아기독교회	1921년	역대 장안 金龍洙·金相浩·黃聖振	덕천리	현 청하침례교회
	청진교회	1941년	집사 김분선, 정임순	청진리 307	
송라	조사리교회	1907년	허담	조사리 58~2	
	송라침례교회	1909년	정영길·이종순	광천2리 69	
	화진침례교회	1910년	오요한	화진리 32~1	
	대전리교회	1913년	李翊鎬 설립, 초대교인 안덕환·안천중·안치중·김진수	대전리 318	
죽장	죽장교회	1917년	임우학	입암리 858~175	
	상옥교회	1919년	오기주·김창호·정진술·	상옥리 1156	
	하사교회	1921년	박재관	하사리 4	
등해	발산교회	1908년	맹의와·박천필	발산1리 368	
	제일침례교회	1916년	강석주	임곡2리 495~3	
지행(현·장기)	계원침례교회	1909년	평신도 성주환 설립	계원2리	
	신계침례교회	1912년	초대목사 제영기	신계리	
	방산교회	1912년	안의와·금석호·오상문·윤재근	방산리	장기교회의 전신
	장기교회	1915년	영수 윤재근	읍내리 108~1	
대보	대보교회	1923년		대보리 859~10	
	대동배교회	1934년		대보리 271	
기계	화봉교회	1907년	윤하곤 전도, 황보덕신家 창립 예배	화봉동	
	대곡교회	1908년	맹의와·서성오, 영수 鄭雲浩, 집사 鄭民朝	대곡리	기북교회(용기동111)의 전신
	성법교회	1913년	맹의와·김순녀·박복상·권상용	성법리 787	
	구지교회	1926년	안두화 선교사, 정중윤 전도사	구지동	
	기계교회	1932년	박달만(1929 박만달家 첫예배)	현내동 473~2	현 기계제일교회
	사산교회	1927년	이장영·시기석	내단 1리	현 내단교회전신

5) 보천교(普天教)

보천교는 증산교(甞山敎) 교조 강증산(姜甞山, 이름은 一淳)의 제자인 차경석(東京石)이 강증산 사후에 독안(獨案)하여 창도한 교파이다. 1904년 증산이 사망하자 증산교단은 분열되었다. 유·불·선은 물론 동학·서학 및 기타 종교의 장점만을 취해 만들어진 교리자체에 대해 제각기 강조되는 부분적 해설과 이견(異見)이 전통전수와 교권에 관한 이해관계와 얽히어 결국 태을교(太乙敎)·보천교·미륵불교(徐白一)·증산선불교(甞山仙佛敎)·증산대(大)불교·보화교(普化敎)·용화교(龍華敎)·태극교·선교·순천교(順天敎) 등 50여 교파의 분립을 초래하였다.

그 중에도 증산의 2대 제자인 차경석은 증산을 구천상제(九天上帝)로 받들어 보천교를 세우고 김형렬(金亨烈)은 증산을 미륵불로 만들어 미륵불교를 창시하였다. 전국 13도에 각도 교감사(各道敎監司)를 두고 전라도 정읍에 그 본부를 두어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

영일군 이 고장에는 1914년 보천교 본부로부터 교(敎)직위 6음(六音)이란 수교도(首敎徒) 손내범(孫內範)이 청하포교사가 되어 청하·송라 양면을 그 교구로 삼고, 6음직위의 이윤약(李允若)을 흥해포교사로 삼아 흥해·곡강·달전·신광 등을 분담하고, 6음 장원식(張源植)은 연일포교사로 연일·대송·오천 등을 맡고, 宋某는 장기포교사가 되어 장기·봉산·창주를 분담하고, 김해수(金海水)는 기계포교사가 되어 기계·죽장 등을 분담하여 포교에 진력함으로써 한 때 그 세를 떨치게 되었다.

차경석의 사후 일제로부터 흑세무민(惑世誣民)의 혐의로 해산 당하였다가 해방 후 그 아들이 교를 부활하였다고 한다.

6) 포항신사(浦項神社)

신사참배의 강요는 일제가 1919년 7월에 ‘조선통치상 가장 긴요한 일’로서 조선신사를 설립하고 1935년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이라 개칭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서 그들의 소위 신도를 한국지배의 도구로 삼아온 것이다.

영일군에서는 1923년 포항신사가 창립되면서부터 각 면에 점차 신사가 세워지게 되었다.

1922년 11월 24일 포항신사 건립을 당국에 출원하면서 포항의 일본인들은 그 설립 이유로 ‘포항면은 경북 동해안과 영일만의 중심부로서 우수한 항만이고 해로연락의 요충지여서 1904년 이래 일본인 거주자가 날로 증가하여 1922년 말 현재 434호, 1,811명(남 : 1,036명, 여 : 775명)에 이르게 되었다.

1917년 포항이 지정면이 된 후 농어상업(農漁商業)에 상당한 발전을 보게 되었으나 일본제국 신민이 숭배봉사 할 신사가 없고, 특히 한국식민지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상당수가 영주정착하지 못하는 심적인 동요로 존황경신(尊皇敬神)의 정신이 박약한 경향이 있어 오던 차 이제 다년간 면민다수의 열망으로 포항신사를 창건하여 일반 민심을 안전케 하였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포항신사는 1923년 3월 5일 건립의 인가를 얻어 기부금모집에 착수하는 한편 신전 신축공사를 착수하여 같은 해 9월 30일 준공을 보게 되었다.

포항신사 자리는 포항면 포항동 926번지이고, 모시는 신은 천조황대신(天照皇大神, 皇國의 祖神), 대물주명(大物主命, 해상의 안전을 관장하는 신), 창도령명(倉稻靈命, 농수업을 번영 보호하는 신)이다.

초대 신승경자(神崇敬者) 총대로서 포항의 실력자 나까다니 다께사부로(中谷竹三郎)를 위시한 일본인 4명이 추대되었으며, 승경자는 한국인 1,200호, 일본인 600여 호가 매일 참배하였고, 특히 1일과 15일 양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배자가 이어졌다 한다. 포항신사가 위치한 곳은 해방 후 포항중앙교회로 바뀌었다가 현재 덕수천 주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3. 민속

민속이란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백성들의 습관과 풍속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신앙과 놀이를 포함한다.

한국의 민간신앙은 제례(祭禮)의식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속신앙, 곧 굿이니 산신제·풍어제 등 동제(洞祭)와 같은 것이고, 후자는 점복(占卜)·예언이나 풍수참위(風水讖緯)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민간신앙은 대체로 세시풍속과 관련된 민속인 경우가 많다.

한국 민간신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오늘의 무속신앙은 고대 원시신앙의 흔적이다. 《삼국지(三國志)》〈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의하면 고대 한국의 조상들은 추수가 끝난 10월이면 국중(國中)대회로서 제천행사를 가져 온 백성들이 밤·낮으로 먹고 마시며 춤추고 노래하였다 한다.

이 제천행사들은 신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화목과 단합의 다짐이었고, 내일의 노동에 대한 활력소였고, 심리적인 '카타르시스' 작용이었다.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동예의 무천(舞天), 마한의 소도(蘇塗)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고대제외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부락공동제, 개인의 제재초복(除災招福)을

위한 무당굿, 혼합종교 형태의 무속신앙 등의 몇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어 일제시대에 와서는 식민생활의 울분을 토로하고 민족의 결속을 다짐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하나의 기능적 역할을 한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 동제(洞祭)

촌락의 조상신 혹은 수호신(골매기, 神木 등)에게 풍양(豊穰)과 제액(除厄)을 청원하는 부락 전체의 공동축제인 동제는 제와 굿으로 개념할 수 있는 이중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한밤중에 행하는 제사자체는 비의적(秘儀的) 성격의 부분으로 참여자는 지명된 제관이며, 제의(祭儀)의 진행과정이나 제장(祭場)에는 다른 성원들의 참여를 금기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동제에서 제는 유교적 제사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고 동제 전후에 개최되는 동회(洞會)는 촌락의 자치 회의로서 촌락성원 공동의 관행으로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동제의 주요 기능은 신성(神聖)기간의 설정과 결속의 기능, 정치적 기능, 축제의 기능, 예술적 기능을 들 수 있다.

신성기간의 설정은 외부인의 출입금지, 임산부의 일시적 출타 강요, 금줄 및 금토(禁土)의 설치, 흥사시 제의 연기, 제수(祭需)마련의 정성, 제관 및 주민의 근신 등 동제를 전후한 일정기간의 주민의 행태에서 구체화된다. 이는 촌락의 신에게 정성을 드리는 표시이며, 일상의 세속생활에서 해이 되었던 상호 연대감을 그들의 수호신에게 보여주어, 마을의 평안과 생산의 풍요를 누리게 해달라는 뜻이다.

이러한 동제가 마을의 주민을 결속시키는 계기가 됨은 당연한 일이다. 마을이라는 자연적 공동체에서는 전통적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 단합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특히 농어촌의 생산 활동은 인간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의 장애가 따르기에 신에게 주민의 결속을 기원하기도 한다.

주민 결속의 기능은 제의의 공동주관에서 뿐만 아니라, 제의 후의 음복(飮福)·놀이·제의 전후에 열리는 동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음복은 주민 대다수가 골고루 나누어 먹음으로써 제신의 덕을 고루 받자는 것이며, 제신을 중심으로 유대감을 굳히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동회는 동제 전에 행해지는 경우 제사에 필요한 경비의 염출, 제사준비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이장의 선출, 임금결정, 전년의 경비결산 등을 처리하고, 동제 후에 행해질 경우는 음복을 하고 그 밖의 동사(洞事)를 협의한다. 그리고 동제시에 벌어지는 오신(娛神)행사에서 축제의 기능과 예술적인 기능을 엿볼 수도 있다.

오신행사로는 농악이나 별신굿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놀이에서 잔치 분위기를 만끽하고 탈춤이나 춤, 노래의 어울림 속에서 종합예술로서의 서민적 삶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포항지역에서도 예로부터 부락마다 동제를 지내왔으나 미신타파는 명목에 밀려 동제는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설사 잔존한다 하더라도 노년층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어 전체 동민행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제시대 그 어려운 시기에도 전국 마을 과반수 이상 이 동제를 지내 왔고, 조상의 얼과 향토사랑에 의한 동민의 결속으로 일제의 강압통치를 극복하고자 새로이 동제를 시작한 마을이 많았다는 사실은 일제가 한국의 민속을 무속으로 규정한 문화정책의 저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포항의 동제 가운데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성격을 지닌 포항사당제와 두호동의 천제당제를 살펴본다.

(1) 포항사당제()

포항사당에 관한 근거문서로 1887년(고종 24) 7월에 작성되고 1900년대에 들어와서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대흥동농청계안(大興洞農廳稷案)’이 현존하고 있다.(대흥동농청계안에 대한 것은 조선후기 수취제도와 사회경제생활의 농수산업조 참조 바람)

조선후기 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항사당이 일찍 건립되어 포항동민의 제당이 되었을 것이나 현재 남아 있는 대흥농청계의 기록으로는 1914년 3월 포항동동진(浦項洞東鎭), 포항동서진(浦項洞西鎭), 원여천동진(元余川洞鎭), 원신흥동진(元新興洞鎭) 4진을 결합하여 초대 통장(統長)에 대흥농청의 김성우(金聖雨)를 추대하여 매년 춘추향제를 봉사하였다.

일제가 1937년 10월 11일 죽림산 서남편에 위치한 사당 부근에 의도적으로 도축장을 설치함에 따라 땅집산(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철길 서편 입구 산)에 이전 건립하였다가 韓某라는 정신장애자가 무단 침입하여 대변을 보는 등 부정하게 되어 다시 갈산(葛山, 현 수도산) 내 덕수동 산 4의 9번지에 신축 이전하였다.

광복 후 1945년과 1969년에 중수하였다가, 국고보조의 비문화재 보수비 30만원으로 덕수동 산 4의 8(4反1 6무보)에 시 직영으로 이전중수를 착공하여 1970년 12월 18일 준공하여 1971년 1월 28일 신축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당의 유지 관리 및 춘추향제(봄 : 3월 3일, 가을 : 9월 9일)의 재원은 동제답(洞祭畓, 우현동 240의 1번지, 630평)과 독지가의 성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포항사당제는 포항중심지역의 동제로서 어떻게 보면 포항 전체를 상징하는 포항시제(浦項市祭)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우리 고장 농민들이 자발적인 자치규약으로서 계안을 작성하여 농사에 힘쓰고 상부상조하는 대흥농청계를 조직하게된 것은 이 고장 농민의 발전을 위한 큰 자취가 아닐 수 없으며, 나아가 포항사당을 설치하여 포항주민의 행사로 승화시켜 포항

의 번영과 주민의 결속을 도모한 것은 포항사의 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포항사당제는 일제의 한민족 말살정책 앞에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으며 광복과 6.25 이후에는 포항의 복구와 발전을 위한 포항주민의 결속행사가 되었다고 한다(광복 후 민선시장 시에는 시장이 제관으로 참석하고 포항의 유력 인사들과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포항동제의 대표적인 포항사당제가 근래에 와서는 설치된 지역의 동제적인 성격은 고사하고 일개 대흥농청계 행사로 전락하고만 느낌이다. 그러나 뜻있는 지방 인사들이 대흥농청계를 이어받아 그동안 그 명맥을 보존하여 조상이 행한 계 결성의 취지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포항사당에 모신 4진신(四鎭神)의 영역을 보면, 포항동의 동진신(東鎭神)이 동빈동을, 서진신(西鎭神)이 남빈과 용흥동을, 원여천동진신(元余川洞鎭神)이 덕수·우현·여천·중앙·상원동을, 원신흥동진신(元新興洞鎭神)이 대흥과 신흥동을 그 영역으로 하고 있다.

(2) 두호동의 천제당제()

우리 고장의 여러 동제와는 성격이 좀 다른 동제의 하나로 천제당제(天帝堂祭)를 들 수 있다. 조선후기부터 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늘날 두호동의 여러 동제는 옛 고을의 명칭에 따라 설마리·이너리·두무치·관주당·창필리 동제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두무치동제가 특이하다.

예로부터 두무치에는 천제당(天皇神位堂)을 비롯하여 용왕당·골목당 총각당·소머리당이 있었다가 광복전 일제 때 후자의 4당을 합쳐서 선황당(仙皇堂, 또는 골목당, 골매기당)으로 통합하여 천제당과 함께 두 제당을 형성하였다. 이후 종전과 같이 해마다 제관을 선임하고 봄과 가을 2회로 날을 받아서 풍어와 동의 안녕을 기원했는데,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수로 봄에는 돼지고기를, 가을에는 쇠고기를 썼으며, 동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는 흥해고을 원님이 직접 참여하여 지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점차 동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자 급기야 1986년 천제당을 신축하여 선황당을 합당하면서 종래 1년에 두 차례 택일하여 제사지내던 것을 가을의 제일인 음력 9월 2일을 아예 동제일로 정하였다고 한다.

천제당이 여느 동제와 다른 점은 두무치동제의 성격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당명칭과 신위명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범고을적인데 있다.

두무치 뒷산 꼭대기 2평 정도의 천제당 안에 천황후토신위(天皇后土神位)와 원두호동후토신위(元斗湖洞后土神位, 선황당의 신위를 옮겨 놓은 것) 및 6.25전쟁 후 새로 그렸다는 화상 2폭이 당을 지키고 있다.

이 같은 천황당은 선황당을 합치기 전만하더라도 범고을적·범해상적인 성격이 더 짙어서 이 고장의 어민들은 물론 영일만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의 어부와 선부(船夫)들이 순항과 풍어를 도모하기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이름난 제당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선 이외에도 큰 양곡선이 두무치 앞바다에 와서 정선하는 동안 선원들이 하선하여 꾸집한 제수를 차려놓고 순항을 빈 다음 음식을 동네에 나누어주고 항해했다고 한다. 바로 영조 7년(1731) 전국적 규모의 관창 포항창진(浦項倉鎭)이 설치된 이후 수만 석의 양곡을 실어 나르던 번창하고 생기가 돌았던 포항항과 그 중요한 해상 길목이었던 두무치에서 행해졌던 민속제천행사, 즉 천제당제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포항시 각 부락 중 동제를 지냈던 마을과 제당의 현황은 본 시사 제3권(人) 민속편을 참조바람.)

영일군 포항면 포항읍 제당의 현황

내용 동명	祭堂명칭	神位명칭	건립연대	중수연도	祭日(음력)	비고
여남동	여남제당	여남洞神	1689년	1981년	10월 1일	
	갈마제당	갈마동신	1924년	1985년	상동	
환호동	환호제당	환호동신	조선시대	1937~1988	11월 2일	
두호동	두호동천제당 (천황신위당)	天皇后土神과 元두호동후토신	1700년대	1986년	9월 2일	
	鶴田제당	后土天皇	상동	1976년	10월 2일	두호동 3통
	冠大제당	없음	상동	1967년	9월 2일과 4일 중 택일	두호동 5통
	利津里제당	후토천황	1700년대 후반	1973년	9월 2일	두호동 6통
	雪末제당	없음	상동	1967년	현재 안지냄	두호동 7통
학산동	학산제당 (학산동신 祠堂)	학산동신	1921년	1922·1979년	11월 2일	
항구동	阿湖神祠	阿湖洞神	1926년	1958·1979년	11월 2일	
덕수동	포항사당	元포항동東鎭神 元포항동西鎭神 元여천동鎭神 元신흥동鎭神	1937년	1969년	매년 춘추 2회	목적은 지방자치규약 실천
득량동	득량동제당	山神과司漢(地神)	1800년대	1963년	1월 14일	
학잠동	학잠동제당	산신과사한(지신)	1800년대	1967년	3월 2일	
해도동	해도제당	해도동 地神	조선 후기	1978년	3월 3일	현재 새마을금고주관
송도동	송도제당	송도동신	불명	1964년	1월 14일	신축이전
청림동	청림사당	없음	신라시대	1968년	10월 30일	동제 소홀했을 때 재앙 따랐음.

2) 풍어제

영일만을 에워싸고 있는 포항시는 해안선의 길이가 시 전체 경계선의 3분의 1을 넘을 만큼 긴 해안선을 끼고 있다. 이 해안지역에는 예로부터 많은 어촌을 이루어 왔고 이 어촌에서는 어로가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어 왔다. 또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하니,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항해와 어로를 할 때 발생하는 사고는 이곳 주민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겨 준다. 이 때문에 어촌에서는 자연히 항해의 안전과 풍어를 희구하게 된다. 이러한 주민의 염원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동제적인 여러 가지 제의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해안 각 어촌의 동제는 내륙지방의 동제에 비해 풍어의 목적이 더 첨가되는데 특징이 있게 된다. 해안 및 도서지방의 어촌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로서 별신제(別神祭)와 뱃고사(告祀) 그리고 뱃굿 등이 행해져 왔다.

별신제는 동해안과 남해안지역에서 예로부터 전승되어 왔으며,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제의로서 무업(巫業)을 직업으로 삼는 세습무에 의해서 행해지는 마을 공동제이다. 이 동해안 별신제는 신앙을 바탕으로 두면서도 무당의 화려한 복식과 춤, 노래 그리고 익살스러운 재담과 사설 등은 곧 어촌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훌륭한 연극이며 놀이이기도 하다.

현재 동해별신은 1985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되고, 동해별신굿의 기능보유자로 金石出(악사)과 金有善(무녀) 2명이 인정됨으로써 토속적인 제의로 그 원형이 잘 전승되고 있다. 그 제의과정과 그 내용은 본 시사 제3권(人) 민속편에서 소개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한다.

3) 놀이

이 고장의 민속놀이로는 가장 오래된 세시풍속의 풍악놀이(지신밟기, 모심기놀이, 보리타작놀이, 논매기놀이, 백중놀이, 안택놀이, 쾌지나칭칭)를 비롯해서 전국적 또는 동해안에서 행해지는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씨름, 쥐불놀이, 줄다리기, 비석차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고누, 자치기, 공기놀이, 장치기, 월월이칭칭, 지계상여놀이 등이 있었다. 이 고장에서 행해졌던 위의 여러 놀이 중 현재 소멸된 일제강점기의 장치기와 포항읍내의 줄다리기를 소개한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본 시사 제3권(人) 민속편을 참조바람).

(1) 줄다리기

줄다리기(줄당기기)는 벼(水稻)재배권에 공통적으로 분포된 연중행사이다. 줄다리기는 동남아 일대, 주로 해안과 평야지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 이의 배경은 농경·어

로를 주된 생업으로 하는 생활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놀이다. 이 놀이는 정월 대보름을 위시해서 8월 추석, 5월 단오날 또는 명절과 관계없이 수시로 갈라 승부를 겨루어 풍흥을 점치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주로 정월 대보름날에 성행 되었는데, 이는 새해 들어 처음 맞는 만월(滿月)이기 때문이다. 가득 찬 보름달은 곧 풍요다산의 상징이며 또한 월신은 곧 여신으로 생산과 깊은 관계가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를 비롯한 기록들을 보면 줄다리기에 이긴 편에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한 풍년풍어를 원하는 농어민의 생활과 깊이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줄다리기는 규모가 작을 때에는 농가의 마당이나 뜰에서도 가능하나 그 규모가 크면 넓은 들이나 모래사장, 운동장 또는 한길(큰길)을 선택하여 행하게 된다.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영일군의 각 지방에서는 지역에 따라 음력 정월 보름, 5월 5일(단오절), 7월 15일(百中節), 팔월보름(추석)날을 중심으로 1~3일간 줄다리기를 놀이가 행해졌다. 해마다 이 놀이를 하는 데는 먼저 준비과정이 필요했다. 줄다리기를 날이 다가오면 마을의 청년들은 농악을 치며 집집마다 다니면서 짚단을 거두거나 새끼줄을 거두기도 한다. 짚이나 새끼 또는 칩덩굴을 거두어 마을의 일정한 장소에 모아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동작업으로 줄을 엮는다. 이 때 마을 유지들은 중참(간식)으로 술이나 밥 등을 공급하며, 즐거운 잡담과 익살과 노래 가락이 오고 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줄은 가닥줄까지 포함하여 그 규모가 상당히 컸다. 머리 부분은 직경 1m정도, 길이는 50m 이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줄다리를 하는 당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줄을 메거나 또는 손수레나 달구지에 싣고 나와 정해진 장소에 도달하면 마을마다 농악을 잡히고 소리를 치며 응원하여 그 음향은 고을을 떠들썩하게 했다 한다.

줄머리는 두 줄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고를 만들고, 고가 합치는 부분은 줄이 풀려지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굵은 줄로 다시 동여맨다. 양편의 줄은 한쪽이 숫줄이 되면, 다른 한쪽은 암줄이 된다. 숫줄은 암줄 고 속에 넣어야 한다. 따라서 암줄의 고는 숫줄이 들어갈 만큼 커야만 한다. 곶대를 끼우면 준비는 완료되고, 다음에 상을 차리고 간단한 고사를 지낸다. 양편의 대장이 헌관(獻官)이 된다. 옛날에는 고을 수령의 지시에 의해 이방과 호방이 대장 되어 관장했다고 한다.

고사가 끝나면 농악대는 응원을 하고 장정들은 자기 편에 가서 매달린다. 징으로 시작 신호를 울리면 힘을 겨룬다. 노약자나 부녀자들은 멀찌감치 서서 구경을 하면서 응원을 보낸다. 자기편의 힘이 약한 듯하면 노약자도 부녀자들도 앞치마에 돌이나 모래를 담아 자신의 중량을 더할 만큼 승부에 집착을 갖는다.

줄다리기에 승부가 나면, 이긴 편은 줄을 매고 행진을 하고 잔치를 벌이며, 진 편은 분한 기분을 달래느라고 술과 음식으로 그날을 즐긴다.

이러한 줄다리기에 있어서 영일군지역은 길게 동해안을 끼고 있는 관계로 주로 남북을 가르는 큰 길이나 큰 공터를 이용하여 어촌과 농촌마을로 편을 갈라 대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지방마다 대대적인 줄다리기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거의 소규모적인 오락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모포줄다리기’와 ‘구진(龜津)줄다리기’가 현대문명의 와중에서도 제 모습을 오늘에 계승, 재현하여 민속놀이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현재 소멸되었으나 이 고장의 유명했던 줄다리기로는 아랫부조 시장지역과 웃부조 시장 지역의 줄다리기와, 오늘날 포항중심지역인 상리(上里)와 하리(下里)마을의 줄다리기를 꼽을 수 있다. 부조시장줄다리기는 18세기 후반 부조장의 번창으로 시작되어 1930년대 부조장의 쇠퇴로 자취를 감추었으며, 포항시내의 줄다리기도 역시 18세기 후반 포항장(연일현)과 여천장(흥해군)이 형성되면서 농민과 어민의 시합으로 발전되었다가 일제 강점기에 일인들이 여천동·중앙동·상원동·동빈동·남빈동 등 포항의 중심지를 침탈하면서부터 점차 쇠퇴하여 1930년대에 자취를 감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포항시내의 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날을 중심으로 역전 공터에서 행해지고, 상리(포항리, 대흥동·남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와 하리(여천리, 여천동과 동빈동을 중심으로 한 마을)동네의 시합으로 상리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을 상징하고, 하리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마을을 상징하여 이 시합에서 상리가 이기면 그 해 농사는 풍년이 되고, 하리가 이기면 그 해는 풍어가 약속된다고 하여 많은 관심을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上·下里 줄다리기에 상리에는 용흥·죽도·양학·대잠동 주민들과 하리에는 학산·두호·환호·여남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2) 장치기

장치기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퍼져서 행해졌던 오늘날의 필드하키나 골프와 비슷한 놀이로서 곳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수로 편을 갈라. 짱공(공, 毬)을 짱지(공채, 毬杖)로 쳐서 상대편의 문 안에 넣는 놀이이다. 장치기란 이름은 이 놀이가 서민놀이화 되면서 불리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막대기 ‘장(杖)’과 친다의 명사 ‘치기’가 붙어서 ‘장치기’로 불려진 것 같다. 장치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놀아져 왔는데 옛 문헌의 기록을 보면 그 이름은 타구(打球)·격구(擊毬)·포구(抛毬)·장구(杖毬)·봉희(棒戲) 등 여러 가지로 불려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타구, 또는 격구라고 불려 왔다.

우리나라의 장치기에 대한 최초의 기록(《고려사》권1, 태조 원년(918)9월 조)에 의하면 고려이전의 삼국시대에도 습무(習武)수단의 하나로 널리 성행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풍습과 놀이를 기록한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보면 장치기는 격구의 변형으로 신라시대부터 고려·조선시대에 성행했으며 조선중엽에는 무과시험의 한 과목이 되기도 했다. 이로써 보면 장치기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놀이의 하나로 그 역사는 꽤 길다고 하겠다. 귀족사회의 고급 유희였던 격구가 여말선초를 거쳐 점차로 일반 백성에게 보급되어 일면 ‘장치기’ 또는 ‘얼레공치기’라 하여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지만, 조선왕조시대의 극단적인 문치주의는 무를 경시하게 되어 격구는 점차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영일군 지역에서는 장치기가 동부해안 지역에서부터 서부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성행하였는데, 이 고장 특유의 지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영일만 지역은 동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왜구들의 침입이 잦았다.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은 왜구들로부터 여자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장치기를 하면서 소리를 질러 여인들을 피신케 하는 것이다. 임진왜란을 필두로 왜인이 침입할 때마다 한국 여인들만 보면 잡아가서 욕을 보이기 때문에 여인들은 토굴 속에서 숨어 살면서 왜병이 보이지 않을 때만 밖으로 나와서 생활을 하였다. 이때 젊은 남자들이 동구 밖이나 산언덕 잔디밭에서 장치기를 하다가 왜병이 나타나기만 하면 ‘울루루 울루루’소리를 쳐서 여인들을 토굴속으로 피신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장치기는 애초에 놀이로서 출발되었지만 이 고장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생활의 지혜와 방편으로까지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놀이에 쓰인 기구를 보면 짱공(공)과 땅매(공채)가 있다. 짱공은 소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등을 뿌리째 뽑으면 뿌리 중심 부분에 주먹만한 크기의 둥근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듬어서 주먹만한 공을 만들거나 아니면 쉽게는 나무를 다듬어 만들었다.

공채는 나무 공채와 대(竹)공채 두 종류가 있는데, 나무 공채는 3尺 5寸 정도의 나무 짝지(작대기)로 아래 끝부분이 공을 치기 쉽게 ‘L’자형으로 구부러진 숫가락 모양의 것을 이용하고, 대공채는 2m정도의 대나무를 접어서 접은 부분에 구멍을 만들어 공을 끼워 질 수 있게 한 후 끝 부분은 칩덩굴로 감아서 손잡이를 만들었다. 주로 나무 공채를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문은 양편에 3m정도의 넓이로 나무나 표지물을 세워 공을 문안으로 쳐서 넣거나, 공채바퀴 만큼 크기로 둥근 구덩이를 중심 깊이 20cm정도로 파서 공을 그 구덩이에 쳐서 넣도록 하였다.

인원 구성은 모개비·문지기·선봉장·공격수로 이루어졌는데, 모개비는 심판자로 연장자가 맡으며, 문지기는 수비자로 공격수보다 적게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선봉장과 공격수는 짱을 쳐서 상대편의 문에 넣는 역할을 하였다. 놀이 인원의 제한은 없었으나 10~15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다.

게임의 형식은 문의 수에 따라 두 가지로 되어 있었다. 문이 하나 있을 때는 두 편으로 갈라서 한편이 먼저 공격을 하고 다른 한편은 수비만 담당하였는데, 시간을 정해 놓고 서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여 점수를 많이 얻는 쪽이 승자가 된다. 문이 두 개 있을 때는 양편에 문을 두고 양편이 각각 수비와 공격수를 나누어 게임을 해서 어느 한편이 정해진 점수를 먼저 얻거나 정해진 시간에 많은 점수를 얻는 편이 승자가 된다. 점수는 공을 한 번 넣으면 1점이 된다. 이때 두 손을 높이 들며 ‘나회’라고 소리쳐서 기쁨을 표시했다고 한다. 단, 공을 칠 때 짱공을 손으로 잡거나 바로 차서는 안 되며 장을 치되 공이 땅에서 허공으로 떠서 사람의 키보다 높으면 반칙이 된다. 또 일정한 경기장 밖으로 공이 나가면 ‘나갔다’하고 소리를 질러 공을 중지시켰다가 다시 시작한다. 또 공채로 짱공을 굴러가는 사람은 계속 ‘울루루 울루루’ 소리를 내야 한다. 땅매로 사람을 치면 고의든 과실이든 벌점(감점 1점)을 받는다. 이 놀이의 참여자는 나무꾼에서 동네 청년, 서당학동 및 동네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었다.

장치기 놀이는 1937년(중일전쟁발발)경 이후부터 서서히 이 고장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가 한국인의 재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부터 전통적인 민속놀이를 할 정서와 여유를 잃게 된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4. 사회·문화·언론시설

1) 상수도

포항 시가는 지형상 바닷물과 민물이 교류하던 호수와 늪지대이며, 모래와 자갈의 자연매몰지이기 때문에 양질의 식수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 음료수의 해결은 항만문제 해결과 함께 오랫동안 포항주민들이 열망해오던 일이었다. 고로(古老)들의 말에 의하면 상수도시설을 갖추기 전에는 천식환자가 많고, 50세를 넘기기가 어려웠다 하는데,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수질불량에 있다는 것이다. 당시의 그와 같은 사정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동요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두막골(두메골)아가씨 포항 시집가는데,
세살박이 송아지 한 마리 팔아 모구장(모기장)·나막신·유황 가지고 가야,
시어른도 신랑도 좋아한다네.

한마디로 모기가 많고, 땅이 질고, 수질이 나쁜 고장이라는 뜻의 노래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주민의 열망은 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수차 진정하여 시급한 공사착수를 요구하기에 이르러 1920년경 대강의 계획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후 잠시 중지되었다가 다시 총 계획을 세워 1923년 11월 17일에 드디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총공사비는 24만으로 하여 8만원은 국고보조비, 16만원은 도지방비와 면비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포항면은 재정지출의 방안, 수원지선정, 수원지 축조계획, 수질조사 등 활발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수원지 제1 후보지가 신광면 호리동 용연지(龍淵池)를 선정하고 수질조사를 한 결과 양호하여 그곳에 수원지 제방을 축조할 것을 도당국과 합의를 보았으나 흥해면민들이 흥해 내평(內坪)평야의 관개수 부족 이유로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부딪혀 부득이 포기하였다. 제2 후보지로 송라면 내연산의 보경사(寶鏡寺) 계곡에 수원지를 제축(堤築)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그곳 역시 포기하였다.

결국 세 번째로 도음산(禱陰山) 밑 천곡사(泉谷寺) 학천(鶴川)계곡을 선정하여 수질조사를 한 결과 수질이 양호하고 그 밖의 제반 조건도 구비하고 있어 그곳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작된 달전면 학천동의 저수지 축조공사는 그 급수량 약 115,468㎡를 5인치 철관에 의해 송수하여 포항의 서산(西山, 일명 葛山, 이후부터 수도산으로 명명되기 시작함)고지에서 포항 전 시내에 급수하는 계획 아래 진행되어 1926년 3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5월 16일 오전 11시에 포항수도 통수식을 거행하였다.

원래 정수지(淨水池)일대의 지질이 불량하여 수목이 무성치 못하였음에 일본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뱃나무를 수차 주문하여 심었다고 한다.

이후 제1수원지의 저수량으로는 증가일로의 포항주민에게 원활한 급수를 할 수 없게 되고, 약간의 가뭄에도 식수난을 일으키게 되자, 제2수원지를 물색하게 되었다. 먼저 흥해 북천에 양질의 지하수를 발견하고 마산동(馬山洞)에 수원지를 건립키로 총독부에 인가 수속을 밟는 중에 또다시 흥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다시 오천면 인덕동 냉천에서도 오천면·대송면민들의 결사반대로 보류되었다. 이후 형산강의 수질불량을 이유로 포항의 각 기관단체에서 반대하였으나 유강동(柳江洞) 형산강 하류하상(兄山江 下流河上) 자연지하수를 제방으로 막아 전력으로 양수시설을 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1934년부터 1936년까지 포항지역의 논란거리가 결론 내려 졌다.

1936년 이곳에 제2수원지로 선정한 후 시설된 상황은 구경(口徑, 직경) 25인치, 길이 7,500m의 송수관을 매설하고 전동력(電動力) 30마력을 설치하여 1일 수송량 1,400톤을 공급하였다. 광복 후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공급수량이 부족하므로 1953년

5월 급수량을 증가하기 위한 개수(改修)공사에 착수하여 종전의 30마력 전동력을 증설하여 75마력으로 설치함으로써 송수능력은 2,000톤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2) 의료기관

(1) 양의()개업

포항에 최초로 양의로 개업한 자는 일본인 니히지마 히로시(西島弘)로서 그는 1902년 연일군 북면 상도동에 일체의 양의도구를 가지고 나타나서 개업을 희망함으로써 최익수(崔翊洙)가 가옥을 매수하고 그를 거주토록 함으로써 개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1907년경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1908년 말 일본인塚原이 내포하여 면허없이 치과의원을 개업하였는데, 당시 주민들은 의사면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줄 알고 내과·외과·소아과 환자까지 찾아갔으며, 이에 그도 만병통치의사로 자처하며 진료를 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후 정식으로 치과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아내를 두고 일본 오사카(大阪)로 건너갔는데 소식이 끊겼다고 한다.

1916년에 일본인 香川俊造·水上秀夫·山田一庵 등이 개업하고, 1919년에 일본인 梅田九助가 개업하였으나 香川과 山田 등은 포항을 떠나고, 1922년에 한국인 오연수(吳鍊洙)와 일본인 江島九芳이 내포하여 개업하게 되어 포항의 의료기관은 더욱 정비되어 갔다.

그 후 1926년 사이에 한국인 정화기(鄭華基, 포항 출신)를 비롯하여 일본인 4인이 더 개업하였으나 일본인은 수년 후 돌아갔다. 1935년 당시 우리 고장에 한국인 공의(公醫) 오연수·윤기달(尹基達)·손영학(孫永學)·최병락(崔柄洛)·정화기, 일본인 官本清一·辻哲二, 일본인 치과의 葛卷昌俊 등 모두 8명이 개업하고 있었다. 1938년에 한국인 의사 계용순(桂琿淳)이 와서 정화기 병원에서 일하였다.

그리고 산파(産婆) 간호부는 1914년부터 시작되어 한국인 문영희(文永姬)와 일본인 1명 등이 개업하였다. 1930년 10월 경동간호부회(慶東看護婦會)가 설립되어 지방인사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2) 포항도립병원

포항의 인구증가와 발전에 따른 포항도립병원의 설치요망은 1922~23년경부터 있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포항지역에 1925년에는 마진(麻疹, 홍역), 1932년에는 호열자(虎列刺, 콜레라), 1933년에는 천연두(天然痘), 1936년에는 장질부사(腸窒扶斯, 장티푸스), 1939년에는 적리병(赤痢病, 이질) 등의 전염병이 연이어 창궐하여 많

은 주민들이 희생되어 1935년 지방유지들이 당국과 교섭하고 도립병원 기성회를 조직하여 포항읍민 부담금 10만원을 적립함으로써 1939년 5월 15일 설립인가를 얻게 되었다.

주민 각출금과 도비보조금 등 총 30만원으로 1941년 3월 현 포항의료원 자리에 기공하여 동년 6월에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는데, 부지 7,000여 평, 건평 1,023평이었다.

1945년 광복 후 일본인들이 돌아가고 미군정하에 이관되어 한국인이 경영하게 되면서 명실 공히 우리 고장 주민들의 중심적 의료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3) 문화·체육

포항 지역의 문화 활동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드문 편이며 당시의 신문을 검색하여 그 편린을 짐작할 수 있다. 1923년 12월 조선여자 교육협회 순회극단의 공연이 있었고, 요즘의 불우 이웃돕기에 해당하는 한해구제 의연음악회(旱害救濟義捐音樂會)가 1925년 2월에 갑자악우회(甲子樂友會)의 연주로 있었으며, 그 해 8월에는 경북 도청에서 문화선전 영화를 포항심상학교 운동장에서 상영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본의 모범 농·어·산촌 마을 소개와 여름철 위생과 납세 권장, 근검저축 등이었다. 1932년 8월에는 조선교육회 주최 하기대학이 포항심상소학교에서 열려 지역의 지식인들의 호응을 받았고, 1933년 7월에 동아일보 포항지국에서 주관하는 영화가 영일좌(迎日座, 포항활동사진관의 전신)에서 우리 영화와 외국 영화 수편을 상영하였다.

일제에 대한 민족적 결속과 단결의 상징적 표출로 체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였다. 축구 행사는 1923년 12월 재외영일유학생회 주최로 제 1회 영일축구대회가 청년부와 소년부로 나누어서 열려 해를 거듭하였고, 영일군소년회 주최 경북소년축구대회와 영일군청년연맹 주최 경북축구대회가 1925년부터 각각 개최되었다. 특히 씨름은 노소동락의 불거리로 황소 한 마리를 상품으로 남빈정(南濱町) 광장에서 동아·조선일보 포항지국 주최로 포항각희(角戲)대회가 자주 열려 주민들을 즐겁게 하였다. 이렇게 잦은 행사로 자연스럽게 포항체육협회가 1928년 3월 16일 창립되어 박상오(朴相五) 위원장 체제로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산발적이던 각종 행사를 묶어서 포항시민대운동회를 지속적으로 열게 되었다.

4) 영일읍지 편찬

《영일읍지(迎日邑誌)》는 1929년 7월 25일 저작겸 발행자 김용제(金鎔濟)의 노력으로 흥해면 옥성동의 흥해향교 내의 정문공사(正文公司)에서 발행되었다. 이 읍지는 6권 3책으로 되어 있으며, 서술 형태는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지방지를 모방하였으며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권1 : 군(郡)연혁, 군명, 군청위치, 지세, 기후, 관적, 군지계, 구군제군총부세 및 기타, 면명, 산천, 강하, 도로 교량, 시장, 향교 현판문, 사·단·원(祠壇院), 사찰, 학교명 연혁 및 위치, 포항주재 관공서 및 기타 면연혁, 동리연혁, 이정표, 철도이수
- 권2 : 풍속풍기(風俗風紀), 고성곽(古城郭), 명소고적, 도서잡저(島嶼雜著), 천대(泉臺) 및 수(藪), 제언(堤堰) 및 보(洑), 수리조합 및 포항수도, 현대금융기관, 통신기관, 토·수산(土·水産) 및 농공산업, 토지면적 및 단보당(段步當)가격, 무역세 감시서관계, 광업구별 및 임업과 잡업, 호수 및 인구, 본군 수관성씨(受貫姓氏) 및 거주성씨, 누대기(樓臺記), 제영(題詠), 이문(異聞)
- 권3 : 상신(相臣), 도사(道師), 과목, 충의, 효행, 증직, 수직, 사환(仕宦)
- 권4 : 일사(逸士), 학행, 문원, 필원(筆苑), 유행(儒行), 자선, 독지와 위행(偉行)과 우애돈목(友愛敦睦), 효열행, 현원(賢媛)
- 권5 : 총묘(塚墓)
- 권6 : 비문, 정재각(亭齋閣), 행장(行狀), 보유(補遺)

이 읍지는 흥해·연일·장기·청하·기계·신광·죽장 등 각 군현이 1914년 3월 1일에 영일군으로 통합된 후 처음으로 편찬된 영일군지라는 것과 일제시대의 여러 가지 제약을 감내하며 이 고장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김용제 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향심으로 만들어졌다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은 전근대적인 지방지적 서술방식, 민족의 독립운동 관계 서술의 공백 및 자료의 고증미비 등이 아쉬운 점이기는 하나 당시 시대적 여건과 서술의 수준으로 보아 큰 역작으로 평가된다.

내용 중 특히 발행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포항 주재 관공서 및 기타, 면연혁, 동리연혁, 수리조합 및 포항수도, 각면의 호구 및 인구 등은 영일군사를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5) 언론

포항에 신문지국이 설치된 것은 1910년경이다. 당시 발행소를 대구에 둔 조선민보사(朝鮮民報社)는 동해안개발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住呂吉之助를 지국장으로 하여 이 고장의 지역소식보도·신문판매·광고 등 지국의 신문사업 일체를 담당케 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어서 얼마 후 부산일보가 진출하여 오랫동안 2개사가 이 고장의 언론계를 맡아 주도하였다. 그 후 경일신문(京一新聞)·조선일보(朝鮮日報)가 진출하였고, 조일신문

(朝日新聞)과 매일신문(每日新聞) 역시 통신부를 설치하였으며, 주간이지만 신흥(新興)타임스사의 본사가 설치되는 등 포항의 언론·통신은 그 규모를 갖추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활동이 전적으로 일본의 식민주의적 정책에 의해 실시되었기 때문에 언론사 본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다 하겠다.

이러한 일제의 압제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은 1927년 5월 28일~29일 영일청년회관에서 열린 제2회 경동(慶東)기자대회 관련된 기사이다. ‘회원인 기자 뿐 아니라 일반 방청객들로 운집한 가운데 사복경찰들이 곳곳에서 감시하는 가운데 정학선(鄭學先)의 장의 사회로 각 안건을 공개토의 하던 중에 ‘대중운동과 지방경찰에 관한 건’은 전부 경찰에 의해 압수 조치되었다.’(1927. 06. 03. 동아일보)는 내용이다. 이는 1925년 시대일보(時代日報)의 필화사건(筆禍事件)을 계기로 열린 함흥 기자대회의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의 기자대회 및 언론 탄압의 한 사례였다.

당시 포항에 설치된 지국과 통신부 이름은 다음과 같다. (그 長은 모두 일인)

조선민보사 포항지국	대구일보사 포항지국	부산일보사 포항지국
경서일보사 포항지국	조선신문사 포항지국	동아일보 포항지국
大阪조일신문사 포항통신부	신흥타임즈 포항지국	福岡일일신문 판매부
중앙일보사 포항지국 등		

5. 명승지

포항은 산과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천혜의 고장이다.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의 절경으로, 각 고을의 진산(鎭山)인 포항시내의 대흥산(大興山)·흥해의 도음산(禱陰山)·연일의 운제산(雲梯山)·장기의 거산(巨山, 일명 東岳山)·청하의 호학산(呼鶴山)·기계의 운주산(雲住山)·신광의 비학산(飛鶴山)·죽장의 광재산(光才山)과 동해안의 젓줄인 형산강의 하구에 형성된 삼호오도(三湖五島, 斗湖·阿湖·環湖, 竹島·海島·上島·下島·分島)와 임곡리에서 송도에 이르기까지 펼쳐진 명사(明沙) 30리의 어룡사(魚龍沙, 어링불) 등이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 같은 고장이다.

오래 전부터 이 고장을 둘러본 격암 남사고(南師古) 등의 선인들에 의해 청하의 조경대(釣鯨臺)·흥해의 임허대(臨墟臺)·장기의 호미등(虎尾嶺)·연일의 대왕암(大王巖) 등의 절경이 문장으로 남겨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연을 배경으로 연오랑·세오녀의 설화가 탄생되고, 수많은 사찰·향교·서원·서사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도 송라의 내연산과 오도(烏島)·대왕암 등의 섬·바위와 기계 서숲·연일의 자명숲·곡강의 참포(塹浦)·대동배의 구룡소(九龍沼)·장기의 배일대(拜日臺)·신광호리의 독라대(獨蘿臺)·흥안의釣峯臺) 등의 자연환경과 절경이 포항인의 특유한 기상과 심성을 북돋우어 주고 있다.

특히 최남선이 조선 10경(朝鮮 十景)으로 꼽은 장기 일출(日出)은 2000년 1월 1일 국가행사인 호미꽃 새천년 한민족해맞이축전으로 승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밖에도 흥해읍의 흥해10영(興海十詠), 기계면의 기계잡영(紀溪雜詠), 죽남(竹南:현 죽장)면의 입암(立巖)28경·노계 박인로(朴仁老)의 입암29곡·하옥(下玉)37경, 대송면의 동촌동8경·흥계(洪溪)동7경·성좌동(聖佐洞)7경, 오천읍의 문충곡(文忠谷)8경, 연일읍의 우복동(牛伏洞)8경, 청하면의 고현리8경·해월루(海月樓)8경, 장기면의 방산리(芳山里)8경·성동(城洞)8경, 포항8경등이 이고장의 명승과 경관으로 손꼽혔다.(1929년의 <<영일읍지>>)

이 가운데 포항송도해수욕장과 포항 8경 및 조선 10경, 새로 선정된 포항 12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포항송도해수욕장 개장

조선시대 소금을 많이 구웠다고 하여 염동골(鹽東谷), 또는 형산강 하구에 있어 분도(分島)라 불리었던 송도일대는 동해의 맑은 물결과 푸른 파도가 포말지고 모래사장이 일품인 명승지이다.

포항송도해수욕장은 포항 8경중의 하나로 꼽힐 만큼 경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1931년 해수욕장으로 정식 개장된 이후 이 고장 주민은 물론 전 국민의 여름 휴식처로 각광을 받아 더욱 유명해졌다.

이곳은 자연이 영일만에 베풀어 준 천혜의 선물인 두호동에서부터 송도동·동촌동·청림동·도구동을 거쳐 임곡동에 이르는 해변 모래사장, 즉 어릿불(어릿불, 魚龍沙)의 중심지로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휴양처였다.

이 해수욕장의 훌륭한 조건은 영일만이 호수같이 맑고 잔잔하며, 수온이 적당하고, 은빛의 가는 모래가 고르고 고우며, 모래사장의 폭이 넓고(70m이상) 또한 간만의 차이가 느낄 수 없는데다가 수심이 멀리까지 얕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거의 없는데 있었다.

이러한 송도해수욕장의 그 기능과 격을 높여준 것은 송림이었다. 송림이 울창한 곳은 80~90년 전만 하더라도 커다란 모래언덕에 잔솔과 어린 측백나무 등 흔히 해안지방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던 이 사빈지역을 해풍에 강한 해송과 측백나무의 울창한 수림으로 조성하게

된 것은 일본인 오우치 지로(大内治郎)의 노력에 의해서였다.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일인이 포항에 이주하면서 포항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된 대지주로서 농업계의 일인자가 된 그가 1911년 5월 송도백사장 불모지 53여 정보의 국유지를 대여 받아 어린 소나무를 송도 모래사장에 옮겨 심어 꾸준히 가꾼 결과 오늘날과 같은 송림이 울창한 송도사빈(沙濱)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당시 그를 미치광이라고 조소도 하였으나 해마다 축식(蓄植)·번식된 울창한 송림은 1929년 어부보안림(魚附保安林)으로 지정되기까지 이르렀다. 이로부터 송림은 해풍이 심한 포항의 방풍림으로서 포항의 생명선이 되었다.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포항송도해수욕장은 이러한 송림조성에 큰 힘을 입고 1931년 포항이 면에서 읍으로 승격할 때 해수욕장으로 개장되었다. 그 결과 포항송도해수욕장은 이때부터 북한 제일의 명사십리 원산해수욕장과 더불어 남한 제일의 해수욕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 광복 후 포항송도해수욕장은 그 명성과 함께 날로 번창하여 서울·대구·부산 등 전국 각처에서 피서객이 몰려오게 되어 포항의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 포항 8경(浦項八景)

포항은 예로부터 영일만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벽지 어촌이었으나 고려 말에 통양포수군만호진(通洋浦水軍萬戶鎭)이 설치되어 120여 년간 존속하고, 1731년 포항창진(浦項倉鎭)이 설치되어 50여 년간 그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였다.

그 후 1914년 3월 1일 포항리가 포항면으로 승격되고 이곳에 영일군청을 두면서 크게 발전하는 계기를 맞아 동해안 교통요지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로서 수산물의 보고가 되었다.

포항은 서쪽에는 죽림산(竹林山)과 대흥산이 주맥을 이루고, 학산(鶴山)이 동으로 뻗어내려 그 날개를 펴고, 앞에는 큰 바다에 임하고 있어 기선과 어선이 끊이지 않게 되었으며, 형산강 일대는 원래 경주에서 흘러내려 이곳을 휘감아 있고, 남쪽은 큰 들판을 형성하여 경상북도의 큰 도회지가 될 지형을 이미 형성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형성된 포항의 8경은 다음과 같다.

- 형산모우(兄山暮雨) : 형산강 저녁 무렵에 비 내리는 모습
- 죽림청풍(竹林淸風) : 죽림산의 맑고 부드러운 바람
- 신포수조(新浦垂釣) : 신포(현 항구동 포구)에서 즐기는 낚시
- 서쪽춘수(西堤春水) : 서쪽 저수지에서 흐르는 봄날의 물
- 갈산반조(葛山返照) : 갈산(현 수도산)의 해질무렵에 반사되는 모습
- 용담화룡(龍潭火龍) : 용담(현 용흥2동지역)의 낙조 형상
- 원포귀범(遠浦歸帆) : 먼 바다에서 돌아오는 돛단배의 모습
- 평사낙안(平沙落雁) : 모래펄에 내려앉는 기러기의 모습

3) 조선 십경(朝鮮十景)

조선 10경은 육당 최남선(崔南善)이 조선에 관한 상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문답 형식으로 쓴 책《조선상식문답》(1946년)에 조선에서 가장 빼어난 10가지 풍광을 소재로 시를 지어 실은 것이다.

- 천지신광(天池神光) : 백두산 천지
- 암록기적(鴨綠汽笛) : 압록강 기적
- 대동춘흥(大同春興) : 대동강변 장성대야(長城大野) 춘흥
- 재령관가(載寧觀稼) : 구월산 동선령(九月山洞仙嶺)
- 금강추색(金剛秋色) : 금강산 추색
- 경포월화(鏡浦月華) : 경포대 월교(月皎)
- 장기일출(長鬢日出) : 포항 장기 일출상
- 변산낙조(邊山落照) : 부안 변산 낙조
- 연평어화(延平漁火) : 연평도 어화
- 제주망해(濟州望海) : 제주도 대해

참고문헌

<竹林寺上樑文>과《竹林寺實記文》.

金鎔濟, 《迎日邑誌》, 1929. 田中正之助·加納安正, 《浦項誌》, 1935.

《東亞日報》, (1920~1940), 《慶北統計年報》 (1919~1928), 《朝鮮總督府官報》.

《東海明鑑》, 영남일보 동해지사, 1955. 朴一天, 《日月郷誌》, 1967.

경상북도, 《慶北道史》中券, 포항시교육청, 《浦項教育》, 1985.

《各教會堂會錄》, 《조선예수교장로회史記》, 《경북노회100년사》, 《韓國嶺南教會史》.

全得梔《韓國宗教史》와 《朝鮮佛教通史》, 《道訓》普天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韓國文化史大系》Ⅳ, <風俗藝術史>下, 1970.

한국동학학회, 《東學研究》2, 1998.

경북도교육청, 《경북교육사료》, 1982. 《한국민족독립운동사》2, 국사편찬위원회, 1987.

문화공보부, 《浦項文學》7호, <영일군 14개 읍면과 포항시·영일군수산업협동조합의 조사자료>.

최정간, 《海月 崔時亨家의 사람들》, 웅진출판사, 1994.

조중의, 《浦項研究》17호, <동학의 뿌리 경북 동해안 기행>, 포항지역사회연구소, 1994.

김지하, 《사상기행》2, 실천문학사, 1999.

포항시, 《포항시사》, 1999. 포항제일교회, 《포항제일교회 100년사》, 2005.

《延日初等學校 100년사》, 2007. 포항시,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2009.

浦項市史(1권)

2010년 3월 30일 인쇄

2010년 4월 30일 발행

발행인 : 포항시장 박 승 호

편 찬 : 포항시사편찬위원회

인 쇄 : 포 항 삼 양 문 화 사

☎ (054) 274-8881

(비매품)

※ 자료 및 사진 수집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Green-Way 2010,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하여 **제1권**

영일만항 개항으로 해양과 대륙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환동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52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의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하나로 합쳐 'High5 Project' 등 주요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일류도시, 글로벌 포항'의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포항이 역사상 가장 융성한 시기가 됨.